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20230434045 - 00		
단위과제명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과제명	국문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영문	The National Survey of 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An Initial Scale Development of Drug Attitude and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한경식
주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전공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보건학
총연구기간	2023년 5월 30일 ~ 2023년 12월 10일(6개월)		
총 연구개발비	98,000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2023년 5월 30일 ~ 2023년 12월 10일	98,000	천원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용역연구개발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연구개발과제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주관연구책임자 : 손 애 리 (서명  인) 주관연구기관장 : 한 경 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뒷면)

(측면)

(앞면)

	과 제 명	최종보고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The National Survey of 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An Initial Scale Development of Drug Attitude and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의 (주 의 내 용 기 재) (훈글 14 point 고딕체)	2 0 2 3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의

1. 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손애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2. 10

주관연구기관명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손애리(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민혜(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준용(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정재훈(전북대학교 약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배정현(삼육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조원	엄선화(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서유경(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연구수행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국문 요약문	1
Summary	3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5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1절. 연구의 필요성	5
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13
3절.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3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4
1절. 연구내용	14
2절. 연구방법	15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7
1절. 마약류 사용 태도 조사도구 개발	17
2절. 마약류 폐해에 대한 성인 조사 결과	42
3절. 마약류 폐해에 대한 청소년 조사 결과	100
4절. 성인 청소년 조사결과 비교	156
5절. 스크리닝 도구 개발	161
6절. 신규 개발 스크리닝 도구 평가	181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93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195
제6장 총괄참고문헌	196
제7장 총괄첨부서류	201
부록	203
부록 1. 개발된 설문지	205
부록 2. 사전 조사 결과	263
부록 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290

표 목 차

표 1-1.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및 20~30대 비율	1
표 2-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표 3-1.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22
표 3-2. 마약류 사용 동기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23
표 3-3. 최종 마약류 사용 동기 문항 구성	24
표 3-4. 적합도 지표	25
표 3-5. 마약류 사용 관련 신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6
표 3-6. 마약류 사용 행동 관련 신념 요인들의 피어슨 상관계수	27
표 3-7. 약물 관련 지식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9
표 3-8. 최종 선정된 약물 관련 지식 문항 (정답은 붉은 색 표기)	30
표 3-9. 스트레스 자각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1
표 3-10.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각척도, 외로움의 피어슨 상관계수	32
표 3-11. 물질사용 성향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2
표 3-12. 물질사용 성향 척도 요인간 피어슨 상관계수	34
표 3-13. 한국인 마약류 사용 성향 조사 문항 최종 구성	34
표 3-14.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6
표 3-15.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요인 간 피어슨 상관계수	38
표 3-16.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모형 적합도 지표	38
표 3-17.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9
표 3-18.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인)	43
표 3-19.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통계량(성인)	45
표 3-20. 마약류에 대한 인식(성인)	46
표 3-21.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성인)	49
표 3-2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51
표 3-23. 표별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100점 척도)	55
표 3-24. 문항별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100점 척도)	56
표 3-25.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57
표 3-26.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61

표 3-27. 스트레스 자각척도 평균(성인)	63
표 3-28.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성인)	64
표 3-29. 한국인의 성향 평균(성인, 100점 척도)	66
표 3-30. 한국인의 성향(성인)	67
표 3-31. 여가시간 활동(성인)	71
표 3-32.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성인)	72
표 3-33. 여가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성인)	72
표 3-34. 여가생활 만족도(성인)	72
표 3-35.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75
표 3-36. 사회적 지지(성인)	78
표 3-37. 일반신포 평균과 표준편차(성인)	79
표 3-38. 관계만족(성인)	80
표 3-39.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성인)	81
표 3-40.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 및 주변사람 반응(성인)	83
표 3-41.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85
표 3-42. 흡연과 음주 행동(성인)	87
표 3-43. 중독물질 인지 여부(성인)	88
표 3-44.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90
표 3-45. 중독물질 사용 여부(성인)	90
표 3-46. 중독물질 별 본인 및 주변사람 사용 여부(성인)	91
표 3-47. 흡입제, 대마초 평생 사용 경험(성인)	92
표 3-48. 마약사용자의 문항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93
표 3-49. 마약사용자의 지표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95
표 3-5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의 문항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96
표 3-51.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의 지표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97
표 3-52.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성인)	99
표 3-53.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성인)	99
표 3-5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청소년)	100
표 3-55.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통계량(청소년)	104
표 3-56. 마약류에 대한 인식(청소년)	104

표 3-57.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08
표 3-58.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청소년)	109
표 3-59.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110
표 3-60.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113
표 3-61. 마약류 사용 문항 평균(청소년)	114
표 3-62.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00점 척도)	116
표 3-63.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00점 척도 변환)	116
표 3-64.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117
표 3-65. 약물 사용 관련 지식 평균(청소년)	120
표 3-66.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121
표 3-67. 평소 스트레스 수준 평균(청소년)	122
표 3-68. 스트레스 자각척도 평균(청소년)	122
표 3-69. 외로움 자각 평균(청소년)	122
표 3-70.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청소년)	123
표 3-71. 성향 통계량(청소년)	124
표 3-72. 성향(청소년)	125
표 3-73. 여가시간 활동(청소년)	129
표 3-74.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청소년)	129
표 3-75. 여가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청소년)	130
표 3-76. 여가생활 만족도(청소년)	130
표 3-77.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청소년)	131
표 3-78.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131
표 3-79. 사회적 지지(청소년)	134
표 3-80. 일반신뢰 평균과 표준편차(청소년)	135
표 3-81. 관계 만족(청소년)	136
표 3-82.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청소년)	137
표 3-83.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과 주변사람의 반응(청소년)	138
표 3-8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140
표 3-85. 흡연과 음주 행동(청소년)	142
표 3-86. 중독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143

표 3-87. 마약류 사용자 및 주변의 마약류 사용 빈도(청소년)	145
표 3-88.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청소년)	145
표 3-89. 중독물질 사용 여부(청소년)	146
표 3-98. 중독물질 별 본인 및 주변사람 사용 여부(청소년)	146
표 3-91. 흡입제, 대마초 평생 사용 경험(청소년)	147
표 3-92.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149
표 3-93.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150
표 3-94.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151
표 3-95.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152
표 3-96. 1년 이내 다음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청소년)	153
표 3-97.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청소년)	155
표 3-98. 국내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별도구	166
표 3-99. 국내외 마약류 위험 스크리닝 도구 관련 조사	168
표 3-108. 한국형 마약류 스크리닝 도구 개발 과정	173
표 3-101. 응답자 특성	182
표 3-102. DAST11-K (Drug Abuse Screening Test 11 - Korean)	183
표 3-103.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184
표 3-104.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185
표 3-105. DAST11-K의 분포표	186
표 3-106.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분포표	187
표 3-107. DAST11-K와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내적 일관성 지표(크론바하의 알파값)	188
표 3-108. 수렴타당도	188
표 3-109.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189
표 3-110.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190
표 3-111. DAST11-K의 결과 해석	190
표 3-112.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191
표 3-113.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의 결과 해석	192

그 립 목 차

그림 1-1.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추이	1
그림 1-2. 연도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6
그림 1-3.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현황	8
그림 1-4. 마약중독 예방, 치료를 위해 범죄를 줄여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9
그림 1-5. FAF에서 밝힌 미국 18~45세 사망원인 추이	9
그림 1-6. 마약중독자들 뇌 기능 회복가능성 자료	11
그림 2-1. 과제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추진전략 개요도	15
그림 2-2. 과제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개발	16
그림 3-1. 마약류 사용 동기 5개 요인 간 공변인 모형	25
그림 3-2. 마약류 사용에 관한 신념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8
그림 3-3.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53
그림 3-4.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59
그림 3-5.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62
그림 3-6. 한국인의 성향(성인)	70
그림 3-7.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77
그림 3-8. 사회적 지지(성인)	78
그림 3-9.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 반응(성인)	84
그림 3-10.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주변사람 반응(성인)	84
그림 3-11.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85
그림 3-12. 중독물질 인지 여부(성인)	89
그림 3-13. 중독물질 별 본인 사용 여부(성인)	92
그림 3-14. 중독물질 별 주변사람 사용 여부(성인)	92
그림 3-15.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98
그림 3-16.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한 질문(청소년)	112
그림 3-17.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119

그림 3-18.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121
그림 3-19. 성향 통계량(청소년)	128
그림 3-20.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133
그림 3-21. 사회적 지지(청소년)	135
그림 3-22.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 사람의 반응(청소년)	139
그림 3-23.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청소년)	139
그림 3-2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141
그림 3-25. 중독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144
그림 3-26. 중독물질 별 본인사용 여부(청소년)	147
그림 3-27. 중독물질 별 주변사람 여부(청소년)	147
그림 3-28. 1년 이내 다음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청소년)	154
그림 3-29.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ROC곡선)	189

편집순서 4 : 총괄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국문 요약문

과 제 명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주관연구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손애리
연구기간	2023.05.30. ~ 2023.12.10.	연구비(원)	98,000,000
저자	성명	소속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재훈	전북대학교	
	김민혜	창원대학교	
	양준용	서울대학교	
	엄선화	삼육대학교	
	서유경	삼육대학교	
□ 연구목표 -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개발			
□ 연구내용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분석 - 성인용, 청소년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분석 1. 성인 250명과 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성인용, 청소년용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2. 성인 3, 000명을 대상으로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3.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과제 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개발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선별도구 개발 1. 국내외 마약사용장애 선별도구 문헌고찰 2. 한국형 마약류노출위험도 선별도구 개발 3. 마약사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노출위험도 선별도구를 위한 검증			
□ 기대성과 -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감소 및 의료 범죄 등 사회, 경제적인 피해 비용 감소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도구를 개발해 마약류 사용 위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하여 마약류 중독자 예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심단어	마약류	조사도구	선별도구
		태도	지식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연구의 범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 분석 - 성인용, 청소년용 마약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분석 1. 성인 250명과 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성인용, 청소년용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2.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3.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과제 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개발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선별도구 개발 1. 국내외 마약사용장애 선별도구 문헌고찰 2. 한국형 마약류노출위험도 선별도구 개발 3. 마약류 사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노출위험도 선별도구를 위한 검증
연구의 한계점	간략하게 작성
인용시 주의사항	간략하게 작성
주관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5)

Summary

Title of Project	The National Survey of the Drug and Substance Abuse Attitude: An Initial Scale Development of Drug Attitude and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Institute			Project Leader	Aeree Sohn	
Project Period	2023.05.30. ~ 2023.12.10.		Project Budget	98,000,000	
Authors	Name		Institute		
	Aeree Sohn		Sahmyook University		
	Minhye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Joon-Yong 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Hoon Chu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Hyun Chung		Sahmyook University		
	Sunhwa Um		Sahmyook University		
	Yugyung Seo		Sahmyook University		
☐ Research objectives -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the perceived risk perception and knowledge of drug abuse - Development of a Korean self-screening test for the drug abuse for rehabilitation					
☐ Research Contents Task 1.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the perceived risk perception and knowledge of drug abuse 1-1. Development of risk perception, knowledge and behavior of drug questionnaires for adults and adolescents using 200 adults and 200 adolescents surveys. 1-2. Survey of 3,000 adults on drug risk perceptions 1-3. Survey 2,000 adolescents on drug risk perceptions Task 2. Development of a Korean self-screening test for the drug abuse for rehabilitation 2-1. Literature review of screening tools for drug use disorders 2-2. Development of DAST11-K (Drug Abuse Screening Test 11-Korean) and Korean Drug Addiction 2-3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KDASR) 2-3. Validation of of DAST11-K and KDASR with 108 drug users					
☐ Expected results - This instrument can be used in research initiatives related to drug addiction and can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interventions aimed at curbing drug addiction problems in South Korea. The novelty and broad applicability of this instrument make it invaluable for exploring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rug use in South Korea - Reduce the number of drug addicts through drug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reduce the cost of social and economic damages such as medical crimes. - Use as a survey tool for periodic surveys of drug harm awareness and exposure experiences for drug prevention. - Develop a self-diagnostic tool for drug exposure risk to prevent drug addiction through early screening and treatment of those at risk for drug use. - To be used as a basis for prevention policies through the National Survey of Perceptions of Drug Harm and Exposure Experiences.					
Key Words	drugs	questionnaire	screening	risk perception	knowledge

Opinion of Principal Investigator	
Scope	State briefly
Limitation	State briefly
Direction For Citation	State briefly
Supervisory Office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1절. 연구의 필요성

가. 마약에 흔들리는 위기의 대한민국

○ 전체 마약류 사범의 수 증가 추세

- 마약류 사범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61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395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법적으로 마약류의 비의료적 사용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사범 기관에 의해 정리된 마약류 사범에 관한 통계는 있으나 실제 마약류를 비의료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음. 연구에 의하면 상습 투여 인구, 실제 적발 건수의 약 28배 추정...국내 50만 넘는 인구가 상습 투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jtbc 뉴스, 2021.02.11.).

- 전체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18년, 12,613명→

'19년 16,044명→

'22년 18,395명



그림1.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추이 [출처: 마약류범죄백서]

그림 1-1.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추이
(출처: 대검찰청(2023). 2022 마약류범죄백서)

○ 20~30대의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

- 20~30대의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에 20~30대의 마약류 사범은 10,507명으로 전체의 57.1%로 60%에 육박하고 있음. 10년 전인 2012년의 경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인 35.1% 수치와 비교해 볼 때 매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됨.

표 1-1. 연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및 20~30대 비율

구분	'1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인원 (명)	9,255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20~30대 (비율)	3,251 (35.1%)	5,114 (40.6%)	7,647 (47.6%)	9,009 (49.9%)	9,173 (56.8%)	10,507 (57.1%)

○ 10대 마약류 사범자 수 증가

- 최근, 2022년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1년 10대 마약류 사범자 수인 41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

그림 1. 연도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 증가

'18년 143명→

'19년 239명→

'22년 481명으로 증가



그림 1-2. 연도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MZ세대의 경우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타민(소위 나비 약'이라 불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국내 펜타닐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991,000회, 2017년도는 약 백17만 건(1,167,000건), 2019년도는 147만건(1,466,000)건으로 5년간 약 48% 증가하였음.

○ 젊은 층의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자 수 증가

- 2022년도 적발된 전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20대의 경우 3,044명(28.6%)에서 3,945명(32.8%)으로 증가하였음.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을 들 수 있는데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남지역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 패치제 및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 집단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최근 대마 사범자 수 증가

- 2022년도 적발된 전체 대마 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5% 증가하였다. 20대의 경우 1,883명(49.9%)에서 1,628명(42.7%)으로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는 1,189(31.5%)에서 1,322(34.7%)로 증가하였음.

나.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

○ SNS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접근성 증가

- 특히, 1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는 MZ세대의 경우 인터넷, SNS, 다크웹(dark web), 텔레그램(Telegram), 위챗(WeChat) 및 비트코인(Bitcoin) 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손쉽게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과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통제와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음.
-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약 거래 시 은어(예: 똥술, 명

술, 총, 아이스, 크리스탈 등)를 사용하기 때문임.¹⁾

-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현황; '18년 1,492건→'22년 9,269건
- 2022년 마약류 판매 광고 단속실적 1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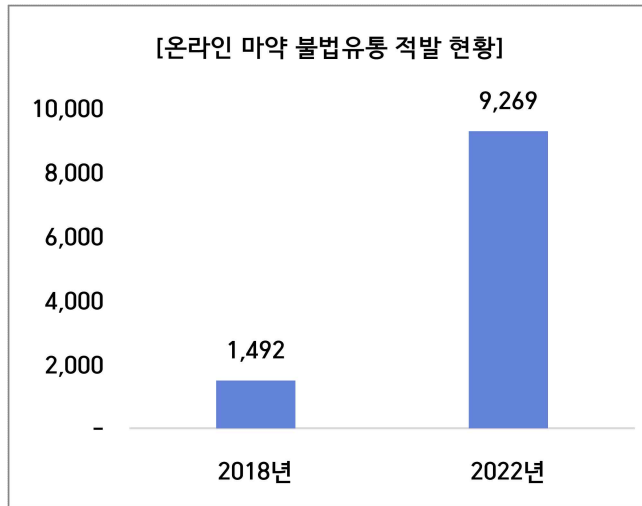


표 1-3.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현황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인식 부족

- 버닝썬 사건은 마약 투약과 성 문제는 연관성이 깊으며 특히 마약과 성범죄,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소위 물뽕(GHB,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이 있다고 언론에 연일 보도됨으로써 GHB를‘강간 약’으로 인식시켰으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잡아가고 있는 파티문화와 마약이 경각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음.

○ 마약류 위험인식에 대한 예방교육 및 근거자료 부족

- 국내에서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면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²⁾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기존에 조사된 마약류 폐해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간단한 문답 형식³⁾으로 구성되어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조사는 표본 수가 작아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음.

- 마약류 사범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인 10대는 미반영되어 있음.
- 조사 사례 수가 적어 대상(연령, 지역, 직업 등)별 마약류 경험, 인식 노출도 조사에 한계가 있음.

1) 허정원. 마약사범 역대 최다...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청년이었다, 중앙일보, 2023.07.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029#home>

2) 경기도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이범진 외, 경기도의회, 2020

3) 경기도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이범진 외, 경기도의회, 2020,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9개 문항), 마약류 및 남용약물사용경험(2개 문항)

다. 마약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개인적인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됨. 예를 들면 만성 마약사용자의 경우 중증도의 인지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약물 사용의 증가는 노숙자, 범죄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 외국의 경우 마약 주사 바늘을 공유하고 있어 HIV 감염률을 증가시키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치가 1,930억 달러(생산성 손실 1,200억\$, 의료비용 110억\$, 형사사법비용 610억\$)로 보고됨(그림 1-3).



그림 1-4. 마약중독 예방, 치료를 통해 범죄를 줄여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 미국의 경우 2020~2021년 18~45세 미국인 약 7만 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함(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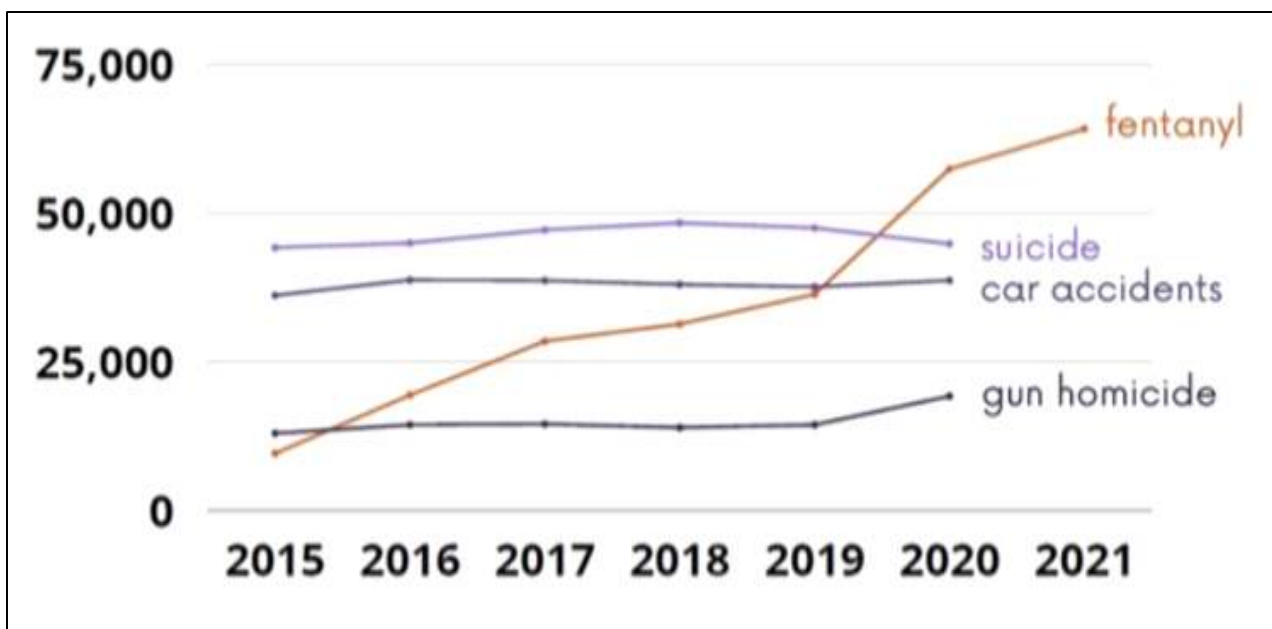


그림 1-5. FAF에서 밝힌 미국 18~45세 사망원인 추이
(출처: Weekly 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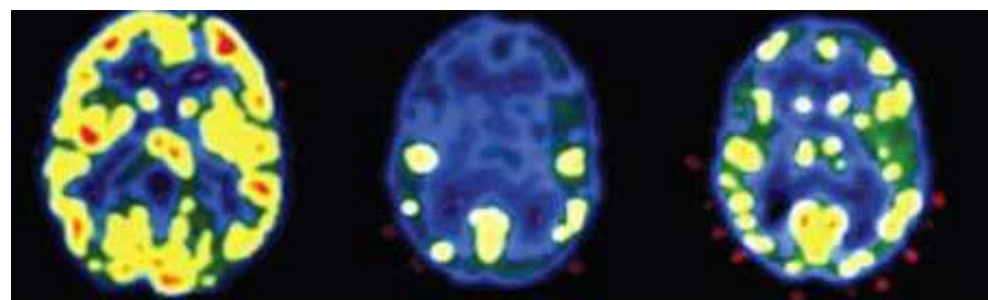
-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범죄 비용, 의료비,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연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예상함(보건복지부, 2004년). 마약류 예방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학교 마약류 등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1달러 투자 시 약물사용 관련 사회적 비용은 18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미국 DHHS Pub. 2006).
-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검거 사범의 약 30~50배 정도의 숨어있는 암수 마약류 남용자로 보고 인구의 100만 명 이상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대로 방치하면 의료비, 노동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노동 인구가 그 손실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국가 차원의 마약 관리 통제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음(2021년 경남 경찰청 보고).
- 마약류 사범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중독에 빠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중독자 본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의 고통을 초래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 비용은 Pain, Grief, Suffering의 약자를 딴 PGS 비용이라는 학술용어로 교통사고 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금전적 화폐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마약류 사범을 포함한 주변 고통 비용의 크기가 연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최대 7,780여억 원의 주변 고통 비용이 나타남을 추정할 수 있었음.
- 관세청의 대한민국 마약 소비국 선언함-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제 밀매 조직에서는 마약 경유국으로 인식되었으나 관세청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마약 운반책으로 보디 파커가 검거되었다는 사실도 마약 소비국임을 입증하는 한 예로 들 수 있음.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동남아시아,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대규모(kg 단위)로 유입되는 등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라고 발표하였음(관세청 보도자료 22.07.26). 결국 마약 소비 실수요자는 인터넷 또는 SNS와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노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음.

라. 마약류 중독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

- WHO 및 미국 NIH NIDA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재발률이 높고(우리나라 32% 이상), 평생 치료해야만 하는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마약류 중독은 사람 중심의 사전 예방 교육이 최선이라는 보고하고 있음(UN 보고서 2016). 마약류 중독이라는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고, 완전한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 본인의 의지, 신체적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체계 또한 매우 중요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화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등 사회경제적인 인프라가 매우 약하며, 정부도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예방교육 강화 및 치료 재화로 넘어가야 한다고는 이론적

으로 인지하면서도, 결국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 내지는 가족에 그 역할을 떠넘기는 형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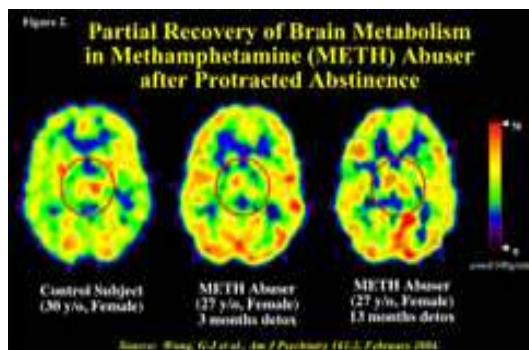
- UN 보고서 2016을 보면 WHO 및 미국 NIH NIDA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재발률이 높고(우리나라 32% 이상), 평생 치료해야만 하는 만성난치성 뇌질환으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코카인 중독 환자 단약 치료 10일, 100일 후 뇌 일부 기능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함(파괴된 뇌의 회복 가역성) (그림 1-5).
- 마약류 중독은 뇌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치료해야 하고, 실제로 완전하게 뇌가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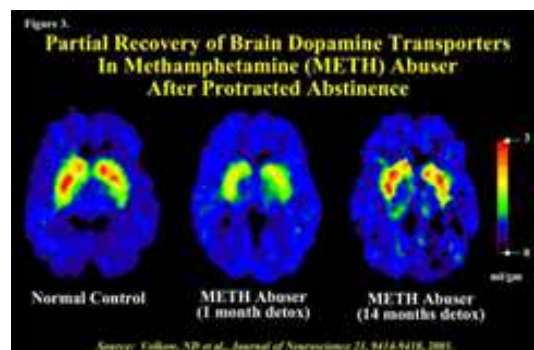
정상인의 뇌

코카인 단약 10일
후 사람의 뇌

코카인 단약 100일
후 사람의 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단약 3개월, 14개월 후
뇌 기능 회복정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
파괴된 뇌의 회복가역성

그림 1-6. 마약중독자들 뇌 기능 회복가역성 자료

- ‘중독’이란 일상생활에서 물질에 의존하는 상태로 인지됨. 의학적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ICD)는 중독에 대해 “투여 물질에 의해 일시적인 의식 수준, 인지, 지각 또는 행태와 정신 생리적 기능 및 반응의 장애가 초래된 상태”로 정의함. 이 상태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내성, 의존성과 금단증상, 강박적 집착 등이 나타남.

- 일단 마약중독에 빠지면 그것을 끊기란 매우 어려우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마약중독의 치료 가능성 여부에 대해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다”라고 설명함. 행동 신경학자인 주디스 그리 셀 미국 벅넬대 심리학과 교수는 실제 마약중독자였으며, 20년 넘게 대마는 물론 코카인 등 각종 마약에 빠져 지냈다는 그는 《중독에 빠진 뇌과학자》란 책을 통해 마약중독이 단기간 내에 절대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모든 전문가는 “마약중독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처음부터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마약’이라는 개념에 관한 범죄, 질환 인식의 부재: 마약류 사범 중 교도소 치료감호소 수감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자, 회복자 6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기심으로 48.5%,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는 34.1%, 스트레스 해소 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1.7%가 마약류를 처음 시작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보고서, 2017년). 마약류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됨.
- 청소년 시절에 알코올의 사용은 대마초 같은 물질에서 더 심각한 마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마약)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부 불법 약물의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므로 마약사용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에 대한 폐해인식(태도)과 마약사용에 대한 행동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용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연구가 거의 없음. 즉 약물사용(마약사용)에 대한 폐해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마약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수는 태도로 나타남. 마약사용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마약사용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청소년 시기나 젊은 세대의 경우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경험했을 경우 성인이 돼서 경험한 사람보다 마약류 중독자로 갈 가능성이 큼. 따라서 물질사용장애나 마약류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물질사용장애자)에 대한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적 약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에서 용인될 수 있고,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사회에서 수용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 도구와 “마약류 중독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예방 전

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상(연령, 지역, 직업 등)에 따른 마약류 예방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 등 실태조사 필요함. * 대상별 노출 정도에 따라 마약류 예방교육·홍보 등 차별화된 예방 전략추진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마약류 예방 전략추진을 위한 청소년과 성인용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마약류 경험을 예방하기 마약류 중독(물질사용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등 개발하여 모바일웹 자가진단 테스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개발

2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내용	본 연구계획서		달성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1.1 문헌고찰	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폐해인식실태 조사	100%
		1.1.2 국외 문헌고찰	100%
	1.2 청소년과 성인용 폐해 인식과 노출 경험 설문지 개발	1.2.1 청소년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100%
		1.2.2 청소년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00명)	200명 -> 250명 조사
		1.2.3 성인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100%
		1.2.4 성인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00명)	200명 -> 250명 조사
		1.2.5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 검증	100%
	1.3 실태조사 및 분석	1.3.1 청소년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1,500명	1,500명-> 2,000명 조사
		1.3.2 성인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3,000명	100%
과제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2.1 국내외 약물사용장애 평가 도구 등 문헌고찰	2.1.1 국내 약물사용장애 진단평가 도구 문헌고찰	100%
		2.1.2 국외 약물사용장애 진단평가 도구 문헌고찰	100%
	2.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개발	2.2.1 초점집단면접(전문가 집단)	100%
		2.2.2 마약사용 경험자와 미경험자 대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100% (100->108명조사)
		2.2.3 최종 진단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	100%
		2.2.4 전문가자문회의	100%

3절.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부재
- 검증된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부재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1절. 연구내용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 세부 내용 및 범위는 아래에 서술하였음.

표 2-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 내용		연구 범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1.1 문헌고찰	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기관 보고서 검토 - 마약류 범죄백서 - 마약류 사범 추이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실태조사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1.1.2 국외 문헌고찰 - 국외 마약류 인식 및 사용경험 관련 실태조사 - 국가 차원의 기관보고서 검토 - 미국 보건복지부 약물남용 정신 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SAMHSA) - 미국 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 WHO-유엔(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마약류 폐해인식 관련 논문 검토
	1.2 청소년과 성인용 폐해 인식과 노출 경험 설문지 개발	1.2.1 청소년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초안 개발
		1.2.2 청소년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50명)
		1.2.3 성인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초안 개발
		1.2.4 성인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50명)
		1.2.5 설문지 확정(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 검증)
	1.3 실태조사 및 분석	1.3.1 청소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2,000명
		1.3.2 청소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 - 3,000명
과제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2.1 국내외 약물사용장애 평가 도구 등 문헌고찰	2.1.1 국내 약물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 문헌고찰
		2.1.2 국회 약물사용장애 선별검사 도구 문헌고찰
	2.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개발	2.2.1 초점집단면접(전문가 집단)
		2.2.2 마약사용 경험여부에 따른 마약 노출 위험도 선별도구 설문조사(미경험자 100명, 경험자 50명)
		2.2.3 최종 진단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
		2.2.4 전문가자문회의

2절.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세부 과제1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청소년, 성인용 설문지 개발과 실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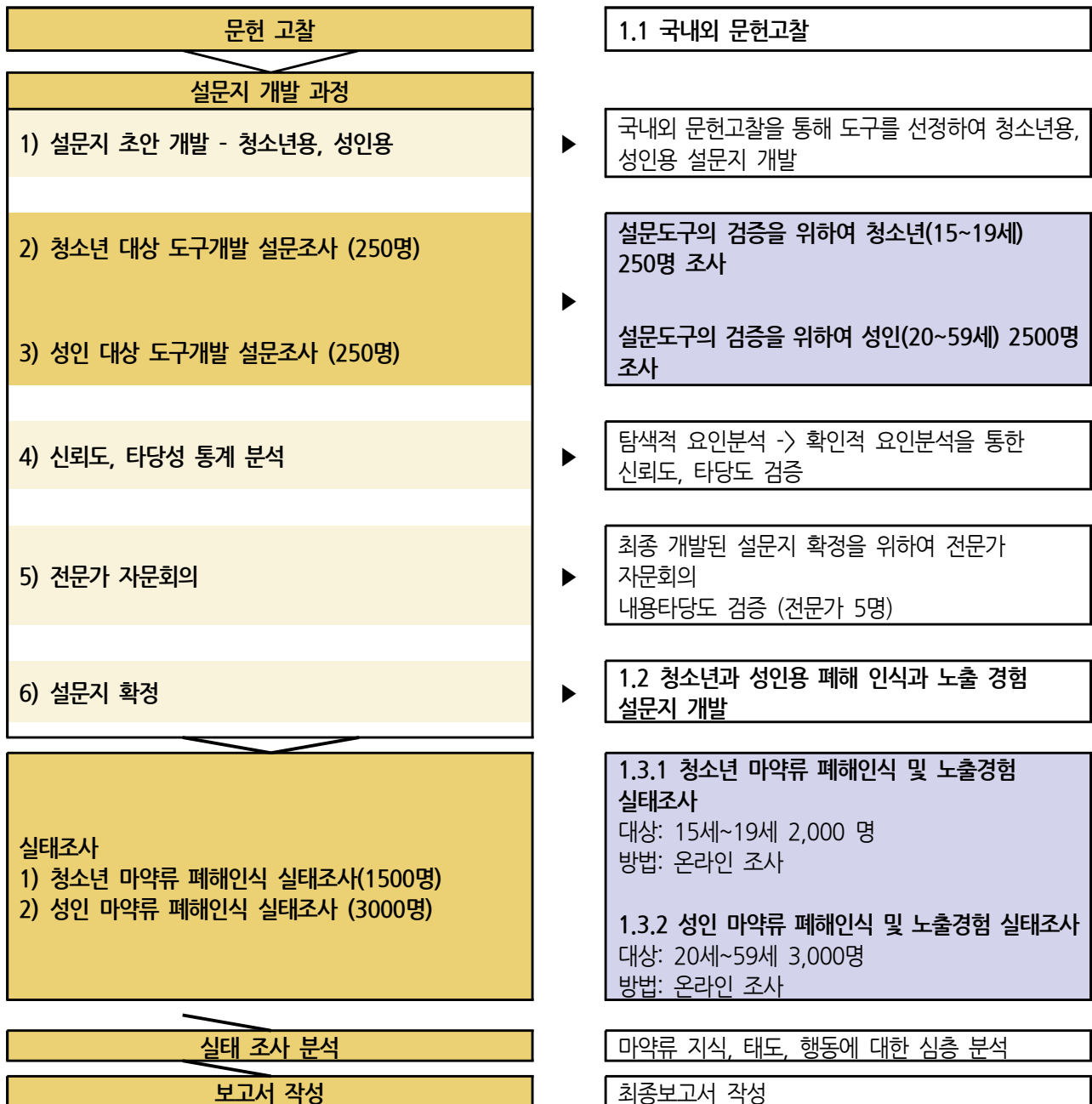


그림 2-1. 과제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추진전략 개요도

- 연구용역 세부과제2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선별도구

개발과 온라인 사이트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 문헌고찰->자가진단 선별도구 초안 개발-> 성인 마약류 사용여부에 따른 마약노출 위험도 도구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민감도, 특이도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평가도구 확정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선별도구 온라인 사이트 탑재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선별도구 사용 매뉴얼 작성의 순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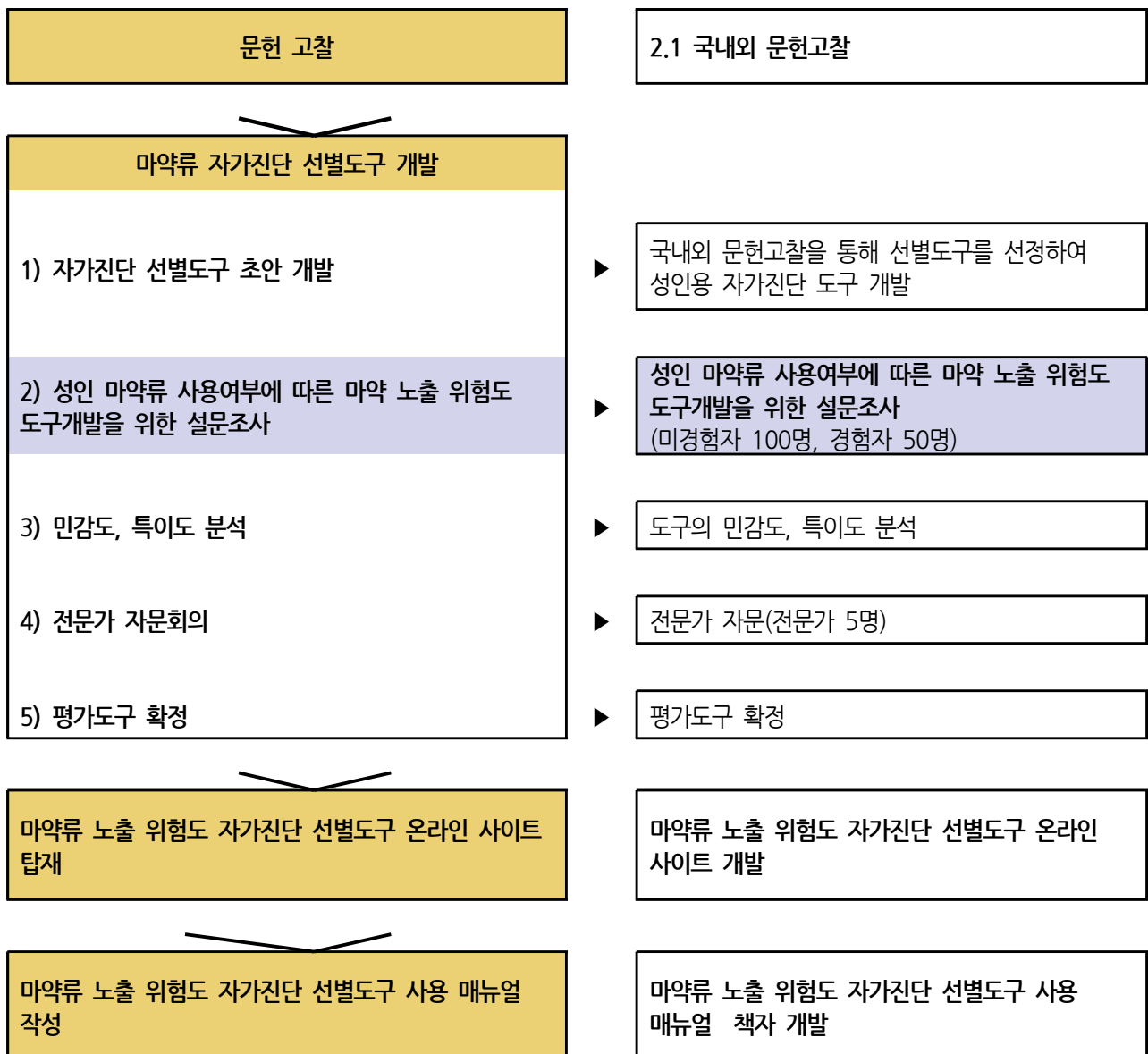


그림 2-2. 과제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 테스트 개발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절. 마약류 사용 태도 조사도구 개발

가. 문헌 고찰 및 이론 선정

- 한국은 서구 및 남미 국가들에 비하면 마약류 사용자 비중이 낮은 편이나, 사용자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큼.
 -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에서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약 4조 8,700억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추산하고 있음.
 -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어려우며 환자 본인을 포함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관련 사회적 비용 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를 고려하자면, 현 시점에서 한국의 마약류 사용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
- 마약류 남용에 대한 정책적 중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사람들의 마약류 사용 관련 행동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특히 본격적으로 마약류에 중독되기 이전 실험적 물질 사용(Experimental Substance Use, 이하 ESU) 단계의 행동 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일된 의견이 내려져 있지 않음. 이에 더해 마약류 남용자들의 행동 동기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근거 기반의 중재 정책을 마련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cosden et al., Rigg & Ibanez, Molina et al.).
 - Petraitis가 기존의 마약류 사용 이론을 정리한 바에 따르면 궁극적(ultimate), 근위적(distal), 말초적(proximal)의 세 차원에 걸쳐, 사회-대인간 관계(social/interpersonal), 문화 및 태도(cultural/attitudinal), 개인 내부 요인(intrapersonal)의 세 층위의 변수들이 개인의 마약류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세 차원과 세 층위를 교차하여 ESU를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아홉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열거하자면 가족 및 친구의 태도, 롤모델의 영향과 내집단 애착, 사회규범, 사회 제도, 일반화된 가치체계, 비용 및 이익, 생물학적/성격적 특성, 개인의 정서 및 태도, 통제소재 등
-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은 통계적인 일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이 알려져 있음. 이러한 복잡성을 일컬어 마약사용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 함 (Simons, Correia, Carey, & Borsari, 1998; Votaw & Witkiewitz, 2021). 이질성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정책을 펼치는 데 핵심적인 장애로 작용함.

- 특히 마약류의 사용 원인은 기존 중독자가 계속해서 마약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생화학적, 생리적인 요인을 제외하자면, 국가와 문화에 따른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남이 알려져 있음(Dennhardt & Murphy, 2013).
- 미국 및 서구 일부 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의 마약류 남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음. 국내에서도 마약류 사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용자의 심층적인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태도와 신념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득 등을 거시적으로 살피는 데 국한되어 그 실용성이 제한 됨.
- 본 연구는 일반인구 대상 마약류 사용 관련 태도 조사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함. 일반인구 대상 조사는 마약류 비경험자들이 다수 응답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격적인 마약류 사용 경험이나 행위를 묻기보다는, 이들이 마약류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평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SU와 연관된 항목들을 질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
- Petraitis의 9개 요인 ESU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되, 마약류 사용자의 태도 및 신념에 관한 주요 사회심리학적 모형들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함.
- 특히 동기 모형, 성격 특성 모형, 건강신념모형, 낙인이론의 네 가지를 주요한 근거로 삼았으며, 그 외에도 마약과 관련된 지식, 일반신뢰 및 사회적지지 등 사회자본, 주변인과의 사회적 관계, 실제 마약류 접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여러 모형들 중에서도 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인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동기 모형과 성격 특성 모형임. 건강신념모형은 예방행위 및 통제소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낙인이론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함.
- 동기 모형(Motivational model)은 마약류 사용자들이 마약류 사용의 결과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simons et al., 1998; Votaw & Witkiewitz, 2021)으로,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도와 이유가 선행한다는 전제를 가짐.
- Maslow의 5단계 욕구 이론이 동기 모형의 밑바탕이 됨(pomazal & Brown, Diclemente, Rigg & Ibanez). 5단계 욕구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서대로 전이된다는 가정을 지님.
- 동기 모형은 크게 자기중심적 동기(self-focused motives)와 사회중심적 동기(social-focused motives)로 분류됨(Cooper; Biolcati & Passini). 자기중심적 동이란 개인 차원의 자극에 대응하거나 이를 고조

시키고자 하는 동기이며, 사회중심적 동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동기임.

- 마약류의 동기 모형은 음주 동기 모형의 개선 및 확장에서 출발하였음. 음주 동기 측정 도구(the Drinking Motives Measure, 이하 DMM)가 그것으로, 해당 모형은 음주의 원인으로 고양, 대처, 사회, 순응의 4개 동기를 상정하였음(Cooper). 해당 도구를 대마 사용으로 확장시키면서 확장 동기(expansion motives)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임(Simons et al., 1998).
 - 이러한 5개 동기 유형은 대마 및 아편계 약물 등 여타 마약류 사용을 측정하였을 때도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음이 검증(simons, 2000; Comeau, 2001; Gold, 2020).
 - Jones et al. 등은 고양, 사회, 대처 외에 통증 완화를 추가하여 4개 요인을 구성하기도 했음.
 - DMM을 약물남용에 보다 적합하게 개선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로 물질 사용 동기 측정도구(Substance Use Motives Measure, 이하 SUMM)가 있음(Biolcati & Passini). SUMM은 증강(enhancement), 사회(social), 순응(conformity), 불안 대처(anxiety-coping), 우울 대처(depression-coping), 권태 대처(boredom-coping), 자기 확장(self-expansion), 기능성(performance)의 8개 요인으로 동기를 구성.
 - Cooper의 DMM에 근거하지 않고, 마약류 사용 동기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도 있으나, 문화권과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Adams et al., Hecimovic et al., bennett & Holloway, 2017; Drazdowski).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기들은 DMM이나 SUMM이 가정하는 4개 혹은 8개 동기 요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해당 동기들을 세분화하여 살핀 것에 가까움.
- 마약류의 성격 특성 모형은 흡연, 음주, 위험한 운전 등 건강위험행동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성격 특성 모형이 확장된 것. 대표적으로 Woicik et al.이 개발한 물질 사용 위험 프로파일 척도(substance use risk profile scale, 이하 SURPS)가 있음.
- 성격 특성 모형은 건강위험행동을 선호하는 개인적 성격이 있다는 가정으로 크게 네 가지 성격 특성을 위험 특성으로 지목함. 충동성(impulsivity), 스릴 추구(thrill seeking), 불안 민감(anxiety sensitivity), 미래에 대한 희망(hope)이 그것으로 충동성과 스릴 추구는 마약류 사용 위험을 늘리는 반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민감은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Adams et al.; Hecimovic et al.).
- 성격 특성은 마약류 사용 동기와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음(Adams et al.; Hecimovic et al.). 충동성과 스릴 추구가 높은 경우 특히 고양 동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그 외의 동기들과도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발견됨.

- 건강신념모형은 마약류 사용 행동보다는 예방행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하였음. 건강신념모형은 1950년대 결핵 예방행동 연구를 위해 미국 공중보건서비스(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이후 유방암이나 예방접종 등의 건강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였음(Rosenstock, 1978).
- 건강신념모형은 크게 예측된 위협, 행동에 대한 평가, 행동 단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아 건강행동의 의도가 생긴다고 설명함. 이때 예측된 위협은 질병 이환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과 이환의 결과로서 심각성(severity)에 대해 개인이 지닌 신념을 의미함.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인지된 이득(benefits)과 장애(barriers)로 예방행동의 결과로 주어질 이득과 건강행동을 하기까지 맞닥뜨리는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신념을 뜻함.
-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이론적 영향을 받아 추후 추가된 요인으로, 개인이 스스로 건강행동을 할 수 있을만큼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가능해보는 일종의 자신감을 의미

나. 도구 개발을 위한 통계 분석 및 최종 문항 선정

- 성인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태도 조사 도구의 개발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에 주거하는 19-59세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하였음. 사전조사는 최대 규모의 조사 패널을 보유한 M 조사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 사전조사 문항 선정은 수 차례에 걸친 연구진 내부 회의, 전문가 자문 및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문항의 번역 및 재번역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음.
- 사전조사 문항은 크게 인구사회변수,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사회적지지, 약물 경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의 8개 분야로 구분하였음.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음.
 - 탐색적 요인분석의 실시 :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과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요인을 분석. 적재량을 확인하여 각 문항이 설계된 요인에 속하는지, 각각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 확인적 요인분석의 실시 : 각 요인별로 포함된 문항에 대해 카이제곱/자유도 검정(CMIN/DF)을 포함한 각종 적합도 지수(CFI, GFI, IFI, RMSEA)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평가

- 내적 일치 신뢰도 평가 : Cronbach의 알파 계산 및 평균분산추출(AVE), 집단간 신뢰(ICR) 값을 활용하여 확인
- 준거 관련 타당도 평가 : 구성된 요인들에 대하여 약물 사용 경험 및 음주량 등의 변수와의 피어슨 상관관계 확인
- 통계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연구진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용 최종 문항을 먼저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청소년용 설문을 개발하였음.
- 사전조사의 시작과 끝에 질문한 SQ1~SQ15 문항은 사회인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배경문항으로 거주지,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 직업, 근로형태, 고용상태, 불안정노동,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가구원 수, 주거 형태, 종교, 가구소득, 정치 성향, 해외 거주 경험을 질문하였음.

다. 도구 개발 연구 결과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 A1~A5는 한국사회에서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단축 문항으로, 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서 2013년 2월 15일 실시한 여론 속의 여론 설문조사⁴⁾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였음.
- A6~A14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처음 실시한 후, 식약처에서 기존에 활용하였던 마약류 관련 인식조사 평가지표 문항임(표 3-1).
-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특정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본 적절성 측정치(KMO=.777), 표본화 적합성 측도(MSA>.660), Bartlett의 검정 결과($=568.635$, $p<.001$)는 모두 양호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세 개. 스크리 도표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요인은 2개 요인
- 공감도와 실천도 요인이 전반적으로 단일 요인으로 분석됨. 반면 유사문항으로 보이는 A8은 A7 및 A9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됨. 이는 응답자가 개인의 지식수준이나 혹은 인지된 사회적 환경이나를 묻는 것으로 문항의 성격을 구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성과지표가 단일 요인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겠으나, 식약처에서 기존에 활용했던 방식대로 본 문항을

4) 김지혜, 정종현. 마약 문제 확산? 금기는 여전하다 - 마약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2023년 2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검색)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표의 선정에는 통계적 타당도 및 신뢰도와 더불어, 과거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까닭에 계속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함.

표 3-1.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5점 척도	이론적	Cronbach- α	소속 요인
7)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도	0.542	2
8)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9)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10)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도	0.430	1
11)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X
12)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
13) 만약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실천도	0.763	1
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1
15)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1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 B1은 동기 모형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마약류 사용 동기 문항임(표 3-2).

- 1차 조사에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37개 문항을 질문하였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 베리맥스 회전.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9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5383.813, $p<.001$)는 양호. MSA 값이 0.6 미만으로 요인분석에 부적합한 문항은 없었음.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5 개. 스크리 도표 기준 3개 요인. 분석에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정리할 시 대략 다음과 같음. 1: 고양 동기, 2: 대처 동기, 3: 사회 동기, 4: 긍정적 기대, 5: 부정적 기대

표 3-2. 마약류 사용 동기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문항	소속 요인 (1차 분석)	조정된 적재량	소속 요인 (2차 분석)	Cronbach - α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5	.723	1	0.861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5	.787	1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	.523	1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850	2	0.863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879	2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665	2	
7) 마약류 사용은 개인의 문제(스트레스, 우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1	.784	제거	0.842
8) 마약류 사용은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771	제거	
9) 마약류 사용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900	제거	
10) 마약류 사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895	제거	
11) 마약류 사용은 나쁜 과거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	.822	제거	
12) 마약류 사용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1	.686	제거	
13)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6	.477	3	
14)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6	.547	3	0.795
15)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6	.495	3	
16)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522	제거	
17)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717	4	

문항	소속 요인 (1차 분석)	조정된 적재량	소속 요인 (2차 분석)	Cronbach -α
18)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672	4	0.773
19)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704	4	
20) 기억력 증진(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578	제거	
21)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4	.540	5	0.773
22)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4	.737	5	
23)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4	.833	5	
24) 내성이 증가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474	제거	0.773
25) 마약류 사용은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719	제거	
26) 마약류 사용은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	.689	제거	
27)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393	제거	
28) 마약류 사용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2	.424	제거	
29) 마약류 사용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	.556	제거	
30)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585	제거	
31) 어떤 이유로든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2	.662	제거	

- 각 요인간 문항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요인별 양적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는 까닭에, 문항 수가 과도하게 분포된 고양동기 및 대처동기 영역에서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거나, 다른 문항들에서도 중복해서 측정되고 있는 경우, 대표성이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함. 그 외에도 조정된 적재량이 .500 이하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 우선 제거 대상으로 판단함.
- 최종적으로 5개 동기 요인 각각 3개 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도구를 구성하였음(표 3-3).

표 3-3. 최종 마약류 사용 동기 문항 구성

요인	마약류 사용 동기
고양동기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대처동기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사회동기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요인	마약류 사용 동기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 구성한 5개 동기 요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이 때 5개 요인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전제한 모형에서 가장 양호한 모형 적합도 값을 얻음(표 3-4), (그림 3-1). 이에 5개 요인 모형으로 최종적으로 도구를 확정함.

표 3-4. 적합도 지표

fitness	1번 모형(5요인 모형)	2번 모형(단일요인 모형)	5요인간 공변인 모형
CMIN/DF	6.232	9.431	2.124(p<.001)
CFI	.782	.649	.958
IFI	.784	.651	.959
TLI	.746	.590	.945
RMSEA	.145	.184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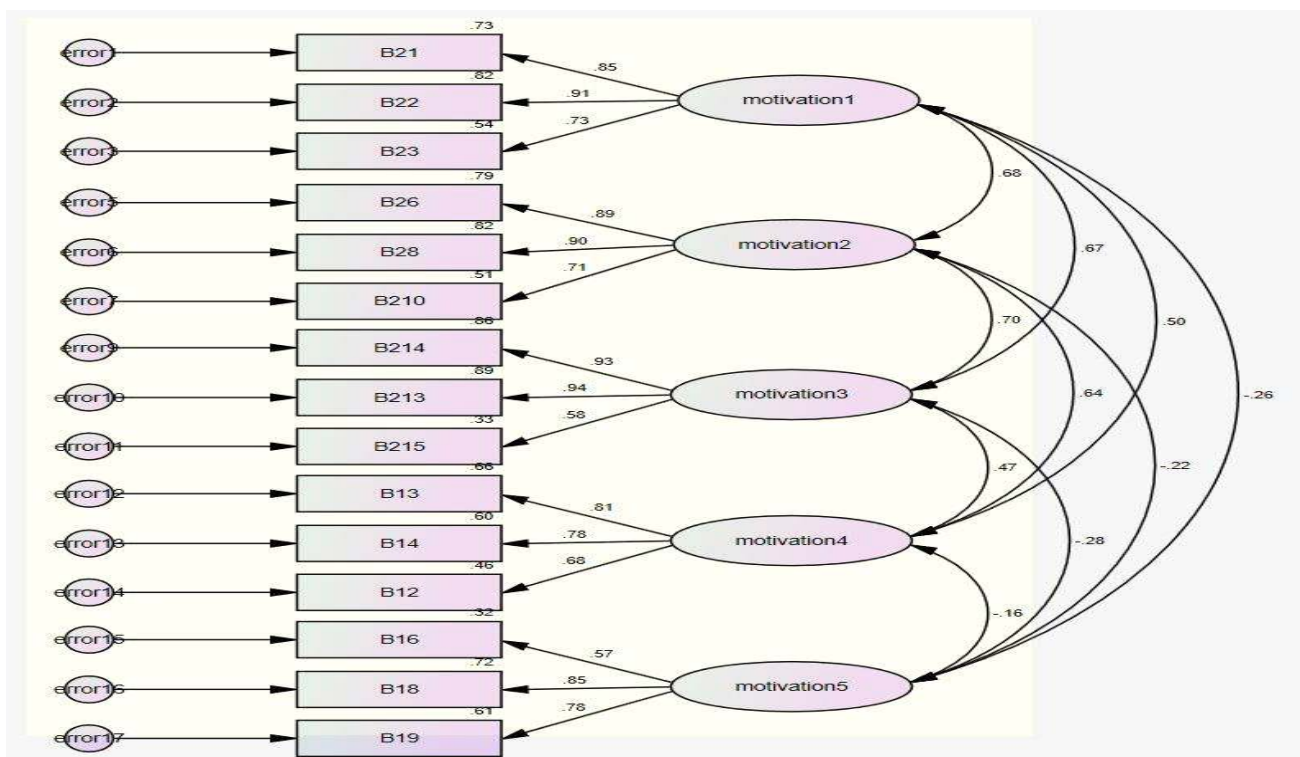


그림 3-1. 마약류 사용 동기 5개 요인 간 공변인 모형

- B2는 건강신념모형에 의거하여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마약류 사용 행동 관련 신념 문항임(표 3-5).
-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관련 통계량인 KMO값(.806), MSA값(>.6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2154.121, $p<.001$)는 모두 양호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세 개. 스크리 도표 기준 3개 요인
 - 장애 요인 중 낙인 우려 문항이 연구진이 가정한 요인에 포함되지 않았음. 다른 문항들은 예방에 대해 묻는 한편, 낙인 우려의 경우 치료나 대처에 가까운 까닭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 다만 세 문항을 모두 활용한 경우에도 Cronbach- α 가 0.645 정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대로 이용하고자 함.
 - 자기효능감의 경우 건강신념모형 이론에서도 다른 네 신념 요인과는 차별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까닭에 가상의 공통 요인-마약사용 행동을 설명하는 데서 다른 문항들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론적으로 더욱 정확한 결과일 수 있음.

표 3-5. 마약류 사용 관련 신념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2.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 척도)	이론적	Cronbach- α	소속 요인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민감성	0.862	1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1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각성	0.895	2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2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2
7) 내게 마약류 사용 관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낙인이 찍힐까봐 상담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항 어구 수정 후 :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장애	0.645 (세 문항 모두)	X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0.895 (두 문항만)	3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

B2.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 척도)	이론적	Cronbach- α	소속 요인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득	0.867	4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4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4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0.714	X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X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X

- 요인분석 결과 및 이론적 배경에 따라 모든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여 구성된 민감성, 심각성, 장애, 이익, 자기효능감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음.

표 3-6. 마약류 사용 행동 관련 신념 요인들의 피어슨 상관계수

	민감	심각	장애	이익	효능
지각된 민감성	1				
지각된 심각성	0.043	1			
지각된 장애성	0.242***	0.475***	1		
지각된 이익	-0.013	0.493***	0.404***	1	
자기효능감	-0.377***	0.369***	0.134*	0.402***	1

*p<.05, ***p<.001

-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낙인과 관련된 문항의 적재량이 역시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체 모형의 적합도지수가 양호하여(CMIN/DF=2.806, CFI=.927, IFI=.928, TLI=.910, RMSEA=.085), 최종적으로 문항을 확정하였음(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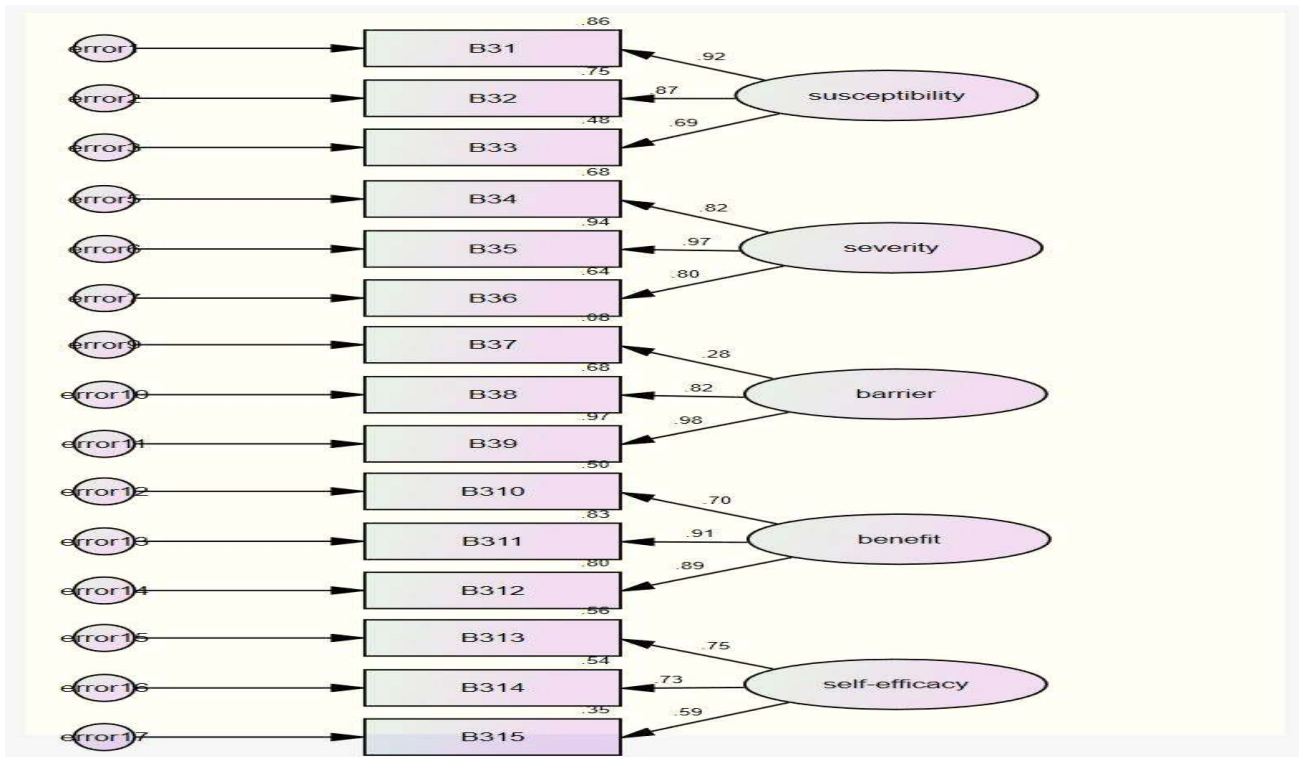


그림 3-2. 마약류 사용에 관한 신념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B3는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약물 관련 지식 문항임(표 3-7)

- 지식 문항의 경우 각 문항이 특정 요인에 속할 것을 가정하여 개발되지 않았으나, 문항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정답 여부를 이항변수로 변환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항변수인 까닭에 가중되지 않은 최소제곱법(ULS)에 의한 상관행렬 분석을 실시.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함.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되, 0.5가 넘는 요인이 없을 경우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0.3을 기준으로 이용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검정치(KMO=.808, MSA>.6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065.647, $p<.001$)는 모두 양호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여섯 개. 스크리 도표 기준 5개 요인
- 각 요인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펜타닐, 엑스터시, 케타민, GHB 등 신종 합성마약(정답률 50% 전후), 2: 의사처방 약물, 대마, 낮은 중독성 등 중독 문제가 적다고 여겨지는 문항, 3: 주사기로 인한 에이즈 및 간염 감염, 4: 정답률 80% 후반의 상식적 응답 문항, 5: 마약의 폐해에 대한 일반 지식 문항, 6: 잘 안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함정이 있는 경우(페타민, 코카인)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되, 교육적 목적 및 일반인구 대상 설문조사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으며 교육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기준으로,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을 선정하였음(표 3-8).

표 3-7. 약물 관련 지식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률	소속 요인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92.4%	5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93.6%	5
3)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65.6%	3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70.0%	3
5)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73.2%	X
6) 필로폰(히로뽕)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다.	20.4%	X
7)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52.4%	1
8) 의사가 처방해준 향정신성의약품(살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 등)은 안전하므로 성인은 최대 1년까지 복용해도 된다.	54.0%	2
9)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56.8%	X
10) 성인이 페타민(살빼는 약, 다이어틴, 나비약/펜디메트라진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43.2%	6
11) 정상인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페니드정, 콘서트라 등)을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올라간다.	38.8%	2
12)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정신적 의존도나 신체에 미치는 해가 낮은 마약류(soft drug)에 해당한다.	44.4%	X
13) 엑스터시(MDMA)는 합성마약이다.	44.4%	1
14) 케타민은 소량에도 환각, 기억상실,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41.2%	1
15)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56.0%	1
16)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66.8%	2
17)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85.6%	4
18)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71.6%	2
19)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	88.4%	4
20)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	23.2%	X
21) 코카인은 합성마약으로 신체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5.6%	6

표 3-8. 최종 선정된 약물 관련 지식 문항 (정답은 붉은 색 표기)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9)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3.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 C1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각된 스트레스 문항(“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으로 한 문항으로 간략하게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 C2는 이종하 외(2012)에 근거한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로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개괄할 수 있기에 포함하였음(표 3-9).
- 사전조사된 문항에 대해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861), MSA 값(.77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1031.697, $p < .001$)는 모두 양호함.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두 개. 스크리 도표 기준 2개 요인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도구 개발 연구에서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7번 문항(“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만 조정된 적재량이 0.391로 다소 낮았음.
- 본 도구는 이미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별도의 수정없이 전체를 문항으로 채택하였음.

표 3-9. 스트레스 자각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 귀하는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점 척도)	기존 연구 요인	소속 요인	Cronbach- α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련 요인	1	0.860 10개 문항 전체 (0.865)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1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1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1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조절 요인	2	0.762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2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2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2	

- C3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관적 외로움 문항으로 단일 문항(“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으로 구성됨.
- 스트레스 자각척도(C2)와 C1(지각된 스트레스, 역코딩) 및 C3(외로움)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기록하여 연구진이 예측한 관계가 있었음.

표 3-10.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자각척도, 외로움의 피어슨 상관계수

	C1	C2	C3
C1	1		
C2	0.646***	1	
C3	0.425***	0.497***	1

***p<.001

- C4는 Woicik 외(2009)의 SURPS 도구에 근거한 물질사용 성향 척도로 개인적 성향 및 성격을 확인하고자 측정함(표 3-11).
-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 및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848, MSA>.6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2764.965, p<.001)는 모두 양호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세 개. 스크리 도표 기준 뚜렷한 3개 요인
- 기존 문항과 다소 겹치는 문항 및 적재량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여러 요인에 동시에 속하는 문항들을 배제하고 2차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된 값을 얻음. 요인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4개로 구성됨. 1: 미래에 대한 희망(Q9, 17, 28, 29), 2: 충동성(Q7, 19, 23), 3: 스틸 추구(Q11, 12, 20, 24), 4: 불안 민감(Q10, 14, 22)

표 3-11. 물질사용 성향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묘사하는 의견들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점 척도)	선행 연구	소속 요인 (1차 분석)	소속 요인 (2차 분석)	Cronbach's α (최종선택 문항)
1) 나는 일상생활에 만족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	1	제거	0.812
5) 나는 행복하다.		1	제거	
9)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1	1	
17)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1	1	

4.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묘사하는 의견들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점 척도)	선행 연구	소속 요인 (1차 분석)	소속 요인 (2차 분석)	Cronbach's α (최종선택 문항)
21)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1	제거	
25) 나는 즐겁다.		1	제거	
8)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1	1	
2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1	1	
13)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희망 (최종 도구 삭제)	5	제거	0.631
3) 나는 종종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충동성	X	제거	
7) 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휘말린다.		2	2	
15) 나는 보통 행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한다.		5	제거	
19) 일반적으로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다.		2, 3	2	
2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적절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충동 (최종 도구 삭제)	5	제거	
23) 나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굳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2	2	
11)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일은 대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다.		3	3	0.698
4) 나는 스카이다이빙(번지점프, 줌라인 등)을 하고 싶다.	스릴 추구 (sensation seeking)	6	제거	
8) 나는 전통적이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즐긴다.		X	제거	
12)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	3	
16) 나는 오토바이 운전법을 배우고 싶다.		6	제거	
20)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3	3	
24)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3	3	0.619
10)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것이 무섭다.	불안 민감 (anxiety sensitivity)	4	4	
14) 나는 심장 박동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겁이 난다.		4	4	
18) 나는 너무 긴장하면 겁이 난다.		2, 4	3, 4(탈락)	
22) 나는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신체 감각을 경험할 때 겁이 난다.		4	4	
26)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2	제거	
2)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와도 제 때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 (최종 도구 삭제)	2	제거	
6)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겁이 나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느낀다.		2	제거	

-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된 희망, 충동성, 스릴추구, 불안민감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음(표 3-12).

표 3-12. 물질사용 성향 척도 요인간 피어슨 상관계수

	희망	충동성	스릴추구	불안민감
희망	1			
충동성	-.269***	1		
스릴추구	-.102	.335***	1	
불안민감	-.043	.328***	.111	1

***p<.001

- Cronbach- α 값과 피어슨 상관계수 등을 고려할 때 본 도구가 한국보다는 외국의 문화적 배경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음.
- 충동과 스릴추구 문항에 대한 응답치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불안 민감 요인의 경우 지각된 스트레스와 유사 문항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연구진에서는 기존 SURPS의 미래에 대한 희망, 스릴추구, 충동성 요인은 유지하되, 국내 연구들을 조사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음. 또한 기존 도구에 부재하는 반사회성, 영성, 자기 과신의 세 요인에 대한 문항을 별도로 직접 제작하여 추가하였음. 추가할 요인의 선정 과정에서 Petraitis의 9개 요인 ESU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였음. 이렇게 구성된 최종 문항은 다음과 같음(표 3-13).

표 3-13. 한국인 마약류 사용 성향 조사 문항 최종 구성

성 향	요 인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릴 추구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충동성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반사회성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영성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자기 과신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 C5~C8은 개인의 여가 활용에 관한 문항으로 각각 여가 유형("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여가 활동 동반자("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평균 여가시간("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여가 생활 만족도("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를 조사함.

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D1은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사회적 규범 인식 측정 문항임(표 3-14).

- 공분산행렬 분석에 의한 주축 요인 추출 방법 및 베리맥스 회전 기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회전된 요인행렬에서 조정된 적재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85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3197.999, $p<.001$)는 양호. MSA 값이 0.6 미만으로 요인분석에 부적합한 문항이 존재하여 (“나는 음주가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물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문항들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
- Kaiser 기준 고유값이 1이 넘는 요인은 두 개. 스크리 도표 기준 뚜렷한 2개 요인
- 적재량이 낮은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여러 차례 분석을 반복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요인 13개 문항이 추출되었음.
- 새롭게 구성된 3개 요인은 다음과 같음. 1: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2: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표 3-14.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요인	조정된 적재량 (최대)	최종 요인 (2차 분석)	Cronba ch-α
4) 나는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1	.759	1	0.762
10) 나는 약물사용자들이 자신의 약물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626	1	
11) 나는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	.616	1	
28) 나는 약물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1	.627	1	
34) 나는 약물중독은 더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	.503	5	제외
3) 나는 처방약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	.467		제외
5) 나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1	.609		제외
12) 나는 마약류 예방 정책이 교육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412		제외
13) 부모는 자녀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479		제외
16) 약물중독 치료는 약물사용을 줄이고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	.439		제외

1.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요인	조정된 적재량 (최대)	최종 요인 (2차 분석)	Cronba ch-α
19) 약물중독은 예방과 치료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	.578	제외	
22) 나는 약물 사용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440	제외	
24) 나는 약물중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한다	1	.556	제외	
32) 나는 약물중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1	.376	제외	
8) 나는 마약류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687	2	0.781
9) 약물중독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2	.681	2	
15) 나는 마약류 사용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607	2	
27) 나는 약물사용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	.541	2	
6)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331	3	0.662
21) 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3	.658	3	
30)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3	.532	3	
31) 나는 약물중독이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	.511	3	
35) 나는 약물중독은 약물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646	3	
25) 나는 마약류 정책이 개별화된 치료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496	제외	
2) 나는 대마초 사용이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518	제외	
2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800	제외하나 문항은 존치	
23) 나는 약물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4	.404	제외하나 문항은 존치	
14) 학교와 직장에서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779	제외	
17) 약물사용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665	제외	
29) 나는 약물중독은 올바른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412	제외	
26) 나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이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7	.757	제외	
18) 나는 폐해 감소 전략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예: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일회용 주사 제공)고 생각한다	8	.447	제외	
33) 나는 약물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8	.365	제외하나 문항은 존치	
1) 나는 음주가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외			
7) 약물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제외			

-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된 중독에 대한 낙인, 중독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음(표 3-15).

표 3-15.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요인 간 피어슨 상관계수

	중독 낙인	개인적 낙인	사회적 낙인
중독 낙인	1		
개인적 낙인	0.499***	1	
사회적 낙인	0.014	-0.134*	1

*p<.05, ***p<.001

○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

- 여러 차례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에 대해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모형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 지수가 확인되었음(표 3-16).
- 기존의 상관분석에서 최종 구성 요인 간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까닭에 요인 간 공변인은 가정하지 않음.

표 3-16.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모형 적합도 지표

fitness	1번 모형 (3요인 모형, 총 13개 문항)	2번 모형 (단일요인 모형, 총 13개 문항)	3번 모형 (3요인 모형, 요인별 3개 문항)
CMIN/DF	3.228	7.339	1.383(p=.067)
CFI	0.842	.551	.980
IFI	.847	.565	.981
TLI	.772	.352	.967
RMSEA	.095	.160	.039

-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을 선정하였음 (표 3-17).
- 기존 요인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본 설문 목적 상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 문항을 본 문항의 뒤에 추가하였음(“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표 3-17.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규범 인식 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다음은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4) 나는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9) 약물중독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1) 나는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28) 나는 약물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낙인	A6 1) 마약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A6 2) 약 사용마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A6 3) 마약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15) 나는 마약류 사용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21) 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약물중독이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5) 나는 약물중독은 약물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사회적 지지

- E1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차용한 사회적 지지 문항으로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됨(“갑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 E2와 E3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차용하고 세계적으로도 세계가치관조사(WVS) 등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일반신뢰(*general trust*) 문항임. 사전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신뢰 평균은 5.28, 표준편차는 1.78로 나타남.
- E4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차용한 주변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로 부모님, 배우자 및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질문함.
- E5는 최근 12개월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물음.
- E6와 E7은 각각 주변의 가까운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이 물질 사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가늠하는 문항으로, 준거집단의 반응이 마약류 사용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문항을 선택하였음.
 - ESPAD 조사에서 차용하였으며 주변의 사회적 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적 규범(*injunctive norm*)을 의미함.
- E8은 ESPAD에서 차용한 물질 사용의 기술적 규범 문항으로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각종 물질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함. 물질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마약류 사용 장벽을 낮게 체감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사전조사 결과 주변에 한 명 이상 사용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폈을 때 대마(7명, 3.1%), 향정신성 약물(20명, 9.3%), 마약(5명, 2.2%) 모두 적은 숫자가 나타났다.

6. 약물경험

- F1~F2는 흡연경험과 관련된 문항으로 각종 마약류 사용 태도 및 실제 사용 경험과의 연관을 살피기 위해 추가하였음.
- F3~F4는 음주경험과 관련된 문항으로 중 마약류 사용 태도 및 실제 사용 경험과의 연관을 살피기 위해 추가하였음.
- F5는 마약류 물질의 인지 여부 문항으로 총 16종의 물질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음. 물질의 선정은 식약처, 마퇴본부 홈페이지의 주요 마약류 정보 및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였음.
- F6~F9는 물질 이용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자 수가 적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부적합함. 도구의 선정 및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련 인식조사를 참고하였음.
- F10은 주관적으로 판단한 1년 이내 물질 이용 가능성으로, 해외의 관련 조사들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개발하였음.
 - 사전조사 결과 긍정응답자의 수는 적으나 본 조사의 성격상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음.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설문조사는 교육 및 홍보의 역할 역시 겸하기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문항을 추가하였음.
 - 도구의 선정 및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련 인식조사를 참고하였음.

2절. 마약류 폐해에 대한 성인 조사 결과

가. 성인 연구대상자 특성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 1,500명,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각각 750명(25.0%)을 조사하였음.
- 교육수준은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자가 2명(0.1%), 중학교 졸업자가 7명(0.2%), 고등학교 졸업 544명(18.1%), 전문대 졸업자가 449명(15.0%),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656명(55.2%), 대학원 이상이 342명(11.4%)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과반을 차지함.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1,517명(50.6%), 동거 및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81명(46.0%), 사별이 5명(0.2%), 이혼 혹은 별거가 97명(3.2%)이었음.
- 근로형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2,049명(86.9%)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03명(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90명(8.1%), 무급가족종사자가 15명(0.6%)이었음.
- 고용상태는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1,848명(90.2%),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가 162명(7.9%),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39명(1.9%)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근로자 중 1,658명(80.9%)이 정규직이었고, 391명(19.1%)이 비정규직
-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1,187명(39.6%), 없는 경우가 1,813명(60.4%)이었음.

표 3-18.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성별	남성	1500	100.0	1500	100.0		
	여성	1500	100.0			1500	100.0
연령대	19-29	750	25.0	375	25.0	375	25.0
	30-39	750	25.0	375	25.0	375	25.0
	40-49	750	25.0	375	25.0	375	25.0
	50-59	750	25.0	375	25.0	375	25.0
교육수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	2	0.1			2	0.1
	중학교 졸업	7	0.2	6	0.4	1	0.1
	고등학교 졸업	544	18.1	278	18.5	266	17.7
	전문대 졸업	449	15.0	192	12.8	257	17.1
	(4년제)대학교 졸업	1656	55.2	832	55.5	824	54.9
	대학원 이상	342	11.4	192	12.8	150	10.0
혼인상태	미혼	1517	50.6	765	51.0	752	50.1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1381	46.0	692	46.1	689	45.9
	사별	5	0.2			5	0.3
	이혼 혹은 별거	97	3.2	43	2.9	54	3.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2049	86.9	1084	86.7	965	87.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3	4.4	63	5.0	40	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0	8.1	100	8.0	90	8.1
	무급가족종사자	15	0.6	4	0.3	11	1.0
고용상태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1848	90.2	993	91.6	855	88.6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62	7.9	71	6.5	91	9.4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39	1.9	20	1.8	19	2.0
정규직 유무	정규직	1658	80.9	929	85.7	729	75.5
	비정규직	391	19.1	155	14.3	236	24.5
자녀 유무	있다	1187	39.6	602	40.1	585	39.0
	없다	1813	60.4	898	59.9	915	61.0

나. 성인 본조사 결과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2,588명(86.3%)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긍정 응답자는 382명(12.7%)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A2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2,780명(92.7%)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93명(6.4%)에 그쳤음.
- A3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36명(1.2%)이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272명(9.1%)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반면, 1,768명(58.9%)은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924명(30.8%)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A4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냐는 물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86명(6.2%),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791명(26.4%)으로 나타남. 반면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1,979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답은 44명(1.5%)이었음.
- A5 물질의 위험 인식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마약류, 임시마약류로 세분화하여 물었을 때 환각물질이 위험하다는 응답은 2,790명(93.0%), 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942명(98.1%), 임시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535명(84.5%)으로 상대적으로 임시마약류가 낮게 나타남. 임시마약류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1명(12.0%)으로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라는 표현에 대중이 친숙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 A6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를 물었을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04명(63.5%)이었으며, 전혀 혹은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357명(11.9%)이었음.
- A7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냐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이 1,120명(37.3%)인 반면, 부정 응답은 1,024명(34.1%)로 긍정응답이 2.8%p 더 높았음.

- A8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혹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85명(56.2%)으로 과반을 넘었고, 전혀 혹은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는 406명(13.6%)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였음.
- A6~A8 인식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3.37/5.00점이며, 표준편차는 0.68이었음.
- A9 마약류 사용 위험의 공감도를 물었을 때 우리 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2,781명(92.7%)으로, 부정적인 응답 28명(1.0%)과 큰 차이를 보임.
- A10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주느냐는 물음에는 1,395명(46.5%)이 긍정적 응답을, 820명(27.3%)이 부정적 응답을 하여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에 비해 19.2%p 가량 지지자가 많았음.
-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긍정 응답이 2,697명(89.9%), 공감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72명(2.4%)으로 나타남.
- A9~A11 공감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3.99/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56임.
- A12 마약류 사용 위험의 실천도를 물었을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는 물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2,605명(86.8%), 요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16명(3.9%)으로 나타남.
- A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2,537명(84.6%)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60명(2.0%)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2,262명(75.4%)이 긍정적인 응답을, 101명(3.4%)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 A12~A14 실천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4.14/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63임.

표 3-19.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통계량(성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식도 (A6, A7, A8의 평균)	3000	1.00	5.00	3.37	0.68
공감도 (A9, A10, A11의 평균)	3000	1.00	5.00	3.99	0.56
실천도 (A12, A13, A14의 평균)	3000	1.00	5.00	4.14	0.63

표 3-20. 마약류에 대한 인식(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 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699	23.3	346	23.1	353	23.5
	그렇지 않다	1889	63.0	900	60.0	989	65.9
	그렇다	303	10.1	186	12.4	117	7.8
	매우 그렇다	79	2.6	53	3.5	26	1.7
	모르겠다	30	1.0	15	1.0	15	1.0
	전혀 심각하지 않다	9	0.3	7	0.5	2	0.1
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다	184	6.1	128	8.5	56	3.7
	심각하다	1278	42.6	609	40.6	669	44.6
	매우 심각하다	1502	50.1	741	49.4	761	50.7
	모르겠다	27	0.9	15	1.0	12	0.8
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36	1.2	22	1.5	14	0.9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272	9.1	169	11.3	103	6.9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1768	58.9	901	60.1	867	57.8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924	30.8	408	27.2	516	34.4
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186	6.2	92	6.1	94	6.3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791	26.4	390	26.0	401	26.7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1979	66.0	991	66.1	988	65.9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44	1.5	27	1.8	17	1.1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전혀 위험하지 않다	3	0.1	2	0.1	1	0.1
	위험하지 않다	158	5.3	97	6.5	61	4.1
	위험하다	1529	51.0	763	50.9	766	51.1
	매우 위험하다	1261	42.0	618	41.2	643	42.9
	잘 모르겠다	49	1.6	20	1.3	29	1.9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2) 마약류	위험하지 않다	19	0.6	18	1.2	1	0.1
	위험하다	398	13.3	213	14.2	185	12.3
	매우 위험하다	2544	84.8	1246	83.1	1298	86.5
	잘 모르겠다	39	1.3	23	1.5	16	1.1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	전혀 위험하지 않다	1	0.0	1	0.1		
	위험하지 않다	103	3.4	61	4.1	42	2.8
	위험하다	1211	40.4	644	42.9	567	37.8
	매우 위험하다	1324	44.1	628	41.9	696	46.4
	잘 모르겠다	361	12.0	166	11.1	195	13.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6)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22	0.7	14	0.9	8	0.5
	별로 알지 못한다	335	11.2	153	10.2	182	12.1
	보통	739	24.6	372	24.8	367	24.5
	대체로 알고 있다	1569	52.3	790	52.7	779	51.9
	충분히 알고 있다	335	11.2	171	11.4	164	10.9
7)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20	7.3	79	5.3	141	9.4
	그렇지 않다	804	26.8	377	25.1	427	28.5
	보통	856	28.5	453	30.2	403	26.9
	그렇다	978	32.6	519	34.6	459	30.6
	매우 그렇다	142	4.7	72	4.8	70	4.7
8)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29	1.0	16	1.1	13	0.9
	별로 알지 못한다	377	12.6	183	12.2	194	12.9
	보통	909	30.3	466	31.1	443	29.5
	대체로 알고 있다	1478	49.3	711	47.4	767	51.1
	충분히 알고 있다	207	6.9	124	8.3	83	5.5
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	0.1	2	0.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6	0.9	20	1.3	6	0.4
	보통	191	6.4	124	8.3	67	4.5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1301	43.4	672	44.8	629	41.9
	전적으로 공감한다	1480	49.3	682	45.5	798	53.2
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 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147	4.9	89	5.9	58	3.9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673	22.4	340	22.7	333	22.2
	보통	785	26.2	442	29.5	343	22.9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1156	38.5	522	34.8	634	42.3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239	8.0	107	7.1	132	8.8
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2	0.4	8	0.5	4	0.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60	2.0	32	2.1	28	1.9
	보통	231	7.7	136	9.1	95	6.3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1311	43.7	667	44.5	644	42.9
	전적으로 공감한다	1386	46.2	657	43.8	729	48.6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12)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9	0.3	5	0.3	4	0.3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07	3.6	55	3.7	52	3.5
	보통	279	9.3	159	10.6	120	8.0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140	38.0	562	37.5	578	38.5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1465	48.8	719	47.9	746	49.7
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7	0.2	5	0.3	2	0.1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53	1.8	33	2.2	20	1.3
	보통	403	13.4	219	14.6	184	12.3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1574	52.5	769	51.3	805	53.7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963	32.1	474	31.6	489	32.6
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0.5	11	0.7	3	0.2
	그렇지 않다	87	2.9	44	2.9	43	2.9
	보통	637	21.2	357	23.8	280	18.7
	그렇다	1569	52.3	762	50.8	807	53.8
	매우 그렇다	693	23.1	326	21.7	367	24.5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동기

표 3-21.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성인)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회동기	마약류효과 긍정인식	마약류효과 부정인식
Mean	2.25	2.51	1.63	2.05	3.87
SD	1.10	1.19	0.83	0.97	1.06
N	3000	3000	3000	3000	3000

- B1(1) 마약류 사용 고양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라는 지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884명(29.4%), 부정 응답자는 1,798명(59.9%)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1(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997명(33.2%)이 긍정적 응답을, 1,616명(53.9%)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1(3) 마약류 사용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문에는 324명(10.8%)이 긍정적 응답을, 2,310명(77.0%)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1(1)~(3) 마약류 사용의 고양동기는 기분을 상승시키는 등 사람을 들뜨게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됨. 고양동기 세 개 문항의 평균값은 2.25/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10점. 3개 고양동기 중에서는 성적인 동기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B1(4) 마약류 사용 대처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817명(27.2%),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아니라는 응답은 1,770명(59.0%)으로 부정 응답자가 31.8%p 더 많았음.
- B1(5) 마약류 사용이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829명(27.7%), 부정적인 응답자는 1,712명(57.1%)이었음.
- B1(6)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1,184명(39.5%)이 긍정 응답을, 1,213명(40.5%)가 부정 응답을 보여 1%p 가량의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음.
- B1(4)~(6) 마약류 사용의 대처동기는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임. 대처동기의 평균값은 2.51/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19점. 3개 대처동기 중에서는 신체 고통 대처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B1(7) 마약류 사용 사회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89명(6.3%), 부정 응답자는 2,457명(81.9%)이었음.
- B1(8) 마약류 사용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참여자 중 206명(6.9%),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76명(82.5%)이었음.
- B1(9) 마약류 사용이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 응답자는 292명(9.8%), 부정 응답자는 2,321명(77.3%)으로 나타남.
- B1(7)~(9) 마약류 사용의 사회동기는 응답자들이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됨. 사회동기에 대한 평균값은 1.63/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3점. 3개 사회동기 중에서는 사회집단 수용을 위해서라는 응답 분율이 가장 높았음.
- B1(10) 마약류 사용 효과의 긍정인식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92명(9.8%), 부정 응답자가 2,321명(77.3%)으로 기록됨.
- B1(11) 마약류 사용이 신체 에너지를 증가시켜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267명(8.9%)이 긍정 응답을, 2,320명(77.3%)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1(12) 마약류 사용이 각성효과에 도움을 준다는 물음에는 958명(13.9%)이 긍정 응답을, 1,517명(50.6%)이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1(10)~(12) 마약류 사용 효과의 긍정인식 혹은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ncy)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가 본인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효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임. 긍정인식 평균값은 2.05/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7점. 3개 긍정인식 중에서는 각성효과에 대한 긍정인식이 가장 높았음.
- B1(13) 마약류 사용 효과의 부정인식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시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2,244명(74.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70명(12.4%)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B1(14) 마약류 사용으로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1,935명(64.5%)이 긍정 응답을, 400명(13.3%)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1(15) 마약류 사용으로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248명(75.0%)이 긍정적인 응답을, 367명(12.2%)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1(13)~(15) 마약류 사용 효과의 부정인식 혹은 부정적 기대(negative expectancy)는 마약류가 본인의 신체 및 정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임. 부정인식에 대한 평균값은 3.87/5.00점(역코딩시 2.13점)으로, 표준편차는 1.06점. 3개 부정인식 문항 중에서는 소화장애에 대한 부정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5개 동기를 비교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대처동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3-2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11	37.0	554	36.9	557	37.1
	그렇지 않다	687	22.9	375	25.0	312	20.8
	보통	318	10.6	170	11.3	148	9.9
	그렇다	751	25.0	340	22.7	411	27.4
	매우 그렇다	133	4.4	61	4.1	72	4.8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25	34.2	503	33.5	522	34.8
	그렇지 않다	591	19.7	330	22.0	261	17.4
	보통	387	12.9	190	12.7	197	13.1
	그렇다	789	26.3	363	24.2	426	28.4
	매우 그렇다	208	6.9	114	7.6	94	6.3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66	48.9	712	47.5	754	50.3
	그렇지 않다	844	28.1	443	29.5	401	26.7
	보통	366	12.2	199	13.3	167	11.1
	그렇다	288	9.6	131	8.7	157	10.5
	매우 그렇다	36	1.2	15	1.0	21	1.4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64	38.8	580	38.7	584	38.9
	그렇지 않다	606	20.2	333	22.2	273	18.2
	보통	413	13.8	218	14.5	195	13.0
	그렇다	685	22.8	318	21.2	367	24.5
	매우 그렇다	132	4.4	51	3.4	81	5.4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12	37.1	553	36.9	559	37.3
	그렇지 않다	600	20.0	326	21.7	274	18.3
	보통	459	15.3	258	17.2	201	13.4
	그렇다	689	23.0	305	20.3	384	25.6
	매우 그렇다	140	4.7	58	3.9	82	5.5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761	25.4	373	24.9	388	25.9
	그렇지 않다	452	15.1	264	17.6	188	12.5
	보통	603	20.1	333	22.2	270	18.0
	그렇다	957	31.9	428	28.5	529	35.3
	매우 그렇다	227	7.6	102	6.8	125	8.3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659	55.3	794	52.9	865	57.7
	매우 그렇지 않다	798	26.6	411	27.4	387	25.8
	그렇지 않다	354	11.8	186	12.4	168	11.2
	보통	172	5.7	101	6.7	71	4.7
	그렇다	17	0.6	8	0.5	9	0.6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741	58.0	839	55.9	902	60.1
	매우 그렇지 않다	735	24.5	388	25.9	347	23.1
	그렇지 않다	318	10.6	162	10.8	156	10.4
	보통	189	6.3	102	6.8	87	5.8
	그렇다	17	0.6	9	0.6	8	0.5
9)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919	64.0	919	61.3	1000	66.7
	매우 그렇지 않다	698	23.3	378	25.2	320	21.3
	그렇지 않다	240	8.0	132	8.8	108	7.2
	보통	133	4.4	66	4.4	67	4.5
	그렇다	10	0.3	5	0.3	5	0.3
10)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603	53.4	775	51.7	828	55.2
	매우 그렇지 않다	718	23.9	372	24.8	346	23.1
	그렇지 않다	387	12.9	210	14.0	177	11.8
	보통	263	8.8	127	8.5	136	9.1
	그렇다	29	1.0	16	1.1	13	0.9
11)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584	52.8	784	52.3	800	53.3
	매우 그렇지 않다	736	24.5	392	26.1	344	22.9
	그렇지 않다	413	13.8	209	13.9	204	13.6
	보통	232	7.7	103	6.9	129	8.6
	그렇다	35	1.2	12	0.8	23	1.5
12)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013	33.8	506	33.7	507	33.8
	매우 그렇지 않다	504	16.8	269	17.9	235	15.7
	그렇지 않다	525	17.5	277	18.5	248	16.5
	보통	749	25.0	360	24.0	389	25.9
	그렇다	209	7.0	88	5.9	121	8.1
13)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06	6.9	113	7.5	93	6.2
	매우 그렇지 않다	164	5.5	98	6.5	66	4.4
	그렇지 않다	386	12.9	221	14.7	165	11.0
	보통	1203	40.1	572	38.1	631	42.1
	그렇다	1041	34.7	496	33.1	545	36.3
14)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16	7.2	115	7.7	101	6.7
	매우 그렇지 않다	184	6.1	100	6.7	84	5.6
	그렇지 않다	665	22.2	349	23.3	316	21.1
	보통	1091	36.4	527	35.1	564	37.6
	그렇다	844	28.1	409	27.3	435	29.0
15)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02	6.7	108	7.2	94	6.3
	매우 그렇지 않다	165	5.5	103	6.9	62	4.1
	그렇지 않다	385	12.8	225	15.0	160	10.7
	보통	968	32.3	485	32.3	483	32.2
	그렇다	1280	42.7	579	38.6	701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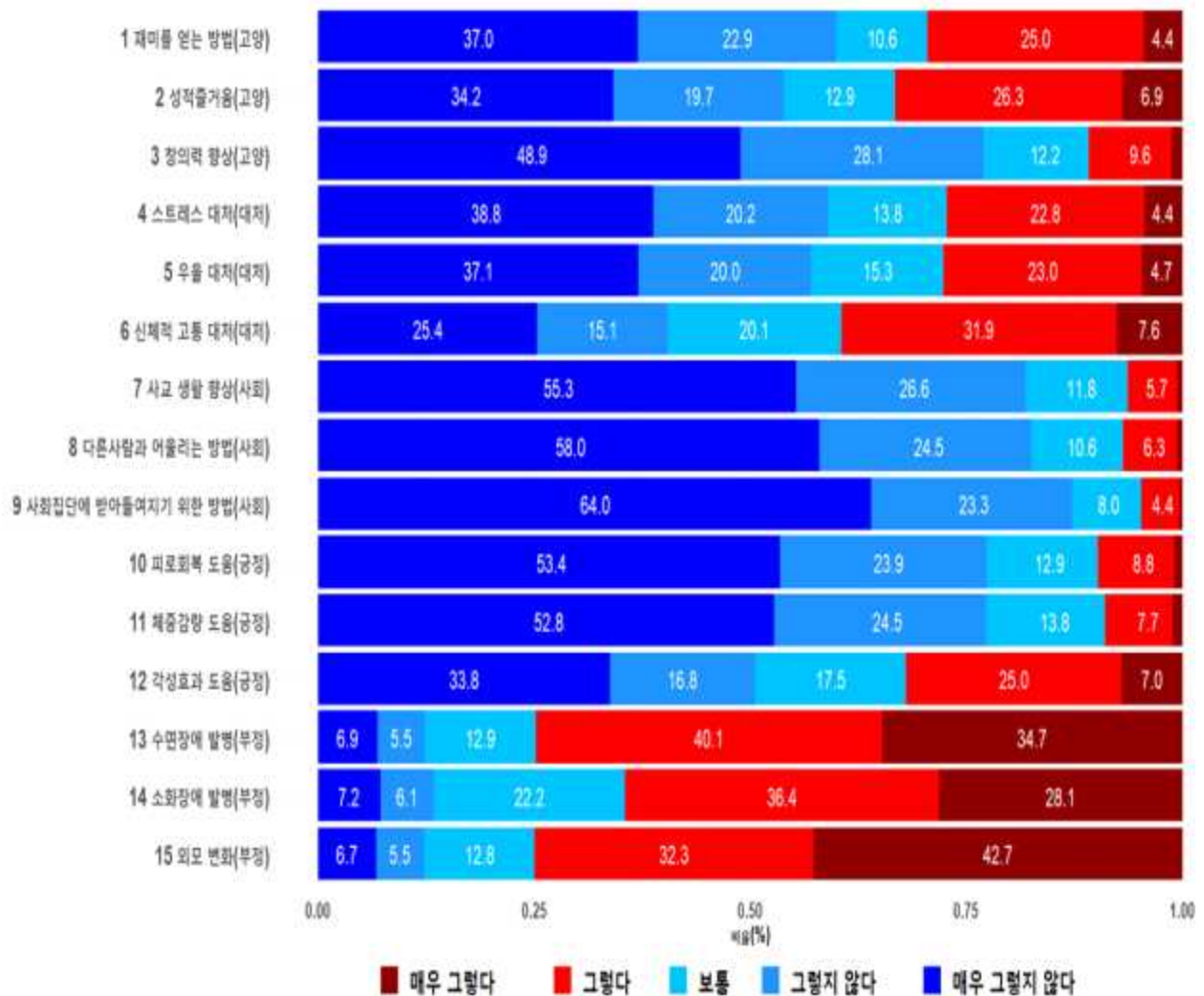


그림 3-3.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성인)

- 성인의 마약류 사용 동기를 살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동기 요인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 성적 쾌락, 재미 추구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대처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통할 때 가장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홍보해야 함. 둘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성적 쾌감의 향상이나 재미의 정도가 대중의 기대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려야 함.

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 B2(1)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해 물었을 때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83명(9.4%),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15명(80.5%)이었음.

- B2(2)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652명(21.8%)이 긍정적 응답을, 2,284명(76.1%)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3)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314명(10.4%)이 긍정적 응답을, 2,428명(80.9%)이 부정적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1)~(3)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한 평균값은 1.79/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95였음. 3개 민감성 문항 중에서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 노출 가능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 B2(4)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93명(83.1%),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373명(12.0%)이었음.
- B2(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2,542명(84.8%)이 긍정 응답을, 340명(11.3%)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2(6) 마약류 사용이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638명(87.9%)이 긍정 응답을, 247명(8.3%)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4)~(6)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한 평균값은 4.27/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07이었음. 3개 심각성 문항 중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2(7)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상담받기 두렵다는 응답자는 831명(27.7%)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548명(51.6%)이었음.
- B2(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2,460명(82.0%), 부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186명(6.2%)이었음.
- B2(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438명(81.3%),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05명(6.8%)이었음.
- B2(7)~(9)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3.60/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77이었음. 3개 장애요인 문항 중에서는 예방 교육 부족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2(10)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418명(80.6%),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14명(7.2%)이었음.
- B2(11)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2,549명(85.0%), 부정 응답자는 144명(4.8%)이었음.
- B2(12) 마약류 예방 교육이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498명(83.2%)이 긍정적 응답을, 147명(4.9%)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10)~(12)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4.16/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0이었음. 3개 이득요인 문항 중에서는 사회문제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음.
- B2(13)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해서는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737명(91.3%),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04명(3.5%)으로 기록됨.
- B2(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589명(86.3%), 부정 응답자가 130명(4.3%)이었음.
- B2(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415명(80.5%), 부정 응답자가 187명(6.2%)으로 나타남.
- B2(13)~(15) 마약류 예방행동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은 4.40/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78이었음. 3개 자기효능감 문항 중에서는 친구가 마약류를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23. 표별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100점 척도)

	심각성	민감성	이득	장애	자기효능감
Mean	35.82	85.45	72.04	83.24	87.93
SD	18.90	21.47	15.36	16.00	15.51
N	3000	3000	3000	3000	3000

표 3-24. 문항별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성인, 100점 척도)

	Mean	SD	N
호기심 노출 가능성	35.52	20.39	3000
우울감 노출 가능성	37.64	21.93	3000
파티·클럽 노출 가능성	34.29	21.78	3000
환각·환청·정신 문제 가능성	82.93	24.39	3000
충동조절 불가능성	84.83	23.64	3000
일상적 삶 위협 가능성	88.59	21.56	3000
사회적 낙인 가능성	51.61	24.82	3000
예방교육 부족정도 인식	82.48	18.69	3000
사용예방 인식 부족 정도	82.02	18.62	3000
예방교육 경제적 손실 예방정도	82.13	19.77	3000
예방교육 사회적 손실 예방정도	84.51	17.52	3000
예방교육 중독 예방정도	83.09	17.43	3000
친구 마약권유 거절 효능감	91.05	16.29	3000
타인관계 문제 효능감	87.61	17.61	3000
파티·클럽 효능감	85.13	19.50	3000
전체	72.90	10.20	3000

- 건강신념모형 기반 마약류 사용 신념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민감성, 높은 심각성, 높은 장애 및 이득 요인,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발견됨. 따라서 향후 마약류 사용 예방 정책은 대중의 민감성 수준 제고, 장애 요인 완화, 개개인의 성찰성 및 조심성 강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5.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89	53.0	690	46.0	899	59.9
	그렇지 않다	826	27.5	450	30.0	376	25.1
	보통	302	10.1	189	12.6	113	7.5
	그렇다	234	7.8	144	9.6	90	6.0
	매우 그렇다	49	1.6	27	1.8	22	1.5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03	50.1	719	47.9	784	52.3
	그렇지 않다	781	26.0	422	28.1	359	23.9
	보통	347	11.6	183	12.2	164	10.9
	그렇다	305	10.2	145	9.7	160	10.7
	매우 그렇다	64	2.1	31	2.1	33	2.2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33	61.1	829	55.3	1004	66.9
	그렇지 않다	595	19.8	341	22.7	254	16.9
	보통	258	8.6	151	10.1	107	7.1
	그렇다	223	7.4	132	8.8	91	6.1
	매우 그렇다	91	3.0	47	3.1	44	2.9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63	8.8	132	8.8	131	8.7
	그렇지 않다	110	3.7	75	5.0	35	2.3
	보통	134	4.5	100	6.7	34	2.3
	그렇다	910	30.3	473	31.5	437	29.1
	매우 그렇다	1583	52.8	720	48.0	863	57.5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228	7.6	119	7.9	109	7.3
	그렇지 않다	112	3.7	74	4.9	38	2.5
	보통	117	3.9	85	5.7	32	2.1
	그렇다	794	26.5	423	28.2	371	24.7
	매우 그렇다	1749	58.3	799	53.3	950	63.3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3	5.8	84	5.6	89	5.9
	그렇지 않다	74	2.5	58	3.9	16	1.1
	보통	115	3.8	83	5.5	32	2.1
	그렇다	568	18.9	329	21.9	239	15.9
	매우 그렇다	2070	69.0	946	63.1	1124	74.9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매우 그렇다	732	24.4	374	24.9	358	23.9
	매우 그렇지 않다	816	27.2	389	25.9	427	28.5
	그렇지 않다	621	20.7	332	22.1	289	19.3
	보통	640	21.3	319	21.3	321	21.4
	그렇다	191	6.4	86	5.7	105	7.0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다	78	2.6	48	3.2	30	2.0
	매우 그렇지 않다	108	3.6	74	4.9	34	2.3
	그렇지 않다	354	11.8	241	16.1	113	7.5
	보통	1284	42.8	631	42.1	653	43.5
	그렇다	1176	39.2	506	33.7	670	44.7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다	64	2.1	44	2.9	20	1.3
	매우 그렇지 않다	141	4.7	97	6.5	44	2.9
	그렇지 않다	357	11.9	239	15.9	118	7.9
	보통	1304	43.5	643	42.9	661	44.1
	그렇다	1134	37.8	477	31.8	657	43.8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04	3.5	62	4.1	42	2.8
	매우 그렇지 않다	110	3.7	56	3.7	54	3.6
	그렇지 않다	368	12.3	214	14.3	154	10.3
	보통	1199	40.0	601	40.1	598	39.9
	그렇다	1219	40.6	567	37.8	652	43.5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50	1.7	34	2.3	16	1.1
	매우 그렇지 않다	94	3.1	64	4.3	30	2.0
	그렇지 않다	307	10.2	180	12.0	127	8.5
	보통	1227	40.9	620	41.3	607	40.5
	그렇다	1322	44.1	602	40.1	720	48.0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49	1.6	32	2.1	17	1.1
	매우 그렇지 않다	98	3.3	72	4.8	26	1.7
	그렇지 않다	355	11.8	193	12.9	162	10.8
	보통	1336	44.5	677	45.1	659	43.9
	그렇다	1162	38.7	526	35.1	636	42.4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51	1.7	29	1.9	22	1.5
	매우 그렇지 않다	53	1.8	40	2.7	13	0.9
	그렇지 않다	159	5.3	110	7.3	49	3.3
	보통	662	22.1	356	23.7	306	20.4
	그렇다	2075	69.2	965	64.3	1110	74.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다	46	1.5	22	1.5	24	1.6
	매우 그렇지 않다	84	2.8	44	2.9	40	2.7
	그렇지 않다	281	9.4	156	10.4	125	8.3
	보통	860	28.7	470	31.3	390	26.0
	그렇다	1729	57.6	808	53.9	921	61.4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다	60	2.0	27	1.8	33	2.2
	매우 그렇지 않다	127	4.2	57	3.8	70	4.7
	그렇지 않다	398	13.3	196	13.1	202	13.5
	보통	813	27.1	434	28.9	379	25.3
	그렇다	1602	53.4	786	52.4	816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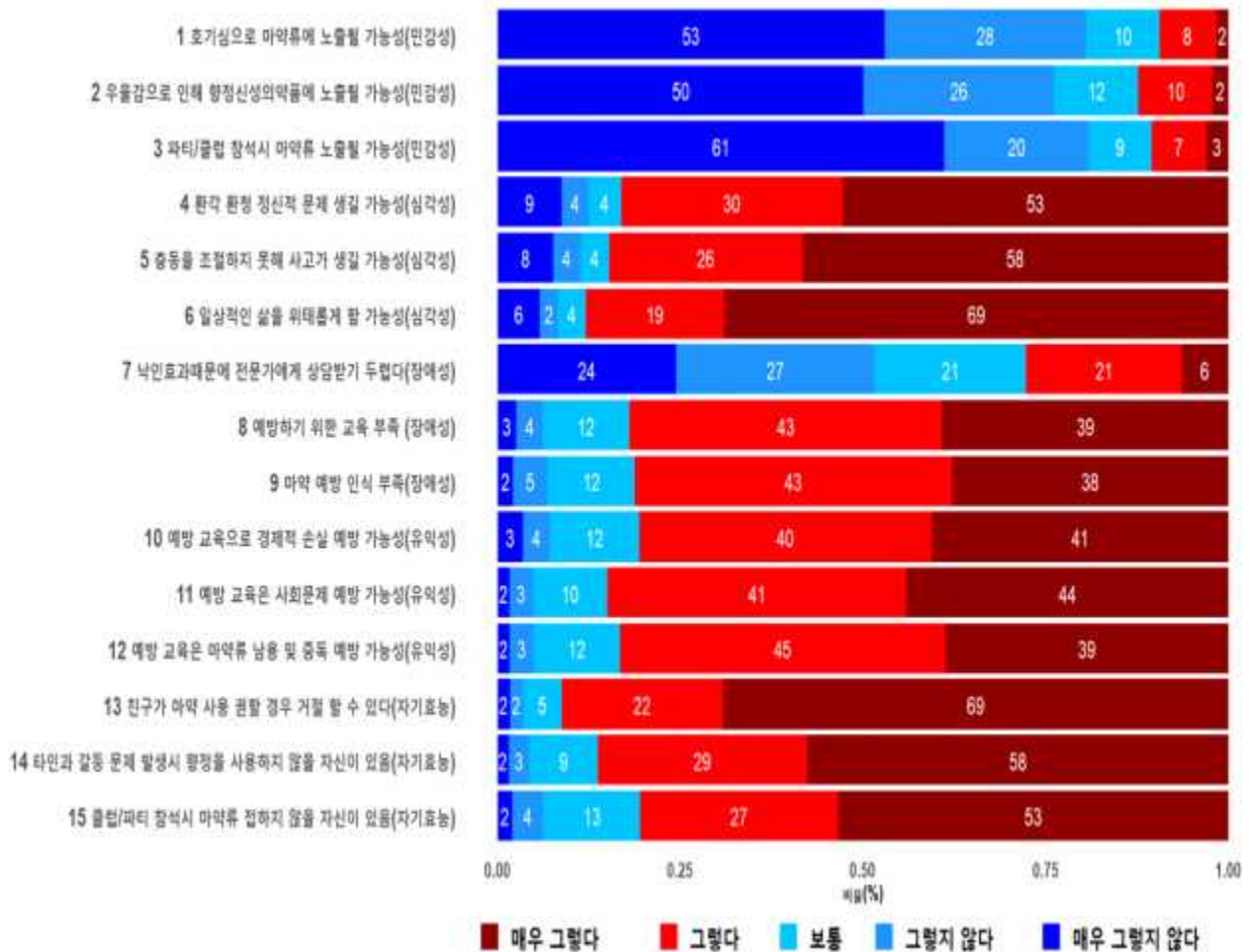


그림 3-4.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성인)

3) 약물 사용 관련 지식

- B3(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는 물음에는 2,790명(93.0%)이 맞다, 56명(1.9%)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54명(5.1%)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758명(91.9%)이 맞다, 48명(1.6%)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94명(6.5%)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물음에는 1,743명(58.1%)이 맞다, 135명(4.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122명(37.4%)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물음에는 2,203명(73.4%)이 맞다, 74명(2.5%)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723명(24.1%)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751명(25.0%)이 맞다, 1,450명(48.3%)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799명(26.6%)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6) GHB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928명(64.3%)이 마다, 58명(1.9%)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14명(33.8%)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7) 대마초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324명(10.8%)이 맞다, 2,083명(69.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593명(19.8%)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8) 본드, 부탄가스, 테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는 물음에는 2,669명(89.0%)이 맞다, 54명(1.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77명(9.2%)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9)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236명(7.9%)이 맞다, 2,178명(72.6%)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77명(9.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3(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물음에는 2,684명(89.5%)이 맞다, 85명(2.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31명(7.7%)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10개 지식문항 중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물음에 대한 오답자가 가장 많았음.
- 10개 지식문항의 평균 점수는 7.50/10.00점으로 표준편차는 2.10이었음. 응답자 1인당 평균적으로 2.5개 문항을 잘못 답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의미임.

표 3-26.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T)	2790	93.0	1355	90.3	1435	95.7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T)	2758	91.9	1346	89.7	1412	94.1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1743	58.1	861	57.4	882	58.8
4)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T)	2203	73.4	1104	73.6	1099	73.3
5)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751	25.0	378	25.2	373	24.9
6) GHB(물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1928	64.3	963	64.2	965	64.3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F)	2083	69.4	1025	68.3	1058	70.5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2669	89.0	1328	88.5	1341	89.4
9)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F)	2178	72.6	1071	71.4	1107	73.8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T)	2684	89.5	1312	87.5	1372	91.5

T=True, F=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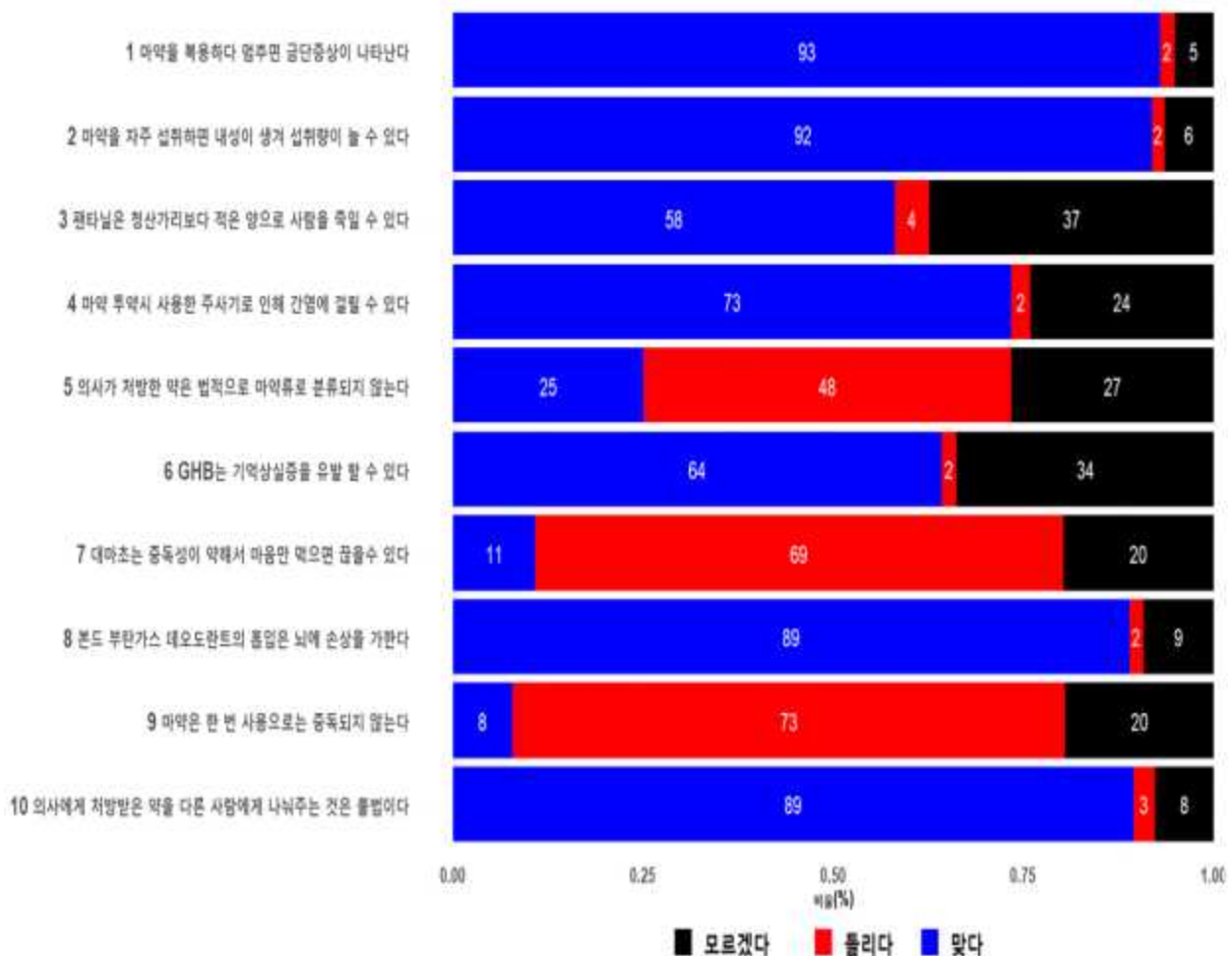


그림 3-5. 마약류 지식 정답률(성인)

3.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99명(6.6%), 조금 느끼는 편이다 1,560명(52.0%), 많이 느끼는 편이다 977명(32.6%), 대단히 많이 느낀다 264명(8.8%)으로 나타남.
- C3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426명(14.2%)이었음.
- C2 10개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평균은 2.89/5.00점, 표준편차는 0.55였음.

표 3-27. 스트레스 자각척도 평균(성인)

C2	스트레스자각척도(4,5,7,8 역코딩, 5점 만점)
Mean	2.89
SD	0.55
N	3000

- C2(1)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중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88명(19.6%)이었음.
- C2(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49명(21.6%)이었음.
- C2(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33명(34.5%)이었음.
- C2(6)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99명(16.6%)이었음.
- C2(9)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57명(21.9%)이었음.
- C2(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54명(18.5%)이었음.
- 스트레스 관련요인의 평균은 2.90/5.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67이었음.
- C2(4)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스트레스 조절요인 중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1,023명(34.1%)이었음.
- C2(5) 일상의 일들이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999명(33.3%)이었음.
- C2(7) 일상생활의 짜증을 자주 혹은 항상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259명(42.0%)이었음.
- C2(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676명(22.6%)이었음.
- 스트레스 조절요인의 평균은 3.12/5.00점(역코딩 기준 2.88점), 표준편차는 0.63이었음.

표 3-28.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264	8.8	132	8.8	132	8.8
	많이 느끼는 편이다	977	32.6	466	31.1	511	34.1
	조금 느끼는 편이다	1560	52.0	797	53.1	763	50.9
	거의 느끼지 않는다	199	6.6	105	7.0	94	6.3
외로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39	11.3	183	12.2	156	10.4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919	30.6	447	29.8	472	31.5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1316	43.9	656	43.7	660	44.0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333	11.1	162	10.8	171	11.4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93	3.1	52	3.5	41	2.7

2) 한국인의 성향

- C4(1) 한국인의 성향 중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하여 물었을 때,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034명(67.8%),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966명(32.2%)이었음.
- C4(2) 자기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273명(75.7%),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727명(24.2%)이었음.
- C4(3)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772명(59.0%), 부정 응답자는 1,228명(40.9%)이었음.
- C4(4)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721명(57.4%),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279명(42.6%)이었음.
- C4(1)~(4) 미래에 대한 희망 문항의 평균은 2.72/4.00점으로 표준편차는 0.58이었음. 4개 문항 가운데서는 자부심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C4(5) 한국인의 성향 중 스릴추구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물음에 490명(16.4%)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510명(83.7%)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6)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데에는 369명(12.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631명(87.7%)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7)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는 물음에는 210명(7.0%)이 긍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2,631명(93.0%)은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음.
- C4(5)~(7) 스릴추구 문항의 평균은 1.65/4.00점으로 표준편차는 0.57이었음. 3개 문항 가운데서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물음의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C4(8) 한국인의 성향 중 충동성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물음에 1,965명(65.5%)이 긍정 응답을, 1,035명(34.5%)이 부정 응답을 기록하였음.
- C4(9)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는 물음에 1,435명(47.9%)이 긍정적인 응답을, 1,565명(52.2%)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C4(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물음에 567명(18.9%)이 긍정 응답을, 2,433(81.1%)명이 부정 응답을 기록했음.
- C4(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는 물음에 837명(27.9%)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163명(72.1%)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8)~(11) 충동성 문항의 평균은 2.19/4.00점으로 표준편차는 0.49였음. 4개 문항 가운데서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는 문항의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C4(12) 한국인의 성향 중 반사회성에 관해 물었을 때,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라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가 260명(8.7%), 부정적인 응답자가 2,740명(91.4%)이었음.
- C4(13) 자신의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374명(12.5%),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2,626명(87.5%)이었음.
- C4(14) 스스로를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03명(26.8%),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197명(73.2%)이었음.
- C4(15)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응답자가 468명(15.6%),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2,532명(84.4%)이었음.
- C4(12)~(15) 반사회성 문항의 평균은 1.80/4.00점으로 표준편차는 0.54였음. 4개 문항 가운데서는 스스로를 냉담 혹은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았음.
- C4(16) 한국인의 성향 중 영성에 관해 물었을 때,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례는 1,852명(61.8%),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례가 1,148명(38.2%)이었음.
- C4(17)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1,643명(54.8%),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1,357명(45.3%)이었음.
- C4(18)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물음에 960명(32.0%)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2,040명(68.0%)은 부정적으로 답하였음.
- C4(19)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2,050명(68.4%)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950명(31.6%)이었음.
- C4(16)~(19) 영성 문항의 평균은 2.53/4.00점으로 표준편차는 0.44였음. 4개 문항 가운데서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C4(20) 한국인의 성향 중 자기 과신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데 1,112명(37.1%)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1,888명(62.9%)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C4(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881명(29.3%)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119명(70.6%)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C4(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물음에는 426명(14.2%)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반면, 2,574명(85.8%)은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음.
- C4(20)~(22) 자기 과신 문항의 평균은 1.99/4.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75였음. 3개 문항 가운데서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의 긍정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3-29. 한국인의 성향 평균(성인, 100점 척도)

	N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희망 (C41, C42, C43, C44의 평균)	3000	67.89	14.48
스릴추구 (C45, C46, C47의 평균)	3000	41.22	14.16
충동성 (C48, C49, C410, C411의 평균; C48은 역코딩)	3000	54.75	12.25
반사회성 (C412, C413, C414, C415의 평균)	3000	45.09	13.59
영성 (C416, C417, C418, C419의 평균)	3000	63.30	11.10
자기 과신 (C420, C421, C422의 평균)	3000	49.78	18.72

- 한국인의 성향 점수를 살폈을 때 위험요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충동성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에서 마약류 이용으로 인해 절제에 실패하고 충동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던 점과도 연관됨. 충동적 마약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30. 한국인의 성향(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6	3.9	58	3.9	58	3.9
	동의하지 않음	850	28.3	412	27.5	438	29.2
	동의함	1686	56.2	846	56.4	840	56.0
	매우 동의함	348	11.6	184	12.3	164	10.9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	3.0	46	3.1	45	3.0
	동의하지 않음	636	21.2	368	24.5	268	17.9
	동의함	1849	61.6	888	59.2	961	64.1
	매우 동의함	424	14.1	198	13.2	226	15.1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8	4.6	65	4.3	73	4.9
	동의하지 않음	1090	36.3	519	34.6	571	38.1
	동의함	1420	47.3	719	47.9	701	46.7
	매우 동의함	352	11.7	197	13.1	155	10.3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0	6.3	104	6.9	86	5.7
	동의하지 않음	1089	36.3	522	34.8	567	37.8
	동의함	1521	50.7	757	50.5	764	50.9
	매우 동의함	200	6.7	117	7.8	83	5.5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06	30.2	367	24.5	539	35.9
	동의하지 않음	1604	53.5	804	53.6	800	53.3
	동의함	443	14.8	298	19.9	145	9.7
	매우 동의함	47	1.6	31	2.1	16	1.1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05	50.2	575	38.3	930	62.0
	동의하지 않음	1126	37.5	655	43.7	471	31.4
	동의함	335	11.2	247	16.5	88	5.9
	매우 동의함	34	1.1	23	1.5	11	0.7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32	64.4	768	51.2	1164	77.6
	동의하지 않음	858	28.6	569	37.9	289	19.3
	동의함	179	6.0	142	9.5	37	2.5
	매우 동의함	31	1.0	21	1.4	10	0.7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2	4.1	54	3.6	68	4.5
	동의하지 않음	913	30.4	456	30.4	457	30.5
	동의함	1612	53.7	836	55.7	776	51.7
	매우 동의함	353	11.8	154	10.3	199	13.3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97	9.9	136	9.1	161	10.7
	동의하지 않음	1268	42.3	649	43.3	619	41.3
	동의함	1313	43.8	655	43.7	658	43.9
	매우 동의함	122	4.1	60	4.0	62	4.1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55	21.8	298	19.9	357	23.8
	동의하지 않음	1778	59.3	880	58.7	898	59.9
	동의함	523	17.4	294	19.6	229	15.3
	매우 동의함	44	1.5	28	1.9	16	1.1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32	21.1	276	18.4	356	23.7
	동의하지 않음	1531	51.0	792	52.8	739	49.3
	동의함	781	26.0	403	26.9	378	25.2
	매우 동의함	56	1.9	29	1.9	27	1.8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6	45.9	597	39.8	779	51.9
	동의하지 않음	1364	45.5	723	48.2	641	42.7
	동의함	221	7.4	151	10.1	70	4.7
	매우 동의함	39	1.3	29	1.9	10	0.7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94	39.8	514	34.3	680	45.3
	동의하지 않음	1432	47.7	748	49.9	684	45.6
	동의함	320	10.7	210	14.0	110	7.3
	매우 동의함	54	1.8	28	1.9	26	1.7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59	25.3	322	21.5	437	29.1
	동의하지 않음	1438	47.9	724	48.3	714	47.6
	동의함	740	24.7	419	27.9	321	21.4
	매우 동의함	63	2.1	35	2.3	28	1.9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25	37.5	485	32.3	640	42.7
	동의하지 않음	1407	46.9	737	49.1	670	44.7
	동의함	433	14.4	254	16.9	179	11.9
	매우 동의함	35	1.2	24	1.6	11	0.7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84	6.1	90	6.0	94	6.3
	동의하지 않음	964	32.1	487	32.5	477	31.8
	동의함	1673	55.8	839	55.9	834	55.6
	매우 동의함	179	6.0	84	5.6	95	6.3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4	7.5	109	7.3	115	7.7
	동의하지 않음	1133	37.8	572	38.1	561	37.4
	동의함	1493	49.8	742	49.5	751	50.1
	매우 동의함	150	5.0	77	5.1	73	4.9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95	13.2	158	10.5	237	15.8
	동의하지 않음	1645	54.8	775	51.7	870	58.0
	동의함	914	30.5	531	35.4	383	25.5
	매우 동의함	46	1.5	36	2.4	10	0.7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4	2.8	39	2.6	45	3.0
	동의하지 않음	866	28.9	433	28.9	433	28.9
	동의함	1661	55.4	830	55.3	831	55.4
	매우 동의함	389	13.0	198	13.2	191	12.7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86	26.2	379	25.3	407	27.1
	동의하지 않음	1102	36.7	553	36.9	549	36.6
	동의함	764	25.5	403	26.9	361	24.1
	매우 동의함	348	11.6	165	11.0	183	12.2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27	30.9	436	29.1	491	32.7
	동의하지 않음	1192	39.7	595	39.7	597	39.8
	동의함	658	21.9	349	23.3	309	20.6
	매우 동의함	223	7.4	120	8.0	103	6.9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31	47.7	679	45.3	752	50.1
	동의하지 않음	1143	38.1	563	37.5	580	38.7
	동의함	351	11.7	214	14.3	137	9.1
	매우 동의함	75	2.5	44	2.9	3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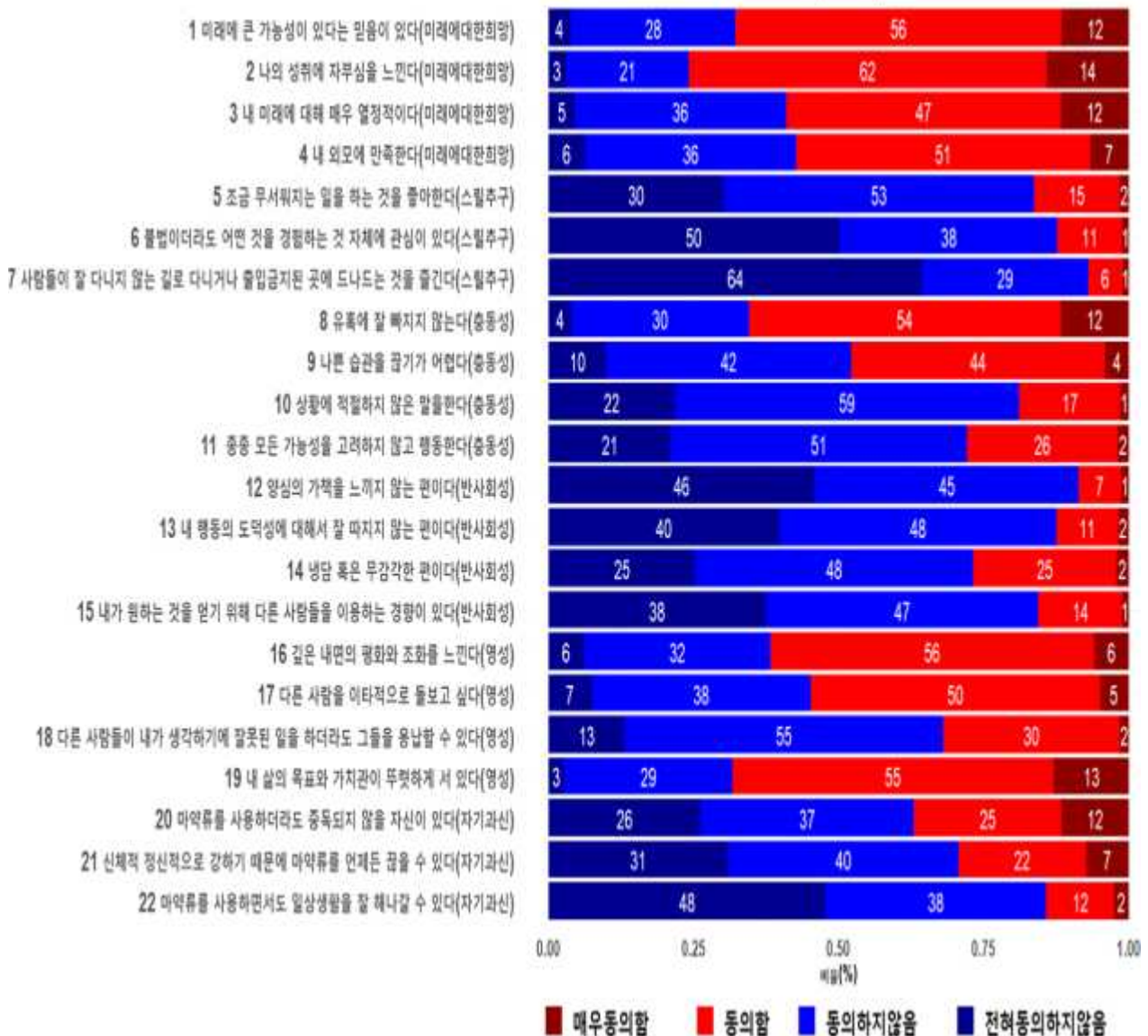


그림 3-6. 한국인의 성향(성인)

3) 여가 활용 및 만족도

- C5 주중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최대 세 가지 꼽아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2,681명(89.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휴식이 1,778명(59.3%),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등이 1,333명(44.4%)으로 나타났음.
- 주말의 경우에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2,458명(81.9%), 휴식이 1,814명(60.5%),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1,091명(36.4%) 순으로 나타남.

- 단, 여성의 경우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3순위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이 아닌 취미 및 자기 계발 활동이었음(주중 648명, 43.2%; 주말 545명, 36.3%).
- C6 주중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 남성은 혼자가 751명(50.1%), 가족이 699명(46.6%)인 반면, 여성은 가족이 780명(52.0%), 혼자가 717명(47.8%)으로 1위와 2위의 순서가 반대였음.
- 주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1위는 가족(남성 830명 55.3%; 여성 1,007명 67.1%)으로 같았으나, 남성은 2위가 혼자였던 반면(656명, 43.7%), 여성은 연인을 포함한 친구였음(627명, 41.8%).
- C7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주중은 평균 3.9시간(표준편차 3.1), 주말은 평균 7.5시간(표준편차 4.2)이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C8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290명(43.0%), 보통이 1,307명(43.6%),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403명(13.4%)으로 나타남.

표 3-31. 여가시간 활동(성인)

(단위: %)

	주중			주말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89.4	87.4	91.3	81.9	79.9	83.9
휴식(수면, 사우나 등)	59.3	54.4	64.1	60.5	56.4	64.5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44.4	54.6	34.3	36.4	47.6	25.1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36.9	30.5	43.2	32.2	28.1	36.3
스포츠 활동	17.1	20.9	13.4	16.4	21.3	11.5
스포츠 경기 관람	12.6	19.0	6.3	11.1	16.5	5.6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12.3	10.1	14.6	17.2	13.2	21.2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11.4	9.6	13.1	23.1	19.5	26.7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7.0	6.8	7.1	7.1	7.4	6.8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6.7	4.9	8.5	11.3	8.5	14.0
기타	2.9	1.9	4.0	2.9	1.6	4.3

표 3-32.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성인)

(단위: %)

	주중			주말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	49.3	69.3	52.0	61.2	55.3	67.1
혼자	48.9	55.2	47.8	40.8	43.7	37.9
친구(연인 포함)	34.0	48.5	35.9	39.5	37.3	41.8
직장동료	6.9	2.3	5.5	7.5	8.6	6.5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5.9	0.5	5.2	2.6	2.7	2.4
기타	0.4	0.2	0.6	0.4	0.3	0.5

표 3-33. 여가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주중	평균	3.9	3.8	4.0
	표준편차	3.1	3.1	3.1
주말	평균	7.5	7.4	7.5
	표준편차	4.2	4.3	4.2

표 3-34. 여가생활 만족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66	2.2	37	2.5	29	67.1
	불만족한다	337	11.2	175	11.7	162	37.9
	보통이다	1307	43.6	682	45.5	625	41.8
	만족한다	1132	37.7	541	36.1	591	6.5
	매우 만족한다	158	5.3	65	4.3	93	2.4

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중 중독에 대한 낙인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45명(94.9%)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44명(1.5%)이었음.
- D1(2) 마약류 사용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854명(95.1%)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3명(1.1%)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3)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2,816명(93.9%)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3명(1.4%)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1)~(3) 중독 자체에 대한 낙인은 평균 4.59/5.00점을 기록하였고, 표준편차는 0.55였음. 세 문항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 분율을 기록하여 마약류 사용 및 중독을 사회적인 규범 이탈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 D1(4)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1,646명(54.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530명(17.7%)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물음에는 1,669명(55.7%)이 긍정 응답하였으며, 518명(17.3%)은 부정 응답하였음.
- D1(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1,483명(49.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585명(19.5%)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4)~(6)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은 평균 3.51/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91이었음. 세 문항 가운데서는 마약류 사용자가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응답자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D1(7)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대한 인식을 살폈을 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1,443명(48.1%)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804명(26.8%)이었음.
- D1(8)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979명(32.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181명(39.4%)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 응답자가 6.8%p 더 많았음.
- D1(9)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117명(37.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988명(32.9%)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7)~(9)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인식은 평균 3.06/5.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

차는 0.94였음. 세 문항 가운데서는 처벌보다는 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 기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D1(10)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265명(8.9%)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2,360명(78.6%)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D1(11)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는 218명(7.2%)이 동의한 반면, 2,471명(82.4%)은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음.
- D1(12)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는 데는 1,798명(59.9%)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고, 313명(10.4%)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표 3-35.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	0.5	10	0.7	5	0.3
	동의하지 않음	29	1.0	18	1.2	11	0.7
	보통	111	3.7	88	5.9	23	1.5
	동의함	941	31.4	528	35.2	413	27.5
	매우 동의함	1904	63.5	856	57.1	1048	69.9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0.2	6	0.4	1	0.1
	동의하지 않음	26	0.9	22	1.5	4	0.3
	보통	113	3.8	91	6.1	22	1.5
	동의함	786	26.2	453	30.2	333	22.2
	매우 동의함	2068	68.9	928	61.9	1140	76.0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	0.1	3	0.2		
	동의하지 않음	40	1.3	31	2.1	9	0.6
	보통	141	4.7	101	6.7	40	2.7
	동의함	873	29.1	497	33.1	376	25.1
	매우 동의함	1943	64.8	868	57.9	1075	71.7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3	2.1	31	2.1	32	2.1
	동의하지 않음	467	15.6	197	13.1	270	18.0
	보통	824	27.5	408	27.2	416	27.7
	동의함	1032	34.4	535	35.7	497	33.1
	매우 동의함	614	20.5	329	21.9	285	19.0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3	2.8	29	1.9	54	3.6
	동의하지 않음	435	14.5	167	11.1	268	17.9
	보통	813	27.1	378	25.2	435	29.0
	동의함	1085	36.2	591	39.4	494	32.9
	매우 동의함	584	19.5	335	22.3	249	16.6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7	3.2	35	2.3	62	4.1
	동의하지 않음	488	16.3	204	13.6	284	18.9
	보통	932	31.1	447	29.8	485	32.3
	동의함	1003	33.4	527	35.1	476	31.7
	매우 동의함	480	16.0	287	19.1	193	12.9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61	8.7	169	11.3	92	6.1
	동의하지 않음	543	18.1	268	17.9	275	18.3
	보통	753	25.1	379	25.3	374	24.9
	동의함	930	31.0	442	29.5	488	32.5
	매우 동의함	513	17.1	242	16.1	271	18.1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3	12.1	215	14.3	148	9.9
	동의하지 않음	818	27.3	407	27.1	411	27.4
	보통	840	28.0	390	26.0	450	30.0
	동의함	771	25.7	382	25.5	389	25.9
	매우 동의함	208	6.9	106	7.1	102	6.8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18	10.6	163	10.9	155	10.3
	동의하지 않음	670	22.3	313	20.9	357	23.8
	보통	895	29.8	459	30.6	436	29.1
	동의함	897	29.9	451	30.1	446	29.7
	매우 동의함	220	7.3	114	7.6	106	7.1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79	52.6	664	44.3	915	61.0
	동의하지 않음	781	26.0	399	26.6	382	25.5
	보통	375	12.5	250	16.7	125	8.3
	동의함	203	6.8	153	10.2	50	3.3
	매우 동의함	62	2.1	34	2.3	28	1.9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47	54.9	713	47.5	934	62.3
	동의하지 않음	824	27.5	439	29.3	385	25.7
	보통	311	10.4	204	13.6	107	7.1
	동의함	160	5.3	115	7.7	45	3.0
	매우 동의함	58	1.9	29	1.9	29	1.9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1	4.0	72	4.8	49	3.3
	동의하지 않음	192	6.4	101	6.7	91	6.1
	보통	889	29.6	414	27.6	475	31.7
	동의함	1158	38.6	577	38.5	581	38.7
	매우 동의함	640	21.3	336	22.4	304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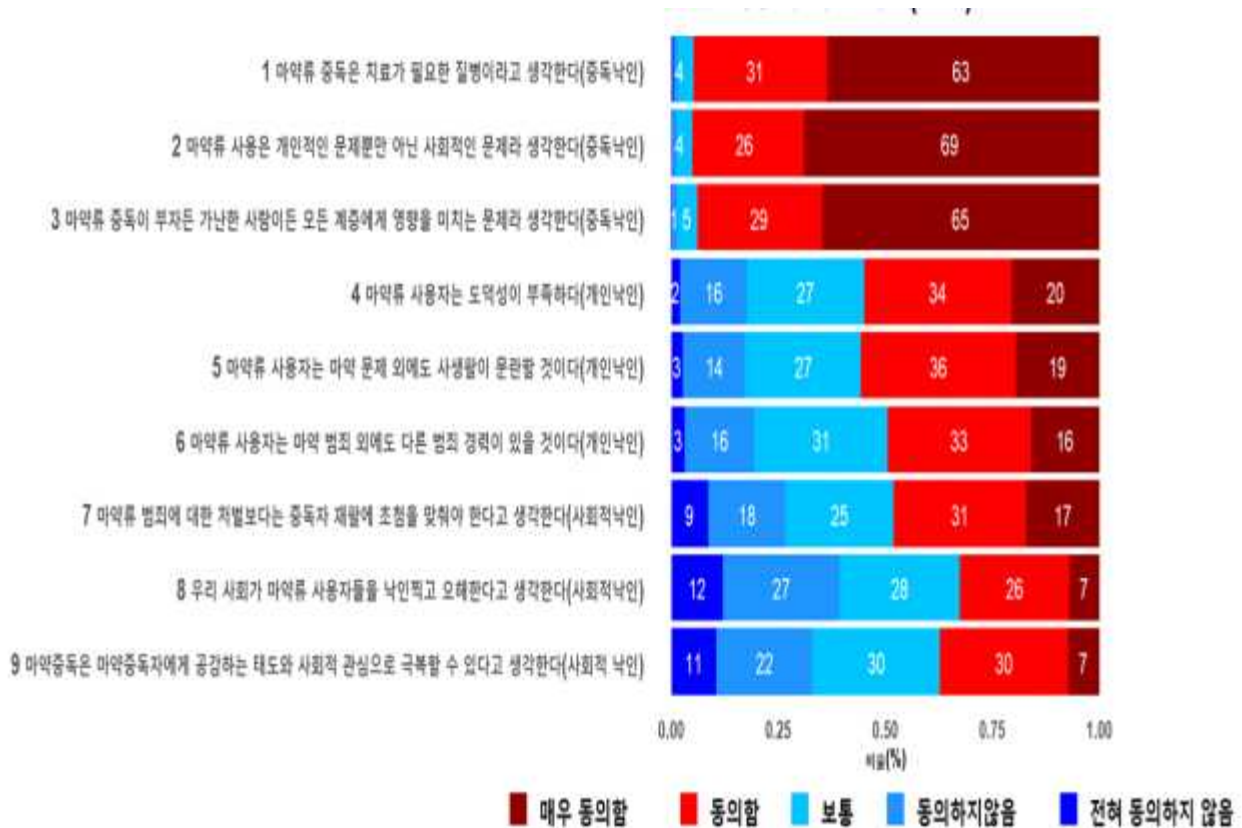


그림 3-7.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성인)

5. 사회자본

1) 사회적 지지

- E1(1)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1,309명(43.6%)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1,216명(40.5%)은 배우자가 도와줄 것이라 응답하였음.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여성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라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8명(5.9%)이었음.
- E1(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주변에 도와줄 사람으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1,878명(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358명(11.9%), 친척이나 친구가 335명(11.2%) 순이었음.
- E1(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 등이 1,368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배우자 730명(24.3%),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526명(17.5%) 순이었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는 265명(8.8%)이었음.

표 3-36. 사회적 지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배우자	1216	40.5	622	41.5	594	39.6
	부모님, 형제, 자매	1309	43.6	600	40.0	709	47.3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255	8.5	166	11.1	89	5.9
	기타	42	1.4	20	1.3	22	1.5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78	5.9	92	6.1	86	5.7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배우자	307	10.2	127	8.5	180	12.0
	부모님, 형제, 자매	1878	62.6	855	57.0	1023	68.2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335	11.2	246	16.4	89	5.9
	기타	122	4.1	72	4.8	50	3.3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358	11.9	200	13.3	158	10.5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배우자	730	24.3	425	28.3	305	20.3
	부모님, 형제, 자매	526	17.5	236	15.7	290	19.3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1368	45.6	603	40.2	765	51.0
	기타	111	3.7	67	4.5	44	2.9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265	8.8	169	11.3	9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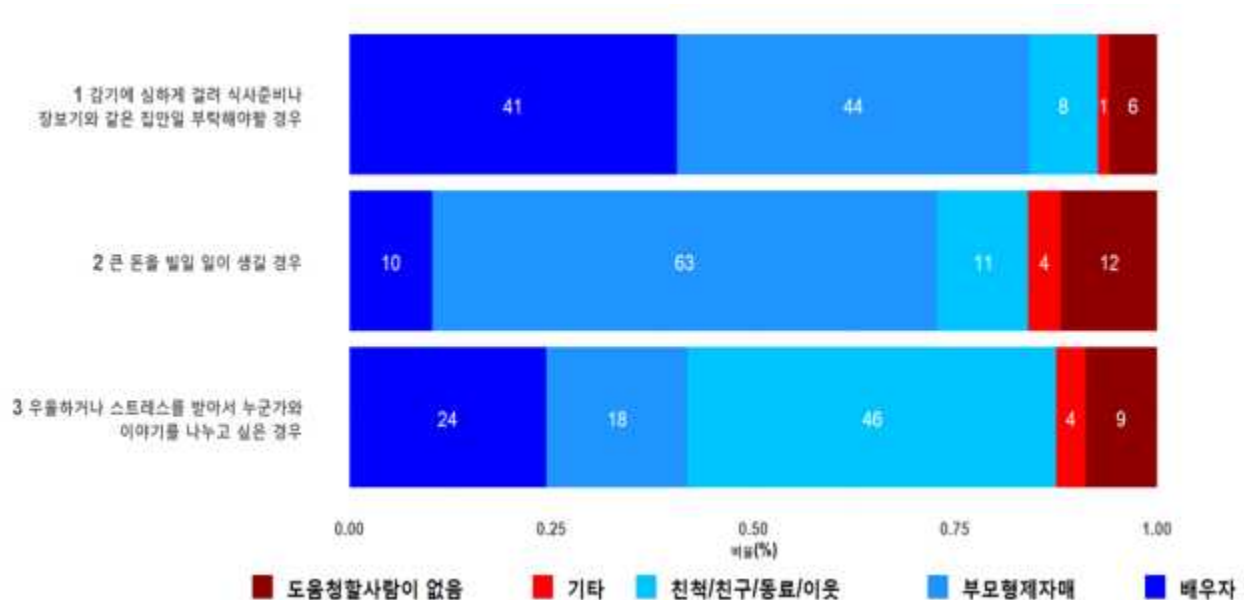


그림 3-8. 사회적 지지(성인)

2) 일반신뢰

- E2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63/10.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26이었음.
- E3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56/10.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97이었음.

표 3-37. 일반신뢰 평균과 표준편차(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수 있는가?	평균	4.6	4.8	4.5
	표준편차	2.3	2.2	2.3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가?	평균	5.6	5.4	5.7
	표준편차	2.0	2.0	1.9

3) 관계 만족

- E4(1) 부모님과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1,942명(64.7%)이었으며,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300명(10.0%)이었음.
- E4(2) 배우자 및 연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1,520명(48.6%)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42명(8.1%)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E4(3)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1,930명(64.4%)이 긍정 응답자였던 반면, 201명(6.7%)는 부정 응답자로 나타남.
- E4(4)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1,490명(49.7%)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 281명(9.3%)은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관계 만족도를 살폈을 때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8. 관계만족(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부모님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75	2.5	28	1.9	47	3.1
	만족하지 않음	225	7.5	105	7.0	120	8.0
	보통	665	22.2	337	22.5	328	21.9
	만족	1077	35.9	555	37.0	522	34.8
	매우 만족	865	28.8	425	28.3	440	29.3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93	3.1	50	3.3	43	2.9
배우자·연인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83	2.8	39	2.6	44	2.9
	만족하지 않음	159	5.3	85	5.7	74	4.9
	보통	525	17.5	258	17.2	267	17.8
	만족	777	25.9	409	27.3	368	24.5
	매우 만족	743	24.8	373	24.9	370	24.7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713	23.8	336	22.4	377	25.1
친구와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46	1.5	28	1.9	18	1.2
	만족하지 않음	155	5.2	78	5.2	77	5.1
	보통	821	27.4	417	27.8	404	26.9
	만족	1367	45.6	682	45.5	685	45.7
	매우 만족	563	18.8	260	17.3	303	20.2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48	1.6	35	2.3	13	0.9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67	2.2	33	2.2	34	2.3
	만족하지 않음	214	7.1	99	6.6	115	7.7
	보통	1127	37.6	559	37.3	568	37.9
	만족	1197	39.9	602	40.1	595	39.7
	매우 만족	293	9.8	150	10.0	143	9.5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02	3.4	57	3.8	45	3.0

4)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 E5 최근 12개월 사이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남성 57명 (3.8%), 여성 20명(1.3%)으로 총 77명(2.6%)이었음.

표 3-39.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최근 12개월 동안의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0번	2923	97.4	1443	96.2	1480	98.7
	1번	33	1.1	26	1.7	7	0.5
	2번	21	0.7	16	1.1	5	0.3
	3번	18	0.6	11	0.7	7	0.5
	4번	2	0.1	2	0.1		
	6번 이상	3	0.1	2	0.1	1	0.1

5)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

- E6(1) 응답자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이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912명(30.4%)이 신경쓰지 않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4명(67.1%)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2) 술에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853명(61.8%)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한 반면 1,093명(36.4%)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 E6(3) 대마초 사용에 관해서는 103명(3.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863명(95.5%)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4) 항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해서는 199명(6.6%)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한 반면, 2,754명(91.8%)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5) 마약사용에 관해서는 65명(2.2%)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914명(97.1%)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1) 응답자에게 한국 사회의 일반인이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2,045명(68.2%)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905명(30.2%)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2) 술에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411명(80.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답한 반면, 547명(18.2%)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 E7(3) 대마초 사용에 관해서는 453명(15.1%)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답한 반면, 2,513명(83.7%)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4)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해서는 613명(20.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344명(78.2%)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5) 마약사용에 대해서는 313명(10.5%)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657명(88.6%)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6)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1) 응답자의 주변 사람이 중독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흡연의 경우 몇 명 있음이 1,499명(50.0%), 꽤 많음이 1,193명(39.8%)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두 다가 83명(2.8%)이었고 한 명도 없음은 196명(6.5%)이었음.
- E8(2) 술을 마신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31명(1.0%)에 그쳤으며, 몇 명 있음이 651명(21.7%), 꽤 많음이 1,541명(51.4%), 거의 모두 다가 757명(25.2%)이었음.
- E8(3) 술에 취한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134명(4.5%), 몇 명 있는 경우는 1,216명(40.5%), 꽤 많음이 1,282명(42.7%), 거의 모두 다가 313명(10.4%)으로 나타남.
- E8(4) 대마초 흡연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593명(86.4%), 몇 명 있음이 93명(3.1%), 꽤 많음이 36명(1.2%), 거의 모두 다가 11명(0.4%)이었음.
- E8(5)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321명(77.4%), 몇 명 있음이 279명(9.3%), 꽤 많음이 51명(1.7%), 거의 모두 다가 16명(0.5%)이었음.

표 3-40.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 및 주변사람 반응(성인)

(단위: %)

		일반 사람			주변 사람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11.4	9.3	13.5	24.4	20.9	27.9
	허용하지 않음	18.8	16.7	20.9	42.7	38.3	47.1
	신경쓰지 않음	58.2	59.2	57.1	17.5	22.0	13.0
	허용함	9.7	12.9	6.4	12.5	15.7	9.3
	권장함	0.3	0.5	0.1	0.4	0.7	0.1
	모름	1.7	1.4	1.9	2.5	2.5	2.5
2) 술에 취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5.1	5.5	4.7	8.3	8.7	7.9
	허용하지 않음	13.1	12.6	13.6	28.1	27.0	29.3
	신경쓰지 않음	61.7	61.1	62.3	26.1	28.8	23.4
	허용함	17.7	18.7	16.7	35.0	32.8	37.2
	권장함	1.0	0.8	1.1	0.7	0.8	0.5
	모름	1.4	1.3	1.5	1.8	1.9	1.7
3) 대마초를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55.9	54.1	57.7	80.2	77.5	82.8
	허용하지 않음	27.8	27.3	28.4	15.3	15.7	14.8
	신경쓰지 않음	13.8	15.5	12.1	2.0	3.1	0.8
	허용함	1.1	1.7	0.5	1.1	1.5	0.7
	권장함	0.2	0.3		0.3	0.5	0.1
	모름	1.1	1.0	1.3	1.1	1.5	0.7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53.4	56.8	49.9	66.5	70.3	62.8
	허용하지 않음	24.8	23.3	26.3	25.3	21.4	29.1
	신경쓰지 않음	18.5	16.3	20.7	4.1	3.9	4.3
	허용함	1.5	1.9	1.1	2.2	2.5	2.0
	권장함	0.4	0.4	0.3	0.3	0.4	0.2
	모름	1.4	1.3	1.6	1.6	1.6	1.5
5) 마약 (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72.2	70.2	74.2	87.2	85.4	89.0
	허용하지 않음	16.4	16.6	16.1	9.9	10.1	9.8
	신경쓰지 않음	9.4	10.5	8.3	1.0	1.7	0.3
	허용함	0.8	1.5	0.1	1.0	1.5	0.5
	권장함	0.3	0.4	0.1	0.2	0.4	0.1
	모름	1.0	0.9	1.1	0.7	1.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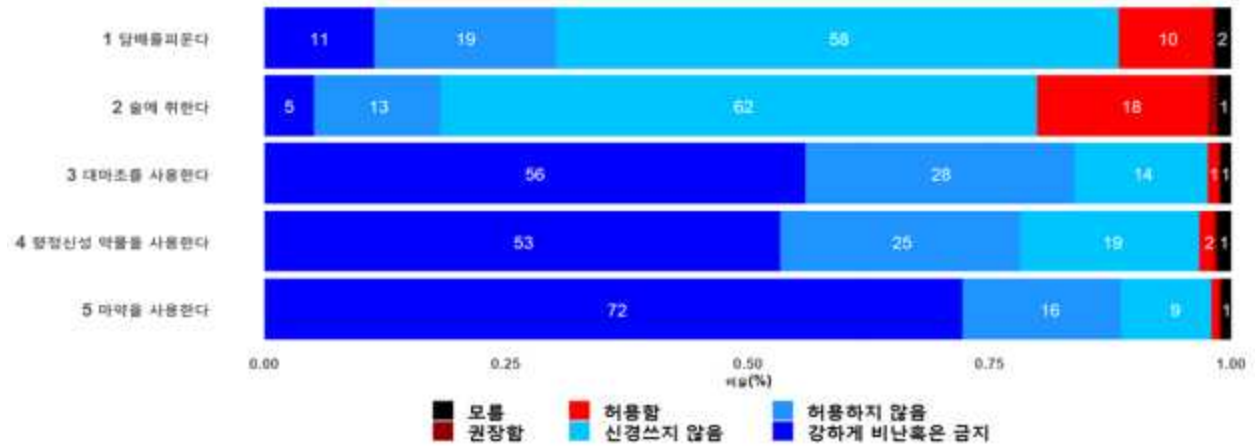


그림 3-9.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 반응(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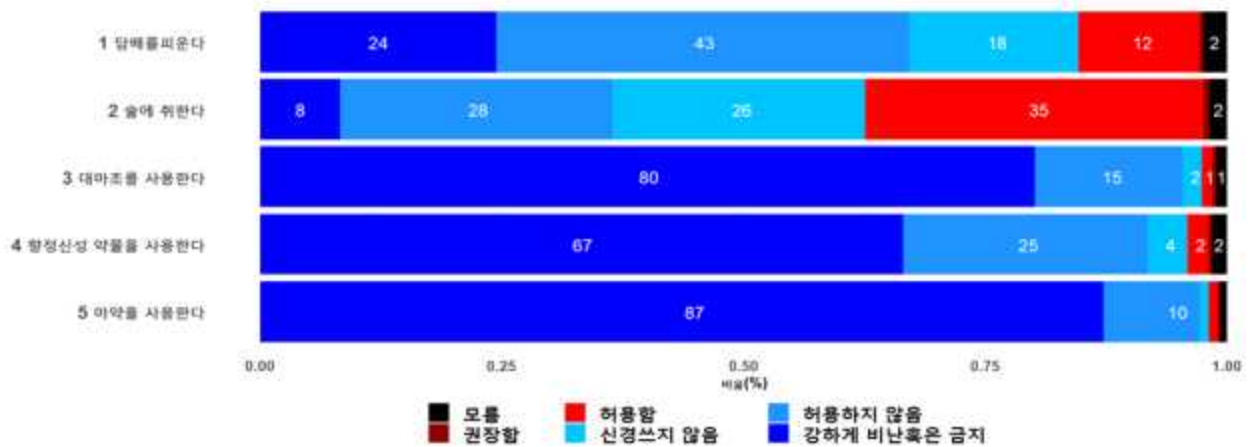


그림 3-10.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주변사람 반응(성인)

표 3-41.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196	6.5	43	2.9	153	10.2
	몇 명 있음	1499	50.0	667	44.5	832	55.5
	꽤 많음	1193	39.8	726	48.4	467	31.1
	거의 모두 다	83	2.8	52	3.5	31	2.1
	모름	29	1.0	12	0.8	17	1.1
2) 술을 마신다	한 명도 없음	31	1.0	19	1.3	12	0.8
	몇 명 있음	651	21.7	277	18.5	374	24.9
	꽤 많음	1541	51.4	818	54.5	723	48.2
	거의 모두 다	757	25.2	375	25.0	382	25.5
	모름	20	0.7	11	0.7	9	0.6
3) 술에 취한다	한 명도 없음	134	4.5	47	3.1	87	5.8
	몇 명 있음	1216	40.5	565	37.7	651	43.4
	꽤 많음	1282	42.7	703	46.9	579	38.6
	거의 모두 다	313	10.4	161	10.7	152	10.1
	모름	55	1.8	24	1.6	31	2.1
4) 대마초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2593	86.4	1287	85.8	1306	87.1
	몇 명 있음	93	3.1	59	3.9	34	2.3
	꽤 많음	36	1.2	25	1.7	11	0.7
	거의 모두 다	11	0.4	9	0.6	2	0.1
	모름	267	8.9	120	8.0	147	9.8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2321	77.4	1220	81.3	1101	73.4
	몇 명 있음	279	9.3	96	6.4	183	12.2
	꽤 많음	51	1.7	23	1.5	28	1.9
	거의 모두 다	16	0.5	12	0.8	4	0.3
	모름	333	11.1	149	9.9	184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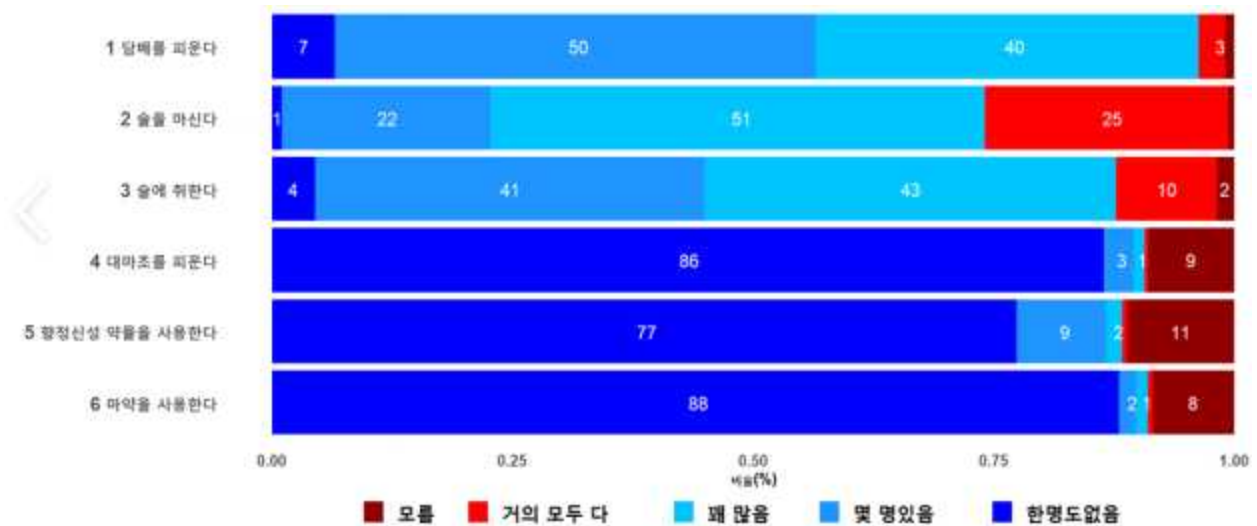


그림 3-11. 주위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성인)

6. 중독 물질 사용 경험

1) 흡연 및 음주

- F1 흡연 여부를 물었을 때 508명(16.9%)이 매일, 132명(4.4%)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하여 총 640명(21.3%)이 현재흡연자였음. 남성이 510명(34.0%), 여성이 130명(8.6%)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25.4%p였음.
-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남녀 모두 쉼련이 가장 많았음. 설문에 참여한 흡연자 640명 중 459명이 쉼련을, 132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174명은 쉼련형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함.
- F3 음주빈도의 경우 남성 응답자 중 1,280명(85.3%)이 연간음주자였으며 590명(39.3%)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하였음.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1,182명(78.8%)이 연간음주자였으며 358명(23.8%)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함.
- F4 1회 음주량은 남성은 소주 1병 가장이라는 응답이 249명(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맥주 한 캔 정도라는 응답이 418명(35.4%)로 가장 많았음. 회당 소주 1병 이상 음주자는 남성 625명(41.7%), 여성 285명(19.0%)이었음.

표 3-42. 흡연과 음주 행동(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현재 흡연 유무	매일 피운다	508	16.9	419	27.9	89	5.9
	가끔 피운다	132	4.4	91	6.1	41	2.7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536	17.9	382	25.5	154	10.3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824	60.8	608	40.5	1216	81.1
흡연하는 담배 종류	궐련(일반 담배)	459	100.0	374	100.0	85	100.0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132	100.0	98	100.0	34	100.0
	궐련형 전자담배	174	100.0	143	100.0	31	100.0
평소 음주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2	100.0	1	100.0	1	100.0
	한 달에 1번 미만	538	17.9	220	14.7	318	21.2
	한 달에 1번 정도	616	20.5	256	17.1	360	24.0
	한 달에 2-3번 정도	358	11.9	166	11.1	192	12.8
	일주일에 1번 정도	540	18.0	268	17.9	272	18.1
	일주일에 2-3번 정도	385	12.8	230	15.3	155	10.3
	일주일에 4-5번 이상	411	13.7	255	17.0	156	10.4
1회 음주량	소주 1잔(=맥주 1캔)	152	5.1	105	7.0	47	3.1
	소주 2잔	609	24.7	191	14.9	418	35.4
	소주 3잔(=맥주 2캔)	138	5.6	67	5.2	71	6.0
	소주 4잔(=맥주 3캔)	427	17.3	193	15.1	234	19.8
	소주 5잔	180	7.3	85	6.6	95	8.0
	소주 6잔(=맥주 4캔)	82	3.3	52	4.1	30	2.5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116	4.7	67	5.2	49	4.1
	소주 1병 반(=맥주 8캔)	381	15.5	249	19.5	132	11.2
	소주 2병(=맥주 10캔)	264	10.7	179	14.0	85	7.2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91	7.8	135	10.5	56	4.7
	소주 3병(=맥주 15캔)	28	1.1	21	1.6	7	0.6
	소주 3병 반(=맥주 18캔)	31	1.3	29	2.3	2	0.2
	소주 4병(=맥주 20캔)	6	0.2	5	0.4	1	0.1
	소주 5병 이상	6	0.2	4	0.3	2	0.2

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F5 총 16종의 마약류 물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남성의 경우 대마초 1,404명(93.6%), 코카인 1,385명(92.3%), 헤로인 1,202명(80.1%)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여성은 대마초 1,447명

(96.5%), 코카인 1,426명(95.1%),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 1,329명(88.6%)의 인지도가 높았음.

- 전체적으로 여성의 마약류 물질 인지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의 경우 여성은 764명(50.9%)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554명(36.9%)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14%p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율 차이가 가장 큰 마약류 물질은 LSD 및 기타 환각제였음(남성 671명, 44.7%; 여성 582명, 38.8%).

표 3-43. 중독물질 인지 여부(성인)

(‘예’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2851	95.0	1404	93.6	1447	96.5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2510	83.7	1181	78.7	1329	88.6
3) LSD 및 기타 환각제	1253	41.8	671	44.7	582	38.8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2187	72.9	1055	70.3	1132	75.5
5) 코카인(크랙 등)	2811	93.7	1385	92.3	1426	95.1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2488	82.9	1202	80.1	1286	85.7
7) 헤로인	2573	85.8	1286	85.7	1287	85.8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2123	70.8	1072	71.5	1051	70.1
9) GHB(물병 등)	2110	70.3	1018	67.9	1092	72.8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174	5.8	118	7.9	56	3.7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610	20.3	274	18.3	336	22.4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1318	43.9	554	36.9	764	50.9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2714	90.5	1304	86.9	1410	94.0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638	21.3	299	19.9	339	22.6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컹크, 조커 등)	476	15.9	273	18.2	203	13.5
16) 마약버섯	394	13.1	212	14.1	182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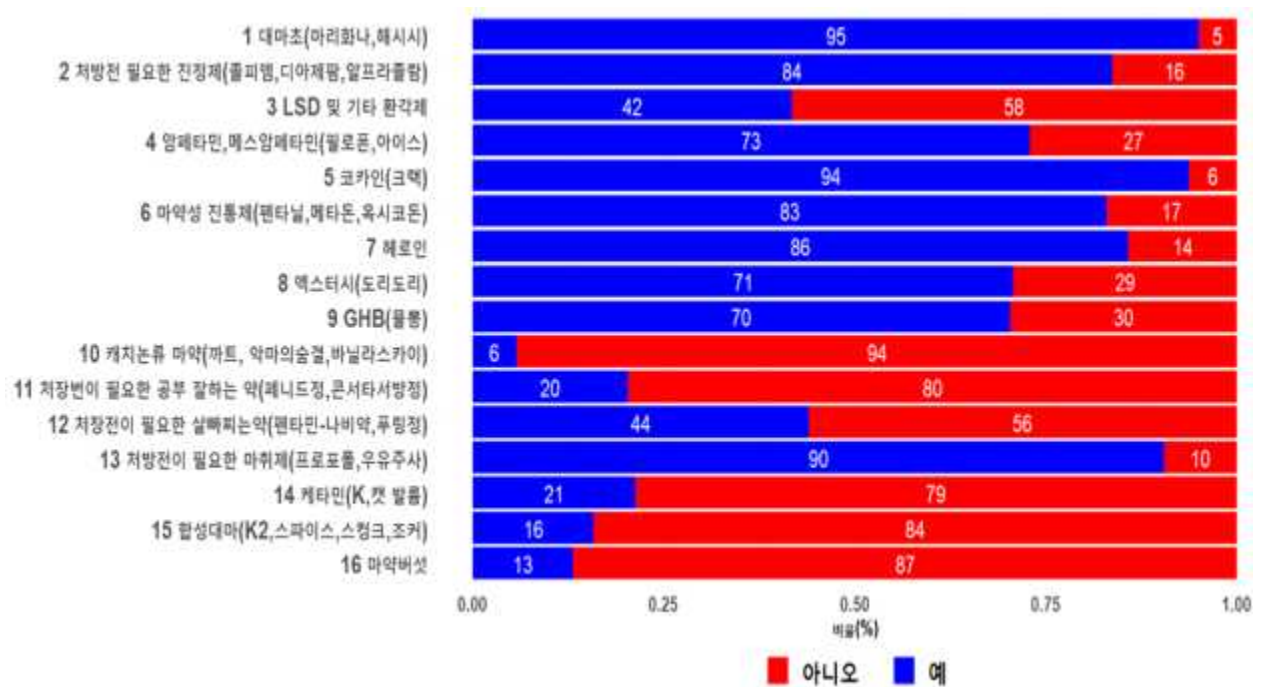


그림 3-12. 중독물질 인지 여부(성인)

3)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 F6 인지 여부를 물었던 각종 마약류 물질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4명(3.1%)으로, 남성 53명(3.5%), 여성 41명(2.7%)이었음.
- F7-1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자는 209명(7.0%)으로 남성 52명(3.5%), 여성 157명(10.5%)이었음.
- ‘공부 잘하는 약’ 사용 경험자는 45명(1.5%)으로 남성 30명(2.0%), 여성 15명(1.0%)이었음.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사용 경험자는 27명(0.9%)으로 남성 20명(1.3%), 여성 7명(0.5%)이었음.
-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경험자는 88명(2.9%)으로 남성 54명(3.6%), 여성 34명(2.3%)이었음.
-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10명(0.3%)으로 남성 8명(0.5%), 여성 2명(0.1%)이었음.
- F7-2 마약류 물질의 주변 사람 사용 목격 경험을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목격자는 425명(14.2%)으로, 남성 123명(8.2%), 여성 302명(20.1%)이었음.
- ‘공부 잘하는 약’ 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162명(5.4%)으로, 남성이 69명(4.6%), 여성이 93명(6.2%)이었음.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56명(1.9%)으로 남성 32명(2.1%), 여성 24명(1.6%)이었음.
-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124명(4.1%)으로 남성 78명(5.2%), 여성 46명(3.1%)이었음.
-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목격자는 19명(0.6%)으로, 남성이 16명(1.1%), 여성이 3명(0.2%)이었음.
- F8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등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의 경우 응답자 중 55명(1.8%)가 1회 이상 흡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41명(2.7%), 여성은 14명(0.9%)이었음.
- F9 대마초 혹은 해시시 평생 흡연 경험의 경우 44명(1.5%)이 1회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32명(2.1%), 여성은 12명(0.8%)이었음.
-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과 관련된 문항들 중 F6에 해당하는 각종 마약류 물질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F7-1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물질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F8에 해당하는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이 있거나, F9에 해당하는 대마류 평생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386명(12.9%)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살 빼는 약의 사용으로 인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기록되었음.

표 3-44.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음	2614	87.1	1334	88.9	1280	85.3
	사용함	386	12.9	166	11.1	220	14.7

표 3-45. 중독물질 사용 여부(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94	3.1	53	3.5	41	2.7
	없다	2906	96.9	1447	96.5	1459	97.3

중독물질: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표 3-46. 중독물질 별 본인 및 주변사람 사용 여부(성인)

(‘있다’고 응답한 기준)

	본인 사용			주변 사람 사용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살 빼는 약	7.0	3.5	10.5	14.2	8.2	20.1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5	2.0	1.0	5.4	4.6	6.2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0.9	1.3	0.5	1.9	2.1	1.6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2.9	3.6	2.3	4.1	5.2	3.1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0.3	0.5	0.1	0.6	1.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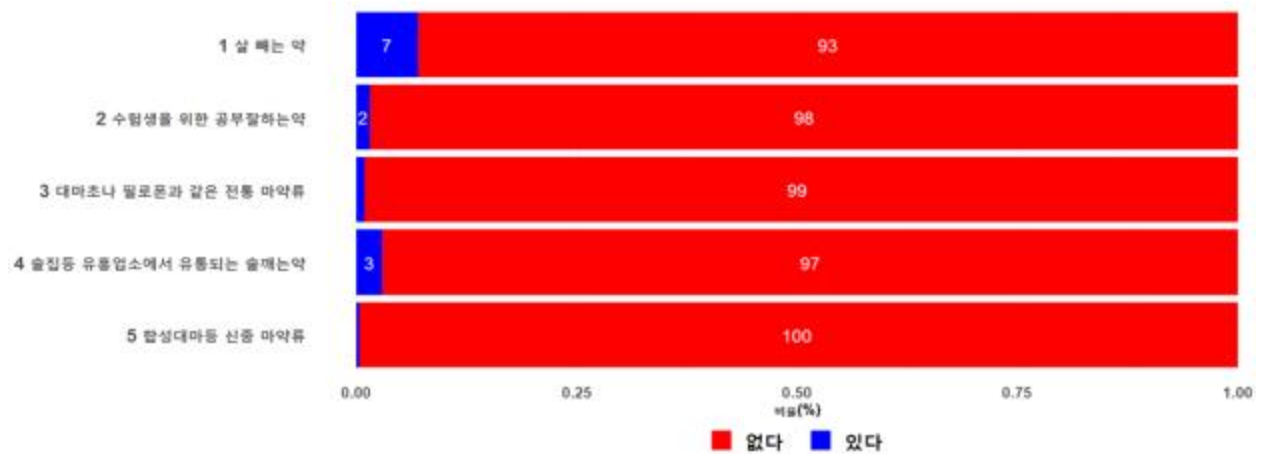


그림 3-13. 중독물질 별 본인 사용 여부(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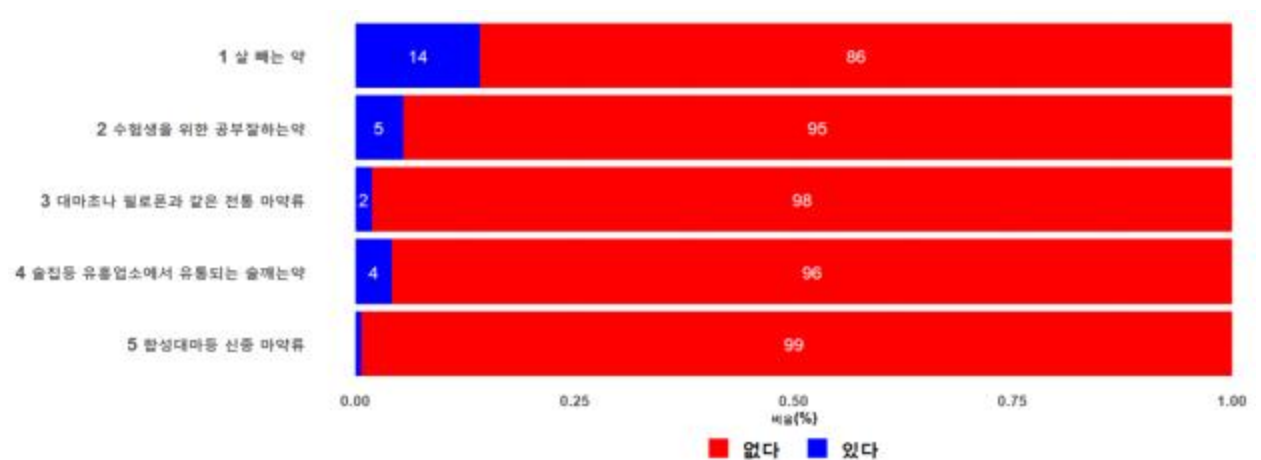


그림 3-14. 중독물질 별 주변사람 사용 여부(성인)

표 3-47. 흡입제, 대마초 평생 사용 경험(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흡입제(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평생 흡입횟수	전혀 없음	2945	98.2	1459	97.3	1486	99.1
	1~2회	37	1.2	26	1.7	11	0.7
	3~5회	15	0.5	13	0.9	2	0.1
	10회 이상	3	0.1	2	0.1	1	0.1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 평생 흡입횟수	전혀 없음	2956	98.5	1468	97.9	1488	99.2
	1~2회	27	0.9	18	1.2	9	0.6
	3~5회	15	0.5	12	0.8	3	0.2
	6~9회	2	0.1	2	0.1		

4) 마약류 물질 사용자의 성향

- 한 가지 이상의 마약류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혐의의 마약사용자(F6 기준)와, 살 빼는 약과 공부 잘 하는 약 사용 경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F6, F7-1, F8, F9 기준)가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함.
-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혐의의 마약사용자를 살폈을 때, 비사용자와 사용자의 성향차이는 스릴추구와 반사회성에서 나타남. 마약사용자는
- 비사용자에 비해 스릴추구 점수가 높았으며(diff=6.23, $p<0.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또한 반사회성 점수 역시 3.70점 가량 높게 기록되었으며 이 또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
- 앞선 조사 결과들과 대비해볼 때, 대중은 충동이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마약사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규범 위반 자체에 대한 쾌감과 기대를 갖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3-48. 마약사용자의 문항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비사용자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2906		94		-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68.82	17.56	70.74	18.20	-1.043	0.297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71.68	16.89	72.87	17.45	-0.673	0.501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66.59	18.52	65.16	19.47	0.738	0.460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64.37	17.76	66.22	17.47	-0.998	0.318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46.80	17.54	50.80	19.90	-2.165	0.030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40.58	17.97	48.14	20.49	-3.996	<0.001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35.68	16.24	42.82	18.19	-4.177	<0.001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68.30	17.95	68.35	16.47	-0.028	0.978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60.49	18.06	60.90	18.89	-0.220	0.826

	비사용자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49.49	16.68	53.99	19.50	-2.209	0.029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52.09	18.39	54.79	16.51	-1.403	0.161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40.86	16.79	46.01	18.80	-2.914	0.004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43.50	17.85	47.07	18.64	-1.906	0.057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50.85	19.08	52.13	19.28	-0.638	0.524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44.67	18.03	49.47	19.04	-2.536	0.011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65.35	17.32	66.76	16.55	-0.777	0.438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63.10	17.61	62.23	19.31	0.469	0.639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55.09	16.87	55.05	17.42	0.022	0.983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69.61	17.40	69.95	17.42	-0.182	0.855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55.64	24.23	54.79	20.50	0.396	0.693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51.44	22.75	52.66	20.24	-0.515	0.607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42.07	19.35	47.87	18.21	-3.036	0.003

표 3-49. 마약사용자의 지표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비사용자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2906		94		-	
미래에 대한 희망	67.87	14.49	68.75	14.11	-0.582	0.560
스릴추구	41.02	14.04	47.25	16.37	-3.647	<0.001
충동성	54.69	12.23	56.58	12.75	-1.472	0.141
반사회성	44.97	13.57	48.67	13.84	-2.600	0.012
영성	63.29	11.14	63.50	9.67	-0.179	0.858
자기 과신	49.72	18.80	51.77	16.25	-1.201	0.232

-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를 살폈을 때, 협의의 마약사용자에서보다 더욱 너른 범위에서 비사용자와 사용자의 성향차이가 나타남. 광범위한 기준에서 마약사용자는 스릴추구, 충동성, 반사회성, 자기 과신의 네 측면에서 비사용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광범위한 기준에서 마약사용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영성 점수의 차이를 비사용자와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의 사용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계층이나 집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격을 지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추후 더욱 세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이론인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에 따르면, 일탈자들은 일탈행위를 저지른 후에 자신들이 원래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사후에 정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마약류 사용자들이 마약류 사용을 자신이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고 스릴을 추구하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 미 임

표 3-5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의 문항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비사용자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2614		386		-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68.77	17.60	69.62	17.43	-0.887	0.375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71.75	16.86	71.50	17.30	0.266	0.790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66.68	18.55	65.67	18.56	0.994	0.320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64.57	17.66	63.47	18.37	1.131	0.258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46.60	17.42	49.09	18.88	-2.591	0.010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39.99	17.54	46.44	20.67	-5.830	<0.001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35.25	15.79	40.35	19.13	-4.989	<0.001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68.81	17.69	64.83	18.95	3.885	<0.001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60.30	17.95	61.85	18.91	-1.575	0.115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49.06	16.52	53.50	18.13	-4.536	<0.001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51.67	18.31	55.57	18.24	-3.916	<0.001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40.51	16.67	44.49	17.85	-4.341	<0.001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43.09	17.68	47.22	18.82	-4.247	<0.001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50.68	19.12	52.33	18.75	-1.589	0.112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44.05	17.69	50.00	19.82	-6.069	<0.001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65.45	17.37	65.03	16.83	0.445	0.656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63.26	17.57	61.85	18.21	1.458	0.145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54.93	16.87	56.15	16.98	-1.323	0.186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69.76	17.41	68.72	17.31	1.098	0.272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55.32	24.28	57.64	22.93	-1.769	0.077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51.15	22.68	53.69	22.53	-2.059	0.040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41.52	19.03	47.22	20.63	-5.431	<0.001

표 3-51.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사용자의 지표별 성향 점수(성인, 100점 척도)

	사용X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2614		386		-	
미래에 대한 희망	67.94	14.55	67.57	14.01	0.473	0.636
스릴추구	40.61	13.59	45.29	16.46	-5.319	<0.001
충동성	54.31	12.15	57.77	12.64	-5.211	<0.001
반사회성	44.58	13.46	48.51	13.98	-5.325	<0.001
영성	63.65	11.16	62.94	10.66	0.680	0.496
자기 과신	49.33	18.80	52.85	17.92	-3.456	0.001

5)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 F10 1년 이내에 각종 중독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가능성이 있거나 매우 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748명(24.9%)이었음. 남성은 565명(37.6%), 여성은 183명(12.2%)으로 나타남.
- 음주의 경우 응답자 중 2,403명(80.1%)이 1년 이내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의 경우 1,248명(83.2%), 여성은 1,155명(77.0%)이 긍정 응답함.
-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95명(3.1%)이 사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남성은 41명(2.8%), 여성은 54명(3.6%)으로 나타남.
- 대마초 흡연의 경우 22명(0.8%)이 1년 이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남성 17명(1.1%), 여성 5명(0.3%)이 해당됨.
- 본드 및 부탄가스 흡입은 15명(0.5%)이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은 13명(0.9%), 여성은 2명(0.1%)이 긍정 응답함.
- 마약사용의 경우 17명(0.6%)이 1년 이내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은 14명(0.9%), 여성은 3명(0.2%)이 긍정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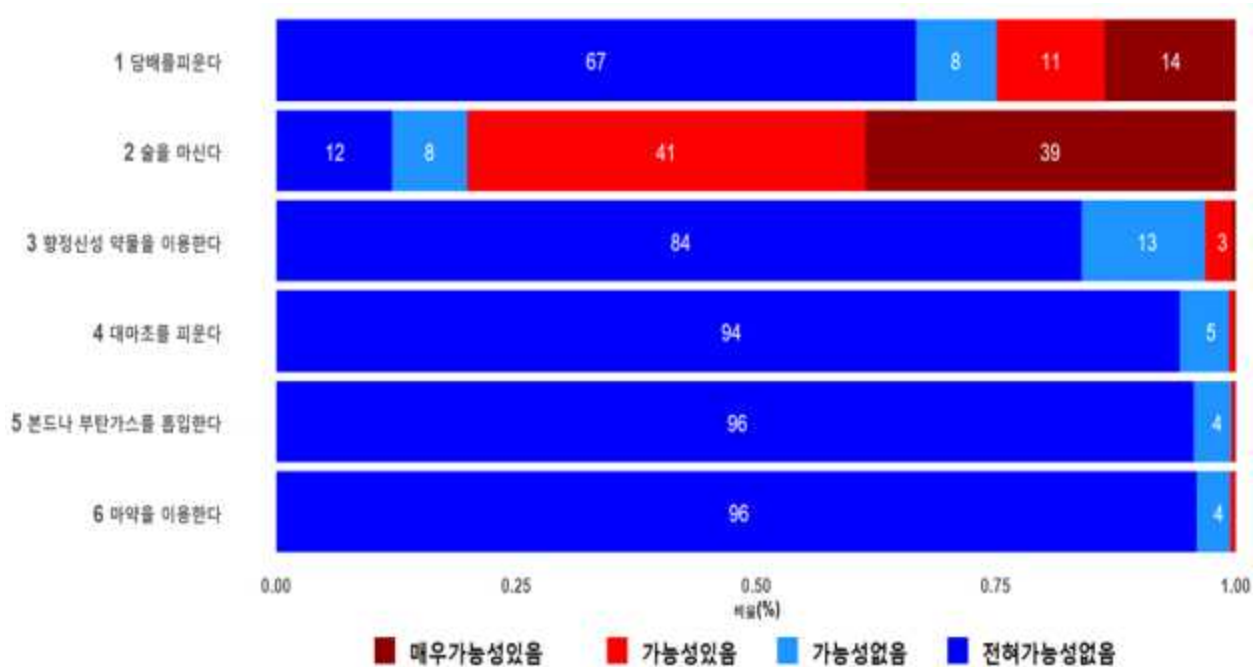


그림 3-15.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7.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G1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557명(18.6%)으로, 남성 279명(18.6%), 여성 278명(18.5%)이 긍정 응답하여 성별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G2(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 여부 중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 제공의 경우 343명(11.4%)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195명(13.0%), 여성은 148명(9.9%)이 긍정 응답함.
- G2(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홍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1,072명(35.7%)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32명(35.5%), 여성은 540명(36.0%)이 긍정 응답함.
- G2(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309명(10.3%)이 긍정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145명(9.7%), 여성은 164명(10.9%)이 긍정 응답함.
- G2(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업 인지 여부의 경우 긍정응답자가 252명(8.4%)이었으며, 남성 138명(9.2%), 여성 114명(7.6%)이 긍정 응답하였음.

표 3-52.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마약퇴치 본부 인지여부	알고 있다	557	18.6	279	18.6	278	18.5
	모른다	2443	81.4	1221	81.4	1222	81.5
마약퇴치운동 본부의 활동 중 접해본 것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343	11.4	195	13.0	148	9.9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1072	35.7	532	35.5	540	36.0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309	10.3	145	9.7	164	10.9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252	8.4	138	9.2	114	7.6

표 3-53.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성인)

		전체 (N=3,000)		남성 (N=1,500)		여성 (N=1,500)	
		명	%	명	%	명	%
전체		3000	100.0	1500	100.0	1500	100.0
마약퇴치 본부 인지여부	알고 있다	557	18.6	279	18.6	278	18.5
	모른다	2443	81.4	1221	81.4	1222	81.5
마약퇴치운 동본부의 활동 중 접해본 것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343	11.4	195	13.0	148	9.9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1072	35.7	532	35.5	540	36.0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309	10.3	145	9.7	164	10.9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252	8.4	138	9.2	114	7.6

3절. 마약류 폐해에 대한 청소년 조사 결과

가. 청소년 연구대상자 특성

- 14세~18세의 청소년,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할당
-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 총 유효 응답자수 2,000명
- 조사 시기: 2023년 9월~10월

표 3-5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1000	100.0	1000	100.0		
	여성	1000	100.0			1000	100.0
연령	14	193	9.7	111	11.1	82	8.2
	15	420	21.0	201	20.1	219	21.9
	16	498	24.9	248	24.8	250	25.0
	17	480	24.0	247	24.7	233	23.3
	18	409	20.5	193	19.3	216	21.6
학년	초등학교 6학년	1	0.1	1	0.1		
	중학교 1학년	3	0.2	2	0.2	1	0.1
	중학교 2학년	197	10.0	110	11.1	87	8.9
	중학교 3학년	405	20.6	196	19.8	209	21.4
	고등학교 1학년	490	24.9	246	24.8	244	25.0
	고등학교 2학년	471	24.0	245	24.7	226	23.2
	고등학교 3학년	399	20.3	190	19.2	209	21.4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1884	94.2	938	93.8	946	94.6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10	0.5	6	0.6	4	0.4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27	1.4	19	1.9	8	0.8
	기숙사	75	3.8	35	3.5	40	4.0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4	0.2	2	0.2	2	0.2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가구원 수	혼자 살고 있다	25	1.3	11	1.1	14	1.4
	2명	134	6.7	67	6.7	67	6.7
	3명	460	23.0	249	24.9	211	21.1
	4명	948	47.4	477	47.7	471	47.1
	5명 이상	433	21.7	196	19.6	237	23.7
가구형태	단독주택	231	11.6	125	12.5	106	10.6
	아파트	1463	73.2	739	73.9	724	72.4
	연립 · 다세대주택	292	14.6	130	13.0	162	16.2
	기타(보육시설 등)	14	0.7	6	0.6	8	0.8
주택소유	부모님 소유	1294	64.7	657	65.7	637	63.7
	전세	403	20.2	200	20.0	203	20.3
	보증금 있는 월세	250	12.5	117	11.7	133	13.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30	1.5	15	1.5	15	1.5
	무상임대	23	1.2	11	1.1	12	1.2
자녀 유무	있다	1187	39.6	602	40.1	585	39.0
	없다	1813	60.4	898	59.9	915	61.0
아버지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50	2.5	21	2.1	29	2.9
	중학교 졸업	147	7.4	79	7.9	68	6.8
	고등학교 졸업	622	31.1	313	31.3	309	30.9
	전문대 졸업	163	8.2	79	7.9	84	8.4
	(4년제) 대학교 졸업	841	42.1	426	42.6	415	41.5
	대학원 이상	177	8.9	82	8.2	95	9.5
어머니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19	1.0	14	1.4	5	0.5
	중학교 졸업	43	2.2	26	2.6	17	1.7
	고등학교 졸업	694	34.7	327	32.7	367	36.7
	전문대 졸업	197	9.9	93	9.3	104	10.4
	(4년제) 대학교 졸업	926	46.3	480	48.0	446	44.6
	대학원 이상	121	6.1	60	6.0	61	6.1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가정의 경제상태	상	115	5.8	75	7.5	40	4.0
	중상	546	27.3	284	28.4	262	26.2
	중	954	47.7	468	46.8	486	48.6
	중하	335	16.8	148	14.8	187	18.7
	하	50	2.5	25	2.5	25	2.5
가족 외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경험	없다	1642	82.1	830	83.0	812	81.2
	있다	358	17.9	170	17.0	188	18.8

나. 청소년 본조사 결과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청소년의 70.1%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
- A2 84.4%는 한국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현 정부에서 마약 관련 이슈를 중요시하고, 마약 관련 보도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3 84.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마약 접근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A4 절반 이상의 청소년(61.0%)이 마약류의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2.0%가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고 하여 절대 다수가 마약류의 이름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5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과 ‘마약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각각 83.9%, 96.6%). 그런데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75.0%)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라는 용어 자체가 청소년에게 생소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임.

2)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 A6 청소년의 67.6%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A7 마약류 인지도가 높은 것에 비해 본인이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9.9%로 낮았음.
- A8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5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절반 정도만 마약류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A9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88.6%가 공감하였음.
- A10 마약 김밥 등의 용어가 마약류 친숙도를 높인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정도였음(48.6%).
-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에는 81.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2~A13 마약류 중독 증상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1.8%인 반면, 마약류 예방 실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행 의사가 있는 경우는 75.8%였음. 예방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A14 주변 사람에게 마약류 예방 행동에 영향을 줄 의향이 경우는 70.6%로 본인의 예방행동 의사보다 더 낮았음. 청소년들이 개인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 및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본인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들의 실천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01점으로, 공감도의 3.88점, 인식도의 3.34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음.

표 3-55.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통계량(청소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식도 (A6, A7, A8의 평균)	2000	1.00	5.00	3.34	0.71
공감도 (A9, A10, A11의 평균)	2000	1.00	5.00	3.88	0.57
실천도 (A12, A13, A14의 평균)	2000	1.00	5.00	4.01	0.69

표 3-56. 마약류에 대한 인식(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239	12.0	140	14.0	99	9.9
	그렇지 않다	1162	58.1	542	54.2	620	62.0
	그렇다	398	19.9	213	21.3	185	18.5
	매우 그렇다	68	3.4	40	4.0	28	2.8
	모르겠다	133	6.7	65	6.5	68	6.8
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0.4	5	0.5	3	0.3
	심각하지 않다	215	10.8	117	11.7	98	9.8
	심각하다	1000	50.0	476	47.6	524	52.4
	매우 심각하다	687	34.4	358	35.8	329	32.9
	모르겠다	90	4.5	44	4.4	46	4.6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44	2.2	25	2.5	19	1.9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276	13.8	158	15.8	118	11.8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1162	58.1	571	57.1	591	59.1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518	25.9	246	24.6	272	27.2
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82	4.1	38	3.8	44	4.4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639	32.0	293	29.3	346	34.6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1220	61.0	624	62.4	596	59.6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59	3.0	45	4.5	14	1.4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전혀 위험하지 않다	15	0.8	11	1.1	4	0.4
	위험하지 않다	197	9.9	83	8.3	114	11.4
	위험하다	1049	52.5	518	51.8	531	53.1
	매우 위험하다	628	31.4	323	32.3	305	30.5
	잘 모르겠다	111	5.6	65	6.5	46	4.6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2) 마약류	전혀 위험하지 않다	4	0.2	4	0.4		
	위험하지 않다	13	0.7	7	0.7	6	0.6
	위험하다	287	14.4	163	16.3	124	12.4
	매우 위험하다	1645	82.3	789	78.9	856	85.6
	잘 모르겠다	51	2.6	37	3.7	14	1.4
5. [마약류 등의 위험 정도]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	전혀 위험하지 않다	9	0.5	9	0.9		
	위험하지 않다	142	7.1	81	8.1	61	6.1
	위험하다	947	47.4	455	45.5	492	49.2
	매우 위험하다	552	27.6	269	26.9	283	28.3
	잘 모르겠다	350	17.5	186	18.6	164	16.4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6.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17	0.9	6	0.6	11	1.1
	별로 알지 못한다	226	11.3	106	10.6	120	12.0
	보통	406	20.3	189	18.9	217	21.7
	대체로 알고 있다	1043	52.2	509	50.9	534	53.4
	충분히 알고 있다	308	15.4	190	19.0	118	11.8
7.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37	11.9	124	12.4	113	11.3
	그렇지 않다	586	29.3	290	29.0	296	29.6
	보통	579	29.0	277	27.7	302	30.2
	그렇다	495	24.8	252	25.2	243	24.3
	매우 그렇다	103	5.2	57	5.7	46	4.6
8.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26	1.3	16	1.6	10	1.0
	별로 알지 못한다	289	14.5	127	12.7	162	16.2
	보통	529	26.5	249	24.9	280	28.0
	대체로 알고 있다	976	48.8	492	49.2	484	48.4
	충분히 알고 있다	180	9.0	116	11.6	64	6.4
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7	0.4	3	0.3	4	0.4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4	1.2	20	2.0	4	0.4
	보통	197	9.9	127	12.7	70	7.0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955	47.8	501	50.1	454	45.4
	전적으로 공감한다	817	40.9	349	34.9	468	46.8
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 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A10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85	4.3	48	4.8	37	3.7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462	23.1	222	22.2	240	24.0
	보통	481	24.1	267	26.7	214	21.4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834	41.7	386	38.6	448	44.8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138	6.9	77	7.7	61	6.1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0.3	4	0.4	1	0.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73	3.7	35	3.5	38	3.8
	보통	286	14.3	175	17.5	111	11.1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911	45.6	456	45.6	455	45.5
	전적으로 공감한다	725	36.3	330	33.0	395	39.5
12.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9	1.0	9	0.9	10	1.0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24	6.2	60	6.0	64	6.4
	보통	221	11.1	123	12.3	98	9.8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741	37.1	360	36.0	381	38.1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895	44.8	448	44.8	447	44.7
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10	0.5	6	0.6	4	0.4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79	4.0	47	4.7	32	3.2
	보통	395	19.8	206	20.6	189	18.9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1001	50.1	475	47.5	526	52.6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515	25.8	266	26.6	249	24.9
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7	1.4	14	1.4	13	1.3
	그렇지 않다	98	4.9	48	4.8	50	5.0
	보통	464	23.2	255	25.5	209	20.9
	그렇다	920	46.0	431	43.1	489	48.9
	매우 그렇다	491	24.6	252	25.2	239	23.9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동기

- B1 청소년의 경우 다른 동기에 비해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평균 3.99점, 1~5 리커트 척도)과 대처동기(평균 2.28점)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구와는 달리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사회동기는 매우 낮았음(평균 1.48점). 재미와 즐거움 등 고양동기도 낮았음(평균 1.91점).

표 3-57.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회동기	마약류효과 긍정인식	마약류효과 부정인식
Mean	1.91	2.28	1.48	1.98	3.99
SD	0.98	1.15	0.75	0.93	1.02
N	2000	2000	2000	2000	2000

- 고양 동기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로 2.08점이었음.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는 이보다 다소 낮아서 1.97점,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는 더 낮아서 1.69점이었음.
- 대처동기는 전반적으로 고양동기보다 점수가 높았음. 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로 2.45점이었음. 이어서 우울 대처가 2.23점, 스트레스 대처가 2.15점이었음.
- 사회동기는 고양동기와 대처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특히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항목이 1.46점으로 낮아 사교 목적의 마약류 사용이 한국의 맥락에서는 강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도 1.48점으로 낮았고,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도 1.50점으로 낮았음.
- 마약류 효과 긍정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64점으로 가장 낮았고,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1.74점으로 그 다음으로 낮았음.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2.56점으로 다른 긍정인식에 비해 높았으나 부정 인식에 비해서는 낮았음.
-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은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었음.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로 3.98점,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이 3.87점이었음.

표 3-58.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 통계량(청소년)

	평균	표준편차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2.08	1.190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97	1.179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69	.983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15	1.259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23	1.275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2.45	1.345
7)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46	.786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48	.826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50	.862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64	.952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74	1.046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56	1.390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3.98	1.101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3.87	1.122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4.13	1.137

- 특히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 동의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9%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각성효과는 학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학생에게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고, ADHD 치료제 등이 각성도를 높여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아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음.
- 마약류 효과 부정인식의 경우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에 72.0%가 동의하여 동의율이 매우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75.2%로 더 높았음. 소화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소위 살빠지는 약 등의 작용 기전을 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와 같이 응답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여학생들이 더욱 민감하게 응답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부분에도 다수(79.7%)가 동의하였고 특히 여학생의 동의율이 85.3%로 더 높았음. 청소년들이 외모를 특히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가 외모를 변형시킨다는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히 소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59.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59	43.0	415	41.5	444	44.4
	그렇지 않다	545	27.3	275	27.5	270	27.0
	보통	232	11.6	123	12.3	109	10.9
	그렇다	305	15.3	151	15.1	154	15.4
	매우 그렇다	59	3.0	36	3.6	23	2.3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978	48.9	470	47.0	508	50.8
	그렇지 않다	498	24.9	258	25.8	240	24.0
	보통	200	10.0	105	10.5	95	9.5
	그렇다	263	13.2	138	13.8	125	12.5
	매우 그렇다	61	3.1	29	2.9	32	3.2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48	57.4	548	54.8	600	60.0
	그렇지 않다	515	25.8	265	26.5	250	25.0
	보통	173	8.7	102	10.2	71	7.1
	그렇다	135	6.8	72	7.2	63	6.3
	매우 그렇다	29	1.5	13	1.3	16	1.6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88	44.4	444	44.4	444	44.4
	그렇지 않다	402	20.1	214	21.4	188	18.8
	보통	309	15.5	139	13.9	170	17.0
	그렇다	318	15.9	158	15.8	160	16.0
	매우 그렇다	83	4.2	45	4.5	38	3.8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828	41.4	424	42.4	404	40.4
	그렇지 않다	415	20.8	217	21.7	198	19.8
	보통	334	16.7	153	15.3	181	18.1
	그렇다	324	16.2	150	15.0	174	17.4
	매우 그렇다	99	5.0	56	5.6	43	4.3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709	35.5	369	36.9	340	34.0
	그렇지 않다	378	18.9	181	18.1	197	19.7
	보통	355	17.8	169	16.9	186	18.6
	그렇다	412	20.6	199	19.9	213	21.3
	매우 그렇다	146	7.3	82	8.2	64	6.4
7)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360	68.0	649	64.9	711	71.1
	매우 그렇지 않다	445	22.3	236	23.6	209	20.9
	그렇지 않다	132	6.6	70	7.0	62	6.2
	보통	47	2.4	35	3.5	12	1.2
	그렇다	16	0.8	10	1.0	6	0.6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369	68.5	652	65.2	717	71.7
	매우 그렇지 않다	406	20.3	231	23.1	175	17.5
	그렇지 않다	144	7.2	71	7.1	73	7.3
	보통	66	3.3	37	3.7	29	2.9
	그렇다	15	0.8	9	0.9	6	0.6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9)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매우 그렇다	1359	68.0	662	66.2	697	69.7
	매우 그렇지 않다	393	19.7	217	21.7	176	17.6
	그렇지 않다	153	7.7	70	7.0	83	8.3
	보통	77	3.9	39	3.9	38	3.8
	그렇다	18	0.9	12	1.2	6	0.6
10)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212	60.6	582	58.2	630	63.0
	매우 그렇지 않다	461	23.1	244	24.4	217	21.7
	그렇지 않다	197	9.9	104	10.4	93	9.3
	보통	101	5.1	54	5.4	47	4.7
	그렇다	29	1.5	16	1.6	13	1.3
11)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154	57.7	572	57.2	582	58.2
	매우 그렇지 않다	437	21.9	226	22.6	211	21.1
	그렇지 않다	223	11.2	118	11.8	105	10.5
	보통	146	7.3	63	6.3	83	8.3
	그렇다	40	2.0	21	2.1	19	1.9
12)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그렇다	690	34.5	359	35.9	331	33.1
	매우 그렇지 않다	308	15.4	157	15.7	151	15.1
	그렇지 않다	369	18.5	198	19.8	171	17.1
	보통	452	22.6	207	20.7	245	24.5
	그렇다	181	9.1	79	7.9	102	10.2
13)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30	6.5	89	8.9	41	4.1
	매우 그렇지 않다	65	3.3	44	4.4	21	2.1
	그렇지 않다	256	12.8	132	13.2	124	12.4
	보통	812	40.6	370	37.0	442	44.2
	그렇다	737	36.9	365	36.5	372	37.2
14)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30	6.5	86	8.6	44	4.4
	매우 그렇지 않다	99	5.0	65	6.5	34	3.4
	그렇지 않다	331	16.6	161	16.1	170	17.0
	보통	785	39.3	353	35.3	432	43.2
	그렇다	655	32.8	335	33.5	320	32.0
15)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22	6.1	80	8.0	42	4.2
	매우 그렇지 않다	81	4.1	53	5.3	28	2.8
	그렇지 않다	203	10.2	126	12.6	77	7.7
	보통	603	30.2	292	29.2	311	31.1
	그렇다	991	49.6	449	44.9	542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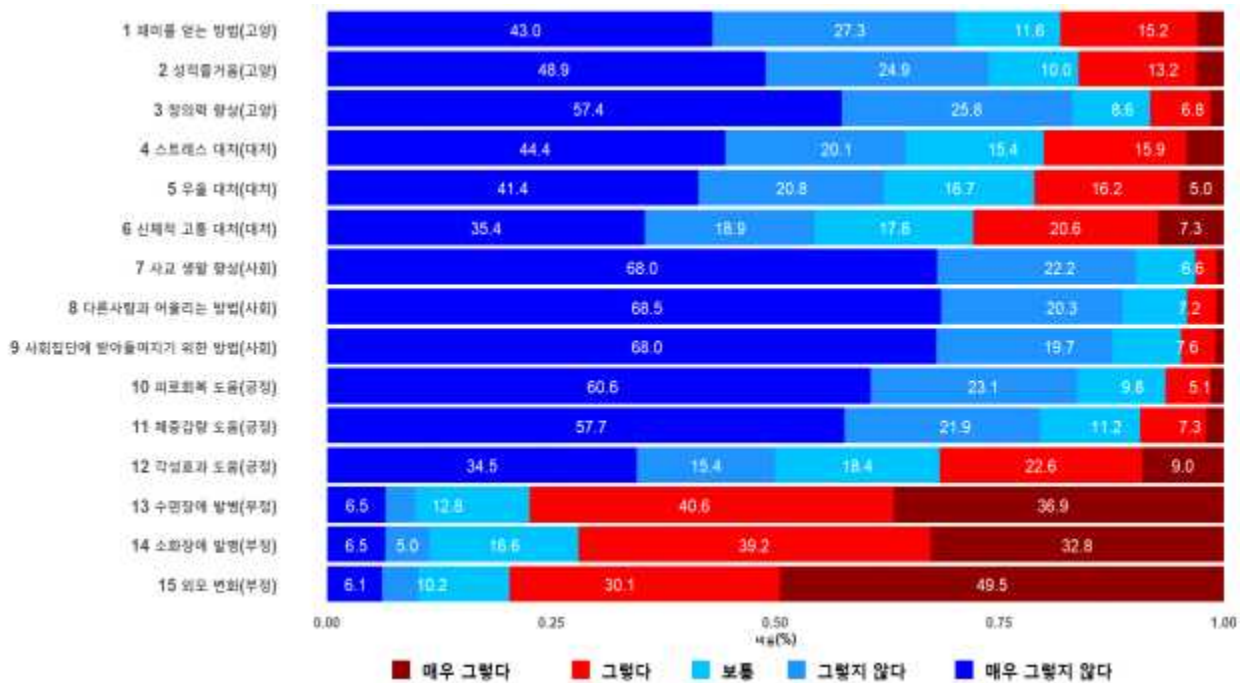


그림 3-16.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한 질문(청소년)

2)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 B2 청소년은 스스로의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성)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였음(평균 1.81점, 1~5 리커트 척도). 호기심으로 인한 노출에 대한 동의율 10.1%, 불안이나 우울로 인한 노출에 대한 동의율 14.3%, 파티나 모임에서의 노출에 대한 동의율 7.7%였음.
- 민감성 중 호기심 관련 문항(‘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78.7%로 다수를 차지함.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1.3%,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10.1%였음. 남자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11.5%로, 여자청소년의 8.6%에 비해 다소 많았음. 호기심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10.1%)은 불안 및 우울로 인한 노출 가능성(14.3%)에 비해서는 다소 낮고, 파티나 모임에서의 노출 가능성(7.7%)보다는 조금 높았음.
- 영역별로 볼 때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았음(평균 4.37점).
- 마약의 심각성(4.14점)과 예방교육의 이득(3.88점)도 높게 평가하였음. 예를 들어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의 동의율은 84.8%였음.

표 3-60. 마약류 사용 관련 건강신념 평균(청소년)

	민감성	심각성	장애	이득	자기효능감
Mean	1.81	4.14	3.4	3.88	4.37
SD	0.92	1.16	0.88	0.93	0.84
N	2000	2000	2000	2000	2000

- 낙인으로 인한 마약류로 인한 전문가 상담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30.8%만이 동의하여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음.
-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 부족에 대해서는 66.5%가, 마약류 예방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69.3%가 동의하여 동의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었음.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간헐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마약류 예방 교육의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67.2%, 마약류 예방 교육의 남용 및 중독 예방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72.2%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음. 즉, 예방 교육을 접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효능감이 매우 높지는 않음. 예방 교육에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약사용에 대한 거절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음.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로 답한 경우가 89.3%였음.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에 대한 동의율도 85.%로 높은 편인데,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파티에 참여하는 문화가 없는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응답인 것으로 판단됨.

표 3-61. 마약류 사용 문항 평균(청소년)

	Mean	SD	N
호기심 노출 가능성	1.82	1.04	2000
우울감 노출 가능성	1.96	1.16	2000
파티·모임 노출 가능성	1.66	0.98	2000
환각·환청·정신 문제 가능성	4.05	1.27	2000
충동조절X 가능성	4.10	1.26	2000
일상적 삶 위협 가능성	4.27	1.20	2000
사회적 낙인 가능성	2.63	1.31	2000
예방교육 부족정도 인식	3.77	1.09	2000
사용예방 인식 부족 정도	3.80	1.07	2000
예방교육 경제적 손실 예방정도	3.76	1.14	2000
예방교육 사회적 손실 예방정도	3.96	1.06	2000
예방교육 중독 예방정도	3.91	1.04	2000
친구 마약권유 거절 효능감	4.51	0.88	2000
타인관계 문제 효능감	4.21	1.04	2000
파티·모임 효능감	4.39	0.94	2000
전체	3.52	0.59	2000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민감성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문항으로 평균 39.22점이었음. 다음으로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균 36.38점,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균 33.13점이었음.
- 심각성은 민감성에 비해 점수가 훨씬 높은 편이었음.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로 85.48점이었음. 그 다음으로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가 81.95점,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80.97점이었음.
- 장애는 심각성보다는 다소 점수가 낮으나 민감성보다는 훨씬 높았음. 장애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로 76.01점이었음.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로 75.50점이었음.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는 장애 중 가장 점수가 낮아서 52.57점이었음.
- 이득은 심각성보다는 다소 낮으나 민감성, 장애보다는 점수가 높았음.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의 점수가 79.15점,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가 78.22점,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가 75.23점이었음.
- 자기효능감은 다른 건강신념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가 90.30점으로 가장 높았음.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도 87.78점으로 높았으며, ‘나는 다른 사람과 같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도 84.11점이었음.

표 3-62.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00점 척도)

	고양동기	대처동기	사회동기	마약류효과 긍정인식	마약류효과 부정인식
Mean	36.24	82.80	68.03	77.53	87.40
SD	18.31	23.13	17.69	18.62	16.85
N	2000	2000	2000	2000	2000

표 3-63.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100점 척도 변환)

	Mean	SD	N
호기심 노출 가능성	36.38	20.80	2000
우울감 노출 가능성	39.22	23.14	2000
파티·모임 노출 가능성	33.13	19.64	2000
환각·환청·정신 문제 가능성	80.97	25.49	2000
충동조절X 가능성	81.95	25.12	2000
일상적 삶 위협 가능성	85.48	24.00	2000
사회적 낙인 가능성	52.57	26.14	2000
예방교육 부족정도 인식	75.50	21.74	2000
사용예방 인식 부족 정도	76.01	21.43	2000
예방교육 경제적 손실 예방정도	75.23	22.83	2000
예방교육 사회적 손실 예방정도	79.15	21.23	2000
예방교육 중독 예방정도	78.22	20.90	2000
친구 마약권유 거절 효능감	90.30	17.55	2000
타인관계 문제 효능감	84.11	20.79	2000
파티·모임 효능감	87.78	18.78	2000
전체	70.40	11.81	2000

표 3-64.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24	51.2	472	47.2	552	55.2
	그렇지 않다	550	27.5	280	28.0	270	27.0
	보통	225	11.3	133	13.3	92	9.2
	그렇다	166	8.3	92	9.2	74	7.4
	매우 그렇다	35	1.8	23	2.3	12	1.2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983	49.2	517	51.7	466	46.6
	그렇지 않다	452	22.6	245	24.5	207	20.7
	보통	280	14.0	127	12.7	153	15.3
	그렇다	230	11.5	86	8.6	144	14.4
	매우 그렇다	55	2.8	25	2.5	30	3.0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04	60.2	568	56.8	636	63.6
	그렇지 않다	466	23.3	250	25.0	216	21.6
	보통	177	8.9	103	10.3	74	7.4
	그렇다	119	6.0	61	6.1	58	5.8
	매우 그렇다	34	1.7	18	1.8	16	1.6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98	9.9	139	13.9	59	5.9
	그렇지 않다	98	4.9	70	7.0	28	2.8
	보통	96	4.8	66	6.6	30	3.0
	그렇다	625	31.3	302	30.2	323	32.3
	매우 그렇다	983	49.2	423	42.3	560	56.0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4	9.2	124	12.4	60	6.0
	그렇지 않다	90	4.5	60	6.0	30	3.0
	보통	115	5.8	72	7.2	43	4.3
	그렇다	569	28.5	280	28.0	289	28.9
	매우 그렇다	1042	52.1	464	46.4	578	57.8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7	7.9	104	10.4	53	5.3
	그렇지 않다	75	3.8	54	5.4	21	2.1
	보통	73	3.7	50	5.0	23	2.3
	그렇다	453	22.7	232	23.2	221	22.1
	매우 그렇다	1242	62.1	560	56.0	682	68.2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매우 그렇다	521	26.1	299	29.9	222	22.2
	매우 그렇지 않다	485	24.3	242	24.2	243	24.3
	그렇지 않다	379	19.0	184	18.4	195	19.5
	보통	446	22.3	189	18.9	257	25.7
	그렇다	169	8.5	86	8.6	83	8.3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다	92	4.6	68	6.8	24	2.4
	매우 그렇지 않다	163	8.2	101	10.1	62	6.2
	그렇지 않다	416	20.8	239	23.9	177	17.7
	보통	761	38.1	346	34.6	415	41.5
	그렇다	568	28.4	246	24.6	322	32.2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매우 그렇다	95	4.8	68	6.8	27	2.7
	매우 그렇지 않다	149	7.5	93	9.3	56	5.6
	그렇지 않다	370	18.5	224	22.4	146	14.6
	보통	832	41.6	371	37.1	461	46.1
	그렇다	554	27.7	244	24.4	310	31.0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125	6.3	74	7.4	51	5.1
	매우 그렇지 않다	158	7.9	86	8.6	72	7.2
	그렇지 않다	374	18.7	194	19.4	180	18.0
	보통	755	37.8	342	34.2	413	41.3
	그렇다	588	29.4	304	30.4	284	28.4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84	4.2	60	6.0	24	2.4
	매우 그렇지 않다	117	5.9	64	6.4	53	5.3
	그렇지 않다	315	15.8	166	16.6	149	14.9
	보통	768	38.4	372	37.2	396	39.6
	그렇다	716	35.8	338	33.8	378	37.8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74	3.7	50	5.0	24	2.4
	매우 그렇지 않다	136	6.8	84	8.4	52	5.2
	그렇지 않다	336	16.8	172	17.2	164	16.4
	보통	802	40.1	379	37.9	423	42.3
	그렇다	652	32.6	315	31.5	337	33.7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47	2.4	35	3.5	12	1.2
	매우 그렇지 않다	35	1.8	22	2.2	13	1.3
	그렇지 않다	133	6.7	87	8.7	46	4.6
	보통	411	20.6	216	21.6	195	19.5
	그렇다	1374	68.7	640	64.0	734	73.4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같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항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다	62	3.1	36	3.6	26	2.6
	매우 그렇지 않다	92	4.6	50	5.0	42	4.2
	그렇지 않다	269	13.5	128	12.8	141	14.1
	보통	527	26.4	265	26.5	262	26.2
	그렇다	1050	52.5	521	52.1	529	52.9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매우 그렇다	54	2.7	38	3.8	16	1.6
	매우 그렇지 않다	37	1.9	24	2.4	13	1.3
	그렇지 않다	209	10.5	109	10.9	100	10.0
	보통	477	23.9	223	22.3	254	25.4
	그렇다	1223	61.2	606	60.6	617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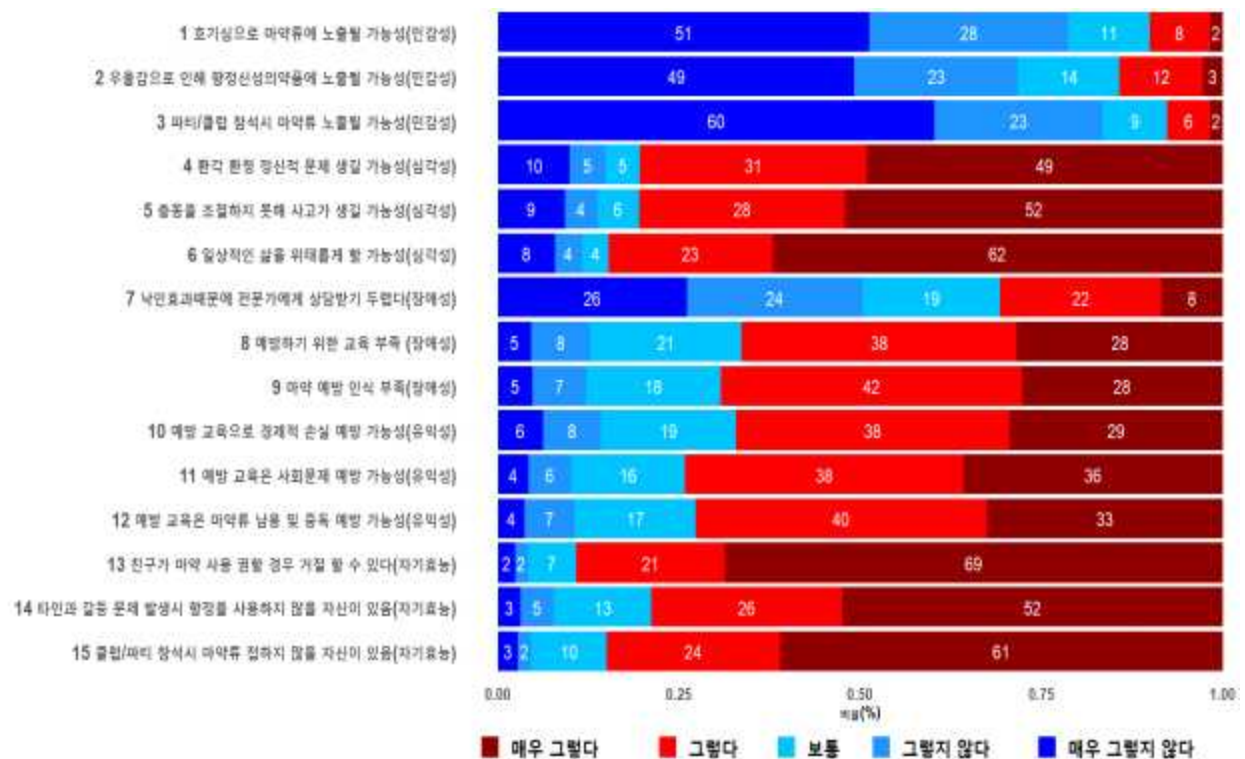


그림 3-17. 건강신념모형에 의한 마약류 태도-민감도(청소년)

3) 약물 사용 관련 지식

- B3 마약류 지식의 경우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0.5점, 표준편차 17.60점이었음(맞는 응답을 10점, 틀린 응답 및 모르겠다를 0점으로 처리할 경우).

표 3-65. 약물 사용 관련 지식 평균(청소년)

	총점
Mean	50.5
SD	17.60
N	2000

-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의 경우 정답률이 55.9%로 낮아서, 예방교육 시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오답인 ‘맞다’고 응답한 경우도 29.9%로 높아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막연히 의료전문직이 윤리 준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음.
-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에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가 15.5%이었므로 의료전문직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이 필요함.
-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의 환각물질은 청소년의 마약류 이용 경로에서 진입 물질 역할을 하므로 더욱 정확한 지식이 필요함. 그런데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8.2%가 있어서 예방 교육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66.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T)	1847	92.4	892	89.2	955	95.5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T)	1669	83.5	791	79.1	878	87.8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T)	1133	56.7	606	60.6	527	52.7
4)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T)	1117	55.9	568	56.8	549	54.9
5)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598	29.9	306	30.6	292	29.2
6) GHB(물병,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T)	1112	55.6	563	56.3	549	54.9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F)	1376	68.8	644	64.4	732	73.2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T)	1582	79.1	781	78.1	801	80.1
9)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F)	1575	78.8	751	75.1	824	82.4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T)	1629	81.5	798	79.8	831	83.1

T=True, F=Fa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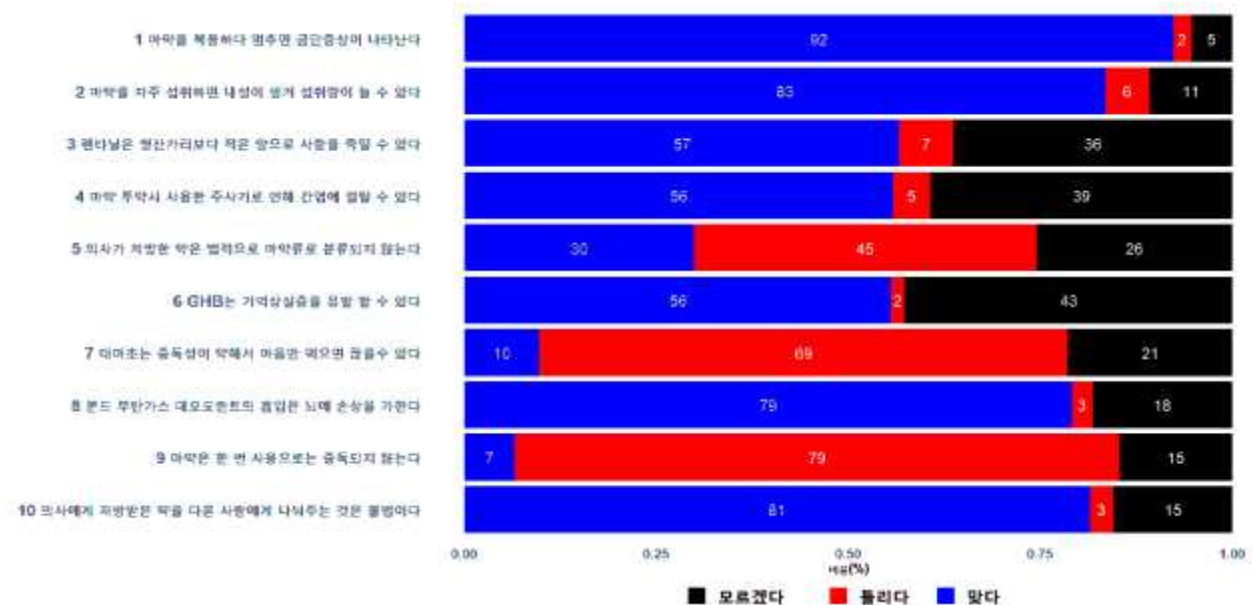


그림 3-18. 마약류 지식 정답률(청소년)

다.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평소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4.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많이 느끼는 경우도 49.9%로 절반 정도였음. 스트레스 점수는 4점 만점에 2.4점이었음(1~4 리커트 척도).

표 3-67. 평소 스트레스 수준 평균(청소년)

C1	평소 스트레스 수준(1-4)
Mean	2.4
SD	0.79
N	2000

- C2 스트레스 자각 척도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이었음.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에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73.2%로 높았는데, 성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3-68. 스트레스 자각척도 평균(청소년)

C2	스트레스자각척도(4,5,7,8 역코딩, 5점 만점)
Mean	3.09
SD	0.572
N	2000

- C3 최근 12개월 동안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1.7%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특히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낌 사람의 비중이 여학생(25.7%)이 남학생(19.8%)에 비해 많았음. 평균 점수는 2.8점이었음(1~5 리커트 척도).

표 3-69. 외로움 자각 평균(청소년)

C3	최근 12개월 외로움(1-5)
Mean	2.8
SD	1.02
N	2000

표 3-70. 지각된 스트레스 및 외로움(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252	12.6	116	11.6	136	13.6
	많이 느끼는 편이다	746	37.3	344	34.4	402	40.2
	조금 느끼는 편이다	883	44.2	478	47.8	405	40.5
	거의 느끼지 않는다	119	6.0	62	6.2	57	5.7
외로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49	12.5	152	15.2	97	9.7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517	25.9	273	27.3	244	24.4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779	39.0	377	37.7	402	40.2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373	18.7	165	16.5	208	20.8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82	4.1	33	3.3	49	4.9

2) 한국인의 성향

- C4 청소년의 경우 도덕성에 동의도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임.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에 동의하는 경우가 17.3%이었음. 또한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에 동의하는 경우가 31.8%,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에 동의하는 경우가 34.3%에 달하여 청소년들이 도덕성과 관련한 사회 규범 측면에서 일종의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와 같은 규범적인 문항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절반가까이 되었음(43.4%).
- 충동 성향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동의율을 보임.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1.9%,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2.9%이었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 특유의 심리상태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섭거나 불법인 경우에도 기꺼이 위험감수를 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학생은 63.2%인 반면, 여학생은 48.9%로 그 비중이 낮았음. 여학생들의 외모 불만족이 마약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반면, 마약류 노출 및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2%,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3%나 되었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한 경우도 22.2%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는 청소년들이 절대적인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마약류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마약류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지식 및 예방 교육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향을 요인별로 묶어서 평균 점수를 구해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2.82점으로 가장 높고, 영성이 2.51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반면 스릴 추구 성향은 1.88점으로 다른 성향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았음. 반사회성도 1.92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충동성은 2.31점으로 스릴추구나 반사회성보다는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었음. 자기과신은 2.20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였음.

표 3-71. 성향 통계량(청소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미래에 대한 희망 (C41, C42, C43, C44의 평균)	2000	1.00	4.00	2.82	0.65
스릴추구 (C45, C46, C47의 평균)	2000	1.00	4.00	1.88	0.71
충동성 (C48, C49, C410, C411의 평균; C48은 역코딩)	2000	1.00	4.00	2.31	0.55
반사회성 (C412, C413, C414, C415의 평균)	2000	1.00	4.00	1.92	0.65
영성 (C416, C417, C418, C419의 평균)	2000	1.00	4.00	2.51	0.53
자기 과신 (C420, C421, C422의 평균)	2000	1.00	4.00	2.20	0.85

표 3-72. 성향(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8	4.9	36	3.6	62	6.2
	동의하지 않음	483	24.2	185	18.5	298	29.8
	동의함	1046	52.3	543	54.3	503	50.3
	매우 동의함	373	18.7	236	23.6	137	13.7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4	3.2	30	3.0	34	3.4
	동의하지 않음	307	15.4	139	13.9	168	16.8
	동의함	1162	58.1	594	59.4	568	56.8
	매우 동의함	467	23.4	237	23.7	230	23.0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0	5.5	41	4.1	69	6.9
	동의하지 않음	524	26.2	220	22.0	304	30.4
	동의함	941	47.1	484	48.4	457	45.7
	매우 동의함	425	21.3	255	25.5	170	17.0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5	12.3	84	8.4	161	16.1
	동의하지 않음	634	31.7	284	28.4	350	35.0
	동의함	872	43.6	467	46.7	405	40.5
	매우 동의함	249	12.5	165	16.5	84	8.4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27	26.4	209	20.9	318	31.8
	동의하지 않음	836	41.8	403	40.3	433	43.3
	동의함	496	24.8	289	28.9	207	20.7
	매우 동의함	141	7.1	99	9.9	42	4.2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35	46.8	341	34.1	594	59.4
	동의하지 않음	608	30.4	333	33.3	275	27.5
	동의함	375	18.8	260	26.0	115	11.5
	매우 동의함	82	4.1	66	6.6	16	1.6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97	49.9	382	38.2	615	61.5
	동의하지 않음	652	32.6	368	36.8	284	28.4
	동의함	280	14.0	198	19.8	82	8.2
	매우 동의함	71	3.6	52	5.2	19	1.9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4	6.2	72	7.2	52	5.2
	동의하지 않음	714	35.7	325	32.5	389	38.9
	동의함	916	45.8	471	47.1	445	44.5
	매우 동의함	246	12.3	132	13.2	114	11.4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1	12.6	126	12.6	125	12.5
	동의하지 않음	651	32.6	334	33.4	317	31.7
	동의함	927	46.4	445	44.5	482	48.2
	매우 동의함	171	8.6	95	9.5	76	7.6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11	25.6	208	20.8	303	30.3
	동의하지 않음	957	47.9	459	45.9	498	49.8
	동의함	458	22.9	287	28.7	171	17.1
	매우 동의함	74	3.7	46	4.6	28	2.8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3	20.7	170	17.0	243	24.3
	동의하지 않음	683	34.2	343	34.3	340	34.0
	동의함	774	38.7	417	41.7	357	35.7
	매우 동의함	130	6.5	70	7.0	60	6.0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24	46.2	390	39.0	534	53.4
	동의하지 않음	772	38.6	402	40.2	370	37.0
	동의함	239	12.0	159	15.9	80	8.0
	매우 동의함	65	3.3	49	4.9	16	1.6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50	42.5	327	32.7	523	52.3
	동의하지 않음	805	40.3	452	45.2	353	35.3
	동의함	285	14.3	175	17.5	110	11.0
	매우 동의함	60	3.0	46	4.6	14	1.4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97	29.9	257	25.7	340	34.0
	동의하지 않음	768	38.4	400	40.0	368	36.8
	동의함	540	27.0	282	28.2	258	25.8
	매우 동의함	95	4.8	61	6.1	34	3.4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76	28.8	235	23.5	341	34.1
	동의하지 않음	738	36.9	385	38.5	353	35.3
	동의함	600	30.0	319	31.9	281	28.1
	매우 동의함	86	4.3	61	6.1	25	2.5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9	10.5	90	9.0	119	11.9
	동의하지 않음	739	37.0	360	36.0	379	37.9
	동의함	881	44.1	446	44.6	435	43.5
	매우 동의함	171	8.6	104	10.4	67	6.7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0	10.0	86	8.6	114	11.4
	동의하지 않음	667	33.4	330	33.0	337	33.7
	동의함	922	46.1	479	47.9	443	44.3
	매우 동의함	211	10.6	105	10.5	106	10.6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5	18.3	139	13.9	226	22.6
	동의하지 않음	862	43.1	403	40.3	459	45.9
	동의함	677	33.9	387	38.7	290	29.0
	매우 동의함	96	4.8	71	7.1	25	2.5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0	8.0	63	6.3	97	9.7
	동의하지 않음	597	29.9	276	27.6	321	32.1
	동의함	877	43.9	451	45.1	426	42.6
	매우 동의함	366	18.3	210	21.0	156	15.6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07	20.4	197	19.7	210	21.0
	동의하지 않음	629	31.5	305	30.5	324	32.4
	동의함	534	26.7	284	28.4	250	25.0
	매우 동의함	430	21.5	214	21.4	216	21.6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558	27.9	267	26.7	291	29.1
	동의하지 않음	636	31.8	298	29.8	338	33.8
	동의함	505	25.3	272	27.2	233	23.3
	매우 동의함	301	15.1	163	16.3	138	13.8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91	44.6	407	40.7	484	48.4
	동의하지 않음	666	33.3	321	32.1	345	34.5
	동의함	307	15.4	185	18.5	122	12.2
	매우 동의함	136	6.8	87	8.7	4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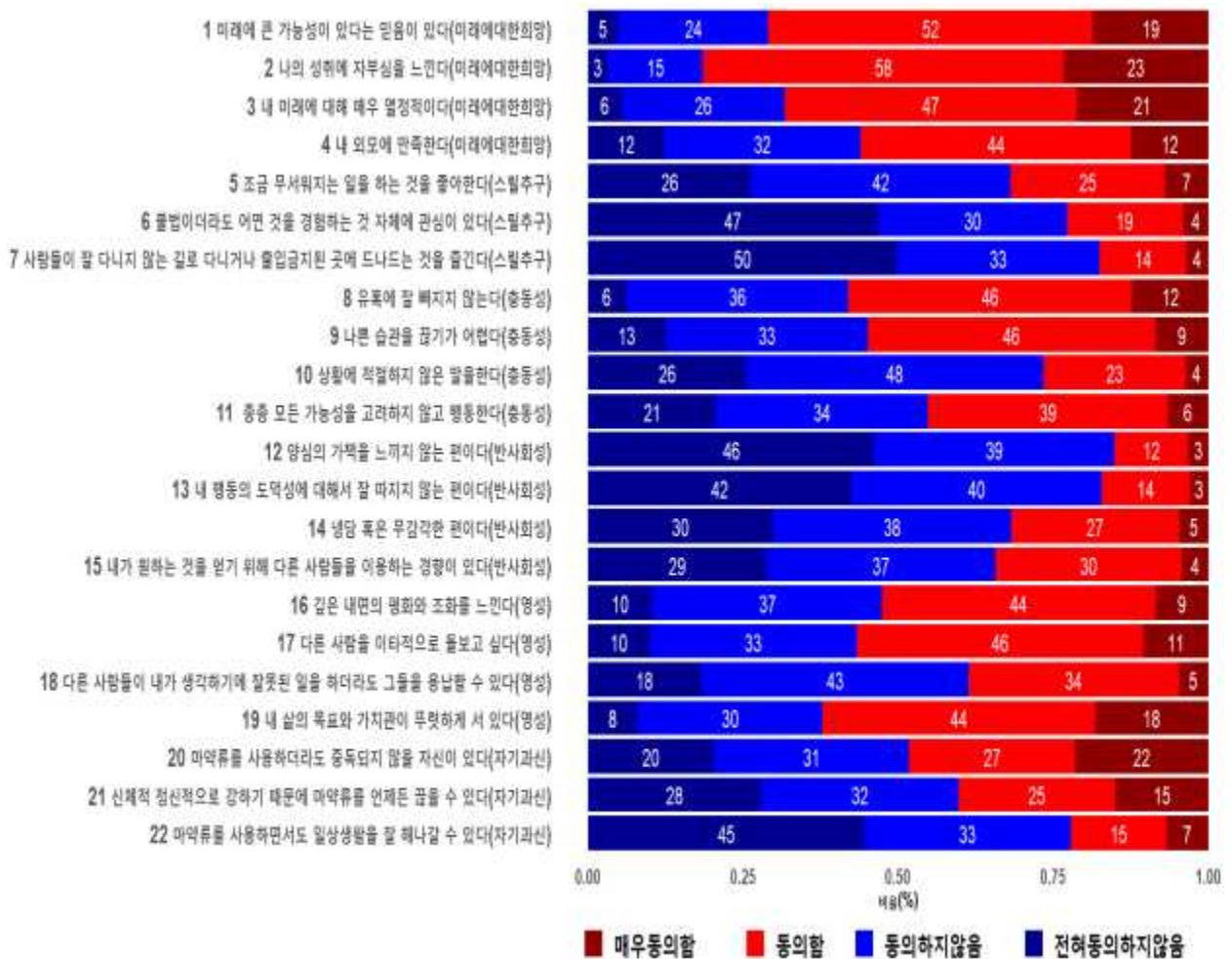


그림 3-19. 성향 통계량(청소년)

3) 여가 활용 및 만족도

- C5 청소년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이었음(주중 90.4%, 주말 86.9%). 두 번째로 분율이 높은 활동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이었음(주중 60.8%, 주말 59.2%).
- C6 여가 활동 동반자의 경우 친구가 가장 많았고(주중 66.3%, 주말 63.5%), 그 다음이 ‘혼자서’였음(주중과 주말 모두 60.7%).
- C7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주중 5.3시간, 주말 8.9시간이었음.
- C8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57.5%였음.

표 3-73. 여가시간 활동(청소년)

(단위: %)

	주중			주말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90.4	86.8	94.2	86.9	82.6	91.1
휴식(수면, 사우나 등)	60.8	63.1	48.2	59.2	72.5	45.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46.3	35.7	56.8	52.8	41.9	63.7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36.5	30.1	42.8	35.7	30.3	41.1
스포츠 활동	19.1	30.0	8.2	16.4	26.5	6.2
스포츠 경기 관람	15.0	21.9	8.0	13.5	9.4	17.5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12.3	8.9	15.7	13.4	19.8	7.0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9.2	6.0	12.3	9.0	6.7	11.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4.7	2.8	6.5	6.3	4.3	8.2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3.4	2.3	4.5	4.0	3.8	4.1
기타	2.6	2.6	2.6	3.1	2.2	4.0

표 3-74.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청소년)

(단위: %)

	주중			주말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	66.3	69.3	63.3	63.5	67.5	59.4
혼자	60.7	55.2	66.1	60.7	55.1	66.3
친구(연인 포함)	49.5	48.5	50.5	57.1	53.4	60.8
직장동료	2.3	2.3	2.2	3.0	3.2	2.8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0.4	0.5	0.2	0.5	0.7	0.2
기타	0.2	0.2	0.1	0.2	0.2	0.1

표 3-75. 여가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주중	평균	5.3	5.4	5.2
	표준편차	4.2	4.1	4.2
주말	평균	8.9	8.8	9.0
	표준편차	5.5	5.4	5.5

표 3-76. 여가생활 만족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36	1.8	22	2.2	14	1.4
	불만족한다	157	7.9	59	5.9	98	9.8
	보통이다	658	32.9	321	32.1	337	33.7
	만족한다	845	42.3	433	43.3	412	41.2
	매우 만족한다	304	15.2	165	16.5	139	13.9

4.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낙인이 약하였음(평균점수 3.08, 1~5 리커트 척도).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34.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38.8%에 불과하였음.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의 경우 동의율이 33.1% 정도로 더 낮았음. 이는 청소년이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편견이 덜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례 깊은 관용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서 관찰된 도덕적 무규범 상태의 표출인 것으로 사료됨.

표 3-77.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 평균(청소년)

D1	d1_d1d3	d1_d4d6	d1_d7d9	d1_10	d1_11	d1_12
(rec: 8)	마약류 중독에 대한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한 개인적 낙인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한 사회적 낙인	대마초 합법화O	마약검사 사생활침해O	마약중독 치료예방 위해 더 많은예산O
Mean	4.45	3.08	3.18	1.92	1.8	3.79
SD	0.66	1.03	0.93	1.14	1.07	0.99
N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그러나 막상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에는 37.3% 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마약류 사용 개인에 대한 낙인의 부재가 이들에 대한 관용과 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약류 폐해 예방 교육시, 공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타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 D1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한 사람 비율은 11.3%, 점수는 1.92점(1-5점 리커트 척도, 높을수록 동의)이었음. 김용석 외(2019)⁵⁾에 의하면 ‘대마초는 합법화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1.67점(5점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임. 김용석 외(2019)의 경우 성인 사회복지사 대상의 연구이고,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대가 변함에 따라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 정도가 미세하게 상승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표 3-78.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	1.0	10	1.0	9	0.9
	동의하지 않음	37	1.9	24	2.4	13	1.3
	보통	116	5.8	85	8.5	31	3.1
	동의함	690	34.5	357	35.7	333	33.3
	매우 동의함	1138	56.9	524	52.4	614	61.4

5) 김용석, 이엽, 이진희, 박소영, 이은희, 박선현, 신희연. (2019).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 (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 의 타당화 연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 41-76.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	0.7	10	1.0	4	0.4
	동의하지 않음	30	1.5	19	1.9	11	1.1
	보통	141	7.1	93	9.3	48	4.8
	동의함	629	31.5	336	33.6	293	29.3
	매우 동의함	1186	59.3	542	54.2	644	64.4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	0.8	10	1.0	5	0.5
	동의하지 않음	39	2.0	20	2.0	19	1.9
	보통	169	8.5	116	11.6	53	5.3
	동의함	648	32.4	329	32.9	319	31.9
	매우 동의함	1129	56.5	525	52.5	604	60.4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2	6.1	61	6.1	61	6.1
	동의하지 않음	494	24.7	195	19.5	299	29.9
	보통	694	34.7	332	33.2	362	36.2
	동의함	398	19.9	224	22.4	174	17.4
	매우 동의함	292	14.6	188	18.8	104	10.4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0	9.5	76	7.6	114	11.4
	동의하지 않음	486	24.3	192	19.2	294	29.4
	보통	548	27.4	255	25.5	293	29.3
	동의함	470	23.5	268	26.8	202	20.2
	매우 동의함	306	15.3	209	20.9	97	9.7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0	10.0	85	8.5	115	11.5
	동의하지 않음	496	24.8	188	18.8	308	30.8
	보통	643	32.2	303	30.3	340	34.0
	동의함	405	20.3	240	24.0	165	16.5
	매우 동의함	256	12.8	184	18.4	72	7.2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4	6.7	67	6.7	67	6.7
	동의하지 않음	306	15.3	141	14.1	165	16.5
	보통	502	25.1	232	23.2	270	27.0
	동의함	624	31.2	300	30.0	324	32.4
	매우 동의함	434	21.7	260	26.0	174	17.4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4	9.7	106	10.6	88	8.8
	동의하지 않음	436	21.8	189	18.9	247	24.7
	보통	655	32.8	326	32.6	329	32.9
	동의함	482	24.1	235	23.5	247	24.7
	매우 동의함	233	11.7	144	14.4	89	8.9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9	12.5	112	11.2	137	13.7
	동의하지 않음	436	21.8	184	18.4	252	25.2
	보통	570	28.5	286	28.6	284	28.4
	동의함	522	26.1	275	27.5	247	24.7
	매우 동의함	223	11.2	143	14.3	80	8.0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997	49.9	416	41.6	581	58.1
	동의하지 않음	471	23.6	218	21.8	253	25.3
	보통	306	15.3	197	19.7	109	10.9
	동의함	147	7.4	108	10.8	39	3.9
	매우 동의함	79	4.0	61	6.1	18	1.8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82	54.1	458	45.8	624	62.4
	동의하지 않음	488	24.4	236	23.6	252	25.2
	보통	246	12.3	166	16.6	80	8.0
	동의함	124	6.2	89	8.9	35	3.5
	매우 동의함	60	3.0	51	5.1	9	0.9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1	3.1	32	3.2	29	2.9
	동의하지 않음	99	5.0	47	4.7	52	5.2
	보통	571	28.6	273	27.3	298	29.8
	동의함	744	37.2	338	33.8	406	40.6
	매우 동의함	525	26.3	310	31.0	215	21.5



그림 3-20.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청소년)

마. 사회자본

1) 사회적 지지

- E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청소년이 14.7%이었음.

표 3-79. 사회적 지지(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부모	222	11.1	131	13.1	91	9.1
	형제, 자매	106	5.3	48	4.8	58	5.8
	친척, 친구, 이웃 등	1374	68.7	633	63.3	741	74.1
	선생님	167	8.4	102	10.2	65	6.5
	기타	31	1.6	24	2.4	7	0.7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00	5.0	62	6.2	38	3.8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부모	1197	59.9	495	49.5	702	70.2
	형제, 자매	163	8.2	75	7.5	88	8.8
	친척, 친구, 이웃 등	386	19.3	281	28.1	105	10.5
	선생님	17	0.9	16	1.6	1	0.1
	기타	59	3.0	40	4.0	19	1.9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78	8.9	93	9.3	85	8.5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부모	321	16.1	175	17.5	146	14.6
	형제, 자매	116	5.8	36	3.6	80	8.0
	친척, 친구, 이웃 등	1129	56.5	575	57.5	554	55.4
	선생님	59	3.0	42	4.2	17	1.7
	기타	82	4.1	42	4.2	40	4.0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293	14.7	130	13.0	16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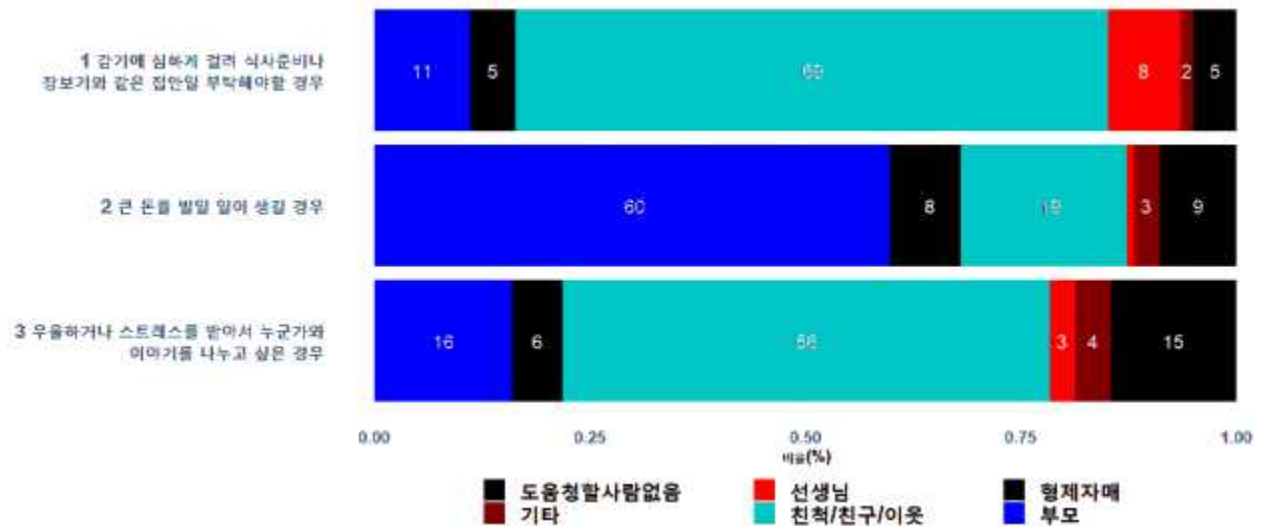


그림 3-21. 사회적 지지(청소년)

2) 일반신뢰

- E2 청소년의 일반 신뢰는 0~10 중 4.3점으로 중간 정도이나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었음.
- E3 청소년의 공정성 인식은 0~10 중 5.6점으로 중간 정도이나 공정하다는 방향으로 좀 더 치우쳐 있었음.

표 3-80. 일반신뢰 평균과 표준편차(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수 있는가?	평균	4.3	4.5	4.1
	표준편차	2.4	2.3	2.4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가?	평균	5.6	5.6	5.6
	표준편차	2.1	2.1	2.1

3) 관계 만족

- E4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75.3%, 동급생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65.5%, 선생님과 관계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64.5%였음.

표 3-81. 관계 만족(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모님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38	1.9	16	1.6	22	2.2
	만족하지 않음	104	5.2	41	4.1	63	6.3
	보통	347	17.4	166	16.6	181	18.1
	만족	685	34.3	332	33.2	353	35.3
	매우 만족	820	41.0	439	43.9	381	38.1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6	0.3	6	0.6		
배우자·연인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37	1.9	18	1.8	19	1.9
	만족하지 않음	80	4.0	30	3.0	50	5.0
	보통	312	15.6	144	14.4	168	16.8
	만족	843	42.2	406	40.6	437	43.7
	매우 만족	708	35.4	391	39.1	317	31.7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20	1.0	11	1.1	9	0.9
친구와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49	2.5	22	2.2	27	2.7
	만족하지 않음	143	7.2	47	4.7	96	9.6
	보통	479	24.0	207	20.7	272	27.2
	만족	788	39.4	409	40.9	379	37.9
	매우 만족	522	26.1	302	30.2	220	22.0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9	1.0	13	1.3	6	0.6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47	2.4	27	2.7	20	2.0
	만족하지 않음	102	5.1	44	4.4	58	5.8
	보통	545	27.3	252	25.2	293	29.3
	만족	748	37.4	360	36.0	388	38.8
	매우 만족	541	27.1	307	30.7	234	23.4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7	0.9	10	1.0	7	0.7

4)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 E5 청소년 중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3% 이고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6.2%의 비율을 보였음.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의료이용이 더 빈번한 행태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적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보임.

표 3-82.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12개월 동안의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0번	1914	95.7	938	93.8	976	97.6
	1번	36	1.8	25	2.5	11	1.1
	2번	20	1.0	16	1.6	4	0.4
	3번	12	0.6	9	0.9	3	0.3
	4번	9	0.5	7	0.7	2	0.2
	5번	2	0.1	1	0.1	1	0.1
	6번 이상	7	0.4	4	0.4	3	0.3

5)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

- E6~E7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마약류 물질 사용에 대해 주변인은 우려하고 금지하지만, 일반인들은 상관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일반 수준의 사회 규범을 약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임.
- 대마초 사용에 대해 주변인의 96.3%는 비난, 금지, 불허용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반인은 88.9%정도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응답하였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허용도는 조금 더 높아서 주변인의 89.8%가 비난, 금지, 불허용하고, 일반인 중에서는 76.1%만이 비난, 금지, 불허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대한 불허용도는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높아서 주변인의 96.7%, 일반인의 90.2%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헤로인, 코카인이 강한 마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일반 사람들의 10% 정도가 본인이 마약을 해도 신경쓰지 않거나 권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반인들이 사회 통합 혹은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의 부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의 삶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대처의 부재 상황에 의해 야기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됨.

표 3-83.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사람과 주변사람의 반응(청소년)

(단위: %)

		일반 사람			주변 사람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31.0	31.5	30.5	57.7	54.5	60.9
	허용하지 않음	26.2	25.1	27.2	29.6	28.0	31.2
	신경쓰지 않음	37.2	36.3	38.0	7.2	9.6	4.8
	허용함	3.6	4.1	3.1	3.6	5.2	2.0
	권장함	0.6	1.0	0.1	0.4	0.5	0.2
	모름	1.6	2.0	1.1	1.6	2.2	0.9
2) 술에 취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24.4	25.0	23.7	35.2	34.2	36.2
	허용하지 않음	23.8	23.2	24.4	34.6	31.7	37.4
	신경쓰지 않음	41.6	39.9	43.3	15.0	16.2	13.8
	허용함	7.4	7.8	7.0	11.4	12.8	9.9
	권장함	0.8	1.1	0.4	0.8	1.0	0.5
	모름	2.1	3.0	1.2	3.2	4.1	2.2
3) 대마초를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68.7	66.8	70.6	86.3	81.1	91.5
	허용하지 않음	20.2	20.3	20.0	10.0	13.1	6.9
	신경쓰지 않음	9.1	9.7	8.4	1.7	2.7	0.6
	허용함	0.5	0.9		0.4	0.6	0.1
	권장함	0.3	0.5	0.1	0.4	0.6	0.2
	모름	1.4	1.8	0.9	1.3	1.9	0.7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54.2	57.6	50.8	65.7	68.4	63.0
	허용하지 않음	21.9	20.8	23.0	24.1	20.1	28.0
	신경쓰지 않음	19.8	17.1	22.4	5.6	6.0	5.1
	허용함	1.8	1.4	2.2	2.2	2.4	1.9
	권장함	0.7	0.8	0.5	0.4	0.5	0.2
	모름	1.7	2.3	1.1	2.2	2.6	1.8
5) 마약 (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75.0	72.8	77.1	88.3	83.3	93.2
	허용하지 않음	15.3	15.7	14.8	8.5	11.5	5.4
	신경쓰지 않음	7.7	8.3	7.1	1.3	2.2	0.4
	허용함	0.4	0.6	0.2	0.6	0.8	0.4
	권장함	0.3	0.6		0.2	0.4	
	모름	1.4	2.0	0.8	1.2	1.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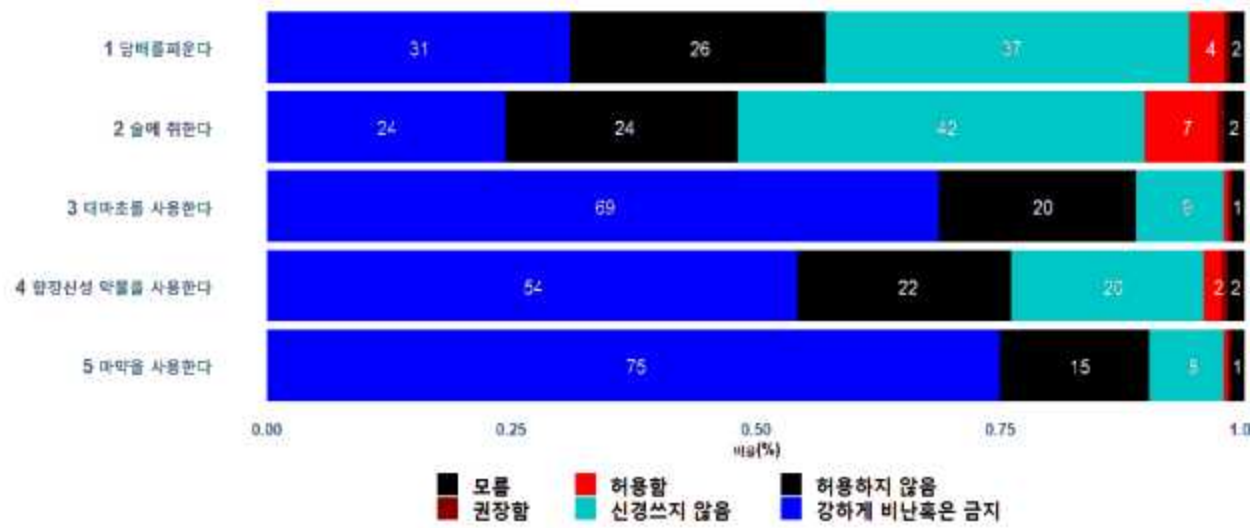


그림 3-22.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일반 사람의 반응(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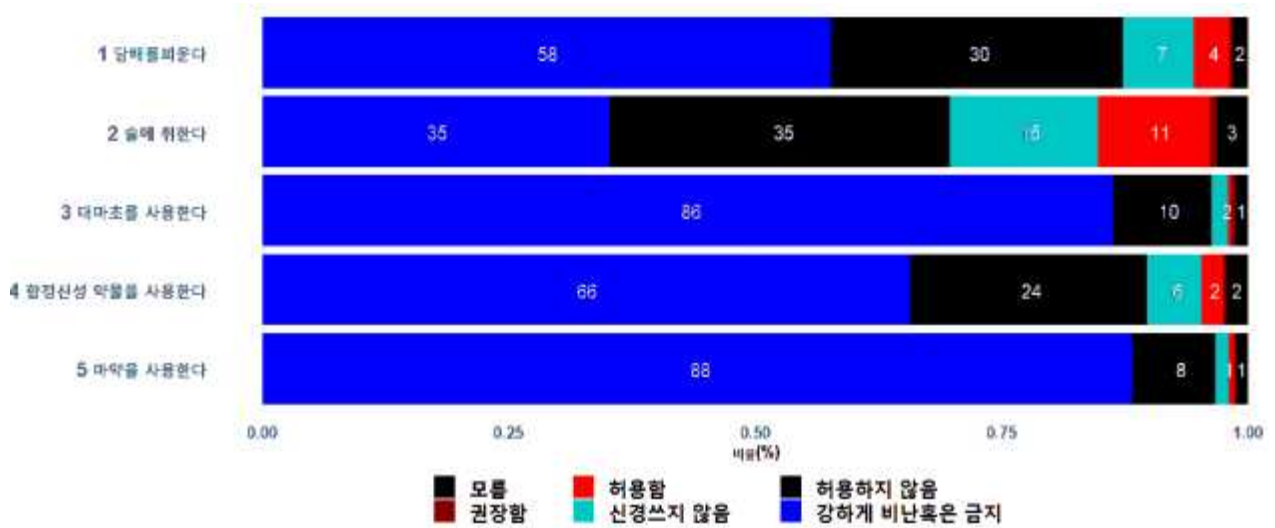


그림 3-23. 중독물질 사용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청소년)

6)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 청소년의 3.8%가 주변인이 대마초를 피운다고 응답하였음. 청소년의 16.1%는 주변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해 21.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8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248	12.4	114	11.4	134	13.4
	몇 명 있음	1042	52.1	478	47.8	564	56.4
	꽤 많음	602	30.1	333	33.3	269	26.9
	거의 모두 다	56	2.8	35	3.5	21	2.1
	모름	52	2.6	40	4.0	12	1.2
2) 술을 마신다	한 명도 없음	202	10.1	106	10.6	96	9.6
	몇 명 있음	856	42.8	416	41.6	440	44.0
	꽤 많음	709	35.5	360	36.0	349	34.9
	거의 모두 다	170	8.5	74	7.4	96	9.6
	모름	63	3.2	44	4.4	19	1.9
3) 술에 취한다	한 명도 없음	355	17.8	175	17.5	180	18.0
	몇 명 있음	894	44.7	437	43.7	457	45.7
	꽤 많음	518	25.9	261	26.1	257	25.7
	거의 모두 다	92	4.6	46	4.6	46	4.6
	모름	141	7.1	81	8.1	60	6.0
4) 대마초를 피운다	한 명도 없음	1751	87.6	853	85.3	898	89.8
	몇 명 있음	50	2.5	25	2.5	25	2.5
	꽤 많음	17	0.9	14	1.4	3	0.3
	거의 모두 다	8	0.4	7	0.7	1	0.1
	모름	174	8.7	101	10.1	73	7.3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한 명도 없음	1456	72.8	774	77.4	682	68.2
	몇 명 있음	265	13.3	76	7.6	189	18.9
	꽤 많음	47	2.4	24	2.4	23	2.3
	거의 모두 다	10	0.5	6	0.6	4	0.4
	모름	222	11.1	120	12.0	10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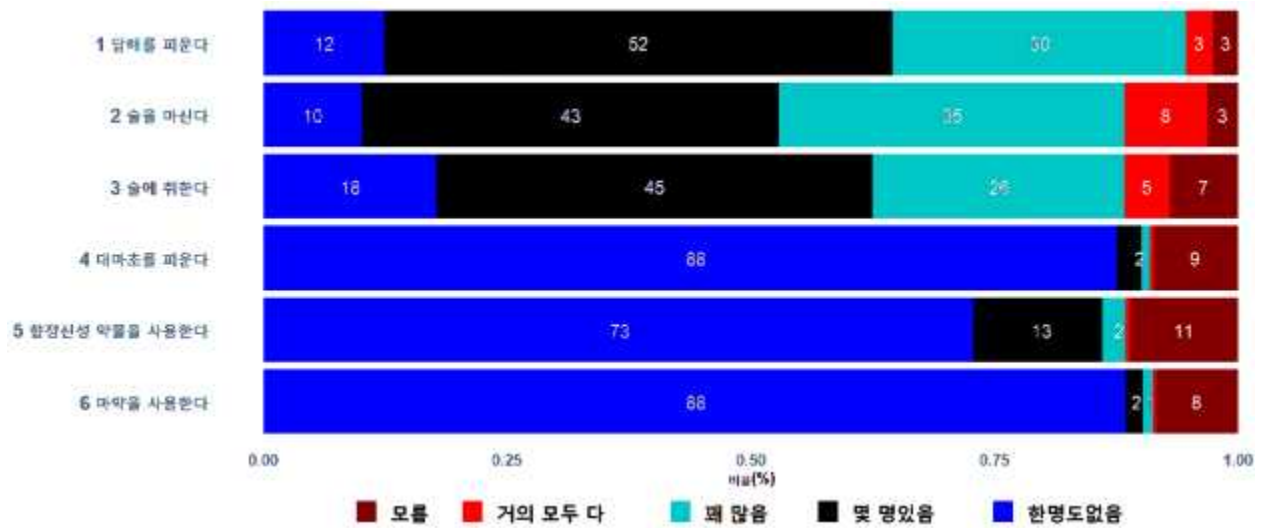


그림 3-24.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청소년)

바. 중독 물질 사용 경험

1) 흡연 및 음주

- F1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6.7%였음.
- F2 흡연자의 경우 껴련을 피는 경우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음.
- F3 청소년의 연간음주율은 26.2%였음.
- F4 주량은 소주 1잔(=맥주 1캔)인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으나 소주 1병 이상인 경우도 27.9%로 상당히 많았음.

표 3-85. 흡연과 음주 행동(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524	100.0	317	100.0	207	100.0
현재 흡연 유무	매일 피운다	70	3.5	53	5.3	17	1.7
	가끔 피운다	63	3.2	38	3.8	25	2.5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142	7.1	102	10.2	40	4.0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1725	86.3	807	80.7	918	91.8
흡연하는 담배 종류	굴련(일반 담배)	102	100.0	69	100.0	33	100.0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66	100.0	40	100.0	26	100.0
	굴련형 전자담배	21	100.0	17	100.0	4	100.0
평소 음주 빈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476	73.8	683	68.3	793	79.3
	한 달에 1번 미만	319	16.0	182	18.2	137	13.7
	한 달에 1번 정도	74	3.7	50	5.0	24	2.4
	한 달에 2-3번 정도	92	4.6	57	5.7	35	3.5
	일주일에 1번 정도	24	1.2	17	1.7	7	0.7
	일주일에 2-3번 정도	11	0.6	8	0.8	3	0.3
	일주일에 4-5번 이상	4	0.2	3	0.3	1	0.1
1회 음주량	소주 1잔(=맥주 1캔)	218	41.6	114	36.0	104	50.2
	소주 2잔	27	5.2	16	5.0	11	5.3
	소주 3잔(=맥주 2캔)	61	11.6	39	12.3	22	10.6
	소주 4잔(=맥주 3캔)	35	6.7	26	8.2	9	4.3
	소주 5잔	17	3.2	9	2.8	8	3.9
	소주 6잔(=맥주 4캔)	20	3.8	13	4.1	7	3.4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31	5.9	18	5.7	13	6.3
	소주 1병 반(=맥주 8캔)	48	9.2	31	9.8	17	8.2
	소주 2병(=맥주 10캔)	24	4.6	17	5.4	7	3.4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5	2.9	13	4.1	2	1.0
	소주 3병(=맥주 15캔)	11	2.1	8	2.5	3	1.4
	소주 3병 반(=맥주 18캔)	3	0.6	1	0.3	2	1.0
	소주 4병(=맥주 20캔)	7	1.3	6	1.9	1	0.5
	소주 5병 이상	7	1.3	6	1.9	1	0.5

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F5 청소년들은 2023년 현재를 전후로 화제가 되거나 영화 등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에 대한 인지는 높은 반면, 이전 세대에 유행했던 물질의 경우 인지가 낮음.
- 코카인 인지가 90.2%로 매우 높았는데, 미디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대마초(90.2%),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83.5%)의 인지도도 높았음. 화제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비슷한 맥락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66.6%), 필로폰 등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61.6%)의 인지도도 다소 높은 편이었음.
- 펜타민 등 살빠지는 약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였으며(50.4%), 카트 등 캐치논류 마약(9.6%)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음. 이는 세대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3-86. 중독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예’라고 응답한 기준)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1803	90.2	867	86.7	936	93.6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1048	52.4	443	44.3	605	60.5
3) LSD 및 기타 환각제	756	37.8	411	41.1	345	34.5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1231	61.6	611	61.1	620	62.0
5) 코카인(크랙 등)	1804	90.2	871	87.1	933	93.3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1669	83.5	821	82.1	848	84.8
7) 헤로인	1161	58.1	612	61.2	549	54.9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328	16.4	199	19.9	129	12.9
9) GHB(물병 등)	931	46.6	462	46.2	469	46.9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192	9.6	101	10.1	91	9.1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541	27.1	232	23.2	309	30.9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1008	50.4	428	42.8	580	58.0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1331	66.6	590	59.0	741	74.1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236	11.8	149	14.9	87	8.7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컬크, 조커 등)	474	23.7	240	24.0	234	23.4
16) 마약버섯	446	22.3	253	25.3	193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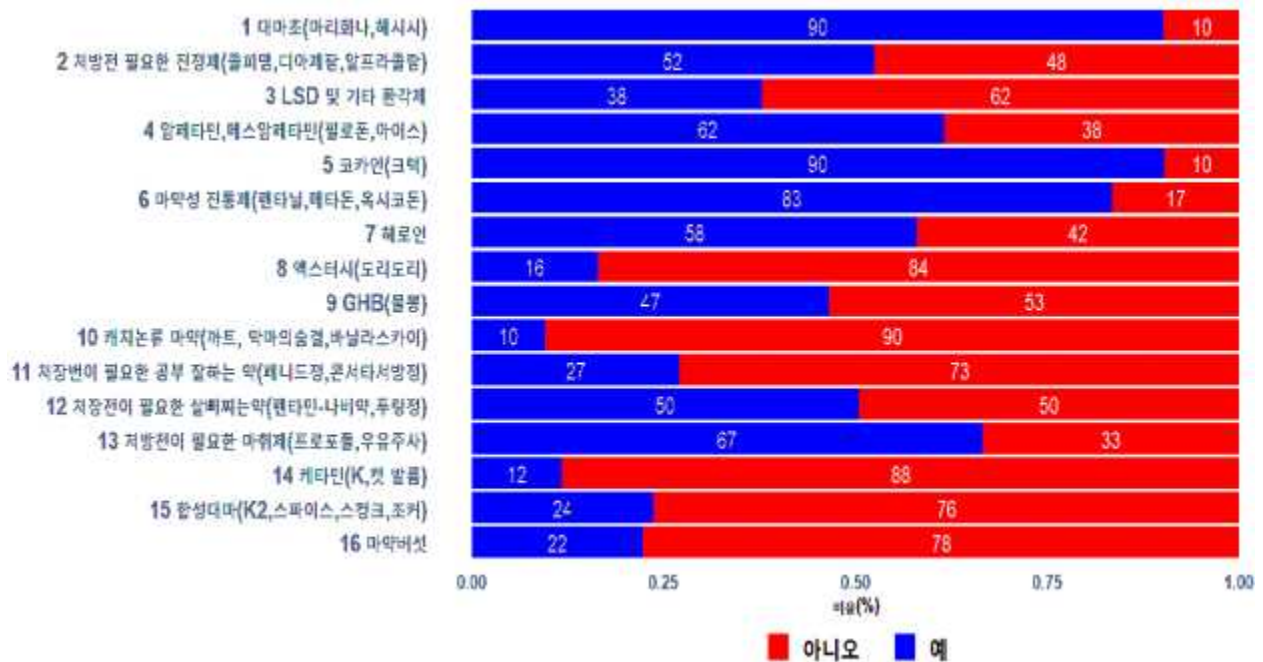


그림 3-25. 중독물질 인지 여부(청소년)

3)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 F6 청소년 중 2.6%가 중독 물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F7 본인 사용율이 가장 높은 물질은 살 빼는 약이었음(4.2%). 살 빼는 약의 주변 사용율이 12.2%까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율은 이 사이에 있는 수치일 것으로 추론됨. 청소년의 마약류 실제 사용에 개입할 때는 살 빼는 약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부 잘하는 약도 본인 사용율 1.3%, 주변 사용율 5.8%로, 이 사이의 수치일 것으로 보임.
- 술 깨는 약의 본인 사용율 1.5%, 주변 사용율 3.5%로, 살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과는 달리 음주는 청소년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보임.
- 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중 하나라도 본인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5.3%였음.
- 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중 하나라도 주변인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5.7%였음.

표 3-87. 마약류 사용자 및 주변의 마약류 사용 빈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약류 사용자 여부	사용자아님	1895	94.75	952	95.20	943	94.30
	마약사용자	105	5.25	48	4.80	57	5.70
주변의 마약류 사용 여부	주변마약 미사용	1686	84.30	890	89.00	796	79.60
	주변마약사용	314	15.70	110	11.00	204	20.40

- F8~F9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의 평생사용율은 1.9%, 대마초 평생사용율을 0.9%로 나타냈음. 매우 작은 숫자이므로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응답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환각물질과 대마초 사용 사례수가 2,000명 중 각각 37케이스, 17케이스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앞서 F6 문항에서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중 하나라고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6%였으나, 조건을 광범위하게 주어서 F6에 더하여 F7-1(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진통 마약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중 하나), F8(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평생 한 번이라도 흡입한 경우), F9(대마초(또는 헤시시) 등을 평생 한 번이라도 흡입한 경우)에서 마약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7.2%인 것으로 나타남.

표 3-88.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사용 여부	사용하지 않음	1855	92.75	930	93.00	925	92.50
	사용함	145	7.25	70	7.00	75	7.50

표 3-89. 중독물질 사용 여부(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51	2.6	30	3.0	21	2.1
	없다	1949	97.5	970	97.0	979	97.9

중독물질: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표 3-90. 중독물질 별 본인 및 주변사람 사용 여부(청소년)

(‘있다’고 응답한 기준)

	본인 사용			주변 사람 사용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살 빼는 약	4.2	3.1	5.3	12.2	6.8	17.6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1.3	2.0	0.6	5.8	4.9	6.7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0.6	1.0	0.1	0.6	0.8	0.4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5	2.3	0.7	3.5	3.0	4.0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0.6	0.9	0.2	0.3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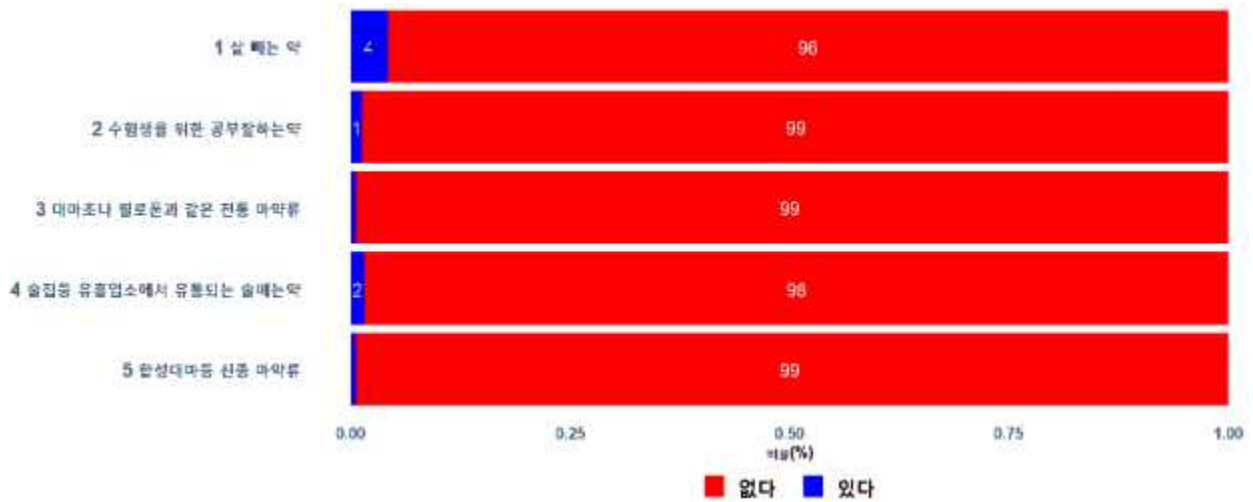


그림 3-26. 중독물질 별 본인사용 여부(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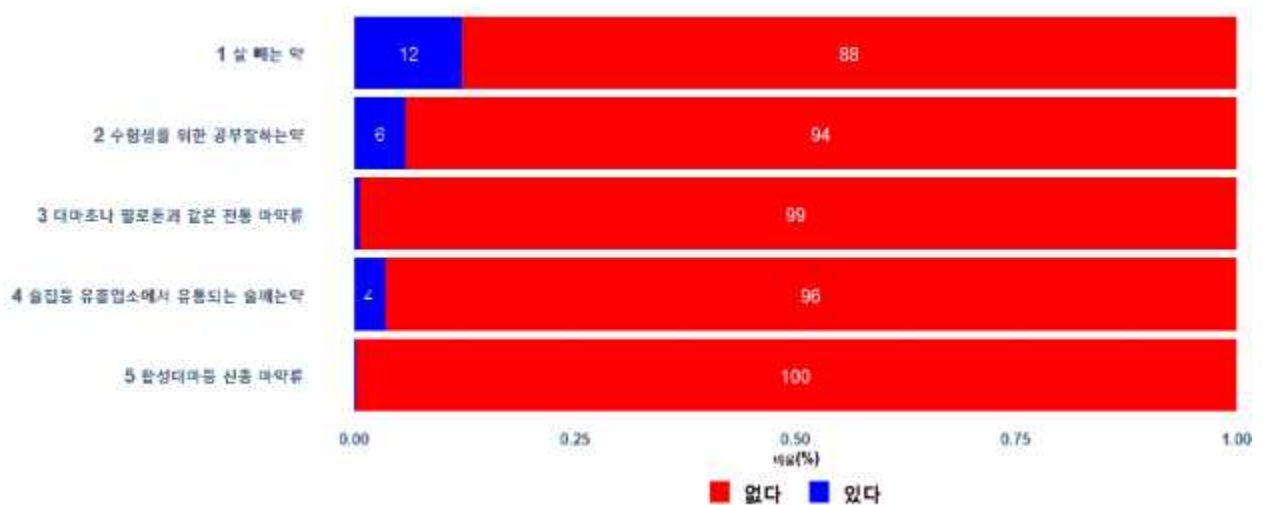


그림 3-27. 중독물질 별 주변사람 여부(청소년)

표 3-91. 흡입제, 대마초 평생 사용 경험(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흡입제(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평생 흡입횟수	전혀 없음	1963	98.2	979	97.9	984	98.4
	1~2회	22	1.1	9	0.9	13	1.3
	3~5회	9	0.5	8	0.8	1	0.1
	10회 이상	6	0.3	4	0.4	2	0.2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 평생 흡입횟수	전혀 없음	1983	99.2	985	98.5	998	99.8
	1~2회	7	0.4	7	0.7		
	3~5회	6	0.3	5	0.5	1	0.1
	6~9회	1	0.1	1	0.1		
	10회 이상	3	0.2	2	0.2	1	0.1

4) 마약류 물질 사용자의 성향

- 위의 두 가지 정의에 따른 마약류 사용자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스릴추구, 충동성 등 성향(c4 문항)이 다른지 t-test를 진행함.
- 마약사용자의 정의는 F6에서 그렇다고 한 경우와, F6, F7, F8, F9를 모두 고려한 경우 두 가지로 탐색함.
- $p < 0.05$ 수준에서 두 정의 모두에서 마약류 사용자들은 스릴추구 성향이 유의미하게 강하고, 충동성이 높고, 반사회성이 높았음. F6, F7, F8, F9를 모두 고려한 경우 이에 더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유의하게 낮았음.
- 구체적으로 유의한 문항을 보면, F6 기준의 마약류 사용자의 경우 $p < 0.05$ 수준에서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58.82점으로 마약류 미사용자의 52.9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의 경우 55.88점으로 미사용자의 42.47점이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의 경우 62.75점으로 미사용자의 50.8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음.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의 경우 54.41점으로 미사용자의 42.77에 비해 높았음.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가 54.90점으로 미사용자의 44.16에 비해 높았음.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가 60.29점으로 미사용자의 51.4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의 경우 61.76점으로 미사용자의 68.28점보다 유의하게 낮았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의 경우 52.94점으로 미사용자의 45.92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F6, F7, F8, F9를 모두 고려한 경우 F6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유의미한 문항이 늘어남.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에는 마약류 사용자가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에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

표 3-92.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F6 답변이 “예”이면 ‘마약사용자’ (F6)	사용X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t	p
전체	1949				51				-	
미래에 대한 희망 (C41, C42, C43, C44)	2.82	0.65	70.48	16.25	2.71	0.73	67.77	18.26	-1.172	0.241
스릴추구 (C45, C46, C47)	1.87	0.71	46.74	17.68	2.27	0.86	56.86	21.45	3.339	0.002
충동성 (C48, C49, C410, C411)	2.30	0.55	57.52	13.87	2.51	0.47	62.87	11.75	2.729	0.006
반사회성 (C412, C413, C414, C415)	1.91	0.65	47.67	16.15	2.27	0.75	56.86	18.80	3.996	0.000
영성 (C416, C417, C418)	2.51	0.53	62.83	13.28	2.54	0.58	63.48	14.54	0.344	0.731
자기 과신 (C420, C421, C422)	2.20	0.85	55.06	21.21	2.26	0.86	56.54	21.62	0.490	0.624

표 3-93.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F6부터 F72까지의 1-5까지 중 하나라도 “예”이거나, F8-F9까지 하나라도 1이 아니면 ‘마약사용자’ (F6TOF9OR)	사용X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t	p
전체	1949				51				-	
미래에 대한 희망 (C41, C42, C43, C44)	2.83	0.65	70.80	16.14	2.62	0.71	65.52	17.73	3.475	0.001
스릴추구 (C45, C46, C47)	1.86	0.70	46.48	17.53	2.15	0.82	53.68	20.41	-4.131	0.000
충동성 (C48, C49, C410, C411)	2.29	0.56	57.26	13.92	2.51	0.47	62.67	11.69	-5.285	0.000
반사회성 (C412, C413, C414, C415)	1.89	0.64	47.31	15.89	2.22	0.76	55.52	19.12	-5.037	0.000
영성 (C416, C417, C418)	2.52	0.52	62.99	13.02	2.44	0.66	61.08	16.53	1.357	0.177
자기 과신 (C420, C421, C422)	2.20	0.85	54.96	21.17	2.28	0.87	56.90	21.73	-1.059	0.290

표 3-94.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F6 답변이 “예”이면 ‘마약사용자’ (F6)	사용X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t	p
전체	1949				51				-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85	0.77	71.25	19.34	2.73	0.83	68.14	20.66	-1.13	0.26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02	0.71	75.54	17.83	2.80	0.85	70.10	21.22	-1.81	0.08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2.84	0.81	71.06	20.37	2.76	0.95	69.12	23.76	-0.67	0.50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2.56	0.86	64.07	21.49	2.55	0.90	63.73	22.54	-0.11	0.91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2.12	0.88	52.99	21.99	2.35	0.96	58.82	23.89	1.87	0.0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1.79	0.88	44.77	21.94	2.24	0.99	55.88	24.79	3.56	0.00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1.70	0.83	42.47	20.66	2.24	1.01	55.88	25.29	3.75	0.00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2.64	0.77	66.11	19.31	2.55	0.86	63.73	21.40	-0.87	0.3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2.50	0.82	62.60	20.51	2.71	0.78	67.65	19.55	1.74	0.08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2.04	0.79	50.89	19.76	2.51	0.81	62.75	20.23	4.23	0.00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2.31	0.87	57.71	21.79	2.39	0.83	59.80	20.66	0.68	0.50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71	0.79	42.77	19.71	2.18	0.97	54.41	24.34	3.39	0.00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77	0.79	44.16	19.84	2.20	0.89	54.90	22.37	3.80	0.00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2.06	0.87	51.44	21.68	2.41	0.85	60.29	21.32	2.88	0.00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2.09	0.87	52.31	21.64	2.31	0.88	57.84	22.07	1.80	0.07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2.50	0.79	62.57	19.81	2.67	0.84	66.67	21.02	1.46	0.15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2.57	0.81	64.28	20.23	2.61	0.85	65.20	21.26	0.32	0.7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2.25	0.81	56.20	20.16	2.41	0.78	60.29	19.48	1.43	0.15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73	0.85	68.28	21.28	2.47	0.86	61.76	21.42	-2.16	0.03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2.49	1.04	62.33	26.09	2.51	1.03	62.75	25.68	0.11	0.9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8	1.03	56.94	25.83	2.16	0.86	53.92	21.43	-0.99	0.33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1.84	0.92	45.92	22.91	2.12	1.03	52.94	25.81	2.15	0.03

표 3-95. 마약사용자여부 별 성향범주 점수 (청소년, 5점 척도)

F6부터 F72까지의 1-5까지 중 하나라도 “예”이거나, F8-F9까지 하나라도 1이 아니라면 ‘마약사용자’ (F6TOF9OR)	사용X				마약사용자				T-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100 점 만점)	표준 편차 (100 점 만점)	t	p
전체	1855				145				-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86	0.77	71.50	19.20	2.68	0.85	67.07	21.19	2.44	0.0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03	0.71	75.84	17.74	2.79	0.78	69.83	19.52	3.59	0.00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2.85	0.81	71.33	20.30	2.68	0.88	66.90	22.02	2.35	0.02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2.58	0.85	64.51	21.31	2.33	0.93	58.28	23.21	3.37	0.00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2.12	0.88	52.91	21.90	2.24	0.95	56.03	23.80	-1.53	0.13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1.78	0.87	44.39	21.70	2.14	1.00	53.45	25.11	-4.22	0.00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1.69	0.82	42.13	20.43	2.06	0.98	51.55	24.51	-4.51	0.00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2.65	0.77	66.21	19.33	2.56	0.79	63.97	19.74	1.35	0.18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2.49	0.82	62.20	20.41	2.78	0.82	69.48	20.51	-4.14	0.0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2.03	0.79	50.70	19.66	2.30	0.85	57.41	21.27	-3.68	0.00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2.29	0.87	57.37	21.82	2.51	0.82	62.76	20.44	-2.88	0.00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69	0.77	42.36	19.27	2.08	1.01	52.07	25.26	-4.53	0.00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75	0.78	43.73	19.54	2.14	0.93	53.45	23.13	-4.92	0.00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2.04	0.86	51.11	21.51	2.35	0.92	58.79	23.11	-3.88	0.00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2.08	0.86	52.04	21.48	2.31	0.93	57.76	23.30	-2.86	0.00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2.51	0.79	62.71	19.65	2.49	0.89	62.24	22.27	0.25	0.81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2.58	0.80	64.54	20.09	2.45	0.88	61.21	22.03	1.77	0.0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2.25	0.80	56.19	20.06	2.31	0.85	57.76	21.35	-0.90	0.37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74	0.85	68.50	21.20	2.52	0.88	63.10	22.06	2.95	0.0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2.49	1.05	62.35	26.18	2.49	0.99	62.24	24.67	0.05	0.96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7	1.03	56.86	25.82	2.28	0.98	56.90	24.56	-0.02	0.99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1.83	0.91	45.67	22.80	2.06	1.00	51.55	25.04	-2.97	0.00

5)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 F10 청소년의 마약류 물질 향후 이용가능성은 향정신성의약품 4.0%, 대마초 0.8%, 본드나 부탄가스 1.3%, 마약 1.0%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임. 규범적으로 이 응답은 0%가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향후 이용 의향이 포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96. 1년 이내 다음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담배를 피운다	전혀 가능성 없음	1430	71.5	649	64.9	781	78.1
	가능성 없음	260	13.0	152	15.2	108	10.8
	가능성 있음	221	11.1	141	14.1	80	8.0
	매우 가능성 있음	89	4.5	58	5.8	31	3.1
2) 술을 마신다	전혀 가능성 없음	829	41.5	384	38.4	445	44.5
	가능성 없음	285	14.3	134	13.4	151	15.1
	가능성 있음	609	30.5	339	33.9	270	27.0
	매우 가능성 있음	277	13.9	143	14.3	134	13.4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전혀 가능성 없음	1690	84.5	852	85.2	838	83.8
	가능성 없음	230	11.5	111	11.1	119	11.9
	가능성 있음	66	3.3	31	3.1	35	3.5
	매우 가능성 있음	14	0.7	6	0.6	8	0.8
4) 대마초를 피운다	전혀 가능성 없음	1875	93.8	909	90.9	966	96.6
	가능성 없음	109	5.5	77	7.7	32	3.2
	가능성 있음	13	0.7	11	1.1	2	0.2
	매우 가능성 있음	3	0.2	3	0.3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전혀 가능성 없음	1855	92.8	901	90.1	954	95.4
	가능성 없음	119	6.0	79	7.9	40	4.0
	가능성 있음	20	1.0	14	1.4	6	0.6
	매우 가능성 있음	6	0.3	6	0.6		
6) 마약을 이용한다	전혀 가능성 없음	1886	94.3	917	91.7	969	96.9
	가능성 없음	96	4.8	67	6.7	29	2.9
	가능성 있음	13	0.7	12	1.2	1	0.1
	매우 가능성 있음	5	0.3	4	0.4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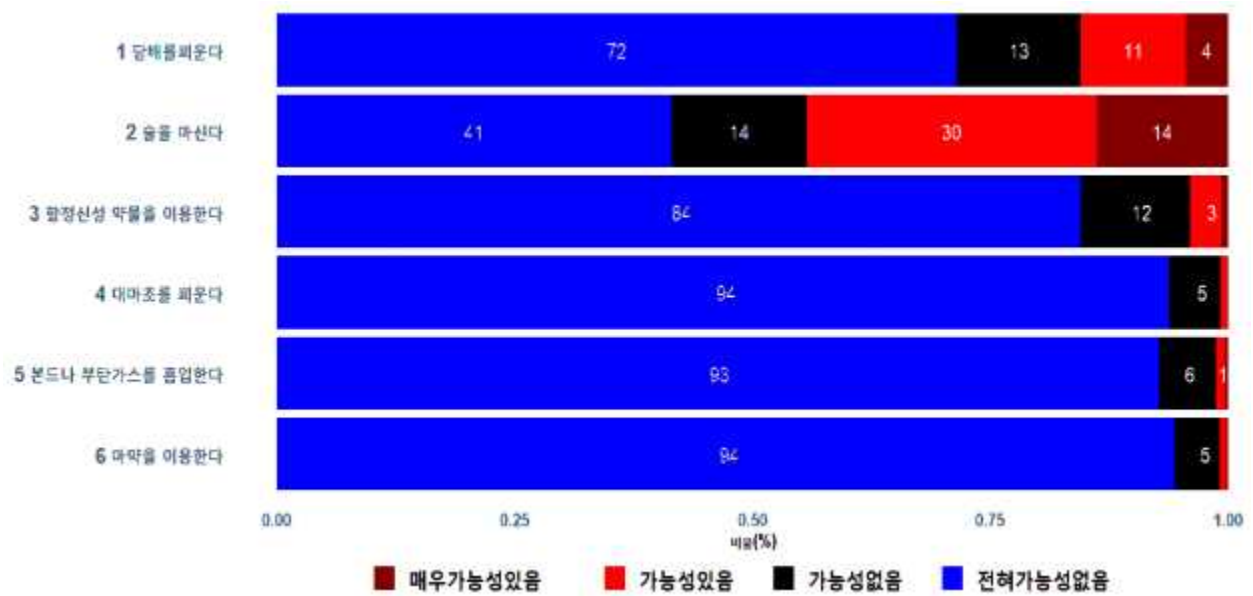


그림 3-28. 1년 이내 다음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청소년)

사.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G1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지도는 17.2%, 홈페이지나 SNS 등의 캠페인 인지도는 14.4%로 낮은 편이었음. 그러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27.9%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추론됨.

표 3-97.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청소년)

		전체 (N=2,000)		남성 (N=1,000)		여성 (N=1,000)	
		명	%	명	%	명	%
전체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약퇴치 본부 인지여부	알고 있다	343	17.2	175	17.5	168	16.8
	모른다	1657	82.9	825	82.5	832	83.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중 접해본 것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288	14.4	157	15.7	131	13.1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668	33.4	327	32.7	341	34.1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288	14.4	143	14.3	145	14.5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557	27.9	254	25.4	303	30.3

4절. 성인 청소년 조사결과 비교

가. 한국 마약 심각성에 대한 태도

1. 마약 청정국, 마약류 문제 심각도, 마약류 접근성

- 한국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인식도는 청소년(84.4%)이 성인(92.7%)보다 다소 낮음.

2. 마약류 인지도, 위험도

- 소수이기는 하나 마약류의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3.0%)이 성인(1.5%)보다 많고,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본 경우와 대부분의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경우를 합하면(93.0%) 성인(92.3%)에 버금가는 수치가 나와 청소년이 성인보다 사회 경험이 현저히 적음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약류 위험 인지는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이 비슷하나 청소년이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17.5%)가 성인(12.0%)에 비해 많음.
- 청소년이 마약류 남용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29.9%)는 성인(37.3%)보다 훨씬 적었음.

3. 마약류 문제 인지도, 마약류 중독 예방 관련

-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 실천의향이 청소년(75.8%)이 성인(84.6%)에 비해 낮음.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변에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의향도 청소년(70.6%)이 성인(75.4%)에 비해 약하게 떨어짐.

나. 마약류 사용 동기와 신념

- 청소년은 성인보다 마약류 사용의 고양동기(재미, 성적 즐거움, 창의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함.
- 그러나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에 동의율은 청소년(72.0%)이 성인(64.5%)보다 다소 높음. 살빼는 약의 기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강한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다.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건강신념모형

-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마약류 노출 가능성(민감도)을 낮게 평가함.
- 성인에 비해 마약류 중독 예방 행동의 장애를 낮게 평가함. 특히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한 인지와 마약류 예방 인식이 성인보다 더 높음.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폐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성인에 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의 사회 전체적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다소 낮고(청소년: 74.2%, 성인: 80.6%), 중독 예방 효과에 대한 동의율이 다소 낮음(청소년: 72.7%, 성인: 83.3%).
- 거절 효능감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높음.

라. 마약류 지식

-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모르겠다’ 항목의 응답률이 높아,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했음을 알 수 있음. 동시에 실제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지식 수준이 성인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간염 관련 지식의 정확도가 낮고(청소년 정답률: 55.9%, 성인 정답률: 73.4%),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마약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청소년 정답률: 44.6%, 성인 정답률: 48.3%).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임을 아는 경우가 81.5%로 성인(89.0%)에 비해 낮음.
-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에 맞다고 응답한 비율(79.1%)도 성인(89.0%)에 비해 낮음.

마. 지각된 스트레스, 외로움

-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수준이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음.
- 청소년의 49.9%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데 성인은 그 비중이 41.4%임.
- 외로움의 경우 성인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비해, 청소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외로워하는 경향이 있음.

바. 물질사용 성향척도

-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미래에 대해 낙관하며 진취적인 태도를 보임.
- 그런데 외모만족도의 경우 청소년은 특이 여학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성인은 큰 차이가 없음.
- 충동성향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강함.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경우 청소년은 31.9%가 동의한 반면, 성인은 이보다 훨씬 적은 16.3%가 동의함.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

면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의 경우도 청소년은 동의율이 22.9%에 달하고, 성인은 이보다 훨씬 낮은 12.3%임.

-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도덕성 인식이 약함.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4.3%로 꽤 높은 반면, 성인의 경우 15.5%로 낮음.
- 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비합리적인 자신감이 성인에 비해 더 강하게 있음.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2%로 성인의 37.1%보다 많음.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3%로, 성인의 29.4%보다 많음.

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낙인

-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자 개인에 대한 낙인이 전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덜 함.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에 성인은 54.9%가 찬성한 반면, 청소년은 34.5%만이 찬성함.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에도 성인은 49.4%가 찬성한 반면 청소년은 33.1%만이 찬성함.
-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률도 청소년(11.3%)이 성인(8.8%)에 비해 높음.
- 청소년이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9.2%로 성인의 7.3%보다 높음.

아. 사회적 지지, 신뢰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청소년이 14.7%로, 성인의 8.9%보다 다소 많음.
- 청소년의 일반 신뢰는 4.3점으로 성인의 4.6점으로 조금 더 낮음. 5점이 중간점임을 감안할 때, 성인보다 생활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 일반화한 대인 신뢰가 더 낮고,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됨.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가치관 아노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 폭력 경험

- 남학생들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 이용 경험률이 6.2%인 반면, 남성 성인의 경우 3.8%로 더 낮음. 남학생들이 한창 신체적으로 지위경쟁을 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보임.

차. 본인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주변인 규범, 일반인 규범

- 일반사람의 본인의 마약사용에 대한 반응은 성인과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주변인의 반응은 성인이 청소년보다 미세하게 더 불허용적인 방향으로 응답함.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청소년은 주위 사람들의 89.8%가 불허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성인은 91.8%가 같은 응답을 함.
- 청소년이 아직 성인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허용률이 높은 것이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규범이 성인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청소년들이 주변인에 대한 사회 통합의 정도가 낮든가, 주변인 전부 규범이 성인이 비해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카. 주변인의 물질 사용

-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청소년이 주변인 사용을 더 높게 보고하여(청소년: 16.1%, 성인: 11.5%),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더 친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과 성인 모두 여성이 주변인 사용률을 높게 보고하여, 살빼는 약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타. 중독물질 인지

- 청소년의 중독물질 인지율이 전반적으로 성인보다 낮음. 이는 인생경험의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졸피뎀 등 진정제의 인지율은 청소년 52.4%, 성인 83.7%임.
- 성인과 청소년이 살아 온 시대가 다름으로 인해 유행을 타는 마약류의 경우 인지율에 차이가 발생함. 예를 들어 엑스터시의 경우 청소년의 16.4%만이 안다고 응답한 반면, 성인의 경우 70.8%가 안다고 응답함.

파. 중독물질 사용(본인 및 주변인), 향후 이용 가능성

- 중독 물질 사용 경험은 성인이 3.1%로 청소년의 2.6%보다 높음. 그러나 성인이 살아 온 시간이 청소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사용율을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장 본인 및 주변인 사용율이 높은 물질은 살빼는 약인 것으로 나타남
- 성인과 청소년 모두 환각물질과 대마초 평생이용률 자체는 1% 대로 매우 낮으나, 평생이용율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환각물질 이용율이 1.9%로 성인의 1.8%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대마 평생이용율 0.9%도 성인의 1.5%에 비해 완전히 낮은 수치가 아니므로, 청소년의 마약류 물질 사용이 성인에 비해 더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작은 숫자이기는 하나 향후 이용가능성이 모든 물질에서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음.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청소년이 4.0%, 성인이 3.2%임.

하.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인지도

-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활동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낮은 편임. 그러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이 27.9%로 성인의 8.4%보다 확연히 높음.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추론됨.

5절. 스크리닝 도구 개발

가. 스크리닝 도구 문헌고찰

-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약사용 또는 중독에 대한 사전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로 마약남용선별검사(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 알코올, 흡연 및 물질 관련 선별검사(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물질남용미세선별목록(The Substance Abuse Subtle Screening Inventory, SASSI), 중독심각성지수(The Addiction Severity Index, ASI)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임.
- 우리나라는 마약남용 선별검사를 번안해 “약물중독 선별검사 한국어판 Drug Abuse Screening Test-10, DAST-10”을 사용함. 이 번안된 도구에서 마약(drug)은 약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용과 성인용 선별검사가 있음.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의 경우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이면 약물남용, 3개 이상이면 약물의존에 해당함. 3~5개는 경증(mild), 6~8개는 중간 정도(moderate), 9개 이상은 심한 정도(severe)임. 3개 이상이면 입원 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함⁶⁾. 성인용 약물남용 선별검사 한국어판의 경우 ‘예’라는 응답이 없으면(0점)이면 건강한 수준이며, 1-2개이면 위험한 수준, 3-5개이면 중간정도, 6개 이상이면 심각한 수준임⁷⁾.
- 마약남용⁸⁾ 선별검사(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 이 도구는 약물사용 및 약물사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20개 항목의 자가 평가 도구이며, 성인용과 청소년용이 있음. 이 테스트는 완료하는 데 약 5~10분이 소요되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DAST-10은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DAST를 압축한 10개 항목의 자가 보고 도구이고, DAST-10로 성인용과 청소년용이 있음. 1982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 및 정신건강 센터의 하비 스킨너 박사와 중독 및 정신건강 센터가 저작권⁹⁾을 보유하고 있음.
- 알코올, 흡연 및 물질사용 관련 선별검사(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¹⁰⁾: WHO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담배, 알코올 및 기타 마약사용을 평가하는

6) 김경빈,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 검사표 2형

7) Kim Y.(2014). “Validating a Korean Version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10 (DAST-10)”.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0:232-241.

8) 다른 나라는 drug가 마약에 해당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약물”이라는 용어 대신 “마약”으로 번역하였음.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약물”로 번역되어 “약물남용 선별검사”로 번역되나 본 연구에서는 약물과 마약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약남용 선별검사”로 번역함.

9) Skinner HA (1982).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Addict Behav 7(4):363-371. Yudko E, Lozhkina O, Fouts A (2007).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J Subst Abuse Treatment 32:189-198. To use this tool, please contact Dr. Harvey Skinner at hskinner@yorku.ca

10)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the-assist-linked-brief-intervention-for-hazardous-and-harmfu>

8가지 항목의 자가진단 도구임. 이 테스트는 완료하는 데 약 5~10분이 소요되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물질남용미세선별목록(The Substance Abuse Subtle Screening Inventory, SASSI): 음주, 흡연, 마약 및 물질 남용에 자가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74개, 음주 관련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 13개, 마약 포함 물질 관련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 18개로 이루어져 있음. 예-아니오 기반의 질문은 대인관계, 즉흥성, 정서적 안정, 권위에 대한 태도, 효용감, 자기통제감, 가족 갈등, 내성 등 물질 남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I am a binge drinker/drug user”와 같이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과음을 하는 사람과 마약사용자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후반부의 이용 빈도 관련 질문 역시 “Misused medications or took drugs to improve your thinking and feelings?”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약물 남용과 마약 이용이 혼재되어 있는 구성임. 이 테스트는 완료하는 데 약 15~20분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유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중독심각성지수(The Addiction Severity Index, ASI): 마약 및 알코올 사용, 의료 및 정신과 병력,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자가진단 도구임. 이 테스트는 완료하는 데 약 60~90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가 시행하지만, 일부 온라인 버전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자가진단 도구는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야 함. 이러한 도구는 마약사용 또는 중독에 대한 예비 평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평가와 적절한 치료 권장 사항은 의료 전문가 또는 면허를 소지한 중독 상담사와 상담해야 함.
- Kultegin Ogel et al.(2017)은 Addiction Profile Index(API)를 이용하여 터어키의 문화에 맞는 알코올과 마약사용 위험 스크리닝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조사 대상자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러 다양한 도구 즉 API, CAGE Scale,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AST-10(drug abuse screening test), DUDIT(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등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6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BAPIRT-alcohol 그리고 BAPIRT-drug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이들의 내적 일치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각각 0.70과 0.88이었다. 이 중에서도 BAPIRT-drug 설문지와 BAPI, DUDIT, DAST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96, 0.89, 0.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IRS(Addiction Profile Index Risk Screening)가 터어키의 알코올 및 마약 남용 환자들을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서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높은 도구임을 보여줌(Kultegin Ogel et al., Study on developm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risk-screening questionnaire for alcohol and drug use,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017, 27(2) 164-172).
- Rachel Humeniuk et al.(2008)은 세계 보건 기구의 알코올, 흡연 및 물질 관련 선별검사인

ASSIST(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의 동시 타당도, 구성 타당도 및 변별적 타당도를 평가하였음. 마약 치료(n = 350) 및 1차 의료 셋팅(n = 697)에서 모집된 1,047명의 참가자에게 일련의 도구가 제공되었다. 측정도구에는 ASSIST; the Addiction Severity Index-Lite (ASI-Lite); the Severity of Dependence Scale (SDS); the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Plus); the Rating of Injection Site Condition (RISC);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the Revised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RTQ); and the Maudsley Addiction Profile (MAP) 등이 포함되었음. 주요 결과에 의하면 ASSIST 점수와 ASI-Lite(r = 0.76-0.88), SDS(r = 0.59), AUDIT(r = 0.82) 및 RTQ(r = 0.78)의 점수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에 의해 동시 타당성(concurrent validity)이 입증되었음. MINI-Plus 진단 남용 또는 의존(P < 0.001) 환자의 경우 ASSIST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음.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ASSIST 점수와 약물 및 알코올 문제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 측정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에 의해 확립되었다(r = 0.48-0.76). 변별적 타당성(Discriminative validity)은 물질 사용(use), 남용(abuse) 및 의존(dependence)을 구별하는 ASSIST의 능력에 의해 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는 ASSIST가 여러 마약을 사용하고 마약사용 정도가 다양한 개인의 향정신성 약물사용을 식별하기 위한 유효한 선별 검사임을 입증하였음¹¹⁾.

- Madras BK et al.(2009)은 SBIRT(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o Treatm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 물질사용자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음. 이 도구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에 의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사용되었음. 물질남용 스크리닝 및 중재가 시행된 후 약물 섭취 시점과 6개월 후 불법 물질사용 정도를 비교하였음. SBIRT 서비스는 6개 주에 걸쳐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 집단(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히스패닉)을 선별하고 점수 기반 점진적 개입 수준(간단한 개입, 단기 치료, 전문 치료 의뢰)을 제공했음. SBIRT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차 분석에서 물질사용 데이터는 기준선(baseline)에서 양성으로 선별된 무작위로 선택된 모집단(10%)에서 물질섭취 시점과 6개월 추적 시점에서 비교되었음. 선별된 459,599명의 환자 중 22.7%가 사용 스펙트럼(위험/문제, 남용/중독)에 대해 양성이었음. 대다수는 단기 개입(15.9%)이 권장되었으며 단기 치료(3.2%) 또는 전문 치료(3.7%)를 추천하는 비율은 적었다. 베이스라인 불법 물질사용을 보고한 사람들 중 6개월 추적 조사(6개 사이트 중 4개¹²⁾)에서 물질사용 비율은 67.7% 더 낮았고 과도한 알코올 사용은 38.6% 더

11) Rachel Humeniuk et al., Validation of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ddiction*. 2008, 103(6):1039-47.)

12) 신현주, 조근호, 박애란, 이상규, 이해국, 김한오, & 이계성. 2014. "한글판 ASSIST (Alcohol, Smoking &

낮았다. 단기 치료 또는 전문 치료 의뢰가 추천된 사람 중 일반 건강($p < 0.001$), 정신 건강($p < 0.001$), 고용($p < 0.001$), 주거 상태($p < 0.001$) 및 범죄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음¹³⁾.

- 한국의 ASSIST 타당화 연구는 신현주 외(2014)가 있음. 한국에서는 대체로 고위험 약물 사용자보다는 저위험, 중등도 사용자 판별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ASSIST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사용 평가에도 적절하며, 절단점은 세계보건기구의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Humeniuk et al. (2016)은 기존의 ASSIST를 청소년 용으로 개정한 ASSIST-Y를 발표하였음.¹⁴⁾ 기존 성인용 cut-off 값이 청소년용으로 validation이 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함. 청소년들의 발달상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ASSIST-Y 10-14세용과 15-17세용 두 가지로 고안됨. 성인용과 전체적인 구성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식으로 약간 변형되었음. 성인용에서 Q3(craving)과 Q7(cutting down)은 construct validity와 face validity가 다소 낮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어서 주요 수정 대상이 됨. Q3은 청소년의 경우 craving이 아니라 peer group pressure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수정되었고(혼자 있을 경우 더 약물을 하고 싶어지는지), Q7은 cutting down이 아니라 injection 경험으로 수정되었음(15-17세의 경우에만 해당).
- 또한 10-14세용은 설문을 6번까지로 줄이고, 15-17세용은 7번까지로 줄여서 cut-off 점수 계산 방법이 성인용과 조금 다름. 예를 들어 10-14세의 경우 성인에게 적용되는 'low risk'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없앴.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을 고려하여 도구의 도입부가 추가되었음. 측정 결과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고지할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고, 응답의 비밀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함.
- Ali et al. (2013)는 간소화한 ASSIST인 ASSIST-Lite를 개발하였음¹⁵⁾. 일반적인 의료 세팅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시간이 부족한데 기존의 ASSIST가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ATS와 cocaine을 stimulants로 합치고 응답 항목을 Yes/No 형태로 간소화함. 알코올에 대한 문항은 AUDIT를 참고하여 구성함. 응답 시간은 대략 2분 정도 걸림. 이 연구의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선별검사) 의 표준화 연구." 중독정신의학 18(1): 29-36.

13) Madras BK et al.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Referral to Treatment (SBIRT) for illicit drug and alcohol use at multiple healthcare sites: comparison at intake and 6 months later. *Drug Alcohol Depend.* 2009;99(1-3):280-295)

14) Humeniuk, R., Holmwood, C., Beshara, M., & Kambala, A. (2016). ASSIST-Y v1. 0: first-stage development of the who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nd linked brief intervention for young people.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25(4), 384-390.

15) Ali, R., Meena, S., Eastwood, B., Richards, I., & Marsden, J. (2013). Ultra-rapid screening for substance-use disorders: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Lit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32(1-2), 352-361.

경우 한국인 샘플도 포함되었는데, 연구의 한계에 보면 한국인 샘플은 alcohol 문항에만 주로 응답하고 다른 물질에는 거의 input이 없었다는 언급이 있음. 편당은 호주 정부에서 하였고 조사도 아테레이드 대학 소속의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음(<https://eassist.assistportal.com.au/#/eassist-lite>).

- 청소년을 위한 문제 중심 선별도구(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POSIT)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의해 개발되었고, 10가지의 기능적 영역에 따라 설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Yes/No로 대답하는 총 1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¹⁶⁾ 응답시간이 최소 20분 이상 소요됨. 설문 자체는 간단하여 대답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음.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은 “Do you have so much energy you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두 번째 질문은 “Do you brag?”이고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함.
- S2BI(Screening to Brief Intervention)의 경우, 청소년용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CRAFFT에 흡연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였음. 전체 7문항으로 매우 간결하고, 응답 후 바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개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김봉수, 김정빈 외(1995)와 김정빈(1997)¹⁷⁾에 따르면,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 2형(Korean Adolescent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 2, KOADAST-2)의 경우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 1형, DSM-IV, 연구자의 약물중독 청소년 치료 경험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전체 문항은 12개임. ‘약물을 조절해서 사용하려 하지만 잘 안 된다’, ‘약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내가 나가게 되거나(가출), 가족들이 나를 나가라고 한다(위협이나 내쫓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그렇다’, ‘애매하게 해당된다’, ‘아니다’로 기록함.
- 국내 기관에서 2023년 6월 현재 사용 중인 진단 도구 목록은 아래와 같음. 전체 59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약물중독 선별검사 한국어판(DAST-K, 총 10문항)을 사용하는 기관이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형 약물중독 선별검사 2형(KOADAST-2, 총 12문항)을 사용하는 기관이 11곳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DAST-28을 사용하는 기관도 9개소 있고 한국어 번안본의 출처는 오동열(2004)의 『표준화된 마약류중독자 치료, 재활 프로그램연구』이나 번역 과정이 엄격한 척도 표준화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님. 11문항으로 된 약물선별검사를 사용하는 기관도 2개 소 있으며, 출처는 국립부곡병원

16) Knight, J. R., Sherritt, L., Harris, S. K., Gates, E. C., & Chang, G. (2003). Validity of brief alcohol screening tests among adolescents: a comparison of the AUDIT, POSIT, CAGE, and CRAFF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7(1), 67-73.

17) 김봉수, 김정빈, 이충경. (1995).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를위한 예비연구 (II). *신경정신의학*, 34(6), 1862-1874.

김정빈. (1997). 기획논문: 약물사용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4(1), 209-223.

(<https://www.bgnmh.go.kr/>)의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개발매뉴얼’인 것으로 양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확인함.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중독예방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경우, 각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선별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제주교육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등용) 올바른 약물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¹⁸⁾에 포함된 ‘약물중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경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DAST-K를 활용하고 있음.

표 3-98. 국내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별도구

지자체	기관명	KOAD AST-2	DAST- K	DAST -28	국립부곡 병원개발 약물검사	비고
서울(3)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서울(3)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울(3)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부산(3)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부산(3)	사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부산(3)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구(2)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구(2)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인천(5)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인천(5)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5)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인천(5)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인천(5)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광주(5)	광주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광주(5)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광주(5)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광주(5)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광주(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전(4)	대전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전(4)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전(4)	대전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대전(4)	유성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울산(2)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울산(2)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경기(10)	경기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3.6.28. 개소
경기(10)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경기(10)	김포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해정신건강

18)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웹페이지:

<https://www.schoolhealth.kr/web/search/selectTotalSearchList.do?bbsTyCode=BBST01&bbsId=02&lstnum1=4410&pageIndex=3&sortOrder=&pageUnit=10&searchWrd=%EB%A7%88%EC%95%BD&dataGbn1=0101&dataGbn1=0105&dataGbn1=0106&dataGbn1=0107&dataGbn1=0108&dataGbn1=0110&dataGbn1=0112&dataGbn1=0201&dataGbn1=0203&dataGbn1=0210&dataGbn1=0301&dataGbn1=0307&dataGbn1=0401&dataGbn1=0408&dataGbn1=0410&dataGbn1=0411>

						복지센터로 운영
경기(10)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기(10)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기(10)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기(10)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기(10)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기(10)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10)	화성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원(4)	강원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원(4)	강릉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강원(4)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강원(4)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충북(2)	충북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북(2)	청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충남(2)	아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2)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전북(4)	전북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북(4)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11문항)	
전북(4)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전북(4)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3.3. 개소 보건소에서 운영
전남(2)	목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운영
전남(2)	여수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운영
경북(2)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북(2)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운영
경남(6)	경남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남(6)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남(6)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남(6)	양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11문항)	
경남(6)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경남(6)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제주(3)	제주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제주(3)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운영
제주(3)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O			

- 조선진, 이해국, 임현우 외(2013)의 『중독 선별검사 도구 및 사용지침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등 다른 물질 중독과는 달리 국내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스크리닝 도구의 경우 엄격한 근거기반을 가지거나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아니므로 타당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2022년에 발간된 체계적 문헌 리뷰인 Pautrat et al.(2022)에 따르면,¹⁹⁾ 전 세계적으로 1차 의료 세팅

에서 RCT를 통해 검증된 마약류 관련 스크리닝 도구는 17개 정도가 있고, ASSIST와 CRAFFT의 연구 빈도가 가장 높음. 상대적으로 간략한 도구로는 ASSIST-Lite, ASSIST-Drug, DAST-2 등이 있고, S2BI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9. 국내외 마약류 위험 스크리닝 도구 관련 조사

			개발자/ 년도
Drug Use Disorder(DUD) questionnaire	마약 남용(abuse)과 마약 의존증(dependence)/2개 항목	마약사용 후 부상위험, 일상생활 장애경험, 체포 경험, 문제 경험 후 지속적 사용여부, 사용량 증가여부, 사용 후 심각한 부작용 경험여부(수면장애, 불안 등), 사용횟수 증가여부, 사용시간 증가여부 등	Michael Scherer et al./2013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10)	-	(지난 일년간)의료적 목적 외에 약복용 경험, 한번에 여러 종류의 약 복용 경험, 통제력, 약물의 부정적 영향(정신 잃음, 후회, 부모나 배우자의 불만, 가족 소홀, 비행, 금단증상 등) 약물사용으로 인한 증상(기억감소, 간염, 발작, 출혈 등) 10	Harvey Skinner (The 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Canada/ 1982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20)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MAST)을 참고하여 개발	(DAST-10 항목 외 추가 항목)처방약 남용 여부, 1주일간 약없이 버틸 수 있는 지, 부모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 초래 여부, 직장에서의 문제 초래, 친구와 결별, 도움 요청 여부, 싸움에 연루, 약물 소지로 체포 경험, 치료 프로그램 참가여부 등 20개 항목	Harvey Skinner (The Center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Canada/ 1982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ASSIST-Y, 0-14세 대상)	-	사는 동안 한번이라도 (의료적 목적 외에) 마약을 사용용한 경험이 있는지, 지난 3개월간 마약을 얼마나 자주 사용, 혼자 있을 때 지난 3개월간 얼마나 자주 사용, 그로 인해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관계, 건강, 학교 등)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었는지(학업, 가족 이벤트 등), 친구나 친척의 걱정을 초래했는지,	ASSIST(WHO, 2010)를 Rachel Humeniuk et al.가 청소년용으로 개발/2016
The Alcohol, Smoking and	-	(비의료적 목적으로)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는 약물은 무엇인지/그 약물을 지난 3개월간 (얼마나 자주	세계보건기구/1997

19) Pautrat, M., Pierre Lebeau, J., & Laporte, C. (2022). Identifying available addictive disorder screening tests validated in primary care: A systematic review. *Addictive Behaviors*, 126, 107180. doi: <https://doi.org/10.1016/j.addbeh.2021.107180>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v3.1)		사용했는지/얼마나 강하게 사용하고 싶었는지/ 건강, 사회적, 법적, 재정적 문제를 일으켰는지/얼마나 자주 평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었는지/ 친구나 친척이 걱정을 했는지/사용을 줄이려고 시도했는지) 주사로 사용한 물질이 있는지/8개 항목	
Personal Drug Use Questionnaire (SOCRATES 8D)	Recognition (인식), Ambivalence (상반된 감정), Taking Steps (변화 시도).	나는 정말 마약사용에 변화를 원한다/내가 중독자인 것 같다 /중단 안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미 변화를 시작하였다. /이미 중단하였고 계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마약 문제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나의 마약 문제는 심각하다. 통제력이 없는 것 같다/ 심각한 해로움을 야기하고 있다. (12개 항목)	Miller, W. R et al./1996
Addiction Severity Index	일반정보, 의료적 상태, 취업상태, 사용하는 물질, 법적 상태, 가족·사회관계/정신상태 7개	일반적인 정보(성별, 생년월일, 종교, 제한된 공간 수용 여부 등)의료적 상태(처방약 종류, 장애연금, 질병 등) 취업상태(교육수준, 자동차 면허소지, 취업 여부 등) 사용하는 물질(알코올, 담배, 마약 등, (물질사용으로 인한) 치료경험, 비용, 문제 야기 등,법적 상태(체포 경험, 구금 경험 등)가족·사회관계(결혼, 동거, 누구와 사는지, 관계 문제 등) 194개 항목	Thomas McLellan et al./1980
Barriers Questionnaire(1.0 D)	-	(마약사용에 대해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 정상적인 것으로 여김 /아무도 문제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음/심각한 문제가 없음/ 내 힘으로 해결 가능/중독이라고 생각 안 함:(도움을 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가족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함. 실직할 수 있음, 스스로 수치스러움, 돈이 없음. 어디로 할지 모름, 중단하라는 말이 싫음, 도움이 안 될 것 같음, 교통편이 없음. 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됨. (15개)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1838.
CAGE Substance Abuse Screening Tool	-	(당신의 알코올 혹은 약물사용에 대해)줄여야겠다고 느꼈는지/다른 사람의 비난에 기분 나빴던 적이 있는지/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는지/안정감이나 잠에서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한 적이 있는지/4개 항목	John A. Ewing/ 1970
The CHISPA (Cocaine, Heroin, IV drugs, Synthetic pot, Pot, Alcohol)	물질 남용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중재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추가 정보 획득을 위한 도구	지난 3개월간 사용한 적이 있는 물질, 일주일 혹은 한 달에 며칠간 물질을 사용하였는지, 물질을 사용할 때(정신 없음, 약물과 알코올 동시 사용, 운전 경험, 약물을 주사한 경험, 남용으로 인해 응급실 방문, 콘돔 없이 성관계, 싸움, 부상, 부모나 친구와 말다툼 등) 최근 성적표, 얼마나 중단/감소하고 싶은지, 실제로 중단/감소 노력을 했는지 등 6개 항목	Mary Ramos et al./2017

Inventory of Drug Use Consequences (InDUC-2L)	-	(물질 남용 후) 나 자신에 대해 안 좋게 느껴졌음. 결근(결석), 부모와 친구들이 걱정함. 업무 능력이 떨어짐.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함. 제대로 잠을 못 잠. 운전을 함. 구토나 질병, 또 다른 물질을 남용하게 됨. 제대로 못 먹어서 체중이 감소함. 물질남용으로 인해 불행감, 싸움, 돈 문제, 부상, 친구 잃음, 외모 상함, 체포, 다른 사람에 해를 가함. 물질사용은 기분을 좋게 함. 긴장을 풀리게 함. 등 50문항	Melanie E. Bennette et al./2009
Efficacy Scale	-	마약중독자가 치료받기 시작하면 회복되거나 개선할 가능성은 어떤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하면 회복되거나 개선할 가능성. 사람들이(혹은 당신이) 중독자인 지인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가능성. 사람들이(당신이) 중독자인 지인을 치료 프로그램에 넣어주려고 할 때 성공 가능성은?, 이 연구프로그램이 당신(혹은 당신의 지인)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8개 항목	Matthias Jerusalem et a/1981
CRAFT (Car, Relax, Along Forget, Family or Friends, Trouble) v2.1	사용 경험, 사용 상황, 사용으로 인한 영향/3개	지난 일년간 다음을 사용한 날을 며칠인가(알코올, 마리화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 약물을 사용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험, 혼자 기분전환을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경험,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경험, 기억 장애, 친구나 가족이 감소 권유, 문제 일으킴/ 9개 항목	John R. Knight et al. /2020
NIDA Drug Use Screening Tool Version 2		지난 해에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알코올, 담배, 비의료적인 의도로 처방약 사용, 마약), 평생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 약물은(대마초, 코카인, 처방 흥분제, 메탐페타미, 흡입제, 진정제 혹은 수면제, 환각제, 길거리 아편, 처방된 아편, 기타 등)지난 3개월간 앞서 지목한 약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약물에 대한 충동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건강, 사회적, 법적, 재정적 문제 경험, 일상적인 활동 수행 장애, 우려를 하는 친구나 친척, 중단이나 감소노력, 주사로 약물 투여 경험 등 8개	National Institute on Drug Use/2009

나.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구

- Evren, C., Ovali et al. (2014)는 마약사용장애가 있는 터키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문제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마약사용장애 선별도구(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UDIT)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하였음. 마약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마약남용장애 청소년 100명, 거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헤로인 의존성 성인 123명, 같은 병원에서 약물남용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알코올 의존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주요 결과에 의하면 DUDIT는 DAST-10(Drug Abuse Screening Test)과 비교했을 때 수렴타당도($r=0.76$)가 높고 Cronbach's alpha가 0.93으로 심리측정학적으로 적절한 선별검사임이 입증되었음. 또한, 단일 성분이 전체 분산의 58.65%를 차지했으며 DUDIT는 최적 컷오프 점수 10을 사용했을 때 민감도 0.96, 특이도 0.94를 나타냈고 알코올 의존 환자와 약물사용 장애 환자를 상당히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변별 타당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UDIT가 마약사용 장애가 있는 터키 환자의 일차원 구성(unidimensional construct)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마약남용 선별조사 도구임을 뒷받침하고 있음²⁰).
- Sherrilyn M. Sklar et al. (1997)은 1985년 Annis & Martin에 의해 특정 마약사용에 대한 상황별 대응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50개 질문 항목의 도구인 DTCQ(the drug-taking confidence questionnaire)에 대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713명의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음. G.A. Marlatt(Marlatt & Gordon, 1980)에 의해 밝혀진 재발(relapse)을 위한 8가지 고위험 카테고리에 기초한 8-factor first-order model과 3-factor second-order model이 DTCQ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TCQ의 8가지 하위스케일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DTCQ와 하위요인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DTCQ가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에 유망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음²¹).
- Bonfiglio et al.(2022)은 마약사용에는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가 있으며 이러한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인 MUS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음. MUS(Motivation to Use Substance)는 저항심, 자신감, 쾌감, 긴장 완화 등 4가지 동기에 기초한 도구임. 약물을 사용하는 605명의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첫 번째 그룹의 342명에게는 탐색적 분석(exploratory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그룹의 263명에게는 확인적 분석(confirmatory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20) Evren, C., Ovali et 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UDIT) in heroin dependent adults and adolescents with drug use disorder. Bulletin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4(1), 39-48. 2014

21) Sherrilyn M. Sklar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rug-taking confidence questionnaire: a measure of coping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22(5), 655-670, 1997

SCL-90(Symptom check list-90)검사를 실시하여 마약사용 관련 증상들을 파악하였고 마약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SI(Addiction severity index)를 사용하였음. 결과적으로 MUS는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수렴타당도와 동시타당도 측면에서 적합한 측정도구였으며 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입증하였음²²⁾.

- Saengduenchai et al. (2023)의 물질남용장애선별테스트(Substance Use Disorder Screening Test, SUDST)의 경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 기반하여 고안되었음²³⁾. 목적은 DSM-5에 부합하게 물질남용 장애의 심각성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임.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관련 이용 장애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음. 메스암페타민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 저자들이 직접 SUDST 척도를 개발함. 11개의 Yes/No 문항으로 구성됨. 요인은 ‘loss of control’, ‘risky/harmful use’, ‘impact of use’의 세 가지임. DSM-5에서 말하는 substance use disorder의 4가지 요인(impaired control, social impairment, risky use, pharmacological component’ 중 앞의 3가지와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pharmacological component와 유사한 아이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tolerance와 withdrawal 관련 문항).

22) Natale Salvatore Bonfiglio et al., Development of the motivation to use substance questionnair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34 (2022) 109414)

23) Saengduenchai, S., Nilaban, S., Singtho, T., Ranuwattananon, A., & Kalayasiri, R.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Substance Use Disorder Screening Test Based 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Journal of Health Science and Medical Research*, 41(4), 2023932.

다. 스크리닝 도구 개발 과정

-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마약류 사용 실태를 반영한 한국형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따라서 본 연구의 마약류 폐해 인식 설문조사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이 나온 마약류 물질들을 위주로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고, 의약학, 보건학 전문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약류 이용자에 대한 현장 경험에 기반한 수정 및 보완 진행.

표 3-100. 한국형 마약류 스크리닝 도구 개발 과정

1단계	기존 도구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벤치마킹 도구 1차 선별
2단계	1차 선별된 도구들을 영문학자가 한글로 번역, 워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
3단계	의약학 및 보건학 분야 내무 자문단 자문을 통한 수정
4단계	본 연구의 제1 세부 과제인 일반인 대상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예비조사(성인 200명) 결과에 의거하여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마약류 사용자 선별을 위한 한국형 스크리닝 도구 고안
5단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회의를 통한 수정 및 식약처 협의를 통한 최종본 확정
6단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중 조사원을 선별하여 연구책임자가 조사원 교육 진행
7단계	면접원이 있는 태블릿 기반 대면조사 진행(조사기간: 2023년 9월 19일 ~ 2023년 11월 24일, 목표 응답자 수: 100명)

1. 본 연구에 사용할 스크리닝 도구 벤치마킹 작업

-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질적 조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할 스크리닝 도구에서 주로 참고할 벤치마킹 척도들은 ASSIST-Lite, ASSIST-Drug, DAST-K, DAST-2, CRAFFT임. 이 척도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별한 이유는 임상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인지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5분 이내로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임.
- ASSIST-Lite는 세계보건기구의 ASSIST를 간소화한 버전으로 국내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선진, 이해국, 임현우 외(2013)의 『중독 선별검사 도구 및 사용지침 개발』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중독포럼에서 인터넷으로 자가검사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음(<http://www.addictionfr.org/web/content03/index3.php>). 기존의 ASSIST가 검사 소요 시간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질문이 23개 정도인 ASSIST-Lite와 같은 형태의 스크리닝 도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SSIST-Drug은 ASSIST에서 적합도가 높은 2문항을 선별하여, 응답항을 ‘예-아니오’에서 일년 중 해당 일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변형한 도구로²⁴⁾, 현존하는 스크리닝 도구 중 가장 짧은 편에 속하므로 벤치마킹 대상으로 고려함.
- DAST-K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2020)의 『2020년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10문항으로 DAST 중 가장 간결한 도구이며, 국내 중독관리통합 센터에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됨.
- DAST-2도 ASSIST-Drug과 마찬가지로 DAST에서 적합도가 높은 2문항을 선정하여 응답항을 1년 중 해당하는 일 수를 적도록 변형한 도구로²⁵⁾, 문항수가 짧은 점이 장점이므로 참고 대상이 됨.
- CRAFFT의 경우 본문항 6개, 도입부까지 포함한 전체 문항 9개로 간결하며, 한국에서 청소년용으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²⁶⁾. 마약류에 대해서만 묻는 도구뿐만 아니라 음주가 포함됨 진단테스트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활용한 신규 개발

- ASSIST-Lite, ASSIST-Drug, DAST-K, DAST-2, CRAFFT의 기본 틀을 참고하되,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 및 영문학자, 의약학 전문가, 보건학 전문가, 한국마약유통퇴치본부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표현을 한국어 어법과 상황에 맞게 전면 수정함. 또한 설문지의 로직을 마약류 사용자와 면접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수록 더욱 정교하게 재구성함.
- 2023년 9월 현재 한국의 마약류 사용 실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제1세부 과제, 일반인 대상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의 성인 대상 예비조사(n=200, 19세~59세, 2023년 7월 조사 시행)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롭게 한국형 스크리닝 도구를 신규 개발함(부록: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위험도에 대한 성인 조사’ 전문).
- 신규 개발된 도구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마약류 폐해 인식 설문조사의 예비조사에서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잡힌 물질을 위주로 문항을 구성함. 특히 한국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빈도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문의 수가 많게 구성함. 환각물질의 경우 해외 도구에서는 자주 등

24) Tiet, Q. Q., Leyva, Y., Moos, R. H., & Smith, B. (2016).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screen for drug use developed from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64, 22-27. doi:<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6.03.029>

25) Tiet, Q. Q., Leyva, Y. E., Moos, R. H., & Smith, B. (2017).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2). *Addictive Behaviors*, 74, 112-117.

26) 김용석. (2010). 청소년 약물남용 선별도구 (CRAFFT) 의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4, 30-55.

장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본드’ 등의 물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예)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문항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경험	
		예	아니오
3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대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 등)를 사용했습니까?	①	①
4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약(예: 마약성 진통제)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5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공부 잘하는 약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6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살빠지는 약(디에타민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7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수면제(졸피뎀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8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9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불법 마약류(필로폰 등)를 사용했습니까?	①	①
10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본드,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을 사용했습니까?	①	①
11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예) ASSIST-Lite 기반의 문항의 경우

다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4. 각성제(흥분제, 환각제 등) -2년				
4a	귀하는 필로폰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4b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빼는 약(펜터민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4c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공부 잘 하는 약(ADHD 치료제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5. 진정, 수면제(바륨, 아티반, 졸피뎀 등) -2년				
5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진정제나 수면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6번
6. 아편류(오피오이드, 의료용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2년				
6	귀하는 아편류(의료용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를 사용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아편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7번
7. 환각물질 -2년				
7	귀하는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8번으로

- 해외에서 개발된 기존 스크리닝 도구들의 경우 지난 1년간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응답자 리크루팅을 담당하는 한국마약유통퇴치본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마약류 사용자들 중 기소유예자들의 경우 법정 판결이 늦어져 마약사용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함. 따라서 주요 문항의 회상 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함.

예) ASSIST-Lite 기반의 문항의 경우

다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3. 대마초 - 2년				
3	귀하는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4번

- 일부 스크리닝 도구의 경우 물질사용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 술과 담배 사용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본 연구의 경우 한국에서도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되, 음주가 빈번한 한국 실정에 맞게 해외와 같이 1년이 아니라 3개월을 회상 기간으로 설정함. 또한 폭음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에도(아래 예시의 ASSIST-Lite 기반 문항의 2a) 한국의 공식 폭음 기준에 맞게 워딩을 구성함.

예) ASSIST-Lite 기반의 문항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흡연 및 음주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3개월간 경험		
		예	아니오	
1. 흡연 - 3개월				
1	귀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2번
2. 음주 - 3개월				
2	귀하는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①	아니오 ->3번
2a	(남성의 경우) 귀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 귀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①	

- 해외에서 개발된 문항들의 경우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 마약류 사용자들은 주위에 마약류 사용을 거의 알리지 않고 혼자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연구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런 종류의 문항은 포함하지 않음.
- 실제 마약류 사용자의 진입 패턴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 경험에 의거하여 새로운 문항이 추가됨.

예) DAST-K 기반의 문항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11	귀하는 의사가 처방한 마약류를 의사 지시를 벗어나 마약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 마약류에 대한 설명을 기존 도구들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한국 법령에 맞게 재구성함.

예) 모든 문항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설명글의 경우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빠지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액상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예) ASSIST-Drug 기반의 문항에 제시되는 설명글의 경우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귀하가 마약류를 의사의 권장 이상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기존 연구에서 영어 ‘drug’를 ‘약물’로 번역하던 관행이 있었으나, 한국어 의미상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마약(류)’라는 단어로 통일함.
- 스크리닝도구에서 마약류의 예시를 제공할 때, 해외 버전과는 달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물질 이름을 배치함.

예) DSM-5의 경우

*** 지금까지 살면서 다음 중 사용해 본적이 있었던 마약류를 모두 체크하세요.**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1	E-1. 대마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	①	①	예일 경우 E-1. 대마초
2	E-2. 각성제(엘에스디[LSD],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 캔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살빼는약, 공부잘하는약, 메스캐치논, 암페타민)	①	①	예일 경우 E-2. 각성제
3	E-3. 진정/수면제(케타민, 바륨, 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지에이치비[GHB, 물뽕], 카리스프로돌[근이완제], 프로포폴)	①	①	예일 경우 E-3. 진정/수면제
4	E-4. 아편류(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 펜타닐 등)	①	①	예일 경우 E-4. 아편류

- 해외 조사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은 마약류 사용 조사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약류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와 같은 문구를 모두 삭제함.
- CRAFFT와 같은 도구의 경우 ‘알코올이나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동시에 질문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필요한 스크리닝 도구는 순수히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라는 문제의식에 부합하게 기존 도구를 수정하여 마약류 사용과 관련해서만 질문함.

예) CRAFFT 기반의 문항의 경우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6	귀하는 귀하를 포함하여 마약류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적이 있습니까?	①	①
7	귀하는 긴장을 풀려고,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8	귀하는 혼자 있을 때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9	귀하가 마약류를 사용했을 때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10	가족이나 친구가 귀하에게 마약류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11	귀하가 마약류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①

- 한국 마약류 사용자의 경우 거주 지역이 외국인 경우도 있다는 점, 주위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한국 마약류 사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응답자 배경 문항을 구성함.

예) 응답자 배경 문항의 경우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18. 해외

SQ9.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가족, 친구,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3. 개발 도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주관으로 2년 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19-59세의 성인을 조사중(조사기간: 2023년 9월 19일 ~ 2023년 11월 24일, 목표 응답자 수: 100명)
- 마약류 사용자 조사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면접원이 필요하므로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의 직원들로 면접원을 구성하고,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직접 면접원 교육을 진행함.
- 원활하고 정확한 응답을 위해 paper & pen 방식이 아니라 서베이몽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태블릿 기반의 조사를 진행함.

6절. 신규 개발 스크리닝 도구 평가

가. 자료 수집 방법 및 응답자 특성

-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주관으로 2년 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19-59세의 성인을 조사(조사기간: 2023년 9월 19일 ~ 2023년 11월 24일, 최종 유효 응답자 수: 108명)
- 남성이 73.1%로 여성보다 많았고, 고졸 학력이 57.5%로 가장 많았음. 미혼자가 74.5%, 별거/이혼/사별한 경우가 15.1%였음. 세전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4%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나이 평균은 32.19세였음.
- 개발된 스크리닝 도구인 DAST11-K의 평균 점수는 11점 만점에 5.93점,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 (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Brief Test for Drug Users)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6.68점이었음.

표 3-101.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N=108)					
항목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79	73.1	-	-
	여성	29	26.9	-	-
최종학력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3	2.8	-	-
	중학교 졸업	4	3.8	-	-
	고등학교 졸업	61	57.5	-	-
	전문대 졸업	13	12.3	-	-
	(4년제) 대학교 졸업	21	19.8	-	-
	대학원 이상	4	3.8	-	-
	미혼	79	74.5	-	-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11	10.4	-	-
	별거/이혼/사별	16	15.1	-	-
	100만원 미만	29	27.4	-	-
세전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6.6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14.2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	17.9	-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4.7	-	-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6	-	-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	2.8	-	-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	6.6	-	-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2	1.9	-	-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	1.9	-	-
	2천만원 이상	10	9.4	-	-
나이		-	-	32.19	9.25
DAST11-K		-	-	5.93	3.78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	-	6.68	3.06

나. 개발된 조사 도구

1. DAST11-K (Drug Abuse Screening Test 11 - Korean)

- 한국의 중독 관련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단도구인 DAST-10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영문학자가 신규로 번역, 역번역 후 보건학, 의학학, 범죄학 전문가단이 수정 및 교열함. 여기에 한국적 마약류 유입경로인 11번 문항(귀하는 의사가 처방한 마약류를 의사 지시를 벗어나 마약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을 추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DAST11-K를 개발함.
- 지난 2년간 마약류 사용 문제가 있는 경우를 1로, 아닌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3번 문항만 역코딩) 0점부터 11점까지의 DAST11-K 점수를 계산.

표 3-102. DAST11-K (Drug Abuse Screening Test 11-Korean)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학적인 용도 이외에 다른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2	귀하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십니까?	1점	0점
3	귀하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약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만일 마약류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 예로 답하십시오)	0점	1점
4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기억상실을 경험하거나 과거의 일이 회상 장면으로 재현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5	귀하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기분이 나쁘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아니오' 로 답하십시오)	1점	0점
6	귀하의 배우자(혹은 부모)는 귀하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7	귀하는 마약류 사용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8	귀하는 마약류를 구하기 위해 범법(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9	귀하는 마약류 사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10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의학적 문제(예: 기억상실, 간염, 경련, 출혈)가 있었습니까?	1점	0점
11	귀하는 의사가 처방한 마약류를 의사 지시를 벗어나 마약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2.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 마약류 폐해 인식 설문조사의 예비조사에서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잡힌 물질을 위주로 신규 도구를 개발함. 한국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빈도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래 표와 같이 공부 잘하는 약, 살빼는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문의 수가 많게 도구를 구성함.

- 또한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의 경우 다른 마약류 물질 사용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진입 경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문항도 포함함. 음주와 흡연의 경우 다른 마약류 물질과는 달리 단순 사용이 아닌 지속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의 경험을 ‘전혀 없음’, ‘일년에 한두 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함.
- 음주와 흡연의 경우 ‘전혀 없음’, ‘일년에 한두 번’은 한국 문화에서는 높은 강도가 아니므로 0점으로 코딩하고,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은 1점을 부여함.
- 3번에서 11번까지의 마약류 물질에 대해서는 지난 2년동안의 경험에 대해 빈번한 음주 및 빈번한 흡연보다 높은 점수인 2점을 부여하여 가중치를 줌.

표 3-103.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지난 12개월 경험			
		전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1	작년 한해 동안 귀하는 담배를 몇 번이나 피웠습니까?	0점	0점	1점	1점
2	작년 한해 동안 귀하는 술을 몇 번이나 마셨습니까?	0점	0점	1점	1점
				지난 2년 동안 경험	
				예	아니오
3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대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 등)를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4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약(예: 마약성 진통제)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5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공부 잘하는 약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6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살 빼는 약(디에타민 등)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7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수면제(졸피뎀 등)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8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9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불법 마약류(필로폰 등)를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10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본드, 부탄가스과 같은 환각물질을 사용했습니까?			2점	0점
11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2점	0점

다. 검증을 위한 조사 도구

1.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 마약류 중독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DSM-5)를 사용하였음.

- 한글판 원문은 영어 원본 및 이해국 외(2022)²⁷⁾의 번역본을 참고하여 연구진에서 한글 표현을 수정한 후 보건학, 의학학, 범죄학 전문가단의 최종 수정을 거친 버전을 사용함. 마약류 물질 5가지(대마초, 각성제, 진정/수면제, 아편류, 그 외의 마약류) 각각에 대하여 아래의 총 11가지 질문을 하였음.
- ‘예’의 경우 1점, ‘아니오’의 경우 0점을 부여하고 합산한 후 인별로 전체 마약류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였음.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2점 이상인 경우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²⁸⁾

표 3-104.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마약류)를 종종 사용하십니까?	1점	0점
2 귀하는 (마약류)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1점	0점
3 귀하는 (마약류)를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마약류)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1점	0점
4 귀하는 (마약류)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1점	0점
5 귀하는 반복적인 (마약류)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1점	0점
6 귀하는 (마약류)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1점	0점
7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1점	0점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습니까?	1점	0점
9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마약류)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1점	0점
10 내성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마약류)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꼈습니까?	1점	0점
11 금단- 귀하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였습니까?	1점	0점

27) 이해국, 임현우, 정현숙, 천영훈, 조선진, 장옥진, 이승엽, 김미현, 전예림, 오산여울. (2022).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28) 이해국 외. (2022).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McLellan, A. T. (2017). Substance Misus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Why do they Matter in Healthcar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Clinical and Climatological Association*, 128, 112-130.

라. 분석 결과

1. DAST11-K와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분포

- DAST11-K는 0점에서 11점까지의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점수가 균등하였음(평균: 5.93, 표준편차: 3.78).

표 3-105. DAST11-K의 분포표

	전체 (N=108)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체	108	100	100
1	5	4.6	4.6
2	5	4.6	9.3
3	11	10.2	19.4
4	11	10.2	29.6
5	12	11.1	40.7
6	4	3.7	44.4
7	11	10.2	54.6
8	13	12.0	66.7
9	9	8.3	75.0
10	14	13.0	88.0
11	13	12.0	100

표 3-106.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분포표

	전체 (N=108)		
	빈도	비율	누적비율
전체	108	100	100
0	1	0.9	0.9
1	4	3.7	4.7
2	8	7.5	12.1
3	19	17.8	29.9
4	16	15.0	44.9
5	9	8.4	53.3
6	15	14.0	67.3
7	5	4.7	72.0
8	11	10.3	82.2
9	3	2.8	85.0
10	3	2.8	87.9
11	3	2.8	90.7
12	3	2.8	93.5
13	3	2.8	96.3
14	1	0.9	97.2
17	1	0.9	98.1
19	1	0.9	99.1
20	1	0.9	100.0
결측	1	-	-

2. 구성타당도

-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의 경우 DAST11-K가 0.814,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이 0.670으로(두 지표 모두 항목 수는 11개), 구성 타당도가 적절한 편이었음.

표 3-107. DAST11-K와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내적 일관성 지표(크론바하의 알파값)

개발된 스크리닝 도구의 내적 일관성(Cronbach의 알파)		
DAST11-K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항목 수
.814	.670	11

3. 수렴타당도

- 10문항으로 구성된 DAST-K 및 CRAFFT(자세한 문항 구성은 부록 참조)와 본 연구의 개발도구인 DAST11-K와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 KDASR)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p-value 0.001 이하로 높은 수렴 타당도를 보였음.

표 3-108.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					
		한국재활용마약중독 선별도구	DAST11-K	DAST-K (10문항)	CRAFFT (6문항)
한국재활용마약중독 선별도구	상관계수(r)	1	.574**	.561**	.557**
	p		0.000	0.000	0.000
	N	107	107	107	107
DAST11-K	상관계수(r)	.574**	1	.992**	.776**
	p	0.000		0.000	0.000
	N	107	108	108	107
DAST-K(10문항)	상관계수(r)	.561**	.992**	1	.775**
	p	0.000	0.000		0.000
	N	107	108	108	107
CRAFFT(6문항)	상관계수(r)	.557**	.776**	.775**	1
	p	0.000	0.000	0.000	
	N	107	107	107	107

4.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Curve) 분석

- DAST11-K와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 모두 AUC값이 0.8이상으로 높았고, p-value 역시 0.001이하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음.

표 3-109.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AUC 통계량					
검정 결과 변수	영역	표준화 오류	근사 유의확률	근사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DAST11-K	.812	.042	.000	.730	.894
한국재활용 마약중독선별도구	.896	.033	.000	.832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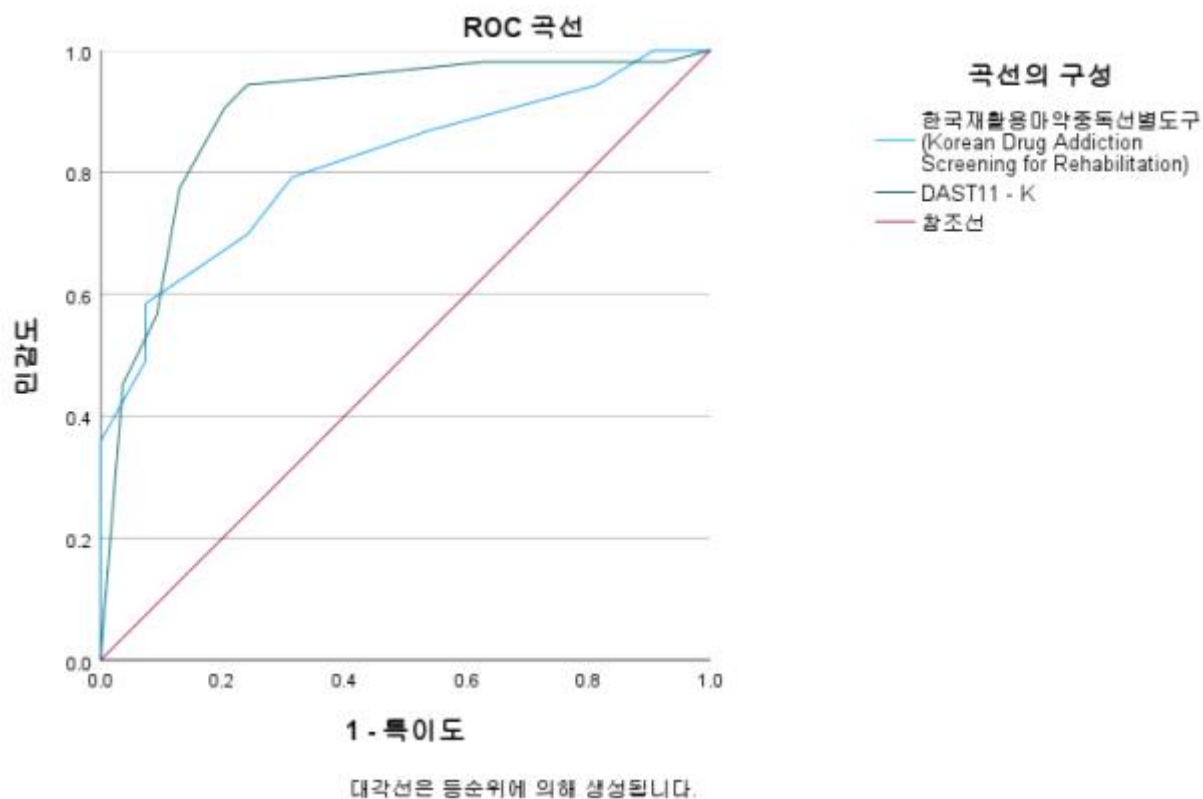


그림 3-29.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ROC곡선)

5. 절단점 도출과 결과 해설

- DAST11-K의 경우 DSM-5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의 약물중독 위험군을 식별해 내는 절단점으로 5.5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5.5점의 경우 민감도 0.943, 특이도 0.759로 가장 양호하였음.

표 3-110.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DAST11-K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점수	민감도	특이도
0	1.000	0.000
1.5	0.981	0.074
2.5	0.981	0.167
3.5	0.981	0.370
4.5	0.962	0.556
5.5	0.943	0.759
6.5	0.906	0.796
7.5	0.774	0.870
8.5	0.566	0.907
9.5	0.453	0.963
10.5	0.226	0.981
12	0.000	1.000

- 위의 결과에 따라 DAST11-K의 진단 결과가 5점에서 11점까지인 경우를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로 범주화할 수 있음. 또한 11문항 중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거나 1문항인 정도를 ‘문제 없음(No problem)’으로, 2문항에서 4문항 정도로 약하게 중독 관련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약한 수준(Low level)’로 명명할 수 있음.

표 3-111. DAST11-K의 결과 해석

DAST11-K의 결과 해석		
점수	범주	설명
0-1	No problem	문제없어요. 당신은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2-4	Low level	약물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해요. 당신은 낮은 수준의 약물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5-11	SUD	약물중독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당신은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세요.

-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경우 DSM-5 물질사용장애 진단기준의 약물중독 위험군을 식별해 내는 절단점으로 6.5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점의 경우 민감도 0.585, 특이도 0.926로 가장 양호하였음.

표 3-112.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표		
점수	민감도	특이도
-1	1.000	0.000
0.5	1.000	0.019
1.5	1.000	0.093
2.5	0.943	0.185
3.5	0.868	0.463
4.5	0.792	0.685
5.5	0.698	0.759
6.5	0.585	0.926
7.5	0.491	0.926
8.5	0.358	1.000
9.5	0.302	1.000
10.5	0.245	1.000
11.5	0.189	1.000
12.5	0.132	1.000
13.5	0.075	1.000
15.5	0.057	1.000
18.0	0.038	1.000
19.5	0.019	1.000
21	0.000	1.000

- 위의 결과에 따라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진단 결과가 6점에서 20점까지인 경우를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라고 할 수 있음. 또한 11문항 중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거나 1문항인 정도를 ‘문제 없음(No problem)’으로, 2문항에서 5문항 정도로 약하게 중독 관련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약한 수준(Low level)’로 명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No problem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독 관련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음주 또는 흡연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함. Low level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음주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를 지난 2년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됨. SUD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는 것 이외에 마약류 물질 중 두 가지 이상을 지난 2년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13.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의 결과 해석

한국재활용마약중독선별도구(Korean Drug Addiction Screening for Rehabilitation)의 결과 해석		
점수	범주	설명
0-1	No problem	문제없어요. 당신은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2-5	Low level	약물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해요. 당신은 낮은 수준의 약물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6-20	SUD	약물중독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당신은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 총괄활용성과

총괄과제명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총괄과제책임자	손애리/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손애리/보건교육(보건통계) 전공

가. 정책활용

-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한 마약류 중독자 감소 및 의료 범죄 등 사회, 경제적인 피해 비용 감소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도구를 개발해 마약류 사용 위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하여 마약류 중독자 예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지식, 태도, 경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다.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게재연월	권(호)	페이지	국내/국외*	SCI여부**
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for Assessing Drug Use Motiv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South Korea	Joon-Yong Yang ¹ , Minhye Kim ² and Aeree Sohn	healthcare	출판예정 (심사중)				SCI
2								

* 국내발간학술지인 경우 ‘국내’, 국외발간학술지인 경우 ‘국외’로 표기

** SCI, SCIE, 비SCI로 구분하여 표기

라.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국내/ 국제

마.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 연월일)	IPC분류

2. 총괄활용계획

- 마약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의 조사도구로 활용
-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 진단도구를 개발해 마약류 사용 위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하여 마약류 중독자 예방
- 국가 주도 마약류 폐해인식 및 노출경험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연구계획서대로 진행했고, 통계적 검정력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본 조사의 설문대상자 수를 더 많이 조사하였음.

내용	본 연구계획서		달성도
과제 1 마약류 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1.1 문헌고찰	1.1.1 국내 문헌고찰 - 마약류 폐해인식실태 조사	100%
		1.1.2 국외 문헌고찰	100%
	1.2 청소년과 성인용 폐해 인식과 노출 경험 설문지 개발	1.2.1 청소년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100%
		1.2.2 청소년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00명)	200명 -> 250명 조사
		1.2.3 성인용 마약폐해인식 설문지 개발	100%
		1.2.4 성인 설문조사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00명)	200명 -> 250명 조사
		1.2.5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 검증	100%
	1.3 실태조사 및 분석	1.3.1 청소년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1,500명	1,500명-> 2,000명 조사
		1.3.2 성인 마약폐해인식 실태조사 - 3,000명	100%
과제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2.1 국내외 약물사용장애 평가 도구 등 문헌고찰	2.1.1 국내 약물사용장애 진단평가 도구 문헌고찰	100%
		2.1.2 국외 약물사용장애 진단평가 도구 문헌고찰	100%
	2.2 마약류 노출 위험도 자가진단 테스트 개발	2.2.1 초점집단면접(전문가 집단)	100%
		2.2.2 마약사용 경험자와 미경험자 대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100% (100->108명 조사)
		2.2.3 최종 진단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	100%
		2.2.4 전문가자문회의	100%

제6장 총괄참고문헌

- 국가 마약류 안전관리 기획 연구, 이범진, 박귀례, 우주형, 2019-09, 식품의약품안전처.
- 김경빈, 기획논문: 약물사용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4(1), 209-223. 1997.
- 김봉수, 김경빈, 이충경,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를 위한 예비연구 (II), 신경정신의학, 34(6), 1862-1874. 1995.
- 김용석 외, 한국어판 물질남용에 대한 태도 척도(Substance Abuse Attitude Survey)의 타당화 연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71, 2019, 41-76.
- 김용석, 청소년 약물남용 선별도구 (CRAFT) 의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4, 30-55, 2010.
- 김은엽 외, 전라남도 청소년의 약물남용 태도 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2010.
- 머니투데이, 2022.09.13. 4060 진짜 줄었을까...온라인 집중 단속하니 1020 마약류 사범만 줄었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214194550328>
- 신현주 외, 대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6), 2015.
- 신현주, 조근호, 박애란, 이상규, 이해국, 김한오, 이계성, 한글판 ASSIST (Alcohol, Smoking &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선별검사) 의 표준화 연구, 중독정신의학 18(1): 29-36, 2014.
- 아주대학교·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의회, 2020
약물남용 폐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양태경 외,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999
- 윤연옥 외, 대구지역 중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 이영은 외, 부산지역 여중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2):162-172, 2007
- 이해국, 임현우, 정현숙, 천영훈, 조선진, 장옥진, 이승엽, 김미현, 전예림, 오산여울. (2022).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화자 외, 일부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및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5(1) 2001
- 정현주 외,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실태와 인식,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21(2):79-84, 2023
- 조선뉴스, 2022.07.25., 미국 MZ세대 사망률 1위 약물, 국내 급속 확산.
- 중앙일보, 2022.07.07.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 "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736#home>
- 최봉실 외,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조사,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3):275-280, 2022)
- 한경순 외, 대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지식 및 태도(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376-389, 2000
- 한선희,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1):57-70, 1999

- Adams, J.B.; Heath, A.J.; Young, S.E.; Hewitt, J.K.; Corley, R.P.; Stallings, M.C.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preferred substance and motivations for use among adolescent substance abusers. *Am J Drug Alcohol Abuse* 2003, 29(3), 691 - 712. <https://doi.org/10.1081/ada-120023465>
- Ali, R.; Meena, S.; Eastwood, B.; Richards, I.; Marsden, J. Ultra-rapid screening for substance-use disorders: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Lit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13, 132(1-2), 352-361.
-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New Jersey, US, 1986.
- Bennett, T.; Holloway, K. Motives for illicit prescription drug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Drug Policy* 2017, 44, 12 - 22. <https://doi.org/10.1016/j.drugpo.2017.02.012>
- Biolcati, R.; Passini, S. Development of the Substance Use Motives Measure (SUMM): A comprehensive eight-factor model for alcohol/drugs consumption. *Addict Behav Rep* 2019, 10, 100199. <https://doi.org/10.1016/j.abrep.2019.100199>
- Brenner, P.S.; DeLamater, J. Lies, Damned Lies, and Survey Self-Reports? Identity as a Cause of Measurement Bias. *Soc Psychol Q* 2016, 79(4), 333 - 354. <https://doi.org/10.1177/0190272516628298>
- Carpenter, C.J. A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belief model variables in predicting behavior. *Health Commun* 2010, 25(8), 661 - 669. <https://doi.org/10.1080/10410236.2010.521906>
- Cha, M.H.; Jang, C.H. Comparis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 and Japan on drug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 21(12), 688 - 696. Korean.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894339>
- Choi, J. Motivations influencing caffeine consump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ssociations with sleep quality. *Nutrients* 2020, 12(4), 953. <https://doi.org/10.3390/nu12040953>
- Comeau, N.; Stewart, S.H.; Loba, P. The relations of trait anxiety, anxiety sensitivity, and sensation seeking to adolescents' motivations for alcohol, cigarette, and marijuana use. *Addict Behav* 2001, 26(6), 803 - 825. [https://doi.org/10.1016/S0306-4603\(01\)00238-6](https://doi.org/10.1016/S0306-4603(01)00238-6)
- Conner, M.; Armitage, C.J.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and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J Appl Soc Psychol* 1998, 28(15), 1429 - 1464.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8.tb01685.x>
- Cooper, M.L.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 Assess* 1994, 6(2), 117 - 128. <https://doi.org/10.1037/1040-3590.6.2.117>
- De Leon, A.N.; Peterson, R.; Dvorak, R.D.; Leary, A.V.; Kramer, M.P.; Burr, E.K.; Toth, E.M.; Pinto, D. The health belief model in the context of alcohol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Psychiatry* 2023, 86(1), 1 - 16.
- Deci, E.L.; Ryan, R.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NY, US, 1985 <http://dx.doi.org/10.1007/978-1-4899-2271-7>
- DiClemente, C.C. Motivation for change: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Psychol Sci* 1999, 10(3),

209 - 213. <https://doi.org/10.1111/1467-9280.00137>

Disclaimer/Publisher's Note: The statements, opinions, and data contained

Drazdowski, T.K. A systematic review of the motivations for the non-medical use of prescription drugs in young adults. *Drug Alcohol Depend* 2016, 162, 3 - 25.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6.01.011>

Evren, C., Ovali et 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DUDIT) in heroin dependent adults and adolescents with drug use disorder. *Bulletin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4(1), 39 - 48. 2014.

Fadaei, M.H.; Farokhzadian, J.; Miri, S.; Goojani, R. Promoting drug abuse preventive behaviors in adolescent student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Int J Adolesc Med Health* 2020, 34(3). <https://doi.org/10.1515/ijamh-2019-0170>

Gold, A.K.; Stathopoulou, G.; Otto, M.W. Emotion regulation and motives for illicit drug use in opioid-dependent patients. *Cogn Behav Ther* 2020, 49(1), 74 - 80. <https://doi.org/10.1080/16506073.2019.1579256>

Greely, H.; Sahakian, B.; Harris, J.; Kessler, R.C.; Gazzaniga, M.; Campbell, P.; Farah, M.J. Towards responsible use of cognitive-enhancing drugs by the healthy. *Nature* 2008, 456(7223), 702 - 705. <https://doi.org/10.1038/456702a>

Hammersley, R. A digest of memory phenomena for addiction research. *Addiction* 1994, 89(3), 283 - 293. <https://doi.org/10.1111/j.1360-0443.1994.tb00890.x>

Hecimovic, K.; Barrett, S.P.; Darredeau, C.; Stewart, S.H. Cannabis use motives and personality risk factors. *Addict Behav* 2014, 39(3), 729 - 732. <https://doi.org/10.1016/j.addbeh.2013.11.025>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2001.

<https://doi.org/10.1007/s002130100917>

<https://doi.org/10.1016/j.addbeh.2009.07.001>

<https://doi.org/10.1080/00332747.2022.2114270>

<https://doi.org/10.1177/109019817400200403>

<https://doi.org/10.3390/ijerph192114271>

Hu, L.T.; Bentler, P.M.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 Methods* 1998, 3(4), 424 - 453. <https://doi.org/10.1037/1082-989X.3.4.424>

Humeniuk, R.; Holmwood, C.; Beshara, M.; Kambala, A. ASSIST-Y v1. 0: first-stage development of the who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nd linked brief intervention for young people.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2016, 25(4), 384-390.

Iszák, F.; Griffiths, M.D.; Demetrovics, Z. Creativity and psychoactive substance use: A systematic review. *Int J Ment Health Addict* 2017, 15, 1135 - 1149.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1469-016-9709-8>

- Jones, R.E.; Spradlin, A.; Robinson, R.J.; Tragesser, S.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pioid Prescription Medication Motives Questionnaire: A four-factor model of reasons for use. *Psychol Addict Behav* 2014, 28(4), 1290 - 1296. <https://doi.org/10.1037/a0037783>
- Khantzian, E.J.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of addictive disorders: Focus on heroin and cocaine dependence. *Am J Psychiatry*. 1985, 142(11), 1259 - 1264. <https://doi.org/10.1176/ajp.142.11.1259>
- Kim Y. Validating a Korean Version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10 (DAST-10).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014, 40:232-241.
- Kim, U. Culture, science, and indigenous psychologies: An integrated analysis. In *The Oxford Handbook of Multicultural Identity*; Benet-Martinez, V., Hong, Y.-Y., Ed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2005; pp. 51 - 77.
- Knight, J. R.; Sherritt, L.; Harris, S. K.; Gates, E. C.; Chang, G. Validity of brief alcohol screening tests among adolescents: a comparison of the AUDIT, POSIT, CAGE, and CRAFF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003, 27(1), 67-73.
- Ko, S.; Sohn, A. Behaviors and culture of drinking among Korean people. *Iran J Public Health* 2018, 47, 47 - 56.
- Madras BK et al.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Referral to Treatment (SBIRT) for illicit drug and alcohol use at multiple healthcare sites: comparison at intake and 6 months later. *Drug Alcohol Depend*. 2009;99(1 - 3):280 - 295.
- McLellan, A. T. Substance Misus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Why do they Matter in Healthcare?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Clinical and Climatological Association*, 2017, 128, 112-130.
- Miller, T.; Hendrie, D. Substance Abuse Prevention Dollars and Cents: A Cost-Benefit Analysis, DHHS Pub. No. (SMA) 07 - 4298;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Rockville, MD, 2008.
- Mohamed, A.D. The effects of modafinil on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of creativit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he J Creat Behav* 2014, 48(2), 153 - 168. <https://doi.org/10.1002/jocb.73>
- Natale Salvatore Bonfiglio et al., Development of the motivation to use substance questionnair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34 (2022) 109414.
- Park, J.M.; Sohn, A.; Choi, C. Solitary and social drinking in South Korea: An exploratory study.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20, 11(6), 365 - 372. <https://doi.org/10.24171/j.phrp.2020.11.6.04>
- Park, S.-S.; Baik M.-S. Analysis of the drug problem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Drug Harm Index development. *Public Policy Rev* 2019, 33(2), 209 - 227. Korean.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691915>
- Pautrat, M.; Pierre Lebeau, J.; Laporte, C. Identifying available addictive disorder screening tests validated in primary care: A systematic review. *Addictive Behaviors*, 2022, 126, 107180.
- Petratis, J.; Flay, B.R.; Miller, T.Q.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 Bull* 1995, 117(1), 67 - 86. <https://doi.org/10.1037/0033-2909.117.1.67>

- Pomazal, R.J.; Brown, J.D. Understanding drug use motivation: A new look at a current problem. *J Health Soc Behav* 1977, 18(2), 212 - 222. <https://doi.org/10.2307/2955385>
- Rachel Humeniuk et al., Validation of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Addiction*. 2008, 103(6):1039-47.
- Rigg, K.K.; Ibañez, G.E. Motivations for non-medical prescription drug use: A mixed methods analysis. *J Subst Abuse Treat* 2010, 39(3), 236 - 247. <https://doi.org/10.1016/j.jsat.2010.06.004>
- Rosenstock, I.M.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 Monogr* 1974, 2(4), 328 - 335.
- Saengduenchai, S., Nilaban, S., Singtho, T., Ranuwattananon, A., & Kalayasiri, R. (202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Substance Use Disorder Screening Test Based 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Journal of Health Science and Medical Research*, 41(4), 2023932.
- Sherrilyn M. Sklar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rug-taking confidence questionnaire: a measure of coping self-efficacy, *Addictive Behaviors*, 22(5), 655-670, 1997.
- Simons, J.; Correia, C.J.; Carey, K.B. A comparison of motives for marijuana and alcohol use among experienced users. *Addict Behav* 2000, 25(1), 153 - 160. [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104-x](https://doi.org/10.1016/s0306-4603(98)00104-x)
- Simons, J.; Correia, C.J.; Carey, K.B.; Borsari, B.E. Validating a five-factor marijuana motives measure: Relations with use, problems, and alcohol motives. *J Couns Psychol* 1998, 45(3), 265 - 273. <https://doi.org/10.1037/0022-0167.45.3.265>
- Sinha, R. How does stress increase risk of drug abuse and relapse? *Psychopharmacology*. 2001, 158(4), 343 - 359.
- Skinner HA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Addict Behav* 7(4):363-371. Yudko E, Lozhkina O, Fouts A (2007).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rug Abuse Screening Test. *J Subst Abuse Treatment*, 1982, 32:189-198.
- Smith, D.E.; Seymour, R.B. Dream becomes nightmare: Adverse reactions to LSD. *J Psychoactive Drugs* 1985, 17, 297 - 303. <https://doi.org/10.1080/02791072.1985.10524334>
-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Monthly trends in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 Korean]. Available online: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1> (accessed on 16 Sep 2023).
- Tabachnick, B.G.; Fidell, L.S.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Allyn and Bacon: Boston, US, 2007.
-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Psychotropic Drugs Control Act. Available online: <https://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drug&x=28&y=29#liBgcolor4> (accessed on 17 Sep 2023).
- Tiet, Q. Q.; Leyva, Y. E.; Moos, R. H.; Smith, B.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Drug Abuse Screening Test (DAST-2). *Addictive Behaviors*, 2017, 74, 112-117.
- Tiet, Q. Q.; Leyva, Y.; Moos, R. H.; Smith, B. Diagnostic accuracy of a two-item screen for drug use developed from the alcohol, smoking and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16, 164, 22-27.

- Treloar, H.; Pedersen, S.L.; McCarthy, D.M. The role of expectancy in substance-abuse progression. In Addiction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Kopetz, C.E., Lejuez, C.W., Eds.;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NY, US, 2016; pp. 120 - 147. <https://psycnet.apa.org/record/2016-06972-006>
- Triandis, H.C.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US, 1995.
- Volkow, N.D.; Koob, G.F.; McLellan, A.T. Neurobiologic advances from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N Engl J Med 2016, 374(4), 363 - 371. <https://doi.org/10.1056/NEJMr1511480>
- Votaw, V.R.; Witkiewitz, K. Motives for substance use in daily life: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Clin Psychol Sci 2021, 9(4), 535 - 562. <https://doi.org/10.1177/2167702620978614>
- Woicik, P.A.; Stewart, S.H.; Pihl, R.O.; Conrod, P.J. The Substance Use Risk Profile scale: A scale measuring traits linked to reinforcement-specific substance use profiles. Addict Behav 2009, 34(12), 1042 - 1055.
- Yang, J.Y.; Sohn, A. The associat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risky drink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drinking in Korean young me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2, 19(21), 14271.
- Yoo, S.-H. Research on women's Substance use in Korea. Korean Assoc Addict Crime Rev 2019, 9(3), 89 - 116. Korean. <https://www-earticle-net-ssl.libproxy.snu.ac.kr/Article/A362490>
- Yu, P.-S. The study about motives and solutions of the drug abuse in secondary schools' students. J Humanit 2008, 13, 110 - 136. Korean.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768116>

제7장 총괄첨부서류

본 첨부서류는 최종보고서 서식 제일 뒷편에 첨부함

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지식재산권 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함

부 록

부록 1. 개발된 설문지

- 1) 성인 설문지
- 2) 청소년 설문지
- 3) 스크리닝 설문지

부록 2. 사전 조사 결과

- 1) 성인
- 2) 청소년

부록 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 1) 사전 성인 설문지
- 2) 사후 성인 설문지
- 3) 사전 청소년 설문지
- 4) 사후 청소년 설문지

부록 1. 개발된 설문지

1) 성인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9~59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2. 만19세~만29세
3. 만30세~만39세
4. 만40세~만49세
5. 만50세~만59세
6. 만60세 이상 ->면접중단

마약류 폐해에 대한 성인 인식조사(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께서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뽕,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필로폰, 엑스터시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귀하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3.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9)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2.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 이 있다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 갈 수 있다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귀하께서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E.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E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E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쉐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쉐련형 전자담배
4. 기타()

E3. 귀하는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E4. 귀하는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 1캔=355ml)

1. 소주 1잔(=맥주 1캔)
2. 소주 2잔
3. 소주 3잔(=맥주 2캔)
4. 소주 4잔(=맥주 3캔)
5. 소주 5잔
6. 소주 6잔(=맥주 4캔)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9. 소주 2병(=맥주 10캔)
10.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1. 소주 3병(=맥주 15캔)
12. 소주 3병 반(=맥주 18캔)
13. 소주 4병(=맥주 20캔)
14. 소주 5병 이상

E5.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아니오
	1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경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E6.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E7-1.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E7-2.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E8. 귀하는 평생동안 기분을 좋게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E9. 귀하는 평생동안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E10. 귀하는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F.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1. 귀하는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5.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등)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엔지니어 등)
8.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SQ6
9.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 SQ6
10. 기타(다른 직업)
11.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 SQ6

SQ5_1.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SQ6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SQ6
4. 무급가족종사자 -> SQ6

SQ5_2. 귀하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SQ5_3.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SQ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SQ9.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1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기숙사 등)

SQ1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1. 자기 집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2. 귀하는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1. 기독교(개신교)
2. 기독교(카톨릭)
3. 불교
4. 기타 종교
5. 종교 없음

SQ13.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3보다는 같거나 크게//

SQ13_1.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4. 귀하의 이념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0. 매우 진보
- 1.
- 2.
- 3.
- 4.
5. 중도
- 6.
- 7.
- 8.
- 9.
10. 매우 보수
99. 모르겠다

SQ15. 귀하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SQ15-1. 귀하가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

2) 청소년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여러분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4~18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3세 이하 ->면접중단
2. 만14세
3. 만15세
4. 만16세
5. 만17세
6. 만18세
7. 만19세 이상 -> 면접중단

SQ4. 여러분의 학교급(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SQ4-1
2. 중학교->SQ4-1
3. 고등학교->SQ4-1
4. 학교를 다니지 않음->Q1
5. 직장인 ->면접중단
6. 기타() ->면접중단

SQ4-1.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6학년
2. 중학교 1학년
3. 중학교 2학년
4. 중학교 3학년
5. 고등학교 1학년
6. 고등학교 2학년
7. 고등학교 3학년

마약류 폐해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여러분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여러분이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여러분은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뽕,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여러분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7. 여러분은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8. 여러분은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만약 여러분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여러분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약류 사용은 사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3.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9)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여러분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2. 다음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 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 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 다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 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여러분이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E.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E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E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쉐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쉐련형 전자담배
4. 기타()

E3. 여러분은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E4. 여러분은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 1캔=355ml)

1. 소주 1잔(=맥주 1캔)
2. 소주 2잔
3. 소주 3잔(=맥주 2캔)
4. 소주 4잔(=맥주 3캔)
5. 소주 5잔
6. 소주 6잔(=맥주 4캔)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9. 소주 2병(=맥주 10캔)
10.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1. 소주 3병(=맥주 15캔)
12. 소주 3병 반(=맥주 18캔)
13. 소주 4병(=맥주 20캔)
14. 소주 5병 이상

E5.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1	아니오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트사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킵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E6.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E7-1.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빠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E7-2.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E8. 여러분은 평생동안 기분을 좋게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E9. 여러분은 평생동안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E10. 여러분은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F.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1. 여러분은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F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5.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6. 여러분의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3.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4. 기숙사
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SQ7. 여러분 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8.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보육시설 등)

SQ9.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혹은 셋집입니까?

1. 부모님 소유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0. 여러분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1. 여러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2.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SQ13.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시: 학비, 급식비, 교복, 교재, 도시락, 생리대,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1개 선택]

1. 없다
2. 있다

SQ14. 최근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SQ15. 여러분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있다
- 2. 없다

SQ15-1.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

3) 스크리닝 설문지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위험도에 대한 성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책임 하에 한국인의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위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만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 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18. 해외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9~59세만 조사 진행]

SQ4. 귀하는 지난 2년동안 마약류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SQ4-1. 가장 최근에 마약류를 언제 사용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PROG: SQ4번에서 예 선택자만 제시]

A. ASSIST-Lite, ASSIST-Drug 기반의 개발 문항

-다음 문항은 세계보건기구 및 관련 연구자들이 담배, 술 및 마약류와 환각물질 사용 위험도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 빼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엑상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흡연 및 음주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3개월간 경험		
		예	아니오	
1. 흡연 - 3개월				
1	귀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2번
1a	귀하는 하루에 보통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습니까?	①	②	
1b	귀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웠습니까?	①	②	
2. 음주 - 3개월				
2	귀하는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3번
2a	(남성의 경우) 귀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 귀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b	귀하는 음주를 줄이거나 또는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c	다른 사람이 귀하의 음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다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3. 대마초 - 2년				
3	귀하는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4번
4. 각성제(흥분제, 환각제 등) -2년				
4	귀하는 암페타민계 각성제,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각성제를 사용 한 적이 있습니까? (암페타민계 흥분제의 예: 필로폰[히로뽕], 야바, 엑스터시[도리도리], 배쓰솔트[합성 카티논], 살 빼는 약[펜터민, 디에타민], 공부 잘하는 약)	①	②	아니오 ->5번
4a	귀하는 필로폰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4b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빼는 약(펜터민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4c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공부 잘 하는 약(ADHD 치료제 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5. 진정, 수면제(바륨, 아티반, 졸피뎀 등) -2년				
5	귀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진정제나 수면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6번
6. 아편류(오피오이드, 의료용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2년				
6	귀하는 아편류(의료용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를 사용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아편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7번
7. 환각물질 -2년				
7	귀하는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 8번
8. 기타 질문 -2년				
8	귀하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나 충동이 있었습니까?	①	②	

*(9번)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술과 담배를 제외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귀하가 마약류를 의사의 권장 이상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질문은 대략 지난 1년간을 의미하므로 응답 가능한 날은 0일에서 365일까지 입니다.

9.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9a로),
- ② 아니오(->B문항으로)

9a.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9b.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나 충동을 느낀 날이 며칠입니까?

_____일

B. DAST-K, DAST-2

-다음 문항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용 위험도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 빼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엑상 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학적인 용도 이외에 다른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	귀하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십니까?	①	②
3	귀하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약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만일 마약류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면 예로 답하십시오)	①	②
4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기억상실을 경험하거나 과거의 일이 회상 장면으로 재현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5	귀하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기분이 나쁘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①	②
6	귀하의 배우자(혹은 부모)는 귀하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마약류 사용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마약류를 구하기 위해 범법(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9	귀하는 마약류 사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0	귀하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의학적 문제(예: 기억상실, 간염, 경련, 출혈)가 있었습니까?	①	②
11	귀하는 의사가 처방한 마약류를 의사 지시를 벗어나 마약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2번)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술과 담배를 제외한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입니다. 귀하가 마약류를 의사의 권장 이상이나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질문은 대략 지난 1년 간을 의미하므로 응답 가능한 날은 **0일에서 365일까지** 입니다.

12.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2a로)
- ② 아니오(C문항으로)

12a.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거나 죄책감을 느낀 날이 며칠입니까?

_____ 일

12b.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의학적 이유로 필요한 것 이외의 마약류를 사용한 날이 며칠입니까?

_____ 일

C. CRAFFT

-다음은 귀하의 물질사용장애 위험도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 빼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엑상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1	귀하는 소주나 맥주 등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	귀하는 대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엑상대마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흥분이나 각성을 위해 각성제(필로폰, LSD, 엑스터시, 살빼는 약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4	귀하는 진정/수면을 위해 진정/수면제(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마약(코카인, 모르핀, 펜타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설문지를 계속 작성하시기 전에 아래 지침을 읽어주십시오.

* 귀하는 위의 모든 항목에 "아니오(0)"을 기재하셨으면, 6번 문항에 응답해주시고, D문항으로 가주십시오(C 항목은 설문 중단).

* 귀하는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예(1)"로 응답하셨으면, 6번 문항부터 11번 문항까지 모두 응답해주시십시오.

	질문	지난 2년간 경험	
		예	아니오
6	귀하는 귀하를 포함하여 마약류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적이 있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긴장을 풀려고,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혼자 있을 때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9	귀하가 마약류를 사용했을 때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0	가족이나 친구가 귀하에게 마약류를 줄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11	귀하가 마약류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D. Brief Test for Drug Users

-다음 문항은 술, 담배 및 마약류 사용 위험도를 신속하게 선별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입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 빼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액상 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의 흡연 및 음주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2개월 경험			
		전혀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매달	매주 또는 그 이상
1	작년 한해 동안 귀하는 담배를 몇 번이나 피웠습니까?	1	2	3	4
2	작년 한해 동안 귀하는 술을 몇 번이나 마셨습니까?	1	2	3	4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입원/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경험	
		예	아니오
3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대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 등)를 사용했습니까?	①	②
4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약(예: 마약성 진통제)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5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공부 잘하는 약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6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살 빼는 약(디에타민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7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수면제(졸피뎀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8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하지 않은 마취제(프로포폴 등)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9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불법 마약류(필로폰 등)를 사용했습니까?	①	②
10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본드,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을 사용했습니까?	①	②
11	지난 2년 동안 귀하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E. 물질중독체크리스트(DSM-5)

-다음 문항은 물질중독이나 심각도를 진단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입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필로폰, 케타민, 살 빼는 약 등), 대마(대마초, 해시시, 액상대마 등),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마약류 사용에 관한 다음의 질문을 **지난 2년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병원에 입원/시설에 입원/입소해 있는 경우 입소 전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1.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마초(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대마초란 대마초, 해시시, 대마오일, 액상대마 등이 해당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E-2)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대마초를 종종 사용하십니까?	①	②
2	귀하는 대마초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대마초를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대마초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①	②
4	귀하는 대마초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반복적인 대마초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①	②
6	귀하는 대마초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9	귀하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대마초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①	②
10	내성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마초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11	금단- 귀하는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대마초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E-2.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각성제(엘에스디[LSD],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 캔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살빼는약, 공부잘하는약, 메스캐치논, 암페타민)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각성제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쾌감, 황홀감, 흥분 등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약물로 엘에스디(LSD),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 캔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살빼는약, 공부잘하는약, 메스캐치논, 암페타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E-3)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각성제를 종종 사용하십니까?	①	②
2	귀하는 각성제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각성제를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각성제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①	②
4	각성제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반복적인 각성제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①	②
6	귀하는 각성제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각성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각성제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9	귀하는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각성제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①	②
10	내성 -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성제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11	금단 - 귀하는 각성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각성제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E-3.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정/수면제(케타민, 바륨, 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지에이치비 [GHB, 물뽕], 카리소프로돌[근이완제], 프로포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진정, 수면제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긴장 완화, 이완감을 일으키는 약물로 케타민, 바륨, 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지에이치비(GHB, 물뽕), 카리소프로돌(근이완제), 프로포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E-4)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진정/수면제를 종종 사용하셨습니까?	①	②
2	귀하는 진정/수면제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진정/수면제를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진정/수면제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①	②
4	귀하는 진정/수면제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반복적인 진정/수면제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①	②
6	귀하는 진정/수면제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수면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진정/수면제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진정/수면제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9	귀하는 진정/수면제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수면제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①	②
10	내성 -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진정/수면제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11	금단 - 귀하는 진정/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진정/수면제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E-4.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편류(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 펜타닐 등)**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편류인 오피오이드란 아편 성분을 가진 약물,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오(->E-5)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아편류를 종종 사용하십니까?	①	②
2	귀하는 아편류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아편류를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아편류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①	②
4	귀하는 아편류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반복적인 아편류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①	②
6	귀하는 아편류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아편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아편류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아편류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9	아편류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아편류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①	②
10	내성 -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아편류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11	금단 - 귀하는 아편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아편류를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E-5.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위에서 물어본 마약류 외의 다른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대마초, 각성제, 진정·수면제, 아편류 외의 약물 사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F문항으로)

5-1. 위의 물어본 마약류 외의 귀하가 사용해본 마약류의 종류를 기입해주세요.

1. _____

2. _____

	질문	선택	
		예	아니오
1	귀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많은 양의 다른 마약류 물질을 종종 사용하셨습니까?	①	②
2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 사용을 중단 또는 조절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을 구하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혹은 다른 마약류 물질의 효과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①	②
4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에 대한 갈망, 사용에 대한 강한 욕구나 바램이 들었습니까?	①	②
5	귀하는 반복적인 다른 마약류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직장/학교 혹은 가정에서 맡은 바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①	②
6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로 인하여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지속, 또는 악화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약류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7	귀하는 다른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귀하에게 중요한 직업적, 사회적 혹은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거나 줄였습니까?	①	②
8	귀하는 운전 등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른 마약류 물질을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9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다른 마약류 물질의 사용을 지속하였습니까?	①	②
10	내성 - 귀하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마약류 물질의 용량이 뚜렷하게 많아졌습니까? 혹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11	금단 - 귀하는 다른 마약류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쾌함, 불안, 초조, 불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설사, 발한, 오한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습니까? 혹은 이러한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마약류 물질을 사용하였습니까?	①	②

F. 스트레스척도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 귀하가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2	3	4	5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G.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5.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6급 공무원 이하 등)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엔지니어 등)
8.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9.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10. 기타(다른 직업)
11.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혹은 별거

SQ8.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9.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가족, 친구,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SQ10. 귀하는 종교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1. 개신교
2. 천주교
3. 불교
4.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
5. 종교 없음

부록 2. 사전 조사 결과

1) 성인

사전조사 연구대상자 특성(성인)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 250명, 20대부터 62명, 30대 62명, 40대 63명, 50대 63명을 각각 조사하였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3명(17.2%), 전문대 졸업자가 44명(17.6%),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35명(54.0%), 대학원 이상이 28명(11.2%)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과반을 차지함.
-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117명(46.8%), 동거 및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7명(50.8%), 사별이 1명(0.4%), 이혼 혹은 별거가 5명(2.0%)이었음.
- 근로형태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181명(72.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6명(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명(4.8%), 무급가족종사자가 2명(0.8%)이었음.
- 고용상태는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168명(67.2%),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가 11명(4.4%),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2명(0.8%)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근로자 중 150명(82.9%)이 정규직이었고, 31명(17.1%)이 비정규직
-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가 102명(40.8%), 없는 경우가 148명(59.2%)이었음.

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인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223명(89.2%)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긍정 응답자는 22명(8.8%)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A2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230명(92.0%)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5명(6.0%)에 그쳤음.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무하였음.
- A3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2명(0.8%)이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19명(7.6%)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반면, 144명(57.6%)은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85명(34.0%)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A4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7명(6.8%),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43명(17.2%)으로 나타남. 반면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7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답은 3명(1.2%)이었음.
- A5 물질의 위험 인식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 마약류, 임시마약류로 세분화하여 물었을 때 환각물질이 위험하다는 응답은 226명(92.2%), 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46명(98.4%), 임시마약류가 위험하다는 응답은 216명(86.4%)으로 상대적으로 임시마약류가 낮게 나타남. 임시마약류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8명(11.2%)으로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라는 표현에 대중이 친숙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낙인

- A6(1)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응답자 중 57명(22.8%)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174명(69.6%)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음.
- A6(2)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54명(21.6%)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170명(68.0%)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음.
- A6(3)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응답자 중 75명(30.0%)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138명(55.2%)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음.
- A6(4) 마약류를 즐기는 행위는 본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물음에 응답자 중 220명(88.0%)이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26명(10.4%)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였음.

3)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 A7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를 물었을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대체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1명(72.4%)이었으며, 전혀 혹은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16명(6.4%)이었음.
- A8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이 77명(30.8%)인 반면, 부정 응답은 106명(42.4%)로 부정응답이 11.6%p 더 높았음.
- A9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혹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8명(63.2%)으로 과반을 넘었고, 전혀 혹은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는 24명

(9.6%)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였음.

- A7~A9 인식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3.41/5.00점이며, 표준편차는 0.64였음.
- A10 마약류 사용 위험의 공감도를 물었을 때 우리 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231명(92.6%)으로, 부정적인 응답 3명(1.2%)과 큰 차이를 보임.
- A11 “마약김밥”이나 “마약커피” 등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친숙한 느낌을 주느냐는 물음에는 116명(46.4%)이 긍정적 응답을, 71명(28.4%)이 부정적 응답을 하여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에 비해 18.0%p 가량 지지자가 많았음.
- A12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긍정 응답이 230명(92.0%), 별로 공감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2.4%)으로 나타남.
- A10~A12 공감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4.01/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57임.
- A13 마약류 사용 위험의 실천도를 물었을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는 물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217명(86.8%), 요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8명(7.2%)으로 나타남.
-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204명(81.6%)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15명(6.0%)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A15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185명(74.0%)이 긍정적인 응답을, 12명(4.8%)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 A13~A15 실천도 3개 문항의 평균값은 4.08/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69임.

나.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효과 인식

- B1(1) 마약류 사용이 기억력 증진(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17명(6.8%), 부정 응답자는 210명(84.0%)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물음에는 121명(49.0%)이 긍정적 응답을, 93명(37.2%)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1(3) 마약류 사용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문에는 46명(18.4%)이 긍정적 응답을, 154명(61.6%)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1(4) 마약류 사용이 신체 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1명(16.4%),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8명(67.2%)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1(5) 마약류 사용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14명(5.6%), 부정적인 응답자는 197명(78.8%)이었음.
- B1(6) 마약류 사용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207명(82.8%)이 긍정 응답을, 17명(6.8%)가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1(7) 마약류는 내성이 증가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236명(94.4%), 부정 응답자는 6명(2.4%)이었음.
- B1(8) 마약류를 사용하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62명(64.4%), 부정 응답자는 13명(5.2%)이었음.
- B1(9) 마약류를 사용하면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95명(78.0%), 부정 응답자는 14명(5.6%)이었음.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의견

- B2(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라는 지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49명(19.6%), 부정 응답자는 201명(80.4%)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2(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59명(23.6%)이 긍정적 응답을, 191명(76.4%)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3) 마약류 사용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문에는 29명(11.6%)이 긍정적 응답을, 221명(88.4%)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4) 마약류 사용이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46명(18.4%),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응답은 204명(81.6%)으로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음.
- B2(5) 마약류 사용이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32명(12.8%), 부정적인 응답자는 218명(87.2%)이었음.
- B2(6) 마약류 사용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46명(18.4%)이 긍정 응답을, 194명(81.6%)가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2(7) 마약류 사용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54명(21.6%), 부정 응답자는 196명(78.4%)이었음.
- B2(8) 마약류 사용이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참여자 중 53명(21.2%),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97명(78.8%)이었음.

- B2(9) 마약류 사용이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 긍정 응답자는 58명(23.2%), 부정 응답자는 192명(76.8%)으로 나타남.
- B2(10) 마약류 사용이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90명(36.0%), 부정 응답자가 160명(64.0%)으로 기록됨.
- B2(11) 마약류 사용이 나쁜 과거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36명(14.4%)이 긍정 응답을, 214명(85.6%)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2(12) 마약류 사용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84명(33.6%)이 긍정 응답을, 166명(66.4%)이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2(13) 마약류 사용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12명(4.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38명(95.2%)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B2(14) 마약류 사용이 사교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물음에는 8명(3.2%)이 긍정 응답을, 242명(96.8%)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15) 마약류 사용이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물음에는 9명(3.6%)이 긍정적인 응답을, 241명(96.4%)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16) 마약류 사용이 개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170명(68.0%), 부정 응답자는 80명(32.0%)이었음.
- B2(17) 마약류 사용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참여자 중 215명(86.0%),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35명(14.0%)이었음.
- B2(18) 마약류 사용이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중 하나라는 물음에 긍정 응답자는 241명(96.4%), 부정 응답자는 9명(3.6%)으로 나타남.
- B2(19) 어떤 이유로든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43명(88.2%), 부정 응답자가 37명(14.8%)으로 기록됨.
- B2(20) 마약류 사용이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45명(98.0%)이 긍정 응답을, 5명(2.0%)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2(21) 마약류 사용이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라는 물음에는 104명(41.6%)이 긍정 응답을, 146명(58.4%)이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2(22) 마약류 사용이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39명(9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1명(4.4%)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B2(23) 마약류 사용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 중하나라는 물음에는 34명(13.6%)이 긍정 응답을, 216명(86.4%)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2(24) 마약류 사용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32명(12.8%)이 긍정적인 응답을, 218명(87.2%)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2(25) 마약류 사용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38명(15.2%), 부정 응답자가 212명(84.8%)으로 기록됨.
- B2(26) 마약류 사용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5명(6.0%)이 긍정 응답을, 235명(94.0%)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2(27) 마약류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물음에는 241명(96.4%)이 긍정 응답을, 9명(3.6%)이 부정 응답을 보였음.
- B2(28) 마약류 사용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물음에는 46명(18.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04명(81.6%)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3) 마약류 사용 태도

- B3(1)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해 물었을 때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32명(12.8%),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95명(78.0%)이었음.
- B3(2)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항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37명(14.8%)이 긍정적 응답을, 189명(75.6%)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3(3)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는 37명(14.8%)이 긍정적 응답을, 192명(76.8%)이 부정적 응답을 기록하였음.
- B3(1)~(3) 마약류 사용의 민감성에 대한 평균값은 1.85/5.00점으로, 표준편차는 1.04였음.
- B3(4)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27명(90.8%),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4명(5.6%)이었음.
- B3(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234명(93.6%)이 긍정 응답을, 11명(4.4%)이 부정 응답을 보임.
- B3(6) 마약류 사용이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57명(94.8%)이 긍정 응답을, 8명(3.2%)이 부정적인 응답을 기록하였음.
- B3(4)~(6)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에 대한 평균값은 4.53/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0이었음. 3개 심각성 문항 중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3(7)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상담받기 두렵다는 응답자는 106명(42.4%)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96명(38.4%)이었음.
- B3(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210명

(84.0%), 부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13명(5.2%)이었음.

- B3(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04명(81.6%),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5명(6.0%)이었음.
- B3(7)~(9)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3.78/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81이었음. 3개 장애요인 문항 중에서는 예방 교육 부족 긍정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B3(10)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해 물었을 때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16명(86.4%),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7명(6.8%)이었음.
- B3(11) 마약류 예방 교육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220명(88.0%), 부정 응답자는 10명(4.0%)이었음.
- B3(12) 마약류 예방 교육이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19명(87.6%)이 긍정적 응답을, 9명(3.6%)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음.
- B3(10)~(12)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이득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4.27/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79였음. 3개 이득요인 문항 중에서는 마약류 남용 및 중독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음.
- B3(13) 마약류 사용 예방행동의 자기효능감에 관해서는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234명(93.6%),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6명(2.4%)으로 기록됨.
- B3(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223명(89.2%), 부정 응답자가 8명(3.2%)이었음.
- B3(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193명(77.2%), 부정 응답자가 19명(7.6%)으로 나타남.
- B3(13)~(15) 마약류 예방행동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은 4.45/5.00점으로 표준편차는 0.70이었음. 3개 자기효능감 문항 중에서는 친구가 마약류를 권할 때 거절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4) 마약류 사용 관련 지식

- B4(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는 물음에는 231명(92.4%)이 맞다, 2명(0.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7명(6.8%)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물음에는 234명(93.6%)이 맞다, 1명(0.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5명(6.0%)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3)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물음에는 164명(65.6%)이 맞다, 16명(6.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70명(28.0%)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물음에는 175명(70.0%)이 맞다, 8명(3.2%)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7명(26.8%)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5)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83명(73.2%)이 맞다, 2명(0.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65명(26.0%)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6) 필로폰(히로뽕)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다는 물음에는 29명(11.6%)이 맞다, 51명(20.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70명(68.0%)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7)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물음에는 131명(52.4%)이 맞다, 11명(4.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8명(43.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8) 의사가 처방해준 항정신성의약품은 안전하므로 성인은 최대 1년까지 복용해도 된다는 물음에는 12명(4.8%)이 맞다, 135명(54.0%)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3명(41.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9) 펜타민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10명(4.0%)이 맞다, 142명(56.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98명(39.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0)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65명(26.0%)이 맞다, 108명(43.2%)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77명(30.8%)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1) 성인이 공부 잘하는 약을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물음에는 28명(11.2%)이 맞다, 97명(38.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25명(50.0%)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2) 엑스터시와 같은 클럽 약물은 정신적 의존도나 신체에 미치는 해가 낮은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물음에는 21명(12.8%)이 맞다, 111명(44.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7명(42.8%)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3) 엑스터시는 합성마약이라는 물음에는 111명(44.4%)이 맞다, 11명(4.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28명(51.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4) 케타민은 소량에도 환각, 기억상실,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03명(41.2%)이 맞다, 3명(1.2%)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44명(57.6%)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5) GHB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물음에는 140명(56.0%)이 맞다, 1명(0.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09명(43.6%)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6) 대마초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34명(13.6%)이 맞다, 167명(66.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49명(19.6%)은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7) 본드, 부탄가스, 데오트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는 물음에는 214명(85.6%)이 맞다, 2

명(0.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34명(13.6%)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8)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18명(7.2%)이 맞다, 179명(71.6%)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53명(21.2%)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19)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물음에는 221명(88.4%)이 맞다, 7명(2.8%)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22명(8.8%)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20)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는 물음에는 58명(23.2%)이 맞다, 21명(8.4%)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71명(68.4%)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 B4(21) 코카인은 합성마약으로 신체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는 물음에는 126명(50.4%)이 맞다, 14명(5.6%)이 틀리다고 응답했으며, 110명(44.0%)이 모르겠다고 응답함.

다.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냐는 물음에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5명(6.0%), 조금 느끼는 편이다 146명(58.4%), 많이 느끼는 편이다 67명(26.8%), 대단히 많이 느낀다 22명(8.8%)으로 나타남.
- C2(1)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중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7명(18.8%)이었음.
- C2(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6명(18.4%)이었음.
- C2(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7명(30.8%)이었음.
- C2(6)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2명(12.8%)이었음.
- C2(9)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자주 혹은 항상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3명(21.2%)이었음.
- C2(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6명(14.4%)이었음.
- C2(4)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스트레스 조절요인 중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81명(32.4%)이었음.

- C2(5) 일상의 일들이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78명(31.2%)이었음.
- C2(7) 일상생활의 짜증을 자주 혹은 항상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4명(41.6%)이었음.
- C2(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자주 혹은 항상 느낀 응답자는 57명(22.8%)이었음.
- 10개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평균은 2.86/5.00점, 표준편차는 0.55였음.
- C3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느냐는 물음에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34명(13.6%)이었음.

2) 한국인의 성향

- C4(1) 나는 일상생활에 만족한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87명(74.8%),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63명(25.2%)이었음.
- C4(2)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필요할 때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48명(19.2%),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202명(80.8%)이었음.
- C4(3) 나는 종종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자는 79명(31.6%), 부정 응답자는 171명(68.4%)이었음.
- C4(4)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73명(29.2%),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77명(70.8%)이었음.
- C4(5) 나는 행복하다는 물음에 173명(69.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77명(30.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6)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겁이 나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느낀다는 데에는 62명(24.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88명(75.2%)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7) 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휘말린다는 물음에는 63명(25.2%)이 긍정적 응답을 보인 반면, 187명(74.8%)은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음.
- C4(8) 나는 전통적이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즐긴다는 물음에 108명(43.2%)이 긍정 응답을, 142명(56.8%)이 부정 응답을 기록하였음.
- C4(9)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물음에 167명(86.8%)이 긍정적인 응답을, 83명(33.2%)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C4(10)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것이 무섭다는 물음에 113명(45.2%)이 긍정 응답을, 137(54.8%)명이 부정 응답을 기록했음.
- C4(11)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일은 대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라는 물음에 13명(5.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37명(94.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12)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가 24명(9.6%), 부정한 응답자가 226명(90.4%)이었음.
- C4(13)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12명(4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38명(55.2%)이었음
- C4(14) 나는 심장 박동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겁이 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90명(36.0%),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60명(64.0%)이었음.
- C4(15) 나는 보통 행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한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응답자가 178명(71.2%),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72명(28.8%)이었음.
- C4(16) 나는 오토바이 운전법을 배우고 싶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례는 69명(27.6%),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례가 131명(72.4%)이었음.
- C4(17)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206명(82.4%),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44명(17.6%)이었음.
- C4(18) 나는 너무 긴장하면 겁이 난다는 물음에 158명(63.2%)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92명(36.8%)은 부정적으로 답하였음.
- C4(19) 일반적으로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63명(25.2%)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87명(74.8%)이었음.
- C4(20)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데 33명(13.2%)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217명(86.8%)는 부정적으로 응답함.
- C4(21)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는 물음에는 47명(18.8%)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03명(81.2%)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C4(22) 나는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신체 감각을 경험할 때 겁이 난다는 물음에는 134명(53.6%)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반면, 116명(46.4%)은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음.
- C4(23) 나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굳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물음에 88명(35.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62명(64.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C4(24)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가 9명(3.6%), 부정한 응답자가 241명(96.4%)이었음.
- C4(25) 나는 즐겁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59명(63.6%),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91명(36.4%)이었음.
- C4(26)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3명(33.2%),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67명(66.8%)이었음.
- C4(2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적절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응답자가 124명(49.6%),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126명(50.4%)이었음.

- C4(28)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39명(52.6%),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11명(44.4%)이었음.
- C4(2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는 물음에 143명(57.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07명(42.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3) 여가 활용 및 만족도

- C5 주중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최대 세 가지 꼽아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하는 여가 활동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227명(90.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휴식이 149명(59.6%),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등이 123명(49.2%)으로 나타났음.
- 주말의 경우에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205명(82.0%), 휴식이 162명(66.8%),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82명(32.8%) 순으로 나타남.
- C6 주중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 가족이 125명(50.0%), 혼자가 112명(44.8%), 친구 및 연인이 80명(32.0%) 순으로 많이 나타났음.
- 주말의 경우에는 1위는 가족(154명, 61.6%)으로 같았으나, 2위가 연인을 포함한 친구였으며(99명, 39.6%), 3위는 88명(35.2%)인 혼자서였음.
- C7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경우 주중은 평균 3.7시간(표준편차 2.8), 주말은 평균 7.9시간(표준편차 4.4)이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C8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24명(49.6%), 보통이 93명(37.2%),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3명(13.2%)으로 나타남.

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1) 나는 음주가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13명(85.2%)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37명(14.8%)이었음.
- D1(2) 나는 대마초 사용이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3명(9.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27명(90.8%)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3) 나는 처방약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26명(90.4%)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4명(9.6%)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4) 나는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244명(97.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6명(2.4%)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5) 나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46명(98.4%)이 긍정 응답하였으며, 4명(1.6%)은 부정 응답자였음.
- D1(6)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135명(54.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15명(46.0%)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7) 약물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131명(52.4%)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19명(47.6%)이었음.
- D1(8) 나는 마약류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39명(9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1명(4.4%)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9) 약물중독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물음에는 221명(88.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9명(11.6%)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10) 나는 약물사용자들이 자신의 약물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26명(90.4%)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4명(9.6%)이었음.
- D1(11) 나는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44명(97.6%)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6명(2.4%)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12) 마약류 예방 정책이 교육과 인식개선에 초점을 뒀야 한다는 의견에는 233명(93.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7명(6.8%)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13) 부모는 자녀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241명(96.4%)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530명(17.7%)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14) 학교와 직장에서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78명(71.2%)이 긍정 응답자였으며, 72명(28.8%)은 부정 응답자였음.
- D1(15) 마약류 사용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76명(70.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74명(29.6%)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16) 약물중독 치료는 약물사용을 줄이고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235명(94.0%)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15명(6.0%)이었음.
- D1(17) 약물사용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37명(94.8%)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3명(5.2%)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18) 나는 폐해 감소 전략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63명(65.2%)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87명(34.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19) 약물중독은 예방과 치료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41명(96.4%)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9명(3.6%)이었음.
- D1(2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6명(10.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224명(89.6%)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21)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118명(47.2%)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32명(52.8%)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22) 나는 약물 사용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246명(9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명(1.6%)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23) 나는 약물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40명(16.0%)이 긍정 응답자였으며, 210명(84.0%)은 부정 응답자였음.
- D1(24) 나는 약물중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235명(94.0%)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5명(6.0%)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25) 나는 마약류 정책이 개별화된 치료에 초점을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211명(84.4%)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39명(15.6%)이었음.
- D1(26) 나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이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10명(84.0%)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40명(16.0%)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27) 나는 약물사용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11명(84.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9명(15.6%)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28) 나는 약물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41명(96.4%)이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9명(3.6%)이었음.
- D1(29) 나는 약물중독은 올바른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214명(8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36명(14.4%)이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30)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101명(40.4%)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49명(59.6%)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D1(31) 나는 약물중독이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184명(7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66명(26.4%)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D1(32) 나는 약물중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41명(96.4%)이 긍정

응답자였으며, 9명(3.6%)은 부정 응답자였음.

- D1(33) 약물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204명(8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46명(18.4%)은 부정적으로 답변함.
- D1(34) 약물중독은 더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가 244명(97.6%)이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6명(2.4%)이었음.
- D1(35) 약물중독은 약물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는 165명(66.0%)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85명(34.0%)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마. 사회자본

1) 사회적 지지

- E1(1)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118명(47.2%)은 배우자가, 92명(36.8%)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도와줄 것이라 응답하였음.
- E1(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주변에 도와줄 사람으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153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배우자가 34명(13.6%),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과 친척이나 친구가 각각 24명(9.6%)이었음 .
- E1(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야기할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 등이 110명(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배우자 75명(30.0%),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40명(16.0%) 순이었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는 19명(7.6%)이었음.

2) 일반신뢰

- E2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88/10.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17이었음.
- E3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68/10.00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03이었음.

3) 관계 만족

- E4(1)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163명(65.2%)이

었으며,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23명(9.8%)이었음.

- E4(2) 배우자 및 연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136명(54.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5명(7.9%)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E4(3)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172명(68.8%)이 긍정 응답자였던 반면, 12명(5.0%)는 부정 응답자로 나타남.
- E4(4)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을 때, 122명(48.8%)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 24명(10.0%)은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관계 만족도를 살폈을 때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 E5 최근 12개월 사이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총 4명(1.6%)이었음.

5)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

- E6(1) 응답자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이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62명(25.5%)이 신경쓰지 않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81명(74.5%)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2) 술에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50명(60.9%)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한 반면 96명(39.0%)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 E6(3) 대마초 사용에 관해서는 6명(2.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41명(97.6%)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4)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해서는 6명(2.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한 반면, 239명(97.6%)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6(5) 마약사용에 관해서는 1명(0.4%)이 무관심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47명(99.6%)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1) 응답자에게 한국 사회의 일반인이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175명(71.1%)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71명(28.9%)은 허용

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2) 술에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96명(79.4%)이 무관심, 허용, 권장할 것이라 답한 반면, 51명(20.6%)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 E7(3) 대마초 사용에 관해서는 26명(10.5%)이 무관심할 것이라 답한 반면, 222명(89.5%)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4)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관해서는 35명(14.3%)이 무관심, 허용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10명(85.7%)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함.
- E7(5) 마약사용에 대해서는 15명(6.0%)이 무관심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233명(94.0%)은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할 것이라 응답하였음.

6)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1) 응답자의 주변 사람이 중독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흡연의 경우 몇 명 있음이 107명(43.1%), 꽤 많음이 120명(48.4%)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두 다 7명(2.8%)이었고 한 명도 없음은 14명(5.6%)이었음.
- E8(2) 술을 마신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1명(0.4%)에 그쳤으며, 몇 명 있음이 44명(17.7%), 꽤 많음이 135명(54.2%), 거의 모두 다 69명(27.7%)이었음.
- E8(3) 술에 취한다의 경우 한 명도 없는 경우는 6명(2.4%), 몇 명 있는 경우는 98명(40.0%), 꽤 많음이 113명(46.1%), 거의 모두 다 28명(11.4%)으로 나타남.
- E8(4) 대마초 흡연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18명(87.2%), 몇 명 있음이 6명(2.7%), 꽤 많음이 1명(0.4%)이었음.
- E8(5) 향정신성 약물 사용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196명(90.7%), 몇 명 있음이 20명(9.3%)이었음.
- E8(6) 마약사용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221명(97.8%), 몇 명 있음이 5명(2.2%)이었음.

바. 중독 물질 사용 경험

1) 흡연 및 음주

- F1 흡연 여부를 물었을 때 39명(15.6%)이 매일, 13명(5.2%)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하여 총 52명(20.8%)이 현재 흡연자였음.
-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쉼련이 가장 많았음. 설문에 참여한 흡연자 52명 중 38명이 쉼련을, 10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11명은 쉼련형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함.
- F3 음주빈도의 경우 응답자 중 206명(82.4%)이 연간 음주자였으며 84명(33.6%)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하였음.

- F4 1회 음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이라는 응답이 57명(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당 소주 1병 이상 음주자는 108명(52.4%)이었음.

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F5 총 16종의 마약류 물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순서대로 대마초 237명(94.8%), 코카인 233명(93.2%),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 225명(90.0%)의 인지도가 높았음.

3)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 F6 인지 여부를 물었던 각종 마약류 물질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1.2%)이었음.
- F7-1 마약류 물질의 본인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경험자는 13명(5.2%)이었음.
- ‘공부 잘하는 약’ 사용 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음.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사용 경험자는 2명(0.8%)이었음.
-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경험자는 4명(1.6%)이었음.
-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음.
- F7-2 마약류 물질의 주변 사람 사용 목격 경험을 물었을 때 살 빼는 약 사용 목격자는 21명(8.4%)이었음.
- ‘공부 잘하는 약’ 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7명(2.8%)이었음.
-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2명(0.8%)이었음.
-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사용 목격자는 응답자 중 11명(4.4%)이었음.
-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사용 목격자는 1명(0.4%)이었음.
- F8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등 흡입제 평생 사용 경험의 경우 응답자 중 3명(1.2%)가 평생동안 1~2회 흡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중 1명(0.4%)은 지난 한 달 사이 흡입한 경험이 있었음.
- F9 대마초 혹은 해시시 평생 흡연 경험의 경우 2명(0.8%)이 1~2회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1년 이내 흡연자는 없었음.

4)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 F10 1년 이내에 각종 중독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음. 흡연의 경우 가능성이 있거나 매우 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55명(22.0%)이었음.
- 음주의 경우 응답자 중 204명(81.6%)이 1년 이내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5명(2.0%)이 사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대마초, 본드 및 부탄가스, 마약 이용의 경우 1년 이내에 물질 이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음.

사.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G1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35명(14.0%)
- G2(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 여부 중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 제공의 경우 23명(9.2%)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2(2)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홍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자가 88명(35.2%)으로 나타남.
- G2(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5명(6.0%)이 긍정 응답하였음.
- G2(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업 인지 여부의 경우 긍정 응답자가 17명(6.8%)이었음.

2) 청소년

사전조사 연구대상자 특성(청소년)

- 14세~18세의 청소년,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할당
-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 총 유효 응답자수 250명
- 조사 시기: 2023년 7월
- 이하 사전 조사의 결과는 주요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

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1) 마약류에 대한 인식

- A1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의 78.0%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음.
- A2~A5 마약류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80~90%가 위험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식약처 지정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14.0%가 있어 용어에 대한 청소년 대상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낙인

- A6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 중 마약류 사용자가 도덕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4%,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0%,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35.2%였음.
- 마약류를 즐기는 행위는 본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14.8%였음.

3) 마약류 사용 위험의 인식도, 공감도, 실천도

- A7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4.0%였음.
- A8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2.4%, 아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8.0%였음.
- A9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9.2%였음.
- A10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의 91.6%가 공감하였음.

- A11 『마약김밥, 마약커피』 등 상업적 용도의 마약 용어 사용이 마약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인 46.8%였음.
- A12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에는 80.4%가 공감하였음.
- A13 본인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은 80.0%가 하였음.
-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천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70.8%였음.
- A15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주위에 전달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6.8%였음.

나.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1) 마약류 사용 효과 인식

- B1 고양동기 중에서는 마약류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2%였음.
- 마약류의 문제 중에서는 내성이 증가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1.6%로 가장 많았고,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4.0%였음.

2)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의견

- B2 마약류 사용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음. 개인의 문제(스트레스, 우울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8.4%로 높은 편이었음.
- 마약류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동의율 94.4%), 마약류 사용은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동의율 94.0%),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진술에 절대다수가 동의하였음(동의율 93.6%).

3) 마약류 사용 태도

- B3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마약류 노출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함. 파티나 클럽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5.2%, 호기심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3.2%였음.
-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들의 88.4%는 마약류 사용이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들의 68.4%는 우리나라가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

였으며, 73.6%는 마약류 예방 교육이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들의 거절 효능감은 높은 편이었음. 친구가 마약사용을 권해도 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7.6%였음.

4) 마약류 사용 관련 지식

- B4 마약류를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알고 있었음 (답율 91.6%).
- 마약류 투약시 사용한 주사기에 의해 에이즈나 간염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정답율이 절반 이상이긴 하였으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아(에이즈 38.0%, 간염 38.8%) 관련 내용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사가 처방해준 항정신성의약품(살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 프로포폴 등)은 안전하므로 성인은 최대 1년까지 복용해도 된다는 문항에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42.4%였음.
- ‘엑스터시(MDMA)는 합성마약이다’, ‘케타민은 소량에도 환각, 기억상실,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등 청소년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마약류 물질에 대한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음(각각 68.8%, 50.8%).

다. 정신건강 및 개인적 성향

1) 자각된 스트레스와 외로움

- C1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조금 이상 느끼는 경우는 94.8%, 많이 느끼는 경우는 49.6%였음.
- C2 부정 문항의 경우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낀 경우가 83.6%로 많은 편이었음. 긍정 문항의 경우 최근 1개월동안 일상의 일들이 생각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68.0%로 높은 편이었음.
- C3 최근 12개월 동안 외로움을 느낀 경우가 58.0%였음.

2) 한국인의 마약류 사용 성향

- C4 긍정문항의 경우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75.6%,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74.0%로 높은 편이었음.
-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일은 대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다’와 같은 문항의 동의율은 매우 낮았으며(12.0%),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필요할 때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

가 많다'와 같은 문항도 동의율이 낮은 편이었음(38.4%).

3) 여가 활용 및 만족도

- C5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의 85.6%는 주중 여가 활동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하였음. 주말 역시 84.7%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C6 주중 여가활동 동반자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친구이고 주말은 혼자서 한 경우가 많음.
- C7 주중의 평균 여가시간은 5.1시간, 주말은 9.3시간이었음.

부표 1 여가시간 평균(청소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7(1). [주중]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50	1	24	5.13	3.87
C7(2). [주말]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50	1	24	9.32	5.70
유효 N(목록별)	250				

- C8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57.6%였음.

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1)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낙인) 인식

- D1 사전조사 참여 청소년의 81.6%가 음주가 허용될 수 있고, 10.0%가 대마초가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93.6%가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나, 44.8%만이 대부분의 약물 사용자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사회원인론에 대한 찬성률은 높지 않았음.
- 90.4%가 마약류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보다 낮은 83.6% 정도가 약물중독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응답하여 엄벌주의에 비해 도덕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약물사용자들이 자신의 약물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88.8%로 높은 편이었고, 부모가 자녀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3.6%로 매우 높았음. 그러나 폐해 감소 전략에 대한 동의율은 67.6%로 낮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 해결에는 74.4%만이 동의하

였음. 피해 감소 전략 혹은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가 해결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에서 생소하여 생긴 차이일 수도 있고, 실제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러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주제인 것으로 보임.

- 약물 사용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4.0%로 높았으나,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8.0%로 매우 낮아서 대조적이었음.

마. 사회자본

1) 사회적 지지

- E1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16.0%로 높은 편이었음.

2) 일반신뢰

- E2 일반화한 대인 신뢰의 평균값은 4.8점이었음(0-10 중 택 1).
- E3 공정성 인식은 5.9점이었음(0-10 중 택 1).

부표 2 마약류 사용 동기 평균(청소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E2.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0	0	10	4.81	2.32
E2.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0	0	10	5.88	1.95
유효 N(목록별)	250				

3) 관계 만족

- E4 75.2%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였고, 72.4%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였음.

4) 폭력으로 인한 치료 경험

- E5 최근 12개월 사이 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가 6.8%정도였음.

5)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

- E6~E7 중독 물질 사용에 대해 주변 사람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일반인들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음.
-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사용에 대해 주변 사람의 95.2%가, 일반인의 93.6%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음.
-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주변 사람의 87.2%가, 일반인의 79.6%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음.

6) 주변의 중독 물질 사용자 수

- E8 주변 사람의 5.6%가 대마초를 피우고, 14.8%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며, 4.8%가 마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음.

바. 중독 물질 사용 경험

1) 흡연 및 음주

- F1~F2 4.4%가 현재흡연자이고, 대부분 일반담배를 사용하였음.
- F3~F4 22.0%가 연간음주자이고, 이 중 41.8%가 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이라고 하였음.

2) 마약류 물질 인지 여부

- F5 대마초(93.2%)와 코카인(92.8%)은 인지도가 매우 높았고, 케타민(9.2%)과 캐치논류 마약(10.8%)은 매우 낮았음.
- 최근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은 83.6%의 인지율을 보였으나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등은 54.8%정도가 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음.

3) 마약류 물질 사용 경험

- F6 4.0%를 차지하는 10명의 청소년이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F7 살 빠는 약(3.6%, 9명), 공부 잘하는 약(2.4%, 6명), 대마초나 필로폰 등 전통마약류(2.4%, 6명), 술 깨는 약(2.0%, 5명),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0.8%, 2명)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변 사용 물질의 경우, 살 빠는 약(10.8%, 27명), 공부 잘하는 약(4.0%, 10명), 대마초나 필로폰 등 전통마약류(2.0%, 5명), 술 깨는 약(2.0%, 5명),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1.2%, 3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F8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등 흡입제 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3.6%(9명), 지난 1년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0%(5명), 지난 1달 사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2%(3명)였음.
- F9 대마초 또는 해시시의 평생흡연율은 0.8%(2명), 연간흡연율은 0.8%(2명), 월간흡연율은 1.2%(3명)이었음.

4) 1년 이내 물질 사용 가능성

- F10 향후 1년 이내에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은 4.0%(10명), 대마초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은 3.2%(8명), 본드나 부탄가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8%(7명), 마약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2%(3명)였음.

사.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 G1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22.8%였음.
-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3.2%로 적은 편이었으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27.2%),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26.8%)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많았음.

부록 3.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1) 사전 성인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9~59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2. 만19세~만29세
3. 만30세~만39세
4. 만40세~만49세
5. 만50세~만59세
6. 만60세 이상 ->면접중단

마약류 폐해에 대한 성인 인식조사(사전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께서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뽕,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도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귀하는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를 즐기는(기호품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9.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0.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3.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5.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다음은 귀하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약물(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억력 증진(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성이 증가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번호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4	마약류 사용은 개인의 문제(스트레스, 우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5	마약류 사용은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6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7	마약류 사용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8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9	마약류 사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0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1	마약류 사용은 나쁜 과거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2	마약류 사용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13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4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5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6	마약류 사용은 개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17	마약류 사용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18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	어떤 이유로든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20	마약류 사용은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	마약류 사용은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다.				
22	마약류 사용은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3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4	마약류 사용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25	마약류 사용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6	마약류 사용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7	마약류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	마약류 사용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B3.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관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낙인이 찍힐까 봐 상담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4.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류를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류를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①	②	③
(6) 필로폰(히로뽕)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다.	①	②	③
(7)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8) 의사가 처방해준 항정신성의약품(살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 프로포폴 등)은 안전하므로 성인은 최대 1년까지 복용해도 된다.	①	②	③
(9) 성인이 펜타민(살빼는 약, 디에타민, 나비약/펜디메트라진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1) 정상인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페니드정, 콘서타 등)을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올라간다.	①	②	③
(12)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정신적 의존도나 신체에 미치는 해가 낮은 마약류(soft drug)에 해당한다.	①	②	③
(13) 엑스터시(MDMA)는 합성마약이다.	①	②	③
(14) 케타민은 소량에도 환각, 기억상실,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15)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16)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17)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18)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9)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20)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21) 코카인은 합성마약으로 신체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귀하는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2	3	4	5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C3.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4.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나는 일상생활에 만족한다.				
(2)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필요할 때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3) 나는 종종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4) 나는 스카이다이빙(번지점프, 줌라인 등)을 하고 싶다.				
(5) 나는 행복하다.				
(6)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겁이 나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느낀다.				
(7) 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휘말린다.				
(8) 나는 전통적이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즐긴다.				
(9)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10)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것이 무섭다.				
(11)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일은 대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다.				
(12)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3)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심장 박동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겁이 난다.				
(15) 나는 보통 행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한다.				
(16) 나는 오토바이 운전법을 배우고 싶다.				
(17)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18) 나는 너무 긴장하면 겁이 난다.				
(19) 일반적으로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다.				
(20)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21)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22) 나는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신체 감각을 경험할 때 겁이 난다.				
(23) 나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굳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24)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25) 나는 즐겁다.				
(26)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2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적절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28)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2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C5.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주중			
주말(휴일포함)			

1.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등)
10.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1. 기타()

C6. 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여가 활동 동반자
주중	
주말(휴일포함)	

1. 가족
2. 친구(연인 포함)
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4. 혼자서
5. 직장동료
6. 기타()

C7. 지난 1년 동안(2022년 7월~2023년 6월)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하루 평균 시간
주중	() 시간
주말(휴일포함)	() 시간

C8.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D. 약물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귀하께서 약물에 대해 가진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약물사용(알코올,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나는 음주가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대마초 사용이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처방약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6)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약물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마약류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약물중독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0) 나는 약물사용자들이 자신의 약물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예방 정책이 교육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부모는 자녀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학교와 직장에서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마약류 사용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약물중독 치료는 약물사용을 줄이고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7) 약물사용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8) 나는 폐해 감소 전략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예: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일회용 주사 제공)고 생각한다.				
(19) 약물중독은 예방과 치료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약물 사용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약물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24) 나는 약물중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마약류 정책이 개별화된 치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이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약물사용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8) 나는 약물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29) 나는 약물중독은 올바른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약물중독이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2) 나는 약물중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3) 나는 약물중독이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34) 나는 약물중독은 더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5) 나는 약물중독은 약물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 사회적 지지

다음은 귀하께서 주변 분들과 맺고있는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상 황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선생님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E2. 귀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한다					반반이다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3.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를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려 든다					반반이다					공정하게 대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관 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부모님과의 관계						
(2) 배우자·연인과의 관계						
(3) 친구와의 관계						
(4)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E5.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0번
- 2) 1번
- 3) 2번
- 4) 3번
- 5) 4번
- 6) 5번
- 7) 6번 이상

E6. 귀하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귀하의 배우자 혹은 귀하에게 중요한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7. 귀하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8. 귀하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1	2	3	4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술에 취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6)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F.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항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F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쉼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쉼련형 전자담배
4. 기타()

F3. 귀하는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F4. 귀하는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참고로 소주 1병=맥주 5캔(355ml)=7잔, 맥주 1캔=1.5잔)

1. 1잔
2. 2잔
3. 3잔
4. 4잔
5. 5잔
6. 6잔
7. 7잔(소주 1병)
8. 8잔
9. 9잔
10. 10잔
11. 11잔(소주 1병반)
12. 2병
13. 2병반
14. 3병
15. 3병반

16. 4병

17. 5병 이상

F5.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아니오
	1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킵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F6.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F7-1.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7-2.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8. 귀하는 기분을 좋게하기 위해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얼마나 자주 흡입한 적이 있습니까?

기 간	전혀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1	2	3	4	5
(1) 평생 동안	○	○	○	○	○
(2) 지난 1년 사이	○	○	○	○	○
(3) 지난 한 달 사이	○	○	○	○	○

F9. 귀하께서는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있습니까?

기 간	전혀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1	2	3	4	5
(1) 평생 동안	○	○	○	○	○
(2) 지난 1년 사이	○	○	○	○	○
(3) 지난 한 달 사이	○	○	○	○	○

F10. 귀하는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1. 귀하는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G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5.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등)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엔지니어 등)
8.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SQ6
9.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 SQ6
10. 기타(다른 직업)
11.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 SQ6

SQ5_1.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SQ6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SQ6
4. 무급가족종사자 -> SQ6

SQ5_2. 귀하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습니까?

1.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SQ5_3.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SQ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SQ9.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1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기숙사 등)

SQ1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1. 자기 집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2.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2보다는 같거나 크게//

SQ12_1.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3. 귀하의 이념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0. 매우 진보
- 1.
- 2.
- 3.
- 4.
5. 중도
- 6.
- 7.
- 8.
- 9.
10. 매우 보수
99. 모르겠다

SQ14. 귀하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SQ14-1. 귀하가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

2) 사후 성인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9~59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2. 만19세~만29세
3. 만30세~만39세
4. 만40세~만49세
5. 만50세~만59세
6. 만60세 이상 ->면접중단

마약류 폐해에 대한 성인 인식조사(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께서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귀하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뽕,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필로폰, 엑스터시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귀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는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는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만약 귀하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귀하는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귀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귀하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귀하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클럽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3.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9) 마약은 한 번 사용으로는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귀하가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2	3	4	5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C3. 귀하는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4. 다음은 귀하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등산로가 없는 곳을 등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C5.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주중			
주말(휴일포함)			

1.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등)
10.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1. 기타()

C6. 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여가 활동 동반자
주중	
주말(휴일포함)	

1. 가족
2. 친구(연인 포함)
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4. 혼자서
5. 직장동료
6. 기타()

C7. 지난 1년 동안(2022년 8월~2023년 7월)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하루 평균 시간
주중	() 시간
주말(휴일포함)	() 시간

C8.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귀하께서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E. 사회적 지지

다음은 귀하께서 주변 분들과 맺고있는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상 황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2	3	4	9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 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E2. 귀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한다					반반이다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3.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를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려 든다					반반이다					공정하게 대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E4. 귀하께서는 다음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관 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부모님과의 관계						
(2) 배우자·연인과의 관계						
(3) 친구와의 관계						
(4)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E5.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0번
- 2) 1번
- 3) 2번
- 4) 3번
- 5) 4번
- 6) 5번
- 7) 6번 이상

E6. 귀하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귀하의 배우자 혹은 귀하에게 중요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7. 귀하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8. 귀하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1	2	3	4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술에 취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6)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F.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항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F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쉐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쉐련형 전자담배
4. 기타()

F3. 귀하는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F4. 귀하는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 1캔=355ml)

1. 소주 1잔(=맥주 1캔)
2. 소주 2잔
3. 소주 3잔(=맥주 2캔)
4. 소주 4잔(=맥주 3캔)
5. 소주 5잔
6. 소주 6잔(=맥주 4캔)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9. 소주 2병(=맥주 10캔)
10.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1. 소주 3병(=맥주 15캔)
12. 소주 3병 반(=맥주 18캔)
13. 소주 4병(=맥주 20캔)
14. 소주 5병 이상

F5.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아니오
	1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트타서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킵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F6. 귀하는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F7-1.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7-2. 귀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8. 귀하는 평생동안 기분을 좋게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F9. 귀하는 평생동안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F10. 귀하는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1. 귀하는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G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4.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5.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이하 등)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엔지니어 등)
8.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SQ6
9.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 SQ6
10. 기타(다른 직업)
11.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 SQ6

SQ5_1.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SQ6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SQ6
4. 무급가족종사자 -> SQ6

SQ5_2. 귀하의 고용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2.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3. 일용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

SQ5_3.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동거, 사실혼 포함)
3. 사별
4. 이혼

SQ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SQ9.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10.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기숙사 등)

SQ1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1. 자기 집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2. 귀하는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1. 기독교(개신교)
2. 기독교(카톨릭)
3. 불교
4. 기타 종교
5. 종교 없음

SQ13.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3보다는 같거나 크게//

SQ13_1.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가구 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SQ14. 귀하의 이념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척도]

0. 매우 진보

- 1.
- 2.
- 3.
- 4.
5. 중도
- 6.
- 7.
- 8.
- 9.
10. 매우 보수
99. 모르겠다

SQ15. 귀하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SQ15-1. 귀하가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

3) 사전 청소년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여러분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4~18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3세 이하 ->면접중단
2. 만14세
3. 만15세
4. 만16세
5. 만17세
6. 만18세
7. 만19세 이상 -> 면접중단

SQ4. 여러분의 학교급(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SQ4-1
2. 중학교->SQ4-1
3. 고등학교->SQ4-1
4. 학교를 다니지 않음->Q1
5. 직장인 ->면접중단
6. 기타() ->면접중단

SQ4-1.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6학년
2. 중학교 1학년
3. 중학교 2학년
4. 중학교 3학년
5. 고등학교 1학년
6. 고등학교 2학년
7. 고등학교 3학년

마약류 폐해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사전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여러분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여러분이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그렇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여러분은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친구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병,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도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여러분은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1)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를 즐기는(기호품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본인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A7. 여러분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8. 여러분은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9. 여러분은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0.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3. 만약 여러분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5.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다음은 여러분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억력 증진(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성이 증가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2	마약류 사용은 성적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4	마약류 사용은 개인의 문제(스트레스, 우울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5	마약류 사용은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6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7	마약류 사용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8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9	마약류 사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0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1	마약류 사용은 나쁜 과거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12	마약류 사용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13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14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15	마약류 사용은 사회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16	마약류 사용은 개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17	마약류 사용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18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해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	어떤 이유로든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20	마약류 사용은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	마약류 사용은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다.				
22	마약류 사용은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3	마약류 사용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4	마약류 사용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25	마약류 사용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6	마약류 사용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27	마약류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	마약류 사용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B3.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관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차별 받을까 봐 상담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클럽이나 파티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4. 다음 질문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류를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류를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류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필로폰(히로뽕)에 중독되면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①	②	③
(6) 필로폰(히로뽕)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다	①	②	③
(7)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8) 의사가 처방해준 향정신성의약품(살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 프로포폴 등)은 안전하므로 성인은 최대 1년까지 복용해도 된다	①	②	③
(9) 펜타민(살빼는 약, 디에타민, 나비약/펜디메트라진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1) 정상인이 공부 잘하는 약(메틸페니데이트, 페니드정, 콘서타 등)을 복용할 경우 집중력이 올라간다	①	②	③
(12) 엑스터시(MDMA)와 같은 클럽 약물은 정신적 의존도나 신체에 미치는 해가 낮은 마약류(soft drug)에 해당한다	①	②	③
(13) 엑스터시(MDMA)는 합성마약이다	①	②	③
(14) 케타민은 소량에도 환각, 기억상실, 호흡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15)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16)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17)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18) 마약류를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9)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20)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21) 코카인은 합성마약으로 신체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여러분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여러분은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2	3	4	5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여러분은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C3.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4. 다음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나는 일상생활에 만족한다.				
(2)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필요할 때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3) 나는 종종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4) 나는 스카이다이빙(번지점프, 줌라인 등)을 하고 싶다.				
(5) 나는 행복하다.				
(6)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겁이 나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느낀다.				
(7) 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휘말린다.				
(8) 나는 전통적이지 않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즐긴다.				
(9)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10) 어지럽거나 기절하는 것이 무섭다.				
(11) 가장 흥미롭고 신나는 일은 대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다.				
(12)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3)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심장 박동이 변하는 것을 느낄 때 겁이 난다.				
(15) 나는 보통 행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한다.				
(16) 나는 오토바이 운전법을 배우고 싶다.				
(17)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18) 나는 너무 긴장하면 겁이 난다.				
(19) 일반적으로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다.				
(20)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21) 나는 실패자라고 느낀다.				
(22) 나는 평상시 느껴보지 못한 신체 감각을 경험할 때 겁이 난다.				
(23) 나는 고집이 세고 의지가 굳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24)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25) 나는 즐겁다.				
(26)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2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적절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28)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29)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C5. 여러분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주중			
주말(휴일포함)			

1.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등)
10.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1. 기타()

C6.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여가 활동 동반자
주중	
주말(휴일포함)	

1. 가족
2. 친구
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4. 혼자서
5. 기타()

C7. 지난 1년 동안(2022년 7월~2023년 6월) 여러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하루 평균 시간
주중	() 시간
주말(휴일포함)	() 시간

C8. 여러분은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D. 약물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여러분이 약물에 대해 가진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약물사용(알코올, 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나는 음주가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대마초 사용이 적당히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처방약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약물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6)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약물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마약류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약물중독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10) 나는 약물사용자들이 자신의 약물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약물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예방 정책이 교육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부모는 자녀에게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학교와 직장에서는 약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마약류 사용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약물중독 치료는 약물사용을 줄이고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17) 약물사용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8) 나는 폐해 감소 전략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예: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깨끗한 일회용 주사 제공)고 생각한다.				
(19) 약물중독은 예방과 치료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2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약물 사용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약물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24) 나는 약물중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마약류 정책이 개별화된 치료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이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약물사용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8) 나는 약물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29) 나는 약물중독은 올바른 치료와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31) 나는 약물중독이 지역사회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32) 나는 약물중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3) 나는 약물중독이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34) 나는 약물중독은 더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5) 나는 약물중독은 약물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 사회적 지지

다음은 여러분이 주변 분들과 맺고있는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1.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상 황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등	선생님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숙제 제출과 같은 학교 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E2.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한다					반반이다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3.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려 든다					반반이다					공정하게 대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E4. 여러분은 다음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관 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부모님과의 관계						
(2) 친구와의 관계						
(3) 동급생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4) 선생님과의 관계						

E5.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0번
- 2) 1번
- 3) 2번
- 4) 3번
- 5) 4번
- 6) 5번
- 7) 6번 이상

E6.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7.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8.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1	2	3	4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대마초를 피운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F.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항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F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쉐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쉐련형 전자담배
4. 기타()

F3. 여러분은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F4. 여러분은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참고로 소주 1병=맥주 5캔(355ml)=7잔, 맥주 1캔=1.5잔)

1. 1잔
2. 2잔
3. 3잔
4. 4잔
5. 5잔
6. 6잔
7. 7잔(소주 1병)
8. 8잔
9. 9잔
10. 10잔
11. 11잔(소주 1병반)
12. 2병
13. 2병반
14. 3병
15. 3병반

16. 4병

17. 5병 이상

F5.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아니오
	1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뎀-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타서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캣 발름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캅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F6.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F7-1.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클럽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7-2.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클럽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8. 여러분은 기분을 좋게하기 위해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얼마나 자주 흡입한 적이 있습니까?

기 간	전혀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1	2	3	4	5
(1) 평생 동안	○	○	○	○	○
(2) 지난 1년 사이	○	○	○	○	○
(3) 지난 한 달 사이	○	○	○	○	○

F9. 여러분은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있습니까?

기 간	전혀 없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1	2	3	4	5
(1) 평생 동안	○	○	○	○	○
(2) 지난 1년 사이	○	○	○	○	○
(3) 지난 한 달 사이	○	○	○	○	○

F10. 여러분은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1. 여러분은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G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5.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6. 여러분의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3.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4. 기숙사
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SQ7. 여러분 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8.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보육시설 등)

SQ9.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혹은 셋집입니까?

1. 부모님 소유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0. 여러분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1. 여러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2.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SQ13.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시: 학비, 급식비, 교복, 교재, 도시락, 생리대,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1개 선택]

1. 없다
2. 있다

SQ14. 최근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SQ15. 여러분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있다
- 2. 없다

SQ15-1.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

4) 사후 청소년 설문지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SCREENING

SCREENING

SQ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소 프로그램//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1_1.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1. 남성
2. 여성

SQ3. 여러분의 출생 연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년 = 만 -----세

[PROG: 만 14~18세만 조사 진행]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1. 만13세 이하 ->면접중단
2. 만14세
3. 만15세
4. 만16세
5. 만17세
6. 만18세
7. 만19세 이상 -> 면접중단

SQ4. 여러분의 학교급(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SQ4-1
2. 중학교->SQ4-1
3. 고등학교->SQ4-1
4. 학교를 다니지 않음->Q1
5. 직장인 ->면접중단
6. 기타() ->면접중단

SQ4-1.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1개 선택]

1. 초등학교 6학년
2. 중학교 1학년
3. 중학교 2학년
4. 중학교 3학년
5. 고등학교 1학년
6. 고등학교 2학년
7. 고등학교 3학년

마약류 폐해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식약처의 의뢰로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로, 마약류 물질의 폐해에 대한 한국인의 신념 및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크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전국 패널에 속하시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시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절 활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통계처리 되어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여러분의 응답은 보건당국의 마약류 폐해 대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 원칙)

-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02-3399-1669)

Q1.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하나요? [1개 선택]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PROG: 2번 선택 시 조사 종료, 조사 종료 시 아래 안내문구 제시 후 조사 종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미 할당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 조사가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ROG: Q1=2번 선택자만 제시 후 조사 종료]

본질문

A.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에 대한 인식

다음은 여러분이 향정신성 약물, 대마, 마약 등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마약류는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포함합니다.

A1.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2.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A3. 여러분은 만약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A4.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마약류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한 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만 들어보았다	종류별 특징은 모르지만 대부분(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물뽕, 엑스터시 등)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종류와 각 종류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A5.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의 중독성, 건강 유해성,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1)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예: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예: 향정신성 약물-프로포폴 등, 대마-대마초,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	①	②	③	④	⑤
(3) 임시마약류(식약처 지정)(예: 브로마졸람, 에타젠 등)	①	②	③	④	⑤

A6. 여러분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7. 여러분은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8. 여러분은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	대체로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9. 우리사회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마약김밥, 마약커피』등 상업적 용도로 마약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약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별로 친숙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친숙하게 한다	전적으로 친숙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A11. 마약류 및 약물에 중독되면 이미 대응이 늦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예방조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A12. 만약 여러분께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중독증상으로 고통받게 된다면, 마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보통	대체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A13.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마약류 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이를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별로 실천할 의향이 없다	보통	대체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A14.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제공하는 마약류 남용 예방 정보를 접했을 경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 마약류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지식

다음은 여러분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1.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사용에 대한 동기 및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약류 사용은 재미를 얻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약류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약류 사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약류 사용은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약류 사용은 사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약류 사용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마약류 사용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마약류 사용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마약류 사용은 신체에너지가 증가되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마약류 사용은 각성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약류 사용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약류 사용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마약류 사용은 이가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등 외모가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개인적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 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 나는 불안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3)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4) 마약류 사용은 환각, 환청,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마약류 사용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6) 마약류 사용은 일상적인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7) 내게 마약류 사용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찍힐까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두렵다.					
(8)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9)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0)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11) 마약류 예방 교육은 사회 문제(사고, 범죄, 해고 등)를 예방할 수 있다.					
(12)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13) 나는 친구가 마약류 사용을 권할 경우 거절할 수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겨도 향정신성의약품(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15) 파티나 모임에 가더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B3. 다음 질문은 약물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1)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①	②	③
(2) 마약을 자주 섭취하면 내성이 생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3)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청산가리보다 적은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①	②	③
(4) 마약 투약 시 사용한 주사기로 인해 간염에 걸릴 수 있다	①	②	③
(5)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①	②	③
(6) GHB(물뽕,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는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대마초(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약해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①	②	③
(8) 본드, 부탄가스, 데오드란트의 흡입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①	②	③
(9) 마약을 한 번 사용했을 경우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다.	①	②	③

C. 정신 건강 및 개인적 성향

다음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어떤 개인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C1. 여러분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C2. 여러분이 최근 1개월 동안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2	3	4	5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3)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4)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					
(5) 일상의 일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6)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7) 일상생활의 짜증을 얼마나 자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8)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C3.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1.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2.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3. 가끔 외로움을 느꼈다
4. 자주 외로움을 느꼈다
5.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겠습니다.

C4. 다음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성 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1) 내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2) 나는 나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낀다.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4)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5) 나는 조금 무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6) 나는 비록 불법이더라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드나드는 것을 즐긴다.				
(8)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9)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10)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11)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다				
(12)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13) 나는 내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14) 나는 냉담 혹은 무감각한 편이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16) 나는 깊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낀다				
(17) 나는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돌보고 싶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				
(19) 나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다				
(20)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21)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22) 나는 마약류를 사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C5. 여러분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주중			
주말(휴일포함)			

1.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유선방송, 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등)
10. 사회 활동(봉사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1. 기타()

C6.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별 1개 선택]

	여가 활동 동반자
주중	
주말(휴일포함)	

1. 가족
2. 친구(연인 포함)
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4. 혼자서
5. 직장동료
6. 기타()

C7. 지난 1년 동안(2022년 8월~2023년 7월) 여러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중과 주말(휴일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하루 평균 시간
주중	() 시간
주말(휴일포함)	() 시간

C8. 여러분은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D.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다음은 여러분이 가진 마약류 사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D1. 다음은 마약류 사용(향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의견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나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마약류 사용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마약류 중독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4) 마약류 사용자는 도덕성이 부족하다.					
(5)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문제 외에도 사생활이 문란할 것이다.					
(6) 마약류 사용자는 마약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 경력이 있을 것이다.					
(7) 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중독자 재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류 사용자들을 낙인찍고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마약류 중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공감하는 태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대마초가 개인적 기호품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마약류 검사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E. 사회적 지지

다음은 여러분께서 주변 분들과 맺고있는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E1.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상 황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등	선생님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숙제 제출과 같은 학교 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E2.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한다					반반이다					믿을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E3.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려 든다					반반이다					공정하게 대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E4. 여러분은 다음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관 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
	1	2	3	4	5	9
(1) 부모님과의 관계						
(2) 친구와의 관계						
(3) 동급생 등 주변사람과의 관계						
(4) 선생님과의 관계						

E5.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0번
- 2) 1번
- 3) 2번
- 4) 3번
- 5) 4번
- 6) 5번
- 7) 6번 이상

E6.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7.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강하게 비난 혹은 금지함	허용하지 않음	신경쓰지 않음	허용함	권장함	모름
	1	2	3	4	5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에 취한다.						
(3) 대마초를 사용한다.						
(4)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5)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E8.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1개 선택]

행 동	한 명도 없음	몇 명 있음	꽤 많음	거의 모두 다	모름
	1	2	3	4	9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술에 취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향정신성 약물(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다.					
(6)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한다.					

F. 약물경험

다음은 여러분이 술, 담배, 항정신성 약물, 대마초, 마약 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F1. 현재 담배를 피웁니까?

1. 매일 피운다(->F2)
2. 가끔 피운다(->F2)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F->3)
4.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F->3)

F2.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쉼련(일반 담배)
2. 액상형 전자담배(카트리지형 포함)
3. 쉼련형 전자담배
4. 기타()

F3. 여러분은 술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F5)
2. 한 달에 1번 미만(->F4)
3. 한 달에 1번 정도(->F4)
4. 한 달에 2-3번 정도(->F4)
5. 일주일에 1번 정도(->F4)
6. 일주일에 2-3번 정도(->F4)
7. 일주일에 4-5번 이상(->F4)

F4. 여러분은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맥주 1캔=355ml)

1. 소주 1잔(=맥주 1캔)
2. 소주 2잔
3. 소주 3잔(=맥주 2캔)
4. 소주 4잔(=맥주 3캔)
5. 소주 5잔
6. 소주 6잔(=맥주 4캔)
7. 소주 7잔(=소주 1병=맥주 5캔)
8. 소주 1병 반(=맥주 8캔)
9. 소주 2병(=맥주 10캔)
10. 소주 2병 반(=맥주 13캔)
11. 소주 3병(=맥주 15캔)
12. 소주 3병 반(=맥주 18캔)
13. 소주 4병(=맥주 20캔)
14. 소주 5병 이상

F5.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괄호 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당 물질의 성분, 상품명 및 속칭 사례입니다)

	네	아니오
	1	2
(1) 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 등)	○	○
(2) 처방전이 필요한 진정제(졸피뎴-스틸녹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	○
(3) LSD 및 기타 환각제	○	○
(4)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아이스, 작대기 등)	○	○
(5) 코카인(크랙 등)	○	○
(6) 마약성 진통제(펜타닐-좀비마약, 메타돈, 옥시코돈 등)	○	○
(7) 헤로인	○	○
(8) 엑스터시(도리도리 등)	○	○
(9) GHB(물뽕 등)	○	○
(10) 캐치논류 마약(까트, 악마의 숨결, 바닐라 스카이 등)	○	○
(11) 처방전이 필요한 공부 잘하는 약(페니드정, 콘서트사방정 등)	○	○
(12) 처방전이 필요한 살 빠지는 약(펜타민-나비약, 푸링정 등)	○	○
(13)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프로포폴, 우유주사 등)	○	○
(14) 케타민(K, 갯 발륨 등)	○	○
(15) 합성 대마(K2, 스파이스, 스컹크, 조커 등)	○	○
(16) 마약버섯	○	○

F6. 여러분은 다음의 물질들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1. 있다
2. 없다

F7-1.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7-2.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다음(와)과 같은 약물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살 빼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2)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3)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4)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① 있다	② 없다
(5)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① 있다	② 없다

F8. 여러분은 평생동안 기분을 좋게하기 위하여 본드, 휘발유, 페인트 시너, 부탄가스, 데오드란트 등을 몇 번이나 흡입하였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F9. 여러분은 평생동안 대마초(또는 해시시) 등을 흡입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1. 전혀없음
2. 1~2회
3. 3~5회
4. 6~9회
5. 10회 이상

F10. 여러분은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사 건	전혀 가능성 없음	가능성 없음	가능성 있음	매우 가능성 있음
	1	2	3	4
(1) 담배를 피운다.				
(2) 술을 마신다.				
(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다.				
(4) 대마초를 피운다.				
(5)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6) 마약을 이용한다.				

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지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1. 여러분은 마약류 중독자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독자 재활시설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관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 본적 있습니까?

[※ 응답자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이용문의는 1899-0893입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른다

G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1)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정보제공,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캠페인 및 관련 행사홍보 부스	① 예	② 아니오
(2)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의 홍보·기사	① 예	② 아니오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중독예방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4)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배경 문항(인구사회적 특성)

SQ5.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SQ6. 여러분의 현재 거주 형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친척집에서 살고 있다
3.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
4. 기숙사
5.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SQ7. 여러분 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 가족 수가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가구원 수를 의미합니다.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SQ8.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보육시설 등)

SQ9.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자가입니까 혹은 셋집입니까?

1. 부모님 소유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임대

SQ10. 여러분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1. 여러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1.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 졸업
5. (4년제)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이상

SQ12.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SQ13. 여러분은 최근 12개월 동안,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시: 학비, 급식비, 교복, 교재, 도시락, 생리대,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1개 선택]

1. 없다
2. 있다

SQ14. 최근 12개월 동안,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1개 선택]

1. 상

- 2. 중상
- 3. 중
- 4. 중하
- 5. 하

SQ15. 여러분께서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있다
- 2. 없다

SQ15-1. 여러분이 체류해보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리서치 회사에서 나라를 고를 수 있게 준비해주면 될 것 같음.